다음세대재단 Daum foundation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 길라잡이

올리볼리 교육 매뉴얼

올리볼리 그림동화: http://www.ollybolly.org
올리볼리 문화다양성 교육: http://edu.ollybolly.org

책임연구원: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공동연구원: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이미숙 (용인동백초등학교 교사)
김현아 (인천부마초등학교 교사)
보조연구원: 최시현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 석사)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 매뉴얼을 발간하며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다름에 대한 상호이해와 소통의 노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자료와 지표는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다름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올리볼리 그림동화는 부족한 콘텐츠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음세대재단에서 2009년 3월부터 시작한 문화다양성 사업입니다.

올리볼리 그림동화는 "다름은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아니라 창조와 창의의 원천"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제껏 만나기 어려웠던 나라들의 그림동화를 제공하기 위해 좌충우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3월 현재 필리핀,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란, 레바논 등 8개국 90여 편의 동화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티베트, 일본, 중국 등의 동화도 준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들의 그림동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올리볼리 그림동화가 단순한 문화다양성 콘텐츠를 넘어 문화다양성 교육현장에서 교육교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올리볼리 그림동화가 보다 체계적이고 재미있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쓰였으면 하는 욕심과 바람이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매뉴얼 연구를 지켜보면서 올리볼리 그림동화가 더 분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나라의 그림동화도 소개하고, 그림동화 제작도 더욱 정교화해서 양질의 문화다양성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록볼록하고 재미있는 세상을 어린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 매뉴얼은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디 문화다양성 교육현장에서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매뉴얼 연구와 집필을 해 주신 연구진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세대재단
Daum foundation

olly bolly

Contents

I 올리볼리 그림동화와 문화 다양성 교육

1. 연구의 목적 | 8
2. 문화 다양성 개념과 문화 다양성 교육의 목표 | 10
3. 매뉴얼의 구성과 활용법 | 13

II 올리볼리 그림동화 활용 교육의 실제

1. 베트남 | 18
2. 필리핀 | 57
3. 몽골 | 89
4. 태국 | 124
5. 우즈베키스탄 | 147
6. 이란 | 170
7. 팔레스타인 | 187
8. 티베트 | 201

III 올리볼리 그림동화 활용 교육을 위한 교안 샘플

1. 베트남 | 218
2. 필리핀 | 227
3. 몽골 | 235
4. 태국 | 243
5. 우즈베키스탄 | 247
6. 이란 | 255
7. 팔레스타인 | 260
8. 티베트 | 265

IV 2014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례집 | 281

V 2015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례집 |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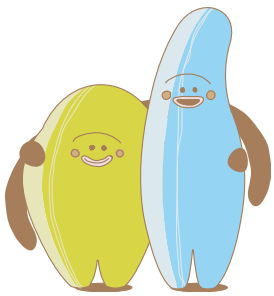
I 올리볼리 그림동화와 문화 다양성 교육

www.ollybolly.org

1. 연구의 목적

2. 문화 다양성 개념과 문화 다양성 교육의 목표

3. 매뉴얼의 구성과 활용법



1 연구의 목적

최근 한국 사회가 국제이주의 증가로 다민족화 되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관한 논의가 열풍처럼 번져가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법무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이주민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문화 교육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각 부처는 다문화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강사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 다양성이 추구하는 본래의 가치를 중심으로 볼 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다문화 교육'의 정확한 정의, 목표, 대상, 내용 등에 대한 고민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됨으로 인해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고양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특히 다문화 교육의 이름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아닌 한국 사회의 '선주민'이라 할 수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은 국경 밖의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이해교육'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문화 교육'과 '이주민 지원 교육' 혹은 '이주민 자녀 지원교육'이 혼동되면서, 대부분의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과 그 자녀의 한국 생활 적응 교육으로 왜곡되고 있으며, 교육의 실행 과정에서 이주민 자녀들을 일반 학생들과 구분지어 도드라져 보이게 만드는 역효과도 생겨나고 있다. 개인의 선택이나 정체성을 무시하고 '다문화 자녀'라는 새로운 범주를 강요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교육이 이처럼 혼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가운데에는 '문화교육'으로서 다문화 교육의 목표와 방법론에 따라 제작된 콘텐츠의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세대재단의 올리볼리 그림동화 보급은 바로 이와 같은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올리볼리 그림동화 보급의 목적은 자라나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들이 이제껏 한국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여러 나라들의 그림동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올리볼리 그림동화의 보급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8년도에 발표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08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내 아동 도서 가운데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26%에 달하는 가운데 대다수는 유럽(50.3%), 미국(28.4%), 일본(13.4%)에 편중되어 있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도서는 불과 2.2%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음을 말해줄 뿐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문화 다양성 교육을 위한 콘텐츠 확보의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올리볼리 그림동화 보급 사업이 시작된 2008년 이래 2014년 3월 현재까지 제작된 동화는 베트남 30편, 필리핀 23편, 몽골 17편, 우즈베키스탄 8편, 태국 10편, 인도네시아 2편, 레바논 2편, 이란 17편, 캄보디아 4편, 티베트 6편, 팔레스타인 6편, 르완다 2편 등 총 127편에 달한다. 이처럼 올리볼리 그림동화 보급은 그림동화를 통한 문화 다양성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 왔다.

'올리볼리 그림동화'는 가능한 한 많은 어린이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http://www.ollybolly.org), 다음 어린이 포털 '키즈짱'과 아이폰(iPhone) 및 안드로이드폰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노원어린이도서관, 제주–노형굼틀어린이도서관, 제주다문화교육센터, GMC, 다음스페이스, 부산–보물섬 작은도서관, 광주–아이숲도서관, 춘천–앞짱어린이도서관, 김해–주촌초등학교, 인천–달팽이미디어도서관, 대구–반야월 행복한 어

린이 도서관 아띠등에 '올리볼리관'을 설치해 도서관에 오는 어린이들이 쉽게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용자의 측면에서 볼 때, 이주민은 물론 한국의 선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해당 동화의 모국어, 한국어, 영어 등 3개 국어로 제작되고 있으며, 부가 콘텐츠로 동화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는 '이건 뭐예요?'와 동화에 나오는 주요 표현을 해당 국가의 모국어로 배우도록 하는 '따라해 봅시다.'를 제공하고 있다.

올리볼리 그림동화의 보급은 정부에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결혼이민자가 2008년 5월 기준으로 144,385명에 달하고,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2006년도에 25,000명, 2007년도에 44,000명, 2008년도에는 58,000명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엄마 나라'의 동화를 보급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자녀가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외국인 부모의 국적 분포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미국, 태국, 중앙아시아, 몽골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리볼리 그림동화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나라의 그림동화를 보급함으로써, 결혼이주 여성들은 물론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에 와 정착해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 또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모국의 동화를 통해 모국어와 모국의 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한국 사회의 선주민 어린이들도 문화적 편견이 크지 않은 어린 시절부터 여러 나라의 우수한 그림동화를 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나라들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될 수도 있다.

올리볼리 그림동화는 그 취지뿐 아니라 실제 내용과 그림, 제작 완성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문화 교육에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 사회기관, 정부기관, 학교 등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막상 교육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아 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올리볼리 그림동화 교육을 위한 매뉴얼은 이러한 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인류학, 이주민교육, 미디어교육, 문학교육 분야의 교수, 활동가, 교사 등의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매뉴얼은 다문화 교육을 실행하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이주민이나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을 포함한 가정환경과 다양한 학교 밖 교육 환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만들어졌다.

연구진들은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한 문화 다양성 교육 매뉴얼이 혼란스러운 한국의 다문화 교육 현실에 새로운 자극이 되고, 향후 제작될 그림동화의 제작 방향이나 작품 선택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매뉴얼 개발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각 나라의 동화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싣게 된 '원어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시고 다양한 자료와 생생한 경험을 통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신 이자스민, 아리옹, 카시모바도노, 칸파니치 파야, 하밍타잉, 메헤란, 마나르, 카락 빼빠 선생님, 이슬람 문화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 주신 강선주 교수님, 풍부하고 생생한 현장에서의 실천 경험을 통해 매뉴얼 초판(2012)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자문 의견을 주신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의 김정연 선생님과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의 석원정 대표님, 매뉴얼 개발 과정에서 샘플 교안을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해 더욱 내실 있는 매뉴얼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서울금동초등학교의 이지영 선생님과 수업에 참여해 준 어린이들,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다음세대재단의 방대욱 상임이사님과 이현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 문화 다양성 개념과 문화 다양성 교육의 목표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통한 문화 다양성 교육의 목표는 동화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이를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화'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인간 집단이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고 다른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오랜 기간 축적해온 생활양식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가 생겨난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고 문화적 특징을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때문에 각각의 문화는 나름의 가치가 있고,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수하거나 열등하다는 식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 흔히 특정 국가의 경제적 발전정도에 따라 그 나라의 문화가 우수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문화는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국가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의식은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다. 인류가 다양하게 발전시켜온 문화적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사고는 더욱 확장되고, 창의적인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때문에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사람과 문화의 이동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시대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문화 다양성 교육은 필수적이다. 문화 다양성 교육은 다른 문화를 소개하고 보여주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함께 가르쳐야 한다.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통해 문화 다양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다른 문화를 어떤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통한 문화 다양성 교육 시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 본다.

1) 자민족/자문화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 오랜 기간 동안 단일민족의 순수혈통주의를 강조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 동질성은 국가의 힘이고 단결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문화 간 교류가 급격히 확장되는 글로벌 시대에 이러한 단일민족주의는 자칫 폐쇄적인 자민족중심주의로 흐를 수 있다. 자문화 · 자민족 중심주의는 자신의 민족이나 문화를 중심으로 다른 민족을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자문화중심주의는 자신의 문화만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태도나, 자기 문화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나쁘게 평가하는 사고방식, 결과적으로 자기 문화에 대한 성찰 없이 자기문화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올리볼리 그림 동화를 통한 문화 다양성 교육 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나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기 보다는 다른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어떤 나라나 민족도 다른 문화와 교류하거나 접촉하지 않은 채 지속적인 생존을 이루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현재의 문화를 이룩해 왔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올리볼리 그림동화 교육은 이런 점에서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다양한 국가의 이주민들이 한국에 운반 해 온 문화나 지혜들을 소개하면서 한국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들어 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통해 자민족, 자문화중심주의를 벗어나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문화 오인에서 벗어나기: 문화 '오인'은 다른 문화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자기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흔히 텔레비전이나 대중매체에서 그려지는 특정 국가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보고 그 문화의 총체적 성격을 '안다'고 느낀다거나 겉모습만 보고 그 문화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문화는 의식주를 비롯하여 가족, 사회조직, 정치제도, 경제행위, 종교, 언어, 상징과 의례, 예술과 환경 등이 서로 관련을 맺음으로서 구성되는 총체적인 생활양식이기 때문에 섣불리 다른 나라의 문화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

험한 일이다. 특히 이슬람 사회처럼 종교가 의식주나 인간관계의 예의 등 모든 일상의 삶과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경우, 문화적 존중은 종교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다.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통한 문화 이해 교육에서 다루는 다섯 국가들은 각각 불교, 이슬람교, 가톨릭, 힌두교 등의 특징이 강한 나라들로서 이들의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기반이 되는 종교관이나 세계관 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나라나 지역의 문화를 비교하다보면 문화나 민족성이나 종교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마치 이런 차이가 본질적이고 고정적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동화에 나오는 특정한 모습을 강조하면서 '요점정리식'으로 그 나라의 문화나 종교를 이해시키다보면 그 문화에 대한 스테레오타입(stereotype/고정관념)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경우도 있다. 즉,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태도나 행위 등을 과도하게 단순화하고 우리의 일방적 시각으로 이것이 총체적인 모습인양 말하는 경우가 있다. 스테레오타입에서 편견이 시작된다. 편견은 다른 문화나 집단의 특징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한번 만들어진 스테레오타입의 내용은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스테레오타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문화에 대한 편견어린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편견은 차별적 행동을 하게하고, 차별이 심한 사회일수록 편견이 많다. 때문에 특정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지 않도록 맥락을 이해시키고 다양하고 다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3) 동시성의 강조: 무엇보다 동시대적 감각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흔히 '동화'는 과거나 이미 사라진 것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올리볼리 동화도 한국의 「흥부놀부」처럼 선악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과도하게 삶을 단순화시킨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동화를 아이들에게 읽힐 때 우리는 동화에서 재현되는 한국문화의 모습이 현대 한국문화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동화를 볼 때는 마치 이런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 나라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 문화를 한국의 옛날 모습 또는 1970년대 모습과 같다고 말하면서, 마치 다른 나라의 문화를 '낙후되거나' 발전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시공간적 거리두기'라고 부른다. 다른 나라 문화권의 사람을 자신과는 다른 시간, 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간주하면서 메울 수 없는 문명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을 무시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태도가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두 집단 사이의 평등한 교류를 방해함으로써 문화 간 상호 존중과 이해라는 인식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한다. 동화를 통해 문화 다양성 교육을 할 때는 동화에서 보이는 특정 문화가 어떻게 현대적인 삶에서 이어져오거나 변형되었는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능한 그 나라의 현대적 문화를 제시하면서 우리와 그들이 동시대적인 존재라는 점을 인식시킨다. 다른 나라 문화를 '동시대적인 감각'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비슷한 희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평등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히 문화적 특성 중 친근감을 주는 것이나 그 나라 문화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우리가 배우면 좋은 문화들을 소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 상호 공존의 가치 강조: 올리볼리 그림동화들 가운데에는 베트남,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의 경우와 같이 특정 '국가'의 동화들도 있지만, 티베트의 경우와 같이 국가의 지위를 갖지 않은 '민족'의 동화들도 있고, 팔레스타인처럼 최근 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해 일부 나라들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나라의 동화들도 있다. 또한 이란의 경우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이 이슬람교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어, 특히 이슬람교에 대해 잘 모르거나 편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리감이나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나라이다. 올리볼리 동화와 교육 매뉴얼이 이처럼 동화들을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민족'에 따라서도 살펴보도록 하는 이유는 동화 자체가 해당 지역 사람들의 삶과 깊이 관련된

문화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는 것 자체가 문화다양성 교육에 있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히 티베트나 팔레스타인과 같은 분쟁 지역의 동화들을 학교 수업에서 소개할 때 교사들은 해당 지역의 정치적 현실을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마치 특정 입장에 대해 편을 드는 것처럼 여겨져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티베트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에서 민감한 지역이며, 팔레스타인의 경우 이스라엘이나 미국과의 관계에서 민감한 지역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나 그 지역 출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상호공존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러한 지역에서도 나름대로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지닌 가치를 존중하는 인식과 태도를 어린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분쟁 지역에 대해 어느 입장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말고(사실 그래서는 안 된다!), 해당 지역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학생들은 해당 지역의 동화를 통해 접하게 된 그 지역의 문화와 정치적 상황에 대해 사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나 그 지역과 관계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문화와 입장을 존중하고 그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티베트의 경우 현재 중국의 일부(시짱 자치구)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일부가 인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하며, 중화민국(타이완)에서는 공식적인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기도 한다. 티베트의 주권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티베트 망명 정부는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가 된 시기와 티베트가 중국에 합병된 것이 국제법상 효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 한편, 팔레스타인의 경우 2012년 11월 UN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옵서버 국가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표결 결과는 193개 회원국 중 찬성 138표, 반대 9표, 기권 41표였는데, 이 결정에 대해 회의에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은 표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인 분쟁 지역인 티베트나 팔레스타인의 동화를 다룰 때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러한 지역의 동화들을 통해 어린이들이 몰랐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새롭게 알고, 다양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상호공존의 가치를 스스로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문화 다양성 교육은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진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편견과 차별의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문화 다양성 교육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간의 '차이'가 편견이나 차별로 변질되지 않도록 각 문화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교육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서로 다른 정체성에 대한 상호 존중을 목표로 한다. 개인은 국적의 차이뿐만 아니라 성, 인종, 종족, 성적지향성, 출신 지역, 계층 등의 '차이'가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평등한 다름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별'의 기제로 삼는 경우가 많다. 문화 다양성 교육에서 개인 간 문화 간의 '다름'은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존중되어야 할 다양성으로 본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면 더 창의적이고 성숙해진다. 문화 다양성 교육이 사회의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차별이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이 차별을 당하면 사회적 참여로부터 배제되어 결국 무력해지고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협약에서도 강조하듯, 문화 다양성 교육은 모든 집단의 동등한 사회 참여와 역동적인 공존을 목표로 한다. 올리볼리 그림 동화를 통한 문화 다양성 교육은 한국에 공존하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어린이들이 성숙하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배워야 할 공존의 가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3 매뉴얼의 구성과 활용법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한 문화 다양성 교육 매뉴얼은 모두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장에서는 올리볼리 그림동화의 활용 목적인 문화 다양성 교육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 개념, 문화 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 유의할 점, 한국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화된 계기가 된 다문화 사회와 이주민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과 관련된 주요 사실들을 다루었다.

제Ⅱ장은 올리볼리 그림동화 활용 교육의 실제로서,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이란, 팔레스타인, 티베트에 관해 해당 국가 출신의 원어민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동화별 교육 내용을 다루었다. 원어민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각 나라의 동화에 대한 교육 내용 앞에 배치한 것은, 해당 국가의 동화들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 해당 국가 출신의 원어민 선생님들이 직접 들려주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문화 다양성 교육의 취지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이란, 팔레스타인 등 이슬람 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슬람 세계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해 전문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별도로 수록하였다. 동화별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동화 제목: 우 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

- ◆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에게 권장합니다.
- ◆ 이 동화는요
- ◆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 알아봅시다.
- ◆ 체험해 봅시다.
- ◆ 참고 자료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동화별 교육 내용은 우선 '~이상에게 권장합니다.'라는 항목에서 해당 동화의 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중학년(3–4학년), 고학년(5–6학년)으로 구분하여 어느 학년 이상에게 권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이 구분은 동화 자체의 난이도보다는 동화를 통해 교육하려는 문화 다양성 학습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이 동화는요...'라는 항목은 동화 내용의 간략한 요약과 더불어 해당 동화를 통한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핵심 방향을 제시하는 동화 개관을 위해 설정하였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은 문화 다양성 교육의 목표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지니게 될 지식 · 기능 · 태도를 두루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알아봅시다.'는 해당 동화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 · 문화적 지식을 중심으로 한 이해 활동을 제시하였다. '체험해 봅시다.'는 해당 동화를 통해 알고 느낀 점을 체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동화에 나오는 주요 표현을 해당 국가의 언어로 따라해 보거나 주요 장면을 역할극으로 공연해 보는 등, 교실 안에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활동뿐 아니라, 관련 동화를 보고 추후에 어린이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교사의 지도 하에 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에서는 '알아봅시다.' 활동을 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책, 자료

집, 웹사이트 등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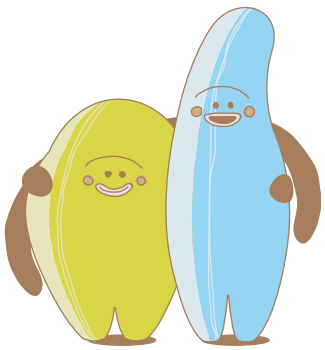
동화별 교육 내용은 매뉴얼 개발이 시작된 시점에서 올리볼리 그림동화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동화들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 직접 다루기에는 다소 잔인한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 작품이나 문화적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해석이 어려운 작품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Ⅲ장은 올리볼리 그림동화 활용 교육을 위한 교안 샘플을 제시하는 장으로, 제Ⅱ장에서 제시한 동화별 교육 내용 가운데 나라별로 동화 한 편씩을 선정해 실제 초등학교 교실에서 2차시(40분 수업 2회, 총 80분 분량)로 진행할 수 있는 수업 계획안의 샘플을 제시한 것이다. 교안 샘플은 동화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학습 목표
2) 주요 내용
3) 준비물
4) 수업의 흐름
5) 수업 진행 방법과 유의사항
6) 활동지
7) 참고 자료

'학습 목표'는 제Ⅱ장의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에서 제시한 학습 목표를 고려하되, 실제 2차시로 수업을 진행할 때 실행 가능한 목표 및 수업 실행을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목표를 중심으로 제시하되, 지식 · 기능 · 태도를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수업에서 다룰 동기유발 활동, 주요 학습 활동, 정리 활동 등을 제시하였다. '준비물'은 수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 활동지 등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수업의 흐름'은 '주요 내용'에서 제시된 수업의 내용을 1차시와 2차시로 나누어 시간 순서에 따라 표로 제시하여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수업 진행 방법과 유의사항'은 '주요 내용'과 '수업의 흐름'에서 제시한 활동들의 목적과 주안점, 진행 방법, 유의할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활동지'는 수업에 필요한 활동지를 제시한 것으로, 이 교안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려할 때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는 이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과 관련하여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제Ⅱ장의 '참고 자료'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나 교안 이용의 편리를 위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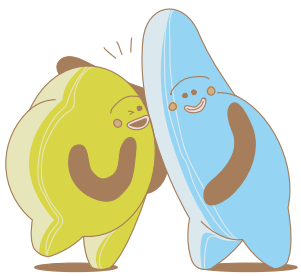
www.ollybolly.org



Ⅱ 올리볼리 그림동화 활용 교육의 실제

www.ollybolly.org

1. 베트남
2. 필리핀
3. 몽골
4. 태국
5. 우즈베키스탄
6. 이란
7. 팔레스타인
8. 티베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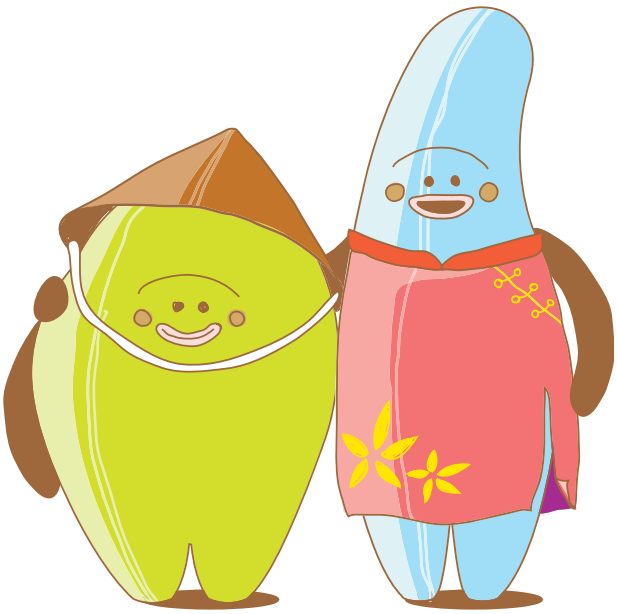


1 베트남

01 하밍타잉 선생님이 들려주는 베트남 이야기

02 동화별 교육 내용

1) 바잉 쯩과 바잉 자이는 어떻게 생겼나
2) 나무꾼과 선녀
3) 오행산 이야기
4) 금구덩이 은구덩이
5) 메기와 두꺼비 이야기
6) 파 사세요
7) 네 형제의 뛰어난 재주
8) 달에 사는 꾸오이 아저씨
9) 돌 개의 웃음
10) 벌을 받은 바위



01 하밍타잉 선생님이 들려주는 베트남 이야기

하밍타잉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한국학을 공부하고 베트남 국립 하노이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가르쳤습니다. 방현석 작가의 『랍스터를 먹는 시간』, 『존재의 형식』을 베트남어로 번역하며 한국문학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지금은 인하대학교에서 한국근대문학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은요

베트남이라는 말은 1804년 르웬왕조 때부터 부르기 시작한 이름인데요, 남쪽에 있는 '비엣족의 나라' 라는 뜻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남쪽이라는 의미예요. 1945년까지 '나잇남' 이라는 이름과 혼용되다가 1945년 호치민이 '베트남민주공화국' 을 선언하며 우리나라 이름으로 다시 정해졌어요. 후에 1975년 항미전쟁을 끝내면서 통일 베트남을 세우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이라는 지금 이름을 쓰게 됐어요.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가 미국과 벌였던 전쟁을 '베트남전쟁' 이라 하던데, 우리는 그런 명칭을 절대 쓰지 않아요. 우리는 미국과 치른 20년(1955~1975)간의 전쟁을 항미전쟁이라 하고, 그 전에 프랑스의 침략으로 벌어진 80년(1865~1945)간의 독립전쟁을 항불전쟁이라 해요.

베트남은 나라가 아주 길기 때문에 날씨도 지역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남북 길이가 1,700Km이니 정말 길죠. 북쪽에 있는 하노이는 4계절이 있어요. 겨울에는 영상 4~5도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그 온도도 아주 춥다고 느껴집니다. 집에서도 난방이라는 것이 없으니까요. 남쪽에 있는 호치민은 일 년 내내 더워요. 꽤 더울 때는 영상 40도까지 되기도 해요. 남쪽 사람들은 항상 햇볕을 받으니 얼굴빛도 조금 검은 편입니다. 베트남 사람의 90%가 킨족이고 저도 '킨족' 이죠. 53개 소수민족은 대개 산 속에 살고 있어요. 민족끼리 따로 모여살고 있어서 다른 문화와 잘 섞이지 않은 상태이고 문명도 아직 덜 받아들인 상태예요. 도시로 나오면 복장이나 느낌으로 소수민족 출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4개 민족을 모두 합쳐 '비엣족' 이라고 해요.

1945년에 민주공화국을 만들면서 정식 국기로 정한 '금성홍기' 의 빨간색은 혁명, 즉 베트남 사람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흘린 피를 말합니다. 노란색은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 힘을 상징하는 색이죠. 아마 예전에 중국영향을 받아 왕의 복장도 노란색이었는데 그것이 기원이 된 듯해요. 또 베트남이 황인종이라 그렇게 노란색을 썼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노란별의 다섯 꼭지는 '사농공상병' 에 해당하는 5개의 그룹이 단결하여 적을 물리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미소를 짓습니다. 한국 사람은 좀 엄격한 느낌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미소로 인사해요. 남성들은 주로 악수를 하고요, 여성은 한국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바라보고 웃는 얼굴로 인사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좋아하는 이웃과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

하고 집으로 놀러오라고 하지요. 특히 설에는 친척이 아니더라도 서로 방문해서 덕담을 나누는 문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하면 저도 꼭 그 댁을 방문해서 인사를 해야죠.

우리 음식과 옷차림은요

베트남 사람에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어요. 다만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익히지 않은 음식, 회 같은 것은 잘 안 먹죠. 개고기 요리도 아주 흔해요. 한국은 월드컵을 치르면서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알려지며 서양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베트남은 한국보다 개고기를 더 흔하게 먹는데도 그런 공격을 받은 적은 없어요. 우리는 개고기를 이용한 9가지 요리가 있어요. 저는 한국보다 베트남 개고기 요리가 더 맛있던데요. 아, 남쪽 지방에 살고 있는 부족 중에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에 칼을 쓰지 않는 풍습이 있어요. 새해 첫날을 살생을 하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맞이하자는 의미죠. 복 나간다고 비질이나 청소도 안 해요. 설날 먹는 떡인 바잉 쯩도 칼을 쓰지 않고 자릅니다. 바잉 쯩은 찹쌀 속에 녹두와 돼지고기를 넣고 라종잎으로 싸서 대나무 줄기를 가늘게 쪼갠 끈으로 묶어 찌거든요. 그래서 칼 보다는 그 대나무 끈으로 떡을 잘라 먹어요. 베트남에서 대나무는 아주 흔하고 활용을 많이 하는 나무예요. 마을마다 대나무가 있어서 마을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대나무를 활용해서 바구니를 비롯한 생활용품을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베트남 음식은 쌀국수와 월남쌈이죠. 제 생각엔 모든 베트남 음식에 활용하는 느억맘(액젓)이 가장 대표적인 베트남 음식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아침식사를 아주 간단하게 먹어요. 전날 남겨둔 음식을 먹거나 국수나 빵 같은 것을 사 먹기도 하고요.

베트남 여성들은 예전에는 '아오이엠'이라는 등판이 없는 윗옷과 '베이엠'이라는 검정치마를 일상복으로 입었어요. 예를 갖춰야 하는 경우에는 아오자이를 입었는데, 아오자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변형되었죠. 요즘은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월요일에 흰색 아오자이를 교복으로 입어요. 은행이나 우체국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여성 직원의 유니폼으로 입고요. 그런데 아오자이는 좀 불편한 옷이에요. 서 있을 때는 아주 예쁘지만 앉으려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남성 아오자이는 결혼식 같은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입는 옷이 됐어요. 또 베트남 여성들은 긴 생머리를 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여성에게 가장 아름다운 머리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도 그 머리를 아주 좋아해요. 아오자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머리거든요. 머리 염색은 거의 안하죠. 염색하는 여성은 좀 못된 사람이라는 인식도 있어요. 남성들은 자기 애인이나 아내가 머리를 염색하면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싫어해요.

주거와 일상생활

86년에 도이모이(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외국자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집과 직업을 배정하던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직장도 알아서 구하고 집도 알아서 구해야죠. 이미 제공받은 집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결혼할 때, 여성들은 특별히 혼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요. 결혼식은 남자가 친구들을 데리고 여자 집에 가서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식장에 가서 결혼해요. 혼인잔치는 양쪽 집에서 따로 합니다. 신혼집은 여유가 있으면 세를 따로 얻어 살기도 하고, 아니면 시부모님 집에 살기도 해요.

남성들도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저녁식사를 준비하거나 아이를 돌봐요. 혹시라도 친구들을 만날 약속이 있다면 저녁을 먹고 나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하죠.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동도 편리하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부자들이나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성인들은 거의 다 하나씩 갖고 있다고 봐야죠. 값이 싸지기도 했고 경제상황이 많이 좋아진 이유도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중에 교사, 의사가 인기죠. 남자들은 경찰, 군인 같은 장기적으로 보장이 되는 직업을 좋아해요. 정년퇴직 이후에도 연금이 나오니까요. 5년 전만 해도 사범대만 졸업하면 교사가 되었는데 요즘은 각자 준비해야 합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

베트남은 생활양식이 서서히 현대화 서구화되었기 때문에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감수성도 높은 편이죠. 베트남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보는 시각이 거의 없어요. 편안하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대하는 편입니다.

베트남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어요. 보통은 할아버지 대 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요즘 들어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서 제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뒤에도 제사를 금지하지 않았어요. 조상을 기리는 것은 베트남의 아주 중요한 문화입니다. 제사 때는 집 모형이나 돈(달러까지도) 모형을 태우는 문화가 있어요. 조상님들이 저세상에서 그 집과 돈으로 다복하게 지내시라는 의미지요.

베트남의 남과 여

베트남은 여성과 남성이 상당히 평등합니다.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어요. 맞벌이가 일반적이고요. 여성도 직장이 없으면 좋은 조건을 가진 남자와 결혼하기 힘들거든요. 직장에서는 여성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요. 무거운 것을 들지 않도록 돕거나, 아이가 있는 여성은 5시인 퇴근시간을 앞당겨 4시쯤 퇴근해도 될 정도로 세심하게 배려하죠. 아들이 제사를 모셔야 해서 아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요즘은 불임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가 생기면 아주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육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이고 나머지는 유상입니다. 교육비와 병원비가 무상은 아니지만 아주 쌉니다. 국립대는 한 달에 등록금이 한국 돈으로 2만 원 정도이고 사립은 그것의 2배 정도입니다. 사립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30명 중에 한두 명만 대학에 가니까, 어떤 대학이든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은 공부를 아주 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울방학은 없고 여름방학만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있어요. 모든 학교는 9월 5일에 새 학년을 시작합니다. 겨울에 영상 8도 이하로 내려가면 모든 초등학교가 휴교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는 7시에 시작해요. 11시 반에 점심시간을 2시간 가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낮잠도 잠깐 자요. 학교는 오전에만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오후에만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오후 학교는 1시 반부터 시작해요. 학교 수업시간은 4시간이고요, 요즘은 사설학원이 많이 생겨서 수학,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같은 것을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월요일 아침마다 국기 게양식을 해요.

요즘 아이들은 쉴 때 게임기를 가지고 놀거나 만화를 보고 장기도 꽤 두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줄넘기, 숨바꼭질 같은 것을 하고 놀았어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색깔과 숫자

베트남 사람은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화려한 색을 좋아해요. 숫자는 9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럭키7도 좋아합니다. 색은 검정색을 싫어하는데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위험을 경고하는 표시로는 빨간색과 검정색을 사용해요.

한국의 좋은 점, 힘든 점

한국은 대중교통이 편해서 정말 좋아요. 또 국민건강보험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좋고요. 베트남의 건강보험은 아주 복잡해서 사람들이 보험이 있어도 잘 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국에 와서 힘든 점이 있다면 지하철에서 아기를 안고 있어도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남편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외국인이라 양보를 안 해 주는 것 인지 아니면 워낙에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친구랑 우스개로 하는 말이 '1호선 사람들이 가장 나쁜 게 아닌가.' 얘기할 정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외국인이라 양보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 생활

유학생, 노동자, 결혼이주자 이렇게 세 그룹이 각자 다르게 지냅니다. 유학생은 집에 모여서 음식도 해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래요. 노동자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인과 결혼하신 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베트남 사람들끼리 만들어 돌려보는 신문은 없어요. KBS에서 운영하는 베트남어 방송은 있어요. 저도 그 방송 일에 관여하고 있어요.

02 동화별 교육 내용

1) 바잉 쯩과 바잉 자이는 어떻게 생겼나

이 동화는요

옛날 베트남의 홍왕이 나이가 들어 모두 22명의 아들 중에서 대를 이을 왕을 뽑기로 했습니다. 홍왕은 아들들에게 '덕 있고 재주 있는 아들'을 뽑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자들은 귀한 물건을 찾아 이곳저곳을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어떤 왕자는 사냥을 하고 어떤 왕자는 물고기를 잡고 진주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 중 리에우 왕자는 드넓고 기름진 고향 들판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리에우 왕자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잘 익은 벼가 들판을 뒤덮었습니다. 리에우 왕자는 벼를 베어 쌀을 추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쌀로 떡을 만드는 방법을 궁리하다가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선녀가 "하늘과 땅은 가장 넓고 크며, 쌀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며 떡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 줍니다. 리에우 왕자와 동네 사람들은 선녀의 말을 따라 떡을 만듭니다. 리에우 왕자는 떡에 들어가는 나뭇잎, 콩, 돼지고기를 장만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모든 왕자들이 자신이 구한 물건을 공개하는 날, 리에우 왕자는 하늘을 닮은 떡과 땅을 닮은 떡을 왕에게 바칩니다. 왕은 리에우 왕자의 떡을 가장 귀한 물건이라고 칭찬하였고 그 뒤로 베트남에는 설날에 이 두 가지 떡을 만드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동화를 보고 난 후 어린이들은 베트남의 설날 음식 '바잉 쯩'과 '바잉 자이'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베트남의 식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보고난 후 어린이들은

- 베트남의 설날 풍습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음식 '바잉 쯩'과 '바잉 자이'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 베트남의 식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늙고 쇠약해진 훙왕은 어떤 아들에게 왕위를 잇게 하겠다고 말했나요?
- 왕의 말을 들은 왕자들은 어디에서 귀한 물건을 찾으려 했나요?
- 리에우 왕자는 맛있는 음식과 진귀한 물건을 찾으러 어디로 갔나요?
- 바잉 쯩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 바잉 자이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 이웃 사람들은 왜 리에우 왕자가 귀한 떡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나요?
- 왕은 왜 리에우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했나요?
- 베트남 사람들은 바잉 쯩과 바잉 자이를 어떤 날에 먹나요?

알아봅시다.

– 2모작과 2기작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오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모작, 혹은 2기작의 농사가 가능합니다. 2모작이란, 벼농사를 지은 논에서 벼를 수확한 후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법을 말합니다. 반면 2기작이란 벼농사를 지은 논에서 다시 벼를 재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대부분의 경작지에서 벼를 수확한 후, 사탕수수, 땅콩, 수수 등 다른 작물들을 다시 재배하는 2모작이 이루어집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3모작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트남의 메콩 강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쌀 생산지이며, 농업은 베트남의 주요산업입니다.

– '계단식 논'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계단식 논'은 쌀농사를 짓는 아시아 산간지역에서 볼 수 있는 벼농사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논이 계단처럼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의 윈난 성, 베트남, 타이,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의 계단식 논이 특히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도 지리산 '피아골'을 비롯해 계단식 논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계단식 논은 필리핀 지역에 있는데 이 논은 약 2000년 전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1995년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 베트남의 쌀 음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쌀 생산국입니다. 따라서 쌀을 재료로 하는 요리가 다양하게 발달하였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떡 뿐만 아니라 쌀국수와 덮밥류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쌀을 기본으로 각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조리법이 어울려 각양각색의 쌀국수와 덮밥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월남쌈이라고 부르는 '고이 꾸언', 당근 · 새우 · 오이 등을 쌀로 만든 얇은 피(rice paper)에 싸서 만든 '뽀 삐어' 등도 모두 쌀을 이용해 만든 음식이고 쌀과자 역시 대중적인 음식입니다. 베트남 쌀은 한국의 쌀에 비해 찰기가 없어서 한국 사람들은 푸석푸석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트남의 식사는 한국처럼 모든 음식을 한 번에 차려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반찬이나 요리가 먼저 나오고 밥은 나중에 나옵니다. 또 베트남에서는 밥을 먹을 때에 나무로 된 젓가락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도 한국의 식사 문화와 다른 점입니다.

체험해 봅시다

– 지금, 이곳에서 내가 만약 왕자라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해보기
– 지금, 이곳에서 내가 만약 왕이라면 어떤 과제를 낼까 생각하기
– 바잉 쯩과 바잉 자이를 먹어 봅시다.
– '쌀'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의 식생활을 알아보고 상차림을 하여 봅시다.
  : 수저의 사용, 밥과 반찬, 쌀의 가공식품(쌀국수, 떡) 등등
– '쌀'을 이용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에 자연과 관련된 의미를 붙여 봅시다.

참고자료

– 바잉 쯩과 바잉 자이를 만드는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danking/16981(개인 블로그)
– 중국 윈난 성을 비롯해 계단식 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goo.gl/9wZHJH
  http://www.starykj.com/645

2) 나무꾼과 선녀

이 동화는요

어느 날 나무꾼 총각이 나무를 하러 숲 속에 들어가 길을 잃었다가 우연히 신비로운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선녀 셋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선녀의 옷 한 벌을 숨깁니다. 해가 져 돌아가려던 선녀 중 한 명은 옷을 찾지 못해 돌아가지 못합니다. 나무꾼은 길을 가르쳐 주는 척 하면서 선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부인으로 삼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무꾼과 선녀는 아들을 낳고 살게 됩니다. 어느 날 멀리 다녀올 일이 생긴 남편은 '볏짚을 담은 항아리를 절대 열어 보지 마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납니다. 선녀는 남편의 말을 잊고 항아리를 열었다가 날개옷을 발견합니다. 선녀는 아들의 옷에 빗 하나를 달아 주고, 눈물을 흘리며 하늘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아들과 함께 숲으로 가 선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며칠 후 나무꾼과 아들을 안타깝게 여긴 할머니 선녀의 도움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 옥황상제의 눈을 피해 서로 만납니다. 선녀는 나무꾼과 아들에게 북 하나와 밥 한 그릇을 주며, 땅에 완전히 닿으면 북을 울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무꾼과 아들이 땅에 닿기 전에 까마귀가 날아와 북을 울리는 바람에, 바다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후 모든 일을 알게 된 옥황상제는 이들을 하늘나라에서 살게 합니다. 나무꾼은 하늘나라의 물소 떼를 돌보는 일을 하며 일 년에 한 번 선녀와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날이 바로 칠석날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은 칠월 칠석에 얽힌 베트남의 전설을 우리나라의 전설과 비교해 볼 수 있고, 칠월 칠석과 관련된 다양한 풍습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칠월 칠석에 얽힌 베트남의 전설을 알 수 있습니다.
- 칠월 칠석과 관련된 다양한 세시 풍습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베트남의 칠월 칠석에 얽힌 이야기와 '견우직녀' 이야기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선녀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본 나무꾼은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 남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아내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 아내는 어떻게 날개옷을 발견하게 되었나요?
- 날개옷을 발견한 아내는 어떻게 하였나요?
- 아내가 하늘로 날아간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어떻게 하였나요?
-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었나요?
- 땅에 닿기 전에 줄을 잘라버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남편과 아내가 헤어져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알아봅시다.

– '칠월 칠석'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칠월 칠석에 대한 이야기는 중국의 『제해기(齊諧記)』에 나옵니다. 한반도에도 고구려 고분 벽화 가운데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에 있는 덕흥리 고분 벽화에 견우와 직녀 설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기록에는 고려 공민왕이 몽고의 왕후와 더불어 칠석날 궁궐에서 견우성과 직녀성에 제사하고 백관들에게 녹을 주었다고 합니다. 조선조에 와서는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고 성균관 유생들에게 절일제(節日製)의 과거를 실시한 기록도 있습니다. 궁중 밖의 민간에서도 칠석의 풍속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모습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의 문헌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칠석날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풍속이 행해졌습니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옛날 서당에서는 학동들에게 견우직녀를 시제(詩題)로 시를 짓거나 옷과 책을 햇볕에 말리는 폭의(曝衣)와 폭서(曝書)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 장마철에 장롱 속의 옷가지와 책장의 책에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끼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인들이 직녀성에 바느질 솜씨를 비는 걸교(乞巧) 풍속이 있었는데, 걸교는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풍속입니다. 칠석날 새벽에 부녀자들이 참외, 오이 등의 과일을 상에 올려놓고 절을 하며 바느질 솜씨가 늘기를 빕니다. 저녁에 상 위로 거미줄이 쳐 있으면 하늘에 있는 직녀가 소원을 들어준 것이라 여기고 기뻐하였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그 위에 재를 담은 쟁반을 올려놓은 뒤, 별에게 바느질 솜씨가 좋게 해달라고 빌고 다음날 아침 재 위에 흔적이 있으면 영험이 있어 바느질을 잘하게 된다고 믿었다고도 합니다.

별과 조상과 자연과 부처에게 소원을 비는 풍속도 지역과 가정에 따라서 행해졌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칠석제, 용왕제, 밭제 같은 제사를 지내고 사당에 천신(薦新)하며 밀국수, 밀전병, 호박도래전 등 시절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칠석음식으로 밀전병을 만들어 먹고 칠석놀이라 하여 술과 안주를 갖추어 가무로 밤이 깊도록 놀기도 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칠월 칠석'에 대한 세시풍속을 알아봅시다.

Tip!

전북 고창과 태인, 경북 봉화 · 예천 · 안동에서는 외와 수박을 차려놓고 조상에 제사를 지냅니다. 전북 익산과 군산에서는 칠석날 시암제(샘제)를 지냈습니다. 마을에서 우물을 깨끗이 치우고 정결하게 한 다음 각 가정마다 시루떡을 쪄서 우물 옆에 두었습니다. 청년들은 솔불놀이라 하여 달집짓기와 비슷하게 이웃마을과 놀이를 벌여 즐깁니다. 진 마을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며, 이긴 편 마을을 함부로 방문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진안에서는 농현이라 하여 김매기를 끝내고 하루를 쉽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부인들이 밤에 까마귀밥이라 하여 담 위에 올려놓고 자손의 명(命)과 복(福)을 빌고 집안일이 잘 되기를 빌기도 했습니다. 상주에서는 칠성단에 참기름으로 불을 켜서 자손들의 수명장수를 빌었습니다. 영일에서는 이날 바닷물을 약물이라며 멱을 감습니다.
강원도 양양에서는 으레 비가 오는 날로 되어 있어서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살펴 농사를 점쳤습니다.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그해 곡물에 해가 되고, 비가 내리면 견우직녀가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알고 농사에 좋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한편 칠석에는 아침에 일찍 논에 나가지 않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날 신이 들에 내려와서 들마다 곡식의 생산량을 정해 주기 때문에 논밭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근신하는 것이라 합니다.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신이 수확량을 감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 전북 전주, 광주광역시 등 지역에 따라 칠석날은 '곡식을 마련하는 날'이라고 하여 남자들은 들에 나가도 되지만, 여자들은 일찍 나가지 않고 오후가 되어서야 들에 나갑니다. 경북 고령에서는 목동들이 잡귀를 막는다고 복숭아 회초리로 소의 꼬리를 치며 몰고 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다양한 칠월 칠석의 세시 풍속이 있었는데, 이런 풍속은 모두 농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농사가 사람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마다 다양했던 칠월 칠석의 문화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비록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칠월 칠석의 다양한 문화들은 서로 모여 교류하거나 자연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는 점에서 현대인에게도 소중한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 베트남의 전통적인 농경문화에서 물소의 역할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소는 매우 중요한 동물입니다. 베트남에서 물소는 오래전부터 가축화되었고, 농경용과 사역용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골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물소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꼬마 아이가 큰 물소 등에 타고 해맑게 웃는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대개 논갈이를 하는 물소는 황소보다 힘이 셉니다. 물소는 부지런해서 논농사를 하는 데에 더 없이 좋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농가에서는 물소를 집안 일꾼으로 여깁니다. 베트남에는 소띠 대신 물소띠가 있는 것을 보더라도 베트남 사람들이 물소를 얼마나 친근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물소와 관련된 축제들이 많이 열립니다. 그 축제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선 물소 싸움 축제(하이퐁성)

하이퐁의 도선에서 매년 음력 8월 9일에 열리는 축제로, 제례의식을 시작으로 6마리의 소와 12명의 장정이 든 큰 가마의 행진이 있습니다. 이 6마리의 소는 깨끗이 씻겨진 상태로 등에는 붉은 천이 덮여 있고, 뿔은 분홍 명주 천으로 묶여 있습니다.

소들의 행진 후에는 24명의 청년이 2패로 나뉘어 깃발 춤을 추는데, 이는 마치 두 군대가 전투를 벌이는 모습 같습니다. 이후 소 떼가 두 편으로 나뉘어 깃대 아래 있다가 명령에 따라 양측의 소 한 마리씩 나와 서로 간격을 20m 가량 유지합니다. 다시 명령이 떨어지면 소를 끌던 사람이 갑자기 고삐를 놓아버리고, 소들은 서로에게 달려들어 뒤엉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도선 물소 싸움 축제는 이 지역 물의 신(水神)을 기리는 풍속과 관련된 행사로서, 하이퐁 도선 지역 사람들의 무예 숭상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승을 하게 되면 상금 2000만동(한화 약 114만 원)과 물소 두 마리가 싸움을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금 트로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는 경기장 밖에서 팔리는데 경기에서 진 물소 고기는 1kg에 40만동(한화 약 2만 3000원), 챔피언의 고기는 70만동(한화 약 3만 9500원)입니다.

물소 찌르기 축제

물소 찌르기 축제는 베트남 따이응엔 지역 소수 민족의 전통적인 축제입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승리와 수확을 축하하는데 다른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도 이 물소 찌르기 축제를 개최합니다.

락따인에 짬족의 물소자르기 축제

물소 자르기 축제는 일반적으로 따이응엔 지역의 소수 민족 문화전통입니다. 짬락따인의 인민에게 특별한 문화와 독특한 전통을 표현합니다.

음력 4월부터는 보룸반 신과 다른 신들에게 바치는 축제로 7년에 한 번 물소뿔 자르기 축제를 개최합니다.

므엉로에 타이족의 물소 혼 바치기 축제

음력 7월 므엉로 타이족은 물소 혼 바치기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지역 소수 민족의 독특한 문화풍습이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타이 민족 대대로 유지 되어 오고 있습니다.

타이족의 중요한 의식이며, 음력 7월 14일 오전에 개최하고 다음 수확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소는 타이족의 상징이며, 타이족의 생활에 있어 물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밖의 관광지에서도 물소를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하노이 Bat Trang 도자기 마을 관광투어에서는 물소가 이끄는 물소차를 타고 일몰을 보면서 평화로운 마을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http://blog.naver.com/koviculture/40070428577

– 베트남의 대나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베트남에서 대나무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베트남에는 두 가지 종류의 대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대나무와 비슷하지만 다른 하나는 지름이 큰 대나무입니다. 이것을 Cay tre라고 불립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대나무에 대해 특별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곧게 뻗은 대나무의 기상, 한 자리에서 묵묵히 자라나는 과묵함, 좁은 자리에서도 다른 나무들과 어울려 자라나는 조화, 혼자서 넓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겸허'라고 합니다.(참고: http://blog.daum.net/samariagyojung/16887400) 베트남 사람들의 생활 곳곳에서 대나무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대나무로 만든 실로폰과 같은 악기 '단 트롱(Dan Trong)', 둥근 바구니 모양의 대나무배 '퉁보이(Thun boi)' 긴 대나무로 리듬을 치며 추는 전통춤 '무어삽(Mua sap)'을 비롯해 베트남의 생활과 문화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체험해 봅시다.

- 우리나라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및 〈견우직녀 이야기〉와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빅북(Big Book)을 만들어 봅시다.
- '미인(美人)'의 의미에 대해 마인드맵을 그려보고, 미인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나무꾼 총각이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 숨긴 것, 선녀의 날개옷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에 대해 토의하여 봅시다.
- 선녀가 남편과 아들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 이유에 대해 생각하고 이것을 일기 형식으로 적어 봅시다.

참고자료

- 문화마다 다양한 항아리의 모습 (옹기 vs 짚), 2010 울산 옹기문화엑스포
- 김기태 역(1991), 『쩌우 까우 이야기』, 창비
- 베트남의 우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hochiminhking/1060016
- 베트남 대나무 박물관 '바오 땅재(Bao Tan Tre)'
  http://blog.daum.net/bauhaus07/13701707
- 베트남 대나무의 속이 꽉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natural_pebble/14
- 베트남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최근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samariagyojung/16887400
- 베트남 여러 지역의 물소 축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koviculture/40070428577

3) 오행산 이야기

이 동화는요

조용한 바닷가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치던 어느 날, 바다 속에서 용이 모래 위로 올라와 커다랗고 빛나는 알을 낳은 뒤 사라집니다. 이어 바다에서 황금 거북이가 나오더니 모래 속에 알을 묻고, 노인에게 발톱 하나를 주며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발톱을 귀에 넣어라.'는 말을 남기고 갑니다. 노인은 밤낮으로 알을 잘 보살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나운 병사들이 이끄는 수레가 알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고 노인은 황금거북이 준 발톱을 귀에 넣고 알을 무사히 지켜냅니다. 알은 점점 자라났고 노인은 모래를 퍼올려 알을 묻어 주며 돌보았습니다. 드디어 알 속에서 사랑스러운 여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아기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어, 아이는 곧 아름다운 아가씨가 됩니다. 노인은 이 아가씨에게 여러 가지 일을 가르칩니다. 도둑떼가 나타나 위협하지만 노인과 아가씨는 황금 거북의 발톱으로 도둑을 물리치고, 열병이 돌자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이들의 소문을 들은 왕은 아가씨를 왕자와 결혼시키고, 노인은 거북을 따라 바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베트남 광남지역의 가장 아름다운 산인 '오행산'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베트남의 지리적 특징과 '오행산'에 대해 알 수 있고, 다른 산에 얽힌 전설들에 대해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베트남의 지리적 특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베트남의 '오행산'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주변의 산에 얽힌 이야기들을 조사하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할아버지는 어떻게 용의 알을 만나게 되었나요?
- 할아버지는 사나운 병사들이 물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나타나자 어떻게 했나요?
- 할아버지가 거북의 발톱을 귀에 넣자 무슨 소리가 들렸나요?
- 점점 커진 알이 구름까지 솟아올라 할아버지의 집을 함께 들어 올리자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 할아버지가 거북의 발톱을 귀에 대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 할아버지는 아가씨에게 무엇을 가르쳤나요?
- 나라에 열병이 돌자 아가씨는 열병을 고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나요?
- 왕은 선녀처럼 예쁜 아가씨가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무엇을 보냈나요?
- 황금 거북이 다시 나타나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 할아버지는 어디로 갔나요?

알아봅시다.

– 베트남의 오행산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오행산(Nui Son Tra)은 베트남의 중부 해안 도시 다낭(Da Nang) 근해에 있는 거대한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입니다. 여기서 오행은 '火, 水, 木, 金, 土'를 의미하는 다섯 개의 봉우리를 가리킵니다. 바위로 만들어진 이 산에는 불상과 절들이 많이 있는데, 베트남 역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 산을 찾아 평화와 안녕을 빌었다고 합니다. 근처에는 100여 개의 호수가 있어서 풍경 역시 매우 아름답습니다.

– 베트남의 전래동화에 나오는 거북신 '낌뀌'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베트남의 야사(野史)에는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것으로 전해지는 전설의 거북이가 하노이 시내 호수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거북이는 '호안끼엠(Hoan Kiem · 還劍)거북이'로 알려졌는데, '상하이자라'(학명 Rafetus Swinhoei)라고 합니다. 1967년 6월 2일 하노이 시내 호안끼엠 북쪽에 있는 응옥선(Ngoc Son · 玉山) 절에서 무게가 200kg이나 되고 길이는 1.9m인 상하이자라가 죽은 채 발견되어 현재 박제되어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1998년 3월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호수에서 헤엄치는 거북이 모습을 비디

오로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전문가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조사팀은 불법 포획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북이가 발견된 호수 이름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호안끼엠 거북이는 베트남 전설 속에서 두 번이나 나라를 구한 영웅적인 존재로 유명합니다. 그 전설의 첫번째는 BC 3세기경 안 즈엉 브엉(An Duong Vuong · BC 257~207년)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브엉왕은 '낌뀌'(金龜 · 금거북이)라 불리던 거북신의 도움을 받아 수도이던 '꼬 로아'(Co Loa)에 난공불락의 나선형 성곽을 축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왕이던 찌어우 다(Trieu Da)가 꼬 로아를 침공해 오자, 거북신은 이번엔 브엉 왕에게 한꺼번에 수 천 개의 화살을 쏠 수 있는 '마법의 활'을 만들어 줘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도취한 브엉왕은 자만심에 빠져 그의 딸인 미 쩌우(My Chau) 공주를 찌어우 다왕의 아들인 쫑 투위(Trong Thuy) 왕자에게 시집보내는 실책을 저지르고 맙니다. 미 쩌우와 투위 왕자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지만, 투위 왕자는 미 쩌우를 이용해 가짜 활을 만들어 진짜와 바꿔치기 한 뒤, 진짜 마법의 활을 자기 나라로 가져갑니다. 이후 마법의 활을 이용해 다시 침공한 찌어우 다에게 브엉왕은 완패했고, 자기 딸과 함께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쩌우는 사랑하는 쫑 투위의 계략에 따라, 브엉왕이 도망가는 길에 비둘기 털을 남겨 찌어우 다 왕이 추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쫓기던 브엉왕과 미쩌우는 강가에 이르러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졌고, 이때 거북신이 나타나 깃털 흔적을 모두 지운 뒤, 브엉왕에게 "딸을 죽이라"고 했고, 브엉왕은 딸을 죽인 뒤 강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미 쩌우가 죽은 사실을 알게 된 쫑 투위도 이후 우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노이에서 25㎞ 떨어진 동 아잉(Dong Ahn) 지역에는 실제로 꼬 로아 성곽과 쫑 투위 우물터가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전설에는 호안끼엠 거북이의 직접적인 유래가 담겨 있습니다. 1418년 당시 농부이던 레 러이(나중에 레 왕조를 창업한 레 타이 또 왕)는 탕 화(Thanh Hoa)성 람 선(Lam Son)지역에서 당시 베트남을 지배하던 명(明)나라에 대항한 반군을 조직, 10년 동안 싸운 끝에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레 러이는 레 탄(Le Than)이란, 어부가 하노이 호수에서 그물로 건져 올린 칼을 항상 차고 명나라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이후 레왕조를 창업한 레 러이는 어느 날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었는데, 이때 커다란 거북이가 수면 위로 떠올라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차고 있던 칼을 빼내 거북이에게 겨눴지만, 거북이는 이빨로 칼을 빼앗아 물고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란 왕은 그때서야, "명나라와 싸우는 동안 거북이가 적을 물리치도록 그에게 칼을 줬고, 평화가 찾아오자, 칼을 다시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호수 이름을 '검을 돌려준다'는 뜻의 호안끼엠(還劍)으로 정하고, 호수 한복판에 '텁 르아'(Thap Rua · 거북탑)를 세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참고: http://unzengan.com/1278)

체험해 봅시다.

- 할아버지가 아가씨에게 가르친 것(부엌일, 베짜기, 농사, 활쏘기)이 왜 중요한 일인지 토의해 보기
-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거북이'를 각각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친구들의 작품을 모두 모아 하나의 병풍 모양으로 연결하여 봅시다.
- 세계의 여러 바위 사진을 감상하고, 그것에 얽힌 이야기를 찾아 발표하거나 상상해보기

참고자료

- 클레어 엘리스 저, 김양희 역(2005), 『베트남』, 휘슬러
- 세계의 다양한 바위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infodot.tistory.com/m/45
- 베트남 오행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http://unzengan.com/1278
- 베트남 하롱베이를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rhkr5711?Redirect=Log&logNo=40174201253(개인 블로그)

4) 금구덩이 은구덩이

이 동화는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형은 동생에게 재산을 나누자며 수컷은 모두 동생에게 주고 암컷과 새끼는 자신이 가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누고 나니, 동생에게는 녹슨 톱 한 자루만 돌아갑니다. 동생은 녹슨 톱으로 땔감을 모아 팔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느 날 숲 속에서 모여 놀던 원숭이들은 나무 아래 잠이 든 동생이 죽은 줄 알고 금구덩이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동생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형은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동생이 한 것처럼 나무 밑에 죽은 척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형은 원숭이들이 자신을 금구덩이로 옮길지 은구덩이 옮길지 옥신각신하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금구덩이로 옮겨 달라.'고 말합니다. 원숭이들은 깜짝 놀라 형을 내던지고 달아났습니다. 형은 온 몸에 상처를 입었고, 그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어린이들은 이 동화를 읽고 난 후, 우애라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와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우애'라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와 비교하며 문화적 차이를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 형제들은 서로 도우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 그림 이야기 속에 나오는 베트남 시장의 모습을 통해 우리와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베트남의 일상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은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었나요?
- 동생은 어떻게 금구덩이로 가게 되었나요?
- 형은 왜 동생처럼 부자가 되지 못하였나요?

알아봅시다.

– 베트남에서 사는 원숭이 '두크'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두크라는 원숭이는 베트남과 라오스 지역의 열대 우림에 서식합니다. 약 20년간 이어진 베트남 전쟁 동안 엄청난 피해를 입어 멸종위기에 처할 만큼 개체수가 줄었습니다. 미군이 뿌린 고엽제의 영향으로 번식률이 낮아지고, 수없이 쏟아진 폭탄으로 인해 숲이 불타면서 많은 원숭이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두크 원숭이는 주로 4~15마리씩 무리지어 생활하고 수컷 한 마리가 무리를 이끕니다. 요즘은 숲이 점점 개발되면서 서식지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참고: http://kr.blog.yahoo.com/fanddegi/452066)

– '바나나 나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바나나는 어린이를 비롯해 남녀노소가 즐기는 간식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의 나무는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나요?

바나나는 열대 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이지만, 현재는 인도, 브라질, 필리핀, 에콰도르 등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바나나 나무는 약 3~10m 정도로 아주 키가 큽니다. 바나나는 개발도상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주된 작물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열대 지역 국가에서 바나나는 튀기거나 끓이기, 혹은 굽는 방법으로 요리를 합니다.
또 바나나는 식용뿐 아니라 고품질의 직물을 위한 섬유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13세기부터 전통 의복 제작에 바나나 나무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또 바나나 섬유는 바나나 종이를 만드는 데에 쓰이기도 합니다. 주로 예술 목적 등을 위해 바나나 나무껍질로 종이를 만들거나 줄기 등을 가공해서 바나나 섬유로 종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체험해 봅시다.

- 다양한 원숭이의 모습을 그리거나 사진을 오려 붙이고, 말주머니를 써 넣어서 이야기 속 한 장면을 만들어 봅시다.
- '금구덩이 은구덩이' 의 내용을 지역 신문의 기사로 작성하고 알맞은 그림을 그려 넣어 신문 기사로 완성해 봅시다.
-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를 잃어 가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기사를 수집하여 친구들과 함께 읽은 후,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 그림 이야기 속에 나오는 베트남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베트남 시장에는 있고 우리나라의 시장에는 없는 것을 만들어 봅시다.
- 만든 것들을 모둠별로 모아서 베트남 시장의 모습을 함께 완성해 봅시다.

참고자료

- 두크 원숭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ttp://naver.me/GX8y4vYW
- 베트남 시장의 유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http://goo.gl/AFGUh
- 베트남 시장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jg8600?Redirect=Log&logNo=100173771071
- 소수민족 '몽족' 의 시장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chakyungsun/16508694

5) 메기와 두꺼비 이야기

이 동화는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던 두꺼비 부부는 자식을 낳고 기뻐합니다. 역시 자식이 없던 메기 부부는 두꺼비 부부의 자식인 올챙이들을 두꺼비 부부에게 말도 없이 집으로 데리고 와 키웁니다. 두꺼비 부부는 올챙이들이 모두 없어진 것을 알고, 수소문하다가 메기 부부네 집에서 들려오는 아기들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을 사또를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청개구리 노인은 올챙이들에게 다리가 나올 때를 기다려 올챙이들이 개구리의 자식임을 증명합니다. 결국 두꺼비는 자신의 자식들을 되찾고 메기 부부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은 남의 소중한 것을 탐내거나 빼앗으려고 할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와주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탐내거나 빼앗으려는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메기 부부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었나요?
- 다른 동물들은 왜 두꺼비 부부를 돕지 않았나요?
- 청개구리 할아버지가 두꺼비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메기 부부가 진흙 속에서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알아봅시다.

– 구억(guoc)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구억'은 베트남 사람들이 신는 신발로, 나무를 깎아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등나무 껍질로 만든 끈이 달려 있고 발가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발 앞쪽이 뾰족하게 말려 올라가 있습니다. 흔히 아무런 색칠을 하지 않고 나무 무늬를 그대로 살린 것을 '구억목(guoc moc)'이라고 하고, 겉 표면에 꽃무늬를 새기거나 다양하고 화려한 색칠을 하여 광을 낸 신발을 '구억성(guoc son)'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발은 베트남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무더운 열대 기후에서 논에 발을 담그며 농사를 짓거나 배 위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베트남인들에게는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이 더 편하기도 합니다. 기록에는 10세기 말 레다이한 왕도 맨발로 다니는 것을 좋아하여 백성들도 왕을 따라 모두 맨발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귀족들은 주로 가죽신을 신었지만 왕을 알현할 때에는 반드시 신을 벗고 입궁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구억만큼은 수천 년 전부터 베트남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신발입니다. 한동안 각종 슬리퍼와 현대식 신발에 밀려 자취를 감추었던 구억은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발을 보호해준다는 기능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취향과 개성에 맞춘 다양한 무늬와 화려한 디자인을 결합시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참고: http://www.chaovietnam.co.kr/)

– 베트남의 유치원 (Trường mầm non)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열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가정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교육비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특히 기초교육과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덕분에 유치원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2세까지의 아이들이 다니는 나째(Nha tre), 3세에서 6세까지의 아이들이 다니는 '머우야오(mau giao) 또는 쯩멈농(Truong mam non– 새싹학교) 등과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아를 위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 현재 호치민 시에는 약 600여 개의 공립 유치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립 고급유치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유치원의 수 역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높은 교육열과 베트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참고: http://www.chaovietnam.co.kr/)

– 베트남에서 잘 볼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베트남은 열대 우림 기후이므로 동식물의 생태가 한국과는 사뭇 다릅니다. 특히 도마뱀, 뱀, 지네, 두꺼비 등 한국 사람들이 흔히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을 베트남에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도마뱀은 베트남 가정집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데,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을 잡아먹는 고마운 동물입니다. 성격도 온순해서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뱀도 베트남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데, 특히 목 부위가 붉은 뱀은 신성시된다고 합니다. 개구리와 이구아나 등의 파충류 역시 많이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이 외에도 큰 지네나 풍뎅이 등 곤충들 역시 자주 만날 수 있는 동물이고, 왕풍뎅이의 경우에는 꼬리 부분을 튀겨서 간식으로 먹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곤충이나 파충류를 음식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이것은 베트남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연 환경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터득한 삶의 방식이자 존중받아야만 하는 고유한 문화입니다. 간혹 어린이들 중에는 이런 동물을 보고 베트남이 더럽다거나 지저분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태도입니다. 한국의 문화가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문화 역시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체험해 봅시다.

– 두꺼비 부부를 도와주지 않았던 다른 동물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을지 말풍선을 넣어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 청개구리 할아버지와 같이 공평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그런 마음을 기르기 위해 노력할 점을 적어 봅시다.

참고자료

- 두꺼비의 특징: 수정 후 13일이 되면 올챙이가 되고, 82일이 되면 두꺼비의 모습을 하게 됨. 산란기에는 강이나 늪에 모여들고, 이 시기 이외에는 습한 곳에서 생활함. 한국에서는 집을 지키고 재물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여겨짐.
- 메기의 특징: 하천 또는 호수의 진흙 바닥이나 늪에 살며, 몸통의 앞부분은 원통형이나 뒤로 갈수록 옆으로 납작해지며 가늘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음.

- 베트남 관련 책
  김현아(2009) 〈베트남 이야기〉. 아이세움
  곰돌이 CO(2009). 〈베트남에서 보물 찾기〉. 아이세움
  김영희(2009). 〈신짜오 베트남 태권팥쥐와 베트콩쥐〉. 한설수복
  클레어 엘리스/김양희 역(2005). 〈베트남〉. 휘슬러
  조재현(2004). 〈베트남 들여다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부씬 투이/배양수 역(2002).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 대원사
- 김종대(2010). 〈옛것에 대한 그리움〉. 휘닉스드림 (한국의 전통 문화 속 물건들)
- 베트남의 여러 분야에 대한 최근 경향과 소개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haovietnam.co.kr/

6) 파 사세요

이 동화는요

총각인 농부는 어느 날 까마귀에게 잡힌 작은 참새 한 마리를 구해 줍니다. 참새는 그 보답으로 작은 것은 크게 만들고 늙은이는 젊게 만들어 주는 물이 담긴 병을 줍니다. 총각은 몇 년 후 결혼을 하게 되는데, 총각이 농사일을 하러 간 사이 아내는 그 물병을 발견하고 머리카락에 뿌립니다. 그러자 총각의 아내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아내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이때 까마귀가 나타나 그림을 물어가 버립니다. 이 그림을 우연히 보게 된 왕은 농부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갑니다. 농부의 아내가 왕궁에서 슬픔에 잠긴 채 지내자 왕은 농부의 아내를 웃게 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농부는 파 장수로 변장하고 왕궁으로 가 왕을 쫓아내고 왕이 되어 아내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은 외모의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베트남의 다양한 식재료에 대해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베트남의 다양한 식재료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외모와 마음씨 중에서 더 귀중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합니다.
- 모양과 맛 등이 우리나라와 다른 채소를 보며 기후와 열매와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Q&A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참새가 주고 간 물병에 든 약의 효능
- 파가 커다랗게 자라게 된 이유
- 농부가 아내 얼굴을 그린 이유
- 그림을 가져 간 까마귀가 간 곳
- 신하들이 그림 출처를 찾기 위해 한 일
- 왕궁에 끌려간 아내를 되찾기 위해 농부가 한 일
-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는 과정

알아봅시다.

– 베트남의 삿갓모자 '논(non)'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논(non)'은 원뿔형 모자로 햇빛을 가리고 비를 피하는데 사용하는 베트남 전통 모자입니다. 베트남은 뜨거운 햇빛 때문에 다양한 모자가 있습니다. 도시 여성들이 많이 쓰는 밀짚모자인 무끼에우(Mu Kieu), 하노이 남성들이 사용하는 카카오 색 모자 무끄웅(Mu Cuong)과 더불어 삼각형으로 된 베트남 전통모자 논(Non)이 있습니다. 그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이 '논(non)'입니다.
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콰이타오(Quai Thao)라 불리는 원통형의 커다란 모자와 원뿔형의 작은 논이 있습니다. 전자는 주로 전통무용, 연극 공연에서 볼 수 있으며 실제 생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반면 논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됩니다.
논의 주재료는 야자수 잎입니다. 싱싱한 야자수 잎을 말리면 아이보리 색으로 변하는데, 이를 두 층으로 엮어서 만듭니다. 논 내부에는 견고성을 더하기 위해 대나무 뼈대가 들어갑니다. 야자수 잎과 대나무 뼈대를 엮는 작업을 참논(Cham Non)이라 하며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참논 작업 후 실로 깁는 작업을 하면 끝이 납니다. 이 후 논 내부에는 색실로 그림이나 글을 떠서 장식하며 간혹 시구를 뜨기도 하는데 이 논은 논바이터(Non bai tho)라 합니다. 이는 직역하면 '시구가 있는 논'이란 뜻이나 원 뜻은 '논을 쓴 여성을 보면 시구가 절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논 안에는 조그마한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논은 부채로도 사용되고 동네 우물가에서는 바가지 대용으로 논에 물을 담아 마시거나, 얼굴이나 발을 씻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 논을 가장 인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곳은 재래 장터입니다. 모든 여성이 논을 쓰고 시장에 빽빽이 들어찬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면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최근 대도시에서는 논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는 대부분 밀짚으로 예쁘게 짠 모자를 씁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논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일할 때 남자들도 어린 아이들도 논을 즐겨 씁니다.
베트남의 푸토(Phu Tho) 지방이나 탄호아(Thanh Hoa) 지방은 야자수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논은 하박(Ha Bac) 지방 주옹(Chuong) 마을에서 만든 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또한 광빈(Quang Binh)과 후에(Hue) 지방의 논은 선물용으로 최고라고 합니다.
(참고: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13835&code=117)

– 베트남의 대표적인 음식 '쌀국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베트남은 쌀을 경작하기 위한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쌀을 가공하여 만든 음식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퍼(Pho)'라고 불리는 쌀국수는 베트남 사람들이 간편하게 먹는 대중적인 식사입니다. 쌀국수는 쫄깃하게 삶아낸 면발에 쇠고기나 닭육수를 넣고 신선한 야채를 듬뿍 곁들여 먹는 요리입니다. 지금은 베트남의 대표 음식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널리 퍼진 쌀국수의 역사는 의외로 짧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세기 말 방직공업이 번성했던 남딘(Nam Dinh)의 공장에서 하루 일과를 마친 노동자들이 고기국물에 국수를 말아 먹던 것이 쌀국수의 시초입니다. 쌀국수의 유래에 대한 또 다른 설도 있는데, 프랑스의 야채수프인 '뽀오페(Pot au feu)'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쌀국수를 먹을 때에는 '고수'라는 향이 나는 나물을 곁들여 먹는데, 이것 역시 베트남 요리의 독특한 재료입니다. 고수는 강렬한 향 때문에 처음 먹는 사람은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몇 번 먹으면 나름대로 향기에 매력을 느끼고 독특한 맛 때문에 자주 찾게 된다고 합니다. 태국과 베트남 등 거의 모든 동남아 요리에 쓰이며, 쌀국수에는 국물에 띄워 먹거나 볶음국수에 잘게 다져서 함께 조리합니다. 이 야채는 향이 너무 강해서 고온다습한 지역에 많은 벌레들도 접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베트남 메콩 강과 수상시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베트남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메콩강은 베트남의 다양한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메콩강은 티벳 고원에서 발원하여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을 휘돌아 캄보디아를 관통한 다음 베트남 남부에 이르는 강입니다. 총 길이가 4,500km나 되고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긴 강입니다. 강은 오랜 세월에 걸쳐 하구에 '메콩 델타'라는 독특한 퇴적 지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베트남 맨 끄트머리에 쉼표 모양으로 만들어진 메콩 델타는, 넓이로 따지면 국토의 10%에 불과하지만 나라 전체 식량의 38%에 달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비옥한 땅입니다. 메콩강은 베트남에서 '꺼우렁(Cuu Long; 九龍)'이라고 불립니다. 강이 남중국해로 흘러드는 동안 9개의 지류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9개의 강줄기에서 뻗어 나간 크고 작은 운하 주변에서는 오래 전부터 도시와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콩 델타에서 생산된 갖가지 농산물을 전국 각지로 실어 나르면서 운송의 중심지가 되고 대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깡터(Can Tho)는 메콩 델타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로, 베트남 전체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입니다.
이 깡터 시내에서 서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 까이랑(Cai Rang)이라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상시장이 있습니다. 까이랑은 도매시장으로, 거래되는 농작물의 최소 단위가 대부분 50㎏입니다.
큰 배들은 일제히 장대 끝에 그 배에서 파는 농작물을 걸어 놓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가 파는 물건을 멀리서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간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매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배들은 큰 배에 바짝 붙어서 흥정을 하고 물건을 싣습니다. 그 사이에는 샌드위치, 커피 등을 파는 수상 매점도 있습니다.
까이랑 시장에서 10km정도 더 가면 규모가 작은 소매시장 '퐁디엥(Phong Dien)'이 있습니다. 대개 인근 수상촌 주민들이 과일이나 야채를 팝니다.
최근 도로와 다리가 건설되면서 육로가 발달하자 수상시장의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베트남의 수상시장에서는 현지인들의 실제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태국의 수상시장이 관광지로 변한 것과는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매월 1, 2, 14, 15, 29, 30일은 불교에서 육식을 금하는 날로 야채 소비가 늘어 시장 규모가 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체험해 봅시다.

- '내가 만들고 싶은 신기한 물병'에 대해 상상해 보고, 그 물병은 누구에게 필요한지, 또 그런 물병을 사용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신기한 물병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봅시다.
- 베트남 사람들이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모습에 대한 사진을 모아 분류하고 설명해 봅시다.
- 베트남 전통의상과 장신구에 대한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베트남 전통의상을 입은 남녀의 모습을 그려 인형으로 만들어 봅시다.
- 베트남의 수세미와 우리나라의 수세미의 크기를 비교하고 기후와 연관 지어서 왜 크기가 다른지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봅니다.

참고자료

- 베트남의 삿갓모자 '논'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13835&code=117
- 베트남의 특이한 채소를 사진으로 봅니다.
  http://cafe.daum.net/anhdao255/
  http://goo.gl/wUK0G

7) 네 형제의 뛰어난 재주

이 동화는요

한 가난한 부부가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밥을 아주 많이 먹으면서 빨리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북쪽의 왕이 전쟁하러 가던 길에 우리 집에 들러 증조할아버지에게 금 수백 냥을 빌렸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그 왕에게 돈을 받으러 떠나기로 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 아들은 키가 큰 남자, 나무를 흔들 만큼 입김이 센 남자, 코끼리 두 마리를 어깨에 멜 만큼 힘이 센 남자를 만나 의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북쪽의 왕을 찾아갑니다. 북쪽 왕궁에 도착한 큰 형은 금을 받으러 왔다는 편지를 왕에게 보냅니다. 왕은 자신은 많은 금을 빌린 사실이 없지만 조상들 중에 빚진 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볼 동안 네 형제를 성대하게 대접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왕궁의 음식을 모두 먹어버리자 왕은 형제들을 호수에 빠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키가 큰 형제가 배를 들어 올려 위기를 넘깁니다. 왕의 병사들이 화살로 공격하지만 입김이 센 형제는 병사들을 하늘로 날려 버립니다. 그러자 왕은 백 냥의 금을 너희 힘으로만 옮길 수 있다면 모두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에 힘이 센 형제가 금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금을 얻게 된 네 형제는 마을로 돌아와 금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은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능을 가치 있게 사용한 사람들의 사례를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볼 수 있습니다.
- 누구나 한 가지씩 잘 할 수 있는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잘하는 점을 함께 모으면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Q&A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가난한 부부의 아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 아들은 왜 북쪽 왕을 찾아 떠나기로 하였나요?
- 아들이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 북쪽 왕은 네 형제에게 어떤 일을 하였나요?
- 네 형제는 어떻게 금을 차지하게 되었나요?

알아봅시다.

– 베트남의 코끼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베트남에서 코끼리는 화폐에도 등장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동물입니다.

역사에서는 원나라를 세운 황제 쿠빌라이 칸이 베트남을 침공하지만, 베트남 정글에서 코끼리를 이용하는 베트남군에게 밀려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베트남의 항아리나 유물에서도 코끼리는 자주 등장합니다.

코끼리는 큰 몸집에서 나오는 거대한 힘으로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짐을 나르거나 이동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코끼리는 영장류, 돌고래, 까치처럼 거울 속의 모습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영리한 동물입니다. 낙천적이고 장난을 좋아하며 자기 종뿐만 아니라 위기에 빠진 다른 종을 동정할 줄도 안다고 합니다. 암컷 우두머리가 죽으면 무리 전체가 슬픔에 젖어 큰 타격을 받기도 합니다. 코끼리 연구자들은 코끼리들이 '코끼리 지하철도'라고 부르는 고유의 통신체계를 통해 다른 무리 수백 마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 · 사고와 경조사를 금세 감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영리하고 감정표현이 섬세한 동물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학대 속에서 폭력적인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G.A. 브래드쇼, 『코끼리는 아프다』, 현암사) 밀림이 개발되면서 베트남 코끼리 역시 먹이와 서식지가 부족해졌고, 무엇보다 노동에 길들여진 코끼리들은 학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1995년 통계에서 베트남에는 야생 코끼리가 200마리밖에 남지 않았고, 이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2~3년 내에 베트남의 야생 코끼리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야생 코끼리를 늘리기 위해 인위적인 짝짓기를 시도했지만, 상아 밀렵꾼들이 수컷을 대량 남획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 베트남의 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베트남 사람들은 혼인을 하거나 목돈 또는 좋은 일이 생기면 금을 구입할 뿐만 아니라 구정과 같은 큰 명절 때 순금을 구입할 형편이 안 되면 대신 장식용 가짜 금제품을 살 정도로 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왜 유독 금을 좋아할까요? 사실 금은 나라와 인종을 막론하고 높은 가치를 갖는 재산입니다. 여러 차례의 전쟁과 천재지변을 겪으면서 한낱 휴지로 변해버릴 수 있는 '돈'보다는 다른 나라로 망명하거나 외국의 난민수용소에서도 통용되는 금의 효력을 믿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09년 현재, 아직도 차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 베트남에서는 현금 대신 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의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길에서 주운 금이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금은 불길하게 여겨서 기부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에는 많은 금광이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역과 북부 산악지대에서 많은 양의 금이 나옵니다.
금은 아름다운 빛깔과 영구불변의 안정성을 가집니다. 또 어떤 금속과도 잘 섞여 다양한 성질로 변할 수 있으며, 미세한 조각이나 가공이 가능하여 공예의 재료로서도 사랑받습니다.
(참고: http://www.vinahanin.com/culture/55666)

– 베트남의 왕궁 '후에'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베트남은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많은 왕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 왕조의 역사에 비해 근대화를 겪으면서 여러 차례의 전쟁을 통해 남아있는 왕궁은 많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응우옌(阮王朝, Nguyen Dynasty, 1902–1945)의 왕궁이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북으로 100km정도 떨어진 역사 도시 후에(Hue)에 남아있습니다.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는 사이공 조약 이후 1945년 15대 왕이 퇴위하였지만,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요한 역사 도시입니다. 특히 후에성은 성 전체의 지름이 10km에 달하는 무척 큰 성입니다.

체험해 봅시다.

- 베트남 왕궁을 다녀온 여행기를 찾아보고, 인상 깊은 내용을 모아 간단한 '관광 가이드'를 만들어 봅시다.
- 자신의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한 사람들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 사람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료를 모아 '어린이 ○○○'라는 글로 표현해 봅시다.
- 베트남의 옛 이야기 속의 왕, 병사, 요리사, 평민 등 하는 일에 따라 입는 옷의 색과 모양이 다른 것을 이해합니다.
-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 사람당 하나씩 관절인형으로 만들어 모둠별로 역할극을 해 봅니다.

참고자료

- 베트남 전통 악기 '트롱'의 연주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koviculture/40065921493
- 베트남의 후에 성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http://qubix.tistory.com/192
- 베트남 여러 분야에 대한 소개와 현대적 경향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www.vinahanin.com

8) 달에 사는 꾸오이 아저씨

이 동화는요

베트남의 옛날이야기에 나오는 꾸오이(Chu Cuoi)는 달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꾸오이는 나무를 하러 숲 속에 갔다가 새끼 호랑이들을 만납니다. 겁이 난 꾸오이는 새끼 호랑이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때 어미 호랑이가 반얀 나뭇잎을 씹어서 죽은 호랑이의 상처에 발라 주자 새끼 호랑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꾸오이는 반얀나무가 신비한 약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꾸오이는 반얀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아픈 할아버지를 낫게 해 줍니다. 그 할아버지는 반얀나무를 잘 키워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구해주라는 말을 합니다. 단, 반얀나무에는 반드시 깨끗한 샘물을 주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꾸오이는 시냇물에 떠내려 온 죽은 개를 반얀나무 잎으로 살려주어 친구가 됩니다. 또 이웃마을의 젊은 여자를 살려 주고, 그 여자와 결혼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꾸오이를 시샘하여, 더러운 물을 반얀나무의 밑동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뿌리가 움직이며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나무는 꾸오이와 개를 태운 채 하늘로 올라갔고, 아내는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보름달을 보면 반얀나무 아래 앉아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꾸오이의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은 동남아지역의 독특한 나무인 '반얀나무'에 대해 알 수 있고 베트남 사람들이 자연현상으로서의 '달'에 부여한 문화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반얀나무'(보리수 고무나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꾸오이'를 통해 베트남 사람들이 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 사람들이 자연현상에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관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그림 이야기에 나온 반얀나무(보리수 고무나무)와 베트남 대나무로 할 수 있는 전통놀이를 알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꾸오이는 왜 새끼 호랑이들을 죽이게 되었나요?
- 꾸오이는 어떻게 반얀나무의 신비한 효능을 알게 되었나요?
- 꾸오이가 반얀나무 잎으로 고쳐 준 노인이 남긴 당부는 무엇인가요?
- 반얀나무는 왜 하늘로 떠오르게 되었나요?
- 꾸오이는 왜 달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알아봅시다.

– '반얀나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반얀나무는 동남아시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독특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자라는 방식이 특히 독특한데, 가지가 위로 뻗어나가며 자라다가 길게 쳐지면서 가지가 땅에 닿으면 그 가지가 뿌리를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라다보니 처음에는 한 그루였지만 점점 영역을 넓혀서 큰 숲을 이루게 됩니다. 이 나무는 큰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휴식처가 되어줍니다.

– 윤극영 작사 동요 '반달'의 가사를 보며 달에 대한 한국의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Tip!

푸른하늘 은하수 하얀 쪽 배엔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간다 서쪽 나라로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비치이는 건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 '계수나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냇가 등의 양지바른 곳에 자랍니다. 높이 7m, 지름 1.3m 정도로 곧게 자라고 굵은 가지가 많이 갈라지며 잔가지가 있습니다. 잎은 마주나고 달걀 모양으로 넓으며 잎의 길이는 4~8cm이며 너비는 3~7cm 정도로 끝이 다소 둔합니다. 앞면은 초록색, 뒷면은 분백색(粉白色)이고 5~7개의 손바닥 모양의 맥이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둔한 톱니가 있습니다.
꽃은 암수딴그루(자웅이주)에서 피며 5월경에 잎보다 먼저 각 잎겨드랑이에 1개씩 피는데 화피가 없고 소포(小苞)가 있습니다. 수꽃에는 많은 수술이 있고 수술대는 가늡니다. 암꽃에는 3~5개의 암술이 있으며 암술머리는 실같이 가늘고 연홍색입니다.
열매는 3~5개씩 달리고 씨는 편평하며 한쪽에 날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고 개화기에는 향기가 좋습니다. 정원에 관상용으로 심습니다. 한국(중부 이남),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합니다.
[출처] 계수나무 | 네이버 백과사전

체험해 봅시다.

– '반얀나무'에 앉아 있는 꾸오이의 모습을 그려 둥근 달 모양의 종이에 붙여 '꾸오이 모빌'을 만들어 창문에 걸어 봅시다.
– '달'에 대한 마인드맵을 만들어 친구들과 비교해 봅시다.
– 다양한 '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수집하고 이것을 오려서 '달 모빌'을 만들어 봅시다.
– 베트남대나무를 이용하여 줄넘기, 공기놀이 하는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다이주엔(베트남의 공기놀이)와 우리나라의 공기놀이를 비교해 보고, 다이주엔를 해 봅시다.

참고자료

– 베트남의 성수와 우물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http://goo.gl/n37KH
– 반얀나무의 유래를 알 수 있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93917&cid=46686&categoryId=46694
– 베트남의 유교문화와 반얀나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mshis/57
– 베트남의 전통놀이를 알 수 있습니다.
http://culturebox.nfm.go.kr/culturebox/study/vietnam13.do

9) 돌 개의 웃음

이 동화는요

옛날 어떤 마을에 부자인 형과 가난한 동생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거지 노인이 마을에 나타났는데, 형은 이 노인을 내쫓고 그의 아내는 개를 풀어 노인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동생은 오히려 노인을 돌보아주고 대접합니다. 노인은 가난한 부부의 대접을 받고 금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며 높은 산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돌로 만든 개가 서 있었는데, '개의 입 안에 금이 있다. 원하는 만큼 손에 쥐어라.'는 말을 듣고 부부는 한 덩어리씩만 갖기로 합니다. 덕분에 동생은 부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은 다시 그 거지 노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처럼 금을 갖게 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형은 노인을 따라 돌 개가 있는 곳까지 갑니다. 하지만 형이 돌 개의 입에 팔을 넣자마자 돌 개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형은 몇 날 며칠을 그 상태로 지내면서 고생을 합니다. 마침내 형은 이제 곧 죽을 것만 같다고 하소연하며 아내에게 손을 한 번 잡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돌 개가 입을 벌려 웃으면서 형의 손을 풀어 줍니다. 이 부부는 돌 개를 돌아보지도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어린이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 욕심을 부리지 않는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 가난한 밥상이나 풍성한 밥상이나 그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거지 노인이 동생의 오두막 앞에 오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 노인은 자신을 도와준 동생 부부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 돌 개는 왜 형이 손을 넣었을 때에 입을 다물어 버렸을까요?
- 돌 개는 왜 입을 벌려 웃었을까요?

알아봅시다.

– 베트남의 토종개 '푸쿽(Phu Qouc)'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한국의 진돗개처럼 베트남 고유의 토종개는 '푸쿽'입니다. 이 개는 베트남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푸쿽섬에만 사는 개라고 합니다. 지금은 베트남 전국으로 많이 퍼져 있지만 실제 푸쿽 사람들은 이 개가 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이 개는 등에 말의 갈퀴처럼 등갈퀴가 있습니다. 성질은 사나운 편이라고 합니다.

– 베트남의 보신문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개고기를 먹는 관습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개고기는 오래전부터 구황과 보신을 위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 요리법 또한 다양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개고기를 즐기는 편인 것에 비해 베트남에서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 편입니다. 베트남에서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발달한 것은 베트남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라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소'는 매우 중요한 노동력으로 일반인이 식용으로 쉽게 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개고기를 통해 육류를 섭취하는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공통적인 개고기 보신문화는 때로는 베트남과 한국을 교류하는 사람들 사이를 보다 더 친근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개고기는 기름기가 적고, 비교적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몽골이나 베트남에서도 폐결핵 환자들에게 개고기는 영양보충을 위해 쉽게 먹을 수 있는 고기입니다.('한겨레신문' 2003. 07. 23)
이러한 보신문화는 각 문화권마다 발달해 있는데, 유럽의 말고기, 프랑스의 달팽이 개구리 뒷다리 요리 등도 모두 보신문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험해 봅시다.

- '돌 개의 웃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일을 떠올려 보고, 가상 인터뷰 기사를 작성해 봅시다.
- '돌 개의 웃음'의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보고, 만화나 글로 표현해 봅시다.
- 베트남의 전통음식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고, 가난한 밥상과 풍성한 밥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만들어 봅니다.
- 베트남 전통음식 '자넴(튀김만두)'과 베트남 현재의 라면을 맛봅니다.

참고자료

- 베트남의 전통 음식을 알 수 있습니다.
  http://travel.tourism.vn:808/main/publish/view.jsp?menuID=002001003007001
- 현재 베트남의 길거리 음식을 볼 수 있습니다.
- http://justgo1988.com/20169405099

10) 벌을 받은 바위

이 동화는요

'반(Ban)'이라는 가난한 부부는 설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이웃에게 빌린 돈으로 물건을 삽니다. 하지만 작은 샘을 지나던 반의 아내가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그 물건들이 몽땅 샘에 빠지고 맙니다. 마침 고을 원님이 울고 있는 반의 아내를 보고 자초지종을 들은 후 도와 줄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재판하기로 하고 법정으로 옮겨갑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이 신기한 재판을 구경하려고 법정으로 몰려옵니다. 그때 원님은 재판을 구경할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습니다. 원님은 칸막이를 치고, 바위를 꾸짖는 소리와 바위를 매로 치는 소리를 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칸막이를 치우자 반의 아내와 물에 젖은 바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원님은 바위는 죄가 확실하여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나 재산이 없어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오늘 법정에 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으므로 당신들이 낸 입장료를 피해자인 반의 아내에게 준다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바위에게는 영원히 물속에 갇히는 벌을 내립니다. 구경꾼들도 모두 박수를 치며 찬성하고 반의 가족은 행복한 설을 보내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이해하고, 이와 같이 지혜를 모으고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고을 원님을 통해 배울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을 떠올려보고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압니다.
- 베트남의 명절문화를 알고, 우리나라의 명절문화와 비교하여 문화를 이해합니다.

Q&A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반의 아내는 왜 이웃에게 돈을 빌렸나요?
- 반의 아내가 산 물건은 왜 샘에 빠져버렸나요?
- 울고 있던 반의 아내를 본 고을 원님은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기로 했나요?
- 바위는 어떤 벌을 받았나요?

알아봅시다.

– 베트남의 새해 첫날 풍습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베트남에서 설날(음력)은 일 년 중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날에는 일주일 정도 쉽니다. 아이들은 설날이 되면 새 옷을 선물 받고, 세뱃돈도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세배를 올리지 않고 세뱃돈만 받습니다.

베트남에는 '일 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설날 하루에 다 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설날을 성대하게 보냅니다. 다양한 꽃을 사서 집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제단을 만들어 예쁘게 장식합니다.

베트남 설날에는 지역에 따라 어떤 행동들은 피하기도 하는데, 가령 설날 아침에 집을 청소하거나 바닥을 쓸면 새해에 복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바느질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주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면 설날 아침에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고 여겨집니다.

설날에 가장 많이 하는 덕담은 '새해에는 건강하세요.(chúc năm mời mạnh khỏe)',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gặp nhiều may mắn)',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세요.(và vạn sự như ý.)'로 한국의 인사말과 같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설날 아침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때 나쁜 일이 생기면 일 년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는 방문하지 않고, 설날 나쁜 일이 생기면 그날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날 아침에는 남의 집에 가서 라이터를 빌리는 것도 피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라이터를 빌려주면 라이터를 빌리는 사람이 그 집의 복과 행운을 가져가 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설날에 호랑이띠인 사람이나 인상이 좋고 인사를 잘 하는 사람이 집에 오면 행운을 가져와 준다고 매우 반가워합니다.

설날에는 집집마다 반드시 수박을 준비합니다. 수박을 잘랐을 때, 빨갛게 익었으면 일 년 동안 다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3이나 5와 같은 수를 좋아하지 않는데, 설날이 지난 뒤에도 4일 혹은 6일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에도 3명이나 5명은 함께 찍지 않는 관행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관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체험해 봅시다.

- 고을 원님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정리하여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 나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정하고 그 일을 일 년 동안 실천하여 봅시다.
- 설날과 같은 명절을 외롭게 보내는 사람들은 누구일지 생각해 보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여 봅시다.
- 베트남의 명절에 윗사람에게 인사하는 예절을 영상을 통해서 배우고, 서로에게 해 봅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와 싫어하는 숫자를 생각해보고, 베트남에서는 3과 5라는 숫자를 왜 싫어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참고자료

- 베트남의 설날 풍경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goo.gl/87umUP
  http://www.cgntv.net/cgn_player/player.htm?vid=61330
- 베트남의 명절 풍습을 알 수 있습니다.
  http://goo.gl/5hs3G
- 베트남의 명절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http://goo.gl/8T6Fj
  http://goo.gl/qdbVO

2 필리핀

01 이자스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필리핀에 관한 이야기

02 동화별 교육 내용

1) 우 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
2) 소년과 하늘
3) 마리아 시누콴의 재판
4) 카부니안은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나
5) 하늘과 땅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6)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생겨났나
7) 필란독과 금 달걀을 낳는 닭
8) 원숭이와 거북이

01 이자스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필리핀에 관한 이야기

이자스민 선생님은 외국인을 지원하는 서울글로벌센터와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임인 물방울나눔회의 사무국장으로 봉사했고,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가정을 꾸려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필리핀인에게 소중한 것은요

필리핀은 지역과 종교에 따라 소중한 것이 다릅니다. 80퍼센트 이상이 천주교이지만 10퍼센트 정도는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나 차에 걸린 십자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천주교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본예절은요

필리핀에서는 남녀 누구나 악수가 가장 기본적인 인사입니다. 여성은 아는 사람들 사이는 양 볼에 가볍게 키스하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필리핀은 워낙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어서 미국식 인사도 상관없습니다. 고개를 아래로 숙이며 인사하는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히려 반대로 턱을 위로 올리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친근한 인사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버릇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인사는 잘 아는 사람끼리 하는 인사라, 필리핀에서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면 무례하게 생각하죠. 저는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서 필리핀에 가서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웃어요.

거리를 지나는 여성에게 남성들이 '휙~ 휘익~'하고 휘파람을 부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들에게는 불쾌감을 주기도 하지요. '너 멋있다.' 그런 표현인데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성적으로 보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판합니다. 또, 엄마가 애들을 부를 때 혀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기도 해요. 소리를 밖으로 내며 피스트(무성음, psst) 소리를 내는 건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자기 엄마 소리를 구분해요. 아이들이 여럿인 엄마는 아이마다 다른 소리로 부르기도 해요. 지프니(버스) 차장도 손님들을 부를 때 이와 비슷한 소리를 냅니다. 길게 혹은 짧게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급한 정도를 알 수 있어요. 만약 외국인이 이것을 흉내 내면 필리핀 사람들은 놀리는 것으로 알고 언짢을 수도 있어요.

음식과 옷차림은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별로 없는데, 지역에 따라 좀 다른 점은 있어요. 두리안을 아래지방에서는 맛있게 먹지만 마닐라에서는 냄새 때문에 안 좋은 인상을 줍니다. 왕따를 당할 정도입니다. 차에 두면 10분 만에 다 퍼져서 며칠 동안 냄새가 남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슬람지역에서 돼지를 안 먹고, 더운 나라라 생선이 많아도 회로 먹지 않고 익혀서 먹는 것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유일하게 회처럼 먹을 수 있는 '기닐라우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생선을 불로 굽지 않고 식초에 절여 샐러드로 먹는 건데, 아래지방 음식으로 지금은 널리 퍼졌어요.

저는 필리핀 전통 옷을 한국에 와서 처음 입어봤어요. 그 정도로 필리핀에서는 전통 옷을 자주 입지

않죠. 어깨를 높이 세운 '데르노'라는 의상은 '필리핀어의 날' 같은 특별한 기념일에만 입어요. 예전에는 그 높이로 양반과 평민을 구분했다는데, 요즘은 누구나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편해서 평소에는 거의 입지 않아요. 필리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오히려 한국에서 자주 입는 편입니다. 어깨를 높이 세우는 방법은 오로지 바느질 기술인데요, 한국에서 해 보려 했더니 잘 안 되던데요. 남자들이 결혼식 같은 때 입는 흰색 저고리 '바롱'은 파인애플에서 뽑은 실로 만든 겁니다. 파인애플 100퍼센트가 제일 비싸고, 바나나실과 섞인 것은 조금 쌉니다.

가족, 필리핀의 남과 여

우리 필리핀에서는 8촌, 10촌까지도 다 가족이라고 합니다. 씨족마을처럼 살기 때문에 6촌까지도 다 사촌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는 아빠의 성을 물려받고, 결혼하면 남편의 성으로 바꿨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 결혼 후 자기 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게 됐어요.

필리핀은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4년 과정이라 대학교에 입학하면 16살입니다. 20살이면 대학을 졸업하죠. 여성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결혼하기 시작해요. 25세가 넘으면 노처녀라고 해요. 그리고 필리핀은 이혼이 없어요. 가톨릭이 국교이기 때문에 헤어지더라도 법적으로 이혼과 재혼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또 필리핀은 데릴사위 문화가 있어요. 그래도 남성은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일단 집에서 가사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성이 집안일을 해야 한다면 시댁보다 친정에서 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친정에 딸들이 사는 문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혼을 하는 막내딸이 부모를 모시고 재산을 물려받아요. 여성이 자기 집이니까 남성보다는 좀 더 기가 세다고 할까요. 그래서 집안일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더 강하기도 합니다. 현재 필리핀의 경제 상황이 여성이 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 일자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밖에서 생계활동을 하는 경우도 더욱 많아지고 있어요. 또 필리핀인은 해외 이주노동이 많은데, 부모님을 주로 모시는 막내딸들도 일자리가 생기면 주저 없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딸이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색깔

우리는 국기에 사용된 빨간색과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필리핀 국기는 유일하게 거꾸로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은 국기 상에서 파란색이 위쪽, 빨간색이 아래쪽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전쟁이 발생하거나 하면 뒤집어서 빨간색을 위로 사용합니다. 빨간색이 용기를 의미하니까 용기 있게 일어나 싸우자는 거죠. KKK 독립운동 때도 뒤집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검정색과 흰색은 죽음과 탄생을 의미하죠. 흰색은 결혼이나 아이들의 세례식 때 사용하는 색입니다. 요즘은 여자아이는 핑크색, 남자아이는 파란색을 쓰지만 전통적으로는 모두 흰색을 썼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검정색은 안 좋게 여겨지기도 하고 빨간색은 위험을 뜻합니다.

* KKK: 카티푸난의 약자, 1892년 설립된 단체로 스페인 식민통치에 맞서 무장 항쟁을 통한 독립운동을 벌였다.

명절

필리핀에서는 미인대회가 아주 유명합니다. 한국 행정구역 '동' 같은 지역 단위마다 상징하는 성인이

있는데, 그 성인의 날을 피에스타(축제)로 정해 음식을 나누고 즐기는 축제를 해요. 그때마다 미인대회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근 지역의 축제 날짜를 알아뒀다가 옮겨 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을 정도로 여기저기 피에스타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마늘아가씨 같은 농산물이름으로 미인대회를 하잖아요. 필리핀은 동네마다 미인대회를 해서 큰 대회에 내보내고 그래요. 5월은 꽃이 많이 피는 때니까, 사람의 꽃인 여성을 예쁜 옷으로 치장해서 차에 태워 행진하는 산타크루젠이라는 퍼레이드를 합니다.

또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BER가 들어간 달, 즉 9월(September)월부터 12월(December)까지가 모두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9월부터 라디오에서 캐롤이 나오고, 12월초부터 새벽미사를 보지요. 12월 24일 밤 12시와 31일 밤 12시부터 밤새 파티를 합니다. 또 한 해가 넘어가는 시간에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하면 1년 내내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믿음도 있어요. 밤 12시 땡 하면 1분 동안 각자가 소망하는 것을 행동하면서 반복적으로 비는 풍습이 있습니다. 키가 크고 싶으면 점프를 하고, 돈 벌고 싶으면 양손에 동전을 굴리다가 확 던져서 아이들이 줍게 만들기도 합니다. 호루라기를 불든, 박수를 치든, 소리를 지르든, 바닥을 구르든, 벽을 치든 작년의 안 좋았던 일을 날리면서 난리법석을 떱니다. 또 새해에 비질을 하면 복이 나간다는 믿음도 있어요.

비닐봉지에 쌀과 동그란 과일을 넣어 창문이나 문에 걸어놓으면 재물이 들어온다는 믿음도 있고, 식탁에 13종류의 동그란 과일과 동그랗고 빨간 치즈볼을 올려놓기도 해요. 폭죽도 12시가 땡 하면 집단적으로 터뜨리는데, 폭죽의 양으로 집집마다의 개성과 규모를 자랑하기도 해요. 제가 살던 다바우시에서는 폭죽놀이를 금지했는데 폭죽놀이로 인해 사고가 자주 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해외이주가 많은 필리핀의 특징, '발릭바얀박스'

필리핀에는 '내 나라로 돌아오는 박스'라는 뜻을 가진 '발릭바얀박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탁기만한 박스(가로×세로×높이가 모두 1m)를 택배 서비스인데 그 안에 무엇을 채워도 보내는 비용은 12만원이에요. 필리핀은 해외 이주노동자가 외화를 많이 벌어다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 배려 차원에서 세금 없이 가족에게 선물을 보내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박스 안에 필리핀에 있는 대가족에게 보낼 선물을 가득 채워서 보냅니다. 이 선물박스가 아주 커서 한 달 동안 집안에 두고 차곡차곡 채우지요. 그래도 필리핀에는 가족 수가 워낙 많아 막상 나눠가지려면 부족해요.

한국생활, 좋은 점과 힘든 점

필리핀은 섬나라라서 여행을 다니기 어려워요. 어딜 가도 물을 건너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다차로 다닐 수 있고 교통이 편하니 좋습니다. 일년 내내 같은 계절인 필리핀에서 온 저는 4계절이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계절로 인해 시간의 흐름도 느낄 수 있고 다음 계절을 기다리게 되는 기대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이주여성으로서 할 수 있게 된 것도 즐거운 점입니다. 처음에는 대학에 입학만 하고 졸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와서도 10년간은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워낙 고학력 사회라 박사들도 일을 못 구한다는 뉴스를 하도 많이 봐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한 번 인터넷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저를 원하는 회사가 많아서 신기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하기 때문일 텐데,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많이 알게 됐어요. 한국인에게 필리핀을 소개해야하는 입장에 서게 되니 오히려 한국에 온 후 필리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기도 하고 시야도 넓어졌어요. 다른 문화권인 나라에 살게 되니까 조금 더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반면 필리핀을 무시하는 경우에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 필리핀에 관광을 다녀오신 분이 '네 나라는 도둑이 많다, 애들이 불쌍하다, 위험한 나라다, 못사는 나라다.'라고 하면 불쾌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집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이게 냉장고다. 이게 전기밥솥이야.'라고 가르치려 하셨던 것도 황당했던 경험입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에 대해 게으르다, 느려 터졌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필리핀은 열대기후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요. 한국 사람처럼 빨리 움직이고 달리면 체력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씨에스타(낮잠) 문화도 있잖아요.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나 습관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리핀인은 게으르다는 편견은 옳지 않아요. 필리핀은 학교도 7시에 시작해서 9시에 리세스(간식)시간을 갖는데, 그것은 간식을 먹으며 더위를 식히는 휴식의 개념입니다.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오후 수업시간에 한 번 더 리세스시간을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은 아니고 수업에 잘 집중할 수 있는 신체리듬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어디서 왔느냐, 누구랑 결혼 했냐, 어떻게 결혼 했냐와 같은 질문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죠. 그리고 가게에서 잘 못 알아듣거나 할 때 손을 바깥으로 저으면서 가라는 듯이 '됐어. 됐어.'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같은 행동이 어떤 경우에는 나를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팀장님이 일찍 퇴근하라는 의미에서 손등으로 가라는 손짓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저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결혼이주여성은 어린 나이에 팔려온 사람이라는 시선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제 나이를 30대 후반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오히려 외국인이 드물었기 때문에 더 좋았습니다. 어딜 가도 한국어로 인사만 하면 귀엽게 봐주곤 했는데, 요즘엔 결혼이주자가 너무 많아서 서로 비교도 당하고 그래요. 또 뉴스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다보니 오히려 편견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공익광고 중 한글을 잘 모르는 필리핀 엄마에게 알림장을 읽어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광고의 배경이 흑백이거나, 한옥을 배경으로 하는 것, 필리핀 엄마가 한국어를 당연히 모르는 것으로 나오는 것 등 모든 것이 오히려 편견을 심어준다고 봐요. 실제로 요새는 한국어강좌도 아주 많아서 한국어를 그렇게까지 모르는 결혼이주여성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마닐라에서 태어나서 12살 때 다바우 지역으로 이사했어요. 비행기로 1시간 45분 걸리니까 아주 먼 지역이죠. 마닐라에서는 따갈로그어를 썼는데, 다바우에서는 비사야어를 써요. 비사야어를 잘 못하니까 따돌림도 꽤 당했어요. 두 언어는 비슷한 단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울릭'이라는 단어는 따갈로그어로는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고, 비사야어로는 '욕심쟁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발표하려고 손을 들면 선생님이 따갈로그어로 '자스민, 울릭'이라고 하면 그건 '다시 자스민 해봐' 라는 뜻인데, 친구들은 '자스민, 욕심쟁이'로 알아들으니 제가 미움을 받기도 했던 거죠. 그렇게 어릴 때 부딪히면서 비사야어를 배웠던 경험이 눈치껏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됐어요.

이자스민 선생님이 일하는 서울글로벌센터는요

서울시청 외국인 생활지원과는 교육, 사회통합, 글로벌센터 등 세 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저는 글로벌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글로벌센터가 여러 곳에 있는데 그 통합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에게 원스톱으로 은행, 핸드폰, 출입국, 관광, 상담 까지 제공해요. 외국인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부터 한국에서 자리 잡도록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일까지 모두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활동을 하는 물방울나눔회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2 동화별 교육 내용

1) 우 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

이 동화는요

이 동화는 장어에게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 대대로 장어를 먹지 않기로 한 중국계 필리핀인 우씨 집안의 전통을 소재로 한 이야기입니다. '틴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가 화자로 등장하여 증조할머니인 '이포'에게서 들은 집안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씨 집안의 어린 형제들이 집안일을 돕기 위해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배 위에서 장난을 치다 그만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타고 있던 배의 파손된 구멍으로 장어 한 마리가 우연히 들어와 어린 형제를 구하게 되었다는 재미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이주해 온 남성이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 구성되었다는 동화 속 우씨 집안의 내력은 다민족 국가로서 필리핀의 특징과 중국계 이주민의 문화에서 영향 받은 필리핀인들의 돈독한 친족 문화 등에 대해 이해하고, 점차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에 대해 되돌아보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동물에게서 받은 은혜를 존중하는 이야기를 통해 생명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필리핀이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필리핀과 한국 내에 살고 있는 필리핀 이주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 조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적 전통에 대해 지닌 자부심에 대해 공감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포'는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 틴틴과 멜로디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나요?
- 민 푸와 웨이 리 형제는 어쩌다 위험에 처하게 되었나요?
- 우씨 집안은 왜 장어를 먹지 않는 전통을 갖게 되었나요?
- 우씨 집안의 형제들처럼 사람이 동물에게서 도움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 이야기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알아봅시다.

– 「우 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가 실화에 바탕을 둔 이야기인지 알아봅시다.

Tip!

이 동화는 실제로 장어에게서 은혜를 입은 중국계 필리핀인 우씨 집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된 동화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동물과 같은 다른 생명체에게서 은혜를 입는 경우에 대해 학생들의 개인적 경험이나 주변에서 들은 에피소드를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함으로써, 생명체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문화 다양성은 이처럼 사람뿐 아니라 다양한 생명체를 존중하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 합니다.

–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기 위한 '까다야완 축제(Kadayawan festival)'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까다야완 축제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 시에서 8월 중에 열리는 축제로,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자연의 선물에 감사하는 의미를 다양한 예술과 문화 행사로 보여줍니다. 화려한 꽃 장식 행렬과 거리에서 펼쳐지는 전통춤 경연, 그리고 민다나오 섬의 특산물과 기념품 등을 전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도움말: 『꾸무스따 필리핀』) (https://www.philgo.com/?1269495001)

– 모든 나라나 문화에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는 음식 '타부(taboo)'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문화에 있는 음식 타부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토의해 봅시다.

Tip!

음식 타부란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브라만(종교적 상층계급)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음식 타부는 지역에 따라 극단적으로 대립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돼지고기를 즐겨먹을 뿐 아니라 그것이 복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개고기 역시 동아시아에서는 예로부터 식량으로 여겼지만, 서구에서는 개를 먹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넘어 경멸하는 태도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은 사회적 선택이고, 그 기준은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음식 타부에 대해 알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실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합니다.

– 비논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비논도는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비논도는 필리핀과 중국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중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비논도에는 비논도 성당이라는 유명한 문화유산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체험해 봅시다.

– '장어', '행운', '장어가 행운을 가져왔구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등의 단어와 표현을 타갈로그어로 따라해 봅시다.

Tip!

〈올리볼리 그림동화〉 웹사이트와 〈Phil114〉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우형제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도 태어난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는지 알아봅시다. 언제, 어디로, 왜 이주했는지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들려주면서 사람들은 왜 이주하는지 토의해 봅시다.

– 인터넷을 통해 필리핀의 역사, 언어, 문화, 타갈로그어 등에 대해 조사해 발표해 봅시다.

– 포스트잇 등을 활용하여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이나 식물 등 사람 이외의 생명체에 대해 떠올려 보고, 이러한 생명체를 존중하기 위한 방법을 적어 모둠별로 발표하도록 하고, 모든 학생들이 적은 내용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교실 뒤 벽면 등에 붙여 봅시다.

참고 자료

* 웹사이트

– 〈필리핀 관광청〉: 필리핀 여행 정보 및 주요 여행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어 사이트입니다.
http://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

– 〈Phil114〉: 필리핀 생활, 여행, 유학, 타갈로그어 정보 및 지도, 커뮤니티, 검색 등을 제공하는 필리핀 종합 포털 사이트. '따갈록 사전'을 제공합니다.
http://phil114.com/

– 〈까다야완 축제(Kadayawan festival) 공식 웹사이트〉
https://www.philgo.com/?1269495001

* 동영상

– 〈이주민 바로 알기–필리핀〉 동영상 웹 주소: https://youtu.be/gB5VZ9mpYjg

* 자료집

– 『꾸무스따 필리핀』(2011).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의 '다문화 꾸러미' 시리즈의 하나로, 필리핀의 자연환경, 역사, 전통 옷, 음식, 집, 교통수단, 명절과 축제, 음악과 춤, 전통놀이, 필리핀 어린이의 학교생활 등에 대해 생생한 그림 및 사진 자료와 함께 알기 쉽게 소개한 책입니다. 필리핀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사진 카드와 CD-ROM 자료도 함께 들어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문의전화: 02-3704-4506/4510, 홈페이지: http://culturebox.nfm.go.kr/culturebox/study/phil5.do)

* 단행본

– 알프레도 로체스, 그레이스 로체스 지음/ 이은주 옮김 2005). 『Curious: 필리핀』. 휘슬러
필리핀의 언어와 사회, 도덕과 가치, 역사와 문화, 사람들, 의식과 관습, 필리핀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알기 쉽게 해설한 책입니다.

- 이원복 글 · 그림(2006). 『가로세로 세계사 2: 동남아시아』. 김영사
  베트남, 타이,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동티모르,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역사에 대해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제시한 책입니다.
- 『론리 플래닛 트래블 가이드: 필리핀』(2006). 안그라픽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 책자인 『론리 플래닛』의 필리핀 편으로, 필리핀의 역사, 문화, 환경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소년과 하늘

이 동화는요

이 동화에는 하늘을 만지고 싶은 꿈을 갖고 있던 필리핀의 아푸가오족 소년이 등장합니다. 소년은 하늘에 닿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보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결국 독수리의 도움으로 자신이 그렇게 만져보고 싶던 하늘로 가는 거대한 계단이 바로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 계단은 먼 옛날에 소년의 조상들이 벼 심을 논을 만들기 위해 산을 계단 모양으로 깎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독수리가 소년을 그 논으로 데려다 주자 바로 거기서 벼를 거둬들이고 있던 소년의 아버지는 소년을 팔에 안아 하늘 높이 들어 올려줍니다.

이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은 필리핀의 산악지대인 이푸가오 지역에 있는 유명한 계단 모양의 논과 그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 이푸가오족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사람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꿈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필리핀 이푸가오 지역에 있는 유명한 계단 모양의 논과 그곳에 사는 소수민족인 이푸가오족에 대해 알아보는 조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속 소년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마을에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나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나 간절히 바라는 다양한 꿈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년이 간절히 바란 꿈은 무엇이었나요?
- 소년은 하늘을 만져보기 위해 어떤 시도들을 했나요?
- 소년이 하늘을 만질 수 있도록 도와준 동물들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 독수리가 말한 '하늘로 가는 계단'이란 무엇이었나요?
- 소년은 어떻게 하늘을 만져볼 수 있게 되었나요?
-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알아봅시다.

– 필리핀 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독수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독수리는 필리핀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원숭이를 먹는 독수리(monkey-eating eagle)라는 이름의 아주 큰 독수리입니다. 필리핀의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 있는 필리핀의 가장 높은 산인 아포산에는 날개 길이가 2.5m나 되는 거대한 필리핀 독수리가 살고 있습니다.

– 다민족 · 다인종 국가로서의 필리핀 사회의 인구 구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현재 필리핀인은 90% 이상이 말레이족이지만, 그 외의 10%는 화교와 '메스티소(Mestizo)'라고 불리는 혼혈족입니다. 말레이족과의 혼혈인 메스티소는 중국인, 미국인, 스페인인 및 아랍 혈통의 후손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85% 정도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신봉하지만,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섬에 거주하는 모로족은 이슬람교를 믿고, 도이프가오족 등의 민족은 정령을 숭배합니다. 복잡한 민족만큼이나 언어 또한 많아 70종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잘 어울려 살아가고 있으며, 서구 국가의 오랜 식민 통치 역사와 무역 상인들의 혈통이 섞여 외모와 문화 모두에서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혼합된 모습을 보입니다.

– 필리핀의 이푸가우(Ifugao) 지역은 어떤 곳인지 알아봅시다.

Tip!

필리핀은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푸가우는 필리핀의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인 루손(Luzon) 섬에 있으며, 산과 숲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이름은 'i-pugo'에서 유래했는데, 'i'는 '~로부터' 혹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pugo'는 '언덕'이라는 뜻으로, '이푸가우'는 '언덕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산악 지역인 이푸가오에는 소수민족인 이푸가오족이 살고 있습니다.

– 이푸가우 지역에 있는 유명한 '계단 모양의 논(Ifugao Rice terraces)'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계단 모양의 논'은 원주민인 이푸가오 족이 2,000여 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만들어 놓은 것으로, 산비탈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양이 마치 지도에 그려진 등고선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꾸무스따 필리핀』, 국립민속박물관, 2011, p.11 참고)

체험해 봅시다.

– '어떻게 하면 하늘에 닿을 수 있는지 이제 알았다!' 라는 소년의 말을 타갈로그어로 따라해 봅시다.

Tip!

〈올리볼리 그림동화〉 웹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등장인물을 그리고 오려서 계단식 논의 사진에 붙이고 말주머니를 적어 뒷이야기의 한 장면을 표현해 봅시다. (계단식 논 사진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꾸무스따 필리핀』(2011).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의 '다문화 꾸러미' 시리즈의 하나로, 필리핀의 자연환경, 역사, 전통 옷, 음식, 집, 교통수단, 명절과 축제, 음악과 춤, 전통놀이, 필리핀 어린이의 학교생활 등에 대해 생생한 그림 및 사진 자료와 함께 알기 쉽게 소개한 책입니다. 필리핀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사진 카드와 CD-ROM 자료도 함께 들어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문의전화: 02-3704-4506/4510, 홈페이지: http://culturebox.nfm.go.kr/culturebox/study/phil5.do)
– '계단식 모양의 논' 사진은 인터넷에서 '계단모양의 논(Ifugao Rice terraces)'을 검색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3) 마리아 시누콴의 재판

이 동화는요

이 동화는 필리핀의 여신 마리아 시누콴의 법정에서 일어난 동물들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르티네즈라는 이름의 새가 마리아 시누콴을 찾아와, 지난밤에 카바요라는 이름의 말이 껑충껑충 뛰면서 둥지를 짓밟는 바람에 알들이 깨졌다고 하소연하자, 마리아 시누콴은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마리아 시누콴은 카바요, 팔라카(개구리), 파공(거북이), 알리탑탑(개똥벌레), 라목(벌)을 차례로 법정에 부르고, 이들의 설명을 들으며 사건의 원인과 진행 과정을 파악하여 현명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는 마리아 시누콴의 재판 과정과 재판의 결과가 흥미롭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하나의 행동이나 사건이 또 다른 행동이나 사건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특정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판의 사회적 역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태도, 공정하고 현명한 재판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마리아 시누콴의 재판 과정과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혹은 이와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법과 재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마리아 시누콴은 누구인가요?
- 마르티네즈는 왜 마리아 시누콴의 법정에 찾아왔나요?
- 라목은 왜 큰 칼을 들고 다녔나요?
- 마리아 시누콴이 라목에게 "탈랑카가 너를 공격했다면, 너는 이 법정에 탈랑카를 고발해야 했어."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라목은 어떤 벌을 받았나요?
- 마리아 시누콴은 마르티네즈에게 어떤 충고를 했나요?
- 마리아 시누콴이 현명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나요?

알아봅시다.

– 마리아 시누콴(Maris Sinukuan)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마리아 시누콴은 필리핀의 팜팡가(Pampanga) 지역에 있는 아라얏 산(Mount Arayat)의 요정(필리핀 말로 diwata) 혹은 여신으로, 로스 바노스(Los Banos) 지역의 마리아 마킬링(Maria Makiling), 세부(Cebu) 지역의 마리아 카카오(Maria Cacao)와 비슷합니다. 시누콴이라는 이름 앞에 '마리아'가 붙은 것은 스페인의 영향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Maria_Sinukuan)

체험해 봅시다.

– '네가 생각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이웃들이 피해를 입었어.'를 타갈로그어로 따라해 봅시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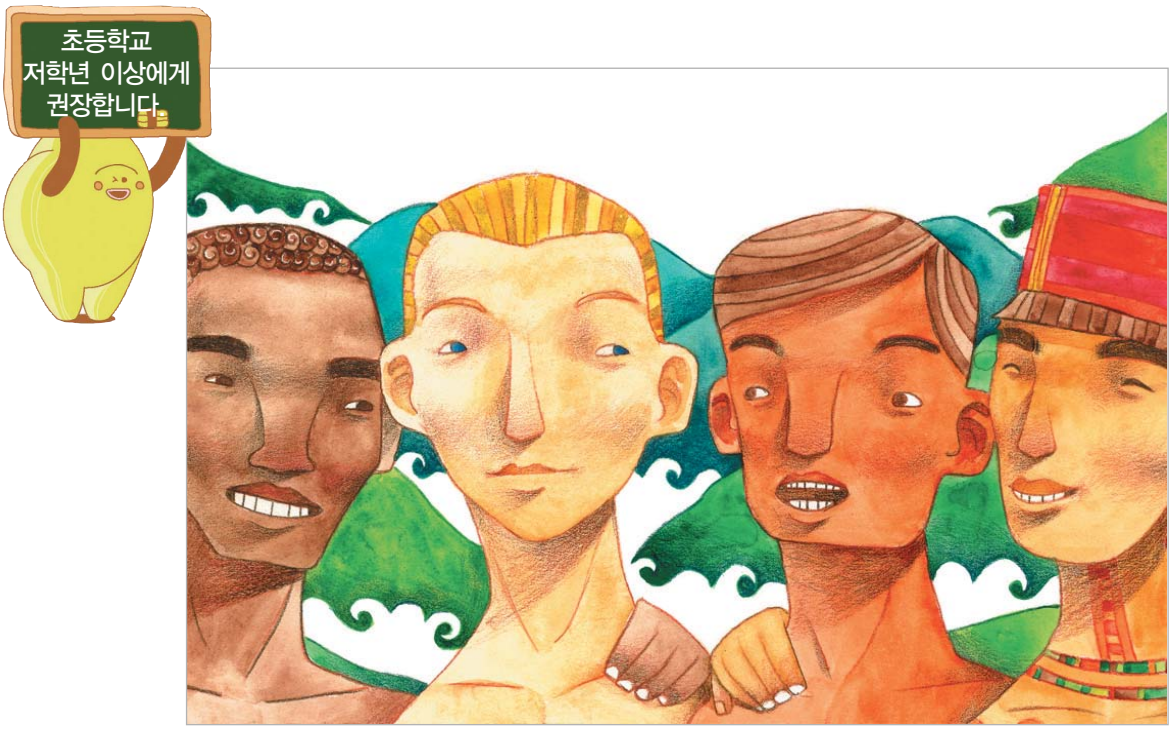
'올리볼리 그림동화'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사건이 일어나는 사례를 찾아 발표해 봅시다.
– 이야기 속 등장인물을 인형으로 만들어 이야기 속 순서대로 세운 후 쓰러뜨리면서 도미노 효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그림 이야기 속에 나온 동물들을 그림 카드로 표현하고, 각 동물의 이름을 필리핀 언어를 표현한 이름 카드로 만들어 친구들과 서로 맞춰보는 놀이를 해 봅시다.

참고 자료

– 마리아 시누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웹사이트:
http://en.wikipedia.org/wiki/Maria_Sinukuan
– 필리핀의 명절과 기념일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http://goo.gl/wUqHO

4) 카부니안은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나



이 동화는요

이 동화는 필리핀 북부의 이푸가오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창조 신화에 관한 이야기로, 카부니안(Kabunian) 신이 어떻게 피부색이 다른 세 종류의 사람을 만들게 되었는가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부니안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는데, 첫 번째 사람을 만들 때는 밤이어서 사람의 피부에 어둠이 스며들어 검은 색이 되었고, 두 번째 사람을 만들 때는 동틀 무렵이어서 하얀 햇빛이 피부에 닿아 하얗게 되었고, 세 번째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햇볕에 내 놓아 갈색 피부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필리핀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카부니안 신이 사람들을 만든 이유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동일한 이유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카부니안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에 비추어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 사람들을 피부색의 차이로 구분하는 인종은 흔히 사용되는 분류이지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구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피부색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바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필리핀이 민족과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나라임을 알게 됩니다.
- 필리핀은 그리토족과 인도네시아인, 말레이, 중국계 화교, 메스티소(미국계, 스페인계 혼혈족) 등의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라는 것을 알고, 피부색에 관계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Q&A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카부니안 신은 필리핀의 어느 민족이 믿는 신인가요?
- 카부니안 신이 사람들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첫 번째 사람의 피부는 왜 검은 색이 되었나요?
- 두 번째 사람의 피부는 왜 하얗게 되었나요?
- 세 번째 사람의 피부는 왜 갈색이 되었나요?
- 이 동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의 다양한 피부색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알아봅시다.

– '이푸가오' 족을 비롯한 필리핀의 소수민족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필리핀에는 아주 먼 옛날부터 자신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온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이푸가오' 족은 필리핀 북부 루손 섬의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으로, 수천 년 전부터 산악지대에 계단식 논을 경작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아티' 족은 필리핀 중부 비사야스의 깔리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먼 옛날에 보르네오 섬에서 도망나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함께 어울려 살아온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티볼리' 족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으로, 이슬람이나 가톨릭교 등 외부 종교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마라나오' 족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라나오' 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으로, 일찍부터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도움말: 『꾸무스따 필리핀』(2011). 국립민속박물관)

– 다민족 · 다인종 국가로서의 필리핀 사회의 인구 구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현재 필리핀인은 90% 이상이 말레이족이지만, 그 외의 10%는 화교와 '메스티소(Mestizo)'라고 불리는 혼혈족입니다. 말레이족과의 혼혈인 메스티소는 중국인, 미국인, 스페인인 및 아랍 혈통의 후손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85% 정도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신봉하지만,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섬에 거주하는 모로족은 이슬람교를 믿고, 도이프가오족 등의 민족은 정령을 숭배합니다. 복잡한 민족만큼이나 언어 또한 많아 70종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잘 어울려 살아가고 있으며, 서구 국가의 오랜 식민 통치 역사와 무역 상인들의 혈통이 섞여 외모와 문화 모두에서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혼합된 모습을 보입니다.

– 사람들을 피부색에 따라 구분하는 인종 개념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사람들을 피부색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오랜 세월동안 이루어져온 관습이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구분이 아니라 인위적인 구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색은 외연적인 특징에 불과하며, 특정 피부색에 대해 문화적 편견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인식과 태도임을 강조합니다.

– 다양한 나라의 인간 창조 신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이어령 김영숙(2011). 『교과서 넘나들기 9: 신화편』(살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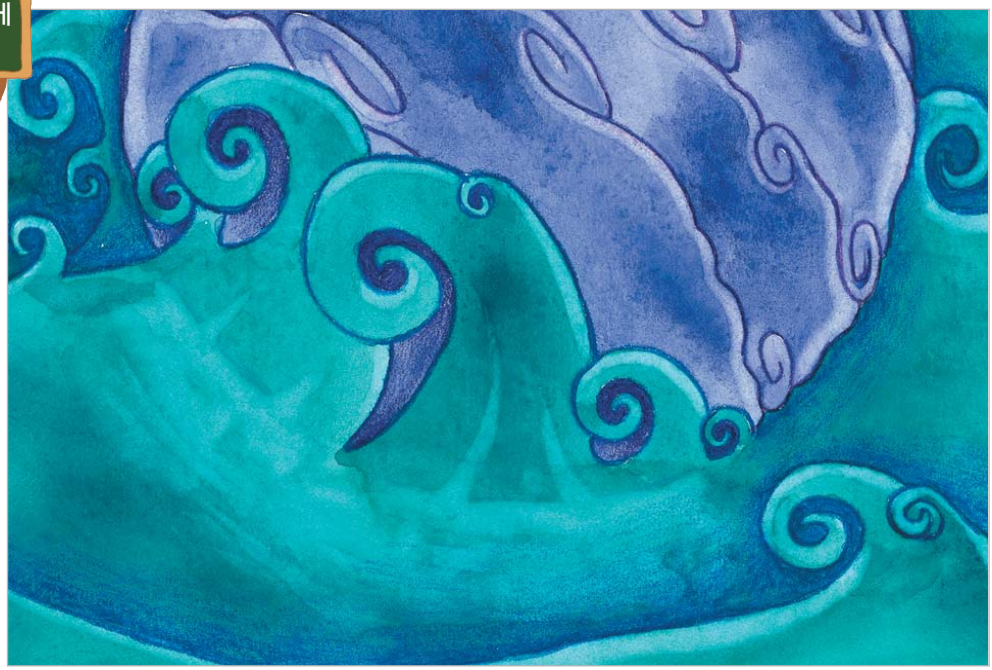
체험해 봅시다.

–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색칠한 후, 헤어스타일, 패션, 피부색, 목소리, 키와 몸무게 등의 외형적 모습과 성격, 사람들과의 관계, 재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장점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일반적으로 내 친구들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예뻐 보이는 사람을 떠올려 그림을 그려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예쁘게 생각되는지 적어 발표해 봅시다.(그 사람의 행동, 성격 등에 초점을 맞추어 봅시다.)
– 다양한 나라와 민족에 전해 내려오는 인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아 비교해 봅시다.
– 이 이야기를 역할극으로 만들어 공연해 봅시다.
– 모둠별로 눈을 감고 세계지도를 펼쳐서 선택한 대륙의 조상을 만들어봅시다.
– 스티로폼 공과 색털 실을 사용해 다양한 머리 모양과 피부색을 만들어 보고, 자신이 만든 조상의 좋은 점에 대해 상상해서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참고 자료

– 『꾸무스따 필리핀』(2011).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의 '다문화 꾸러미' 시리즈의 하나로, 필리핀의 자연환경, 역사, 전통 옷, 음식, 집, 교통수단, 명절과 축제, 음악과 춤, 전통놀이, 필리핀 어린이의 학교생활 등에 대해 생생한 그림 및 사진 자료와 함께 알기 쉽게 소개한 책입니다. 필리핀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사진 카드와 CD-ROM 자료도 함께 들어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이푸가오 족을 비롯한 필리핀의 여러 소수민족들에 대해 소개하는 사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3704-4506/4510, 홈페이지: http://culturebox.nfm.go.kr/culturebox/study/phil5.do)
– 필리핀의 민족과 언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http://goo.gl/prBBN

5) 하늘과 땅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 동화는요

이 동화는 필리핀의 민다나오섬 남쪽에 위치한 사말(Samal) 사람들의 천지 창조 신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말 사람들은 먼 옛날 이 세상이 넓은 바다였고, 바다 속에는 커다란 공이 있었는데, 공 속에는 투한(Tuhan)이라는 신이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공에는 우리가 땅 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 있었는데, 어느 날 투한이 공을 반으로 쪼개어 한 쪽은 하늘로 떠올라 천국이 되고 다른 쪽은 바다에 남아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투한은 천국에 머물렀는데, 땅을 지켜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빛을 펼쳐 누르 무하마드(Nur Muhammad)라는 이름의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누르 무하마드는 땅 위의 유일한 생물이 자기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바탈라(Bathala)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르 무하마드는 투한에게 자신이 바탈라 신이라고 주장하며 대들다가 화가 난 투한에게 번개를 맞아 사라지게 되는데, 누르 무하마드의 흔적이 남은 곳에서 해와 달, 별, 공기와 구름, 새와 벌레들, 온갖 물고기들, 온갖 동물들, 꽃과 식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동화 속 투한이 사람을 만든 이유와 관련하여, 사람이 땅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 나라별로 각자 다른 이야기를 담은 탄생신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문화를 이해합니다.

- 다양한 나라와 민족에 전해 내려오는 천지 창조 신화에 대해 알아보고, 창조 신화가 왜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필리핀의 특성을 압니다.

Q&A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사말 사람들은 먼 옛날 이 세상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다고 믿었나요?
- 바다 속에 있던 공에 살고 있던 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투한이 누르 무하마드라는 사람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투한은 왜 누르 무하마드에게 화가 났나요?
- 누르 무하마드의 흔적에서 무엇이 생겨났나요?

알아봅시다.

– 신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신화는 주로 원시 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지금의 세계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또 사회의 관습과 제도, 타부 등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신화는 해당 사회의 응집력을 위해 이용되는 측면이 있고, 특정 지역의 자연생태학적 조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린이들에게는 태몽이 한 개인에게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 필리핀의 사말 섬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사말은 필리핀의 민다나오섬 다바오 지역에 위치한 섬입니다.

– 바탈라 신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바탈라 신은 필리핀의 고대 타갈로그 신화에 등장하는 최고의 신으로, 세상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신입니다. 바탈라는 하늘인 캅탄(Kaptan)을 아버지로, 바다인 마구아옌(Maguayen)을 어머니로 하여 태어났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각 지역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 속에는 다른 이름을 지닌 신들이 등장합니다. 필리핀 루손 섬 북부의 이푸가오족이 믿는 '카부니안' 신은 타갈로그 사람들이 믿는 '바탈라' 신에 해당합니다. (위키백과 http://en.wikipedia.org/wiki/Bathala 참고)

체험해 봅시다.

- 해와 달, 별, 공기와 구름, 새와 벌레들, 온갖 물고기들, 온갖 동물들, 꽃과 식물들 중 하나를 골라,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상상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를 골라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써 봅시다.(공동 글쓰기)

- '공기와 구름도 생겼어요.'를 타갈로그어로 따라해 봅시다.

Tip!

올리볼리 그림동화의 웹사이트를 참고합니다.

- 어린이들에게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태몽의 내용과 그 태몽이 그 사람의 존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도록 합니다.

Tip!

자기 자신의 창조 신화를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바탈라(Bathala) 신에 대해 알 수 있는 웹사이트:
  http://en.wikipedia.org/wiki/Bathala
- 필리핀의 민족과 언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http://goo.gl/prBBN

6)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생겨났나

이 동화는요

이 동화는 필리핀의 비사야(Vysayas)와 타갈로그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최초의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세상이 낙원이었을 때 동물과 식물은 많았지만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들의 왕이 큰 대나무 위를 기어 다니는 도마뱀을 보고 잡아먹으려고 부리로 찍었는데, 도마뱀 대신 대나무를 찍어 대나무가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안에서 '말라카스(Malakas)'라는 이름의 남자와 '마간다(Maganda)'라는 이름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새는 두 사람을 태우고 낙원의 모든 곳을 돌아다녔는데, 그러다 진주를 닮은 섬들을 보고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말라카스와 마간다가 본 그 섬은 필리핀의 섬들이었고, 그때부터 이들이 여기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남자와 여자는 같은 기원과 중요도를 갖고 태어났으며, 신체적, 생물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존중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 섬에 대해 갖고 있는 자부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필리핀의 자연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나라와 민족에 전해 내려오는 자기 나라와 민족에 관한 신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필리핀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필리핀의 자연과 사람들에 대한 흥미를 가집니다.
- 그림 이야기 속에 나오는 대나무로 할 수 있는 필리핀 전통놀이를 알 수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새는 말라카스와 마간다를 어떻게 발견했나요?
- 말라카스와 마간다가 살고 싶어 한 곳은 어디였나요?
- 왜 말라카스와 마간다에게는 필리핀이 '진주를 닮은 섬'으로 보였을까요?

알아봅시다.

– 말라카스(Malakas)와 마간다(Maganda)가 무슨 뜻인지 알아봅시다.

Tip!

말라카스(Malakas)의 'lakas'는 타갈로그어에서 '강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마간다(Maganda)의 'ganda'는 '아름답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 양성평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 생물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원과 중요도를 갖고 태어나며, 서로 존중해야 함에 대해 강조하도록 합니다.

체험해 봅시다.

- '옛날에 세상은 아름다운 낙원이었다고 해요.'를 타갈로그어로 따라해 봅시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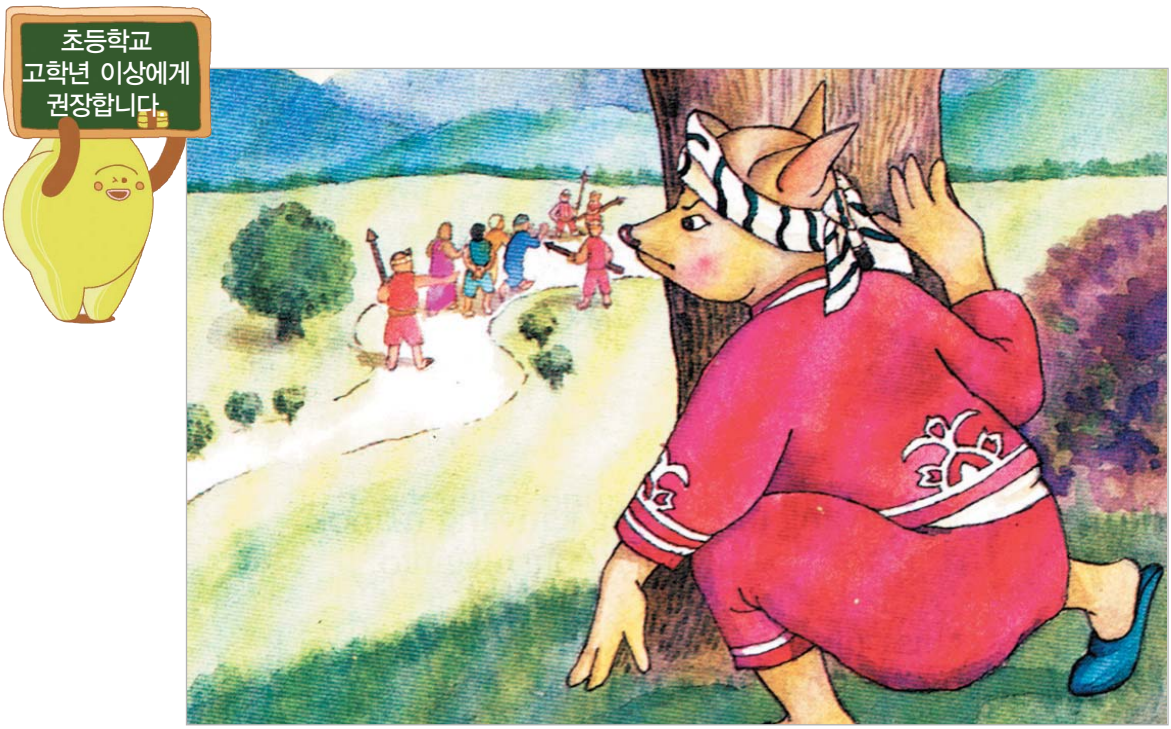
올리볼리 그림동화의 웹사이트를 참고합니다.

-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를 주변에서 찾아보고, 두 가지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는 장점이 무엇인지 발표해 봅시다.(예를 들면, 운동을 잘하는 친구는 여자 친구들 뿐만 아니라 남자 친구들과도 운동을 하면서 서로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 영상을 통해 7,107개의 섬나라인 필리핀을 이해하고, 필리핀의 대표적인 섬(대표적 도시명, 기후, 사람들, 종교등 포현)들을 모둠별로 맡아서 자료를 정리해 발표합시다.
- 그림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필리핀 대나무로 할 수 있는 필리핀 줄넘기 '카당카당'을 직접 해 봅시다.

참고 자료

- 『꾸무스따 필리핀』(2011).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의 '다문화 꾸러미' 시리즈의 하나로, 필리핀의 자연환경, 역사, 전통 옷, 음식, 집, 교통수단, 명절과 축제, 음악과 춤, 전통놀이, 필리핀 어린이의 학교생활 등에 대해 생생한 그림 및 사진 자료와 함께 알기 쉽게 소개한 책입니다. 필리핀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사진 카드와 CD-ROM 자료도 함께 들어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문의전화: 02-3704-4506/4510, 홈페이지: http://www.kidsnfm.go.kr/culturebox)
- 필리핀의 섬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gophil/13379060

7) 필란독과 금 달걀을 낳는 닭



이 동화는요

이 동화는 필리핀의 민다나오 지방에 사는 쥐사슴 '필란독'이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필란독은 꾀 많은 동물로, 욕심 많고 사나운 성격으로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인물인 우스만 영주를 골려주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꿈에서 금으로 만든 커다란 사리마녹 새를 본 우스만 영주는 커다란 사리마녹 새를 만들기 위해 병사들을 시켜 백성들이 갖고 있는 금을 모두 빼앗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우스만 영주의 횡포를 지켜보던 필란독은 닭의 몸에 금을 네 조각 넣고는 닭을 두드릴 때마다 황금알을 낳도록 훈련시켜 우스만 영주에게 가지고 갑니다. 필란독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우스만 영주는 필란독의 말대로 금 달걀을 낳는 닭을 받는 대신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금을 모두 돌려주고 감옥에 가두었던 백성들도 모두 풀어주지만, 금 달걀을 네 번 '낳은' 닭은 이후 금 조각 대신 닭똥만 잔뜩 쌌다고 합니다.

이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욕심 많은 지배자에 대항하는 지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필란독이 등장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찾아보고 필란독이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 필란독이 등장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에 나오는 우스만 영주가 어떤 인물로 생각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도 우스만 영주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백성들이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백성들에 해당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배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스만 영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 우스만 영주는 왜 병사들에게 나라 안의 금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했나요?
- 필란독은 왜 우스만 영주에게 화가 났나요?
- 필란독은 어떻게 닭이 금 달걀을 '낳게' 할 수 있었나요?
- 우스만 영주는 어떻게 필란독이 가져온 닭이 금 달걀을 낳는다고 믿게 되었나요?
- 필란독은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되나요?

알아봅시다.

– 필란독(pilandok)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필란독은 필리핀의 민다나오 지방에 사는 쥐사슴입니다. 숲 속에서 풀과 꽃을 따 먹고 살며 주로 밤에 돌아다니는 야행성 동물로, 낮에는 수풀 속에 숨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지방의 민담에 꾀 많은 동물로 영주를 골탕 먹이는 존재로 자주 등장하는데, 멸종 위기에 놓여 보호받고 있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 우스만 영주(Datu Usman)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옛날 필리핀의 민다나오 지방에는 군대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이 사는 지역을 다스린 '부족장' 혹은 '영주'를 뜻하는 '다투(Datu)'가 있었습니다. 다투는 중세 서양의 봉건 영주와 비슷한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우스만 영주도 다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 사리마녹(sarimanok) 새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사리마녹은 필리핀의 민다나오 지방에 사는 소수민족인 마라나오(Maranao)족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상상의 새입니다. '마녹'은 필리핀 말로 '닭'을 뜻합니다.

– 필리핀의 닭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닭은 세계 여러 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낯익은 동물입니다. 필리핀의 닭은 생김새가 화려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닭싸움을 좋아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사봉(Sabong)'이라는 닭싸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필란독이 사는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을 지도에서 찾아보고 민다나오 섬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Tip!

민다나오 섬은 루손 섬, 비사야 섬과 더불어 필리핀의 가장 큰 세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필리핀의 가장 남쪽에 있는 민다나오 섬은 필리핀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민다나오 섬에는 필리핀에서 가장 높은 산인 아포산이 있는데, 이곳에는 날개 길이가 2.5m나 되는 거대한 필리핀 독수리도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모든 산의 아버지'라 부르는 아포산은 열대 밀림과 호수, 폭포와 화산 분화구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자연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도움말: 『꾸무스따 필리핀』, 국립민속박물관)

체험해 봅시다.

– '필란독에게는 금이 네 조각 있었어요.'를 타갈로그어로 따라해 봅시다.

Tip!

올리볼리 그림동화의 웹사이트를 참고합니다.

– 〈올리볼리 그림동화〉의 웹사이트에서 필란독이 등장하는 다른 동화들을 찾아보고 필란독 캐릭터의 공통점을 말해 봅시다.

Tip!

올리볼리 그림동화의 웹사이트를 참고합니다.

– 그림 이야기 속의 배경인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사는 사람들의 독특한 옷의 모양과 쓰임새에 대해 이해합니다.
– 필리핀의 여러 민족의 옷과 민족의 이름을 인쇄하여 서로 맞게 연결 지어 보고, 재미있는 전통놀이를 체험해 봅니다.

◆ 참고 자료

– 『꾸무스따 필리핀』(2011).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의 '다문화 꾸러미' 시리즈의 하나로, 필리핀의 자연환경, 역사, 전통 옷, 음식, 집, 교통수단, 명절과 축제, 음악과 춤, 전통놀이, 필리핀 어린이의 학교생활 등에 대해 생생한 그림 및 사진 자료와 함께 알기 쉽게 소개한 책입니다. 필리핀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사진 카드와 CD-ROM 자료도 함께 들어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문의전화: 02-3704-4506/4510, 홈페이지: http://www.kidsnfm.go.kr/culturebox)
– 필리핀의 여러 민족들과 그들의 독특한 옷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http://www.kidsnfm.go.kr/culturebox/
– 필리핀의 축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386265/221004242620

8) 원숭이와 거북이

이 동화는요

이 동화는 꾀 많고 힘이 센 원숭이와 힘이 약한 거북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원숭이와 거북이는 강 한가운데에서 폭풍에 뿌리가 뽑힌 바나나 나무를 발견합니다. 원숭이와 거북이는 나무를 반으로 나누어 각자 심기로 하는데, 거북이보다 힘이 센 원숭이는 잎이 달린 윗부분이 더 빨리 자랄 거라고 생각해 윗부분을 가져가고 힘이 약한 거북이는 보기 흉한 아랫부분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원숭이가 가져간 부분은 금방 죽어버리고 거북이가 가져간 부분은 매우 잘 자라 잎도 나고 열매도 열립니다. 거북이가 나무에 올라가 바나나를 딸 수 없다고 하자 원숭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나무 위로 올라간 원숭이는 거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 바나나를 따 먹어버립니다. 화가 난 거북이는 원숭이에게 앙갚음을 하고 거북이에게 당한 원숭이는 거북이를 찾아내 다시 앙갚음을 하려 하지만, 결국 원숭이는 거북이의 속임수에 넘어가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이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은 자신의 힘과 꾀를 이용해 약자가 가진 것을 빼앗는 이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힘센 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원숭이가 거북이에게 한 행동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거북이가 원숭이에게 앙갚음을 한 것에 대해 공감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 원숭이처럼 머리가 좋고 힘이 센 사람들이 거북이처럼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힘센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 이 동화를 한국의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와 비교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바나나 나무를 반으로 나눈 원숭이와 거북이는 각각 어느 부분을 가져갔나요?
- 원숭이와 거북이가 심은 바나나 나무는 어떻게 되었나요?
- 거북이는 왜 원숭이에게 앙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요?
- 원숭이와 거북이 가운데 누구의 행동과 마음에 공감이 되나요? 왜 그런가요?
- 원숭이와 거북이가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알아봅시다.

– 필리핀 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원숭이와 거북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숲과 물이 많은 필리핀에서 숲에 사는 원숭이는 숲을 상징하고, 물에 사는 거북이는 물을 상징합니다. 필리핀에서 원숭이는 머리가 좋은 동물이지만 자신의 좋은 머리를 믿다가 거북이에게 지는 동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래 동화 「토끼와 거북이」에 나오는 꾀 많은 토끼가 원숭이와 비슷한 동물입니다. (도움말: 이자스민 선생님)

– 이 이야기의 저자인 호세 리잘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호세 리잘은 필리핀의 혁명가이자 국가 영웅으로,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지 시절이었던 1861년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문학과 과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적인 소질을 드러냈습니다. 스페인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안과 의사가 된 리잘은 수많은 국가를 여행했고, 10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리잘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어 스스로가 차별받는 식민지 국민이라는 현실을 깨닫기를 바랐고, 그래서 스페인 식민 지배 하에서 고통받는 필리핀 국민들의 모습을 소설로 써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리잘은 필리핀 국민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스스로 통치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도움말: 『꾸무스따 필리핀』(2011), 국립민속박물관)

– 필리핀 원숭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필리핀 원숭이인 '게잡이마카크(Macaca fascicularis)'는 동남아시아가 원주지인 마카크 원숭이의 일종으로 주로 나무 위에서 산다고 합니다. '사이노몰거스 원숭이' 또는 '긴꼬리마카크', '게잡이 원숭이'로도 불립니다.

– 코코넛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코코넛은 코코스 야자나무의 열매로, 갈색의 단단한 껍데기 안에 젤리 같은 과육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육은 그대로 먹거나 기름을 짜는 데 쓰입니다. 코코넛 나무는 넓은 종려나무로 30미터 크기까지 자라며, 4~6미터 길이의 날개 모양의 잎사귀와 60~90센티미터 길이의 작은 잎사귀들을 갖고 있습니다. 코코넛 나무는 열대 지방 전체에 걸쳐 자라며, 코코넛 나무의 모든 부분은 장식이나 요리 등에 대부분 사용됩니다.

체험해 봅시다.

- 힘이 센 동물과 약한 동물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조사해 봅시다.
- 원숭이와 거북이가 서로 도와주는 에피소드를 상상하여 「원숭이와 거북이」의 뒷이야기를 만들어 발표해 봅시다.
- 필리핀의 열대과일의 이름과 모양 카드를 만들어 서로 맞춰보는 놀이를 하고, 바나나를 맛봅니다.
- 필리핀의 대표적 과일인 코코넛시럽을 넣은 필리핀 과일 샐러드를 모둠별로 나누어서 만들어 봅니다.

참고 자료

- 『꾸무스따 필리핀』(2011).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의 '다문화 꾸러미' 시리즈의 하나로, 필리핀의 자연환경, 역사, 전통 옷, 음식, 집, 교통수단, 명절과 축제, 음악과 춤, 전통놀이, 필리핀 어린이의 학교생활 등에 대해 생생한 그림 및 사진 자료와 함께 알기 쉽게 소개한 책입니다. 필리핀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사진 카드와 CD-ROM 자료도 함께 들어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문의전화: 02-3704-4506/4510, 홈페이지: http://culturebox.nfm.go.kr/culturebox/study/phil5.do)
- 필리핀의 독특한 열대 과일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http://goo.gl/uBeAS

3 몽골

01 아리옹 선생님이 들려주는 몽골 이야기

02 동화별 교육 내용

1) 달려라! 망아지
2) 마지막 설인
3) 봉이 일곱 개인 낙타
4) 낙타를 들어 올린 할아버지와 염소를 들어 올린 손자
5) 게르 이야기
6) 용왕의 노란 종이
7) 활 잘 쏘는 에르히 메르겡
8) 부모 없는 흰 낙타
9) 덜컹덜컹! 이동도서관이 왔어요

01 아리옹 선생님이 들려주는 몽골 이야기

아리옹 선생님은 한국으로 유학 와서 공부하다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며 정착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이주여성상담센터, 이주민을 위한 다국어방송 샐러드TV에서 일 했습니다. 지금은 이자스민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몽골은요

'몽골'은 용감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국기의 파란색은 맑은 하늘과 평화를 뜻합니다. 빨간색은 불과 같이 위로 치솟아 발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노란색 문양 중에 양 기둥은 단결하여 요새의 벽처럼 나라를 잘 지키자는 뜻이고, 물고기 두 마리는 항상 눈을 뜨고 나라를 잘 지키자는 뜻이 있어요. 그 위로 달과 태양, 불은 영원한 성장과 풍요, 해와 달은 하늘에 대한 숭배가 담겨 있어요.

몽골인에게 소중한 것은

몽골 남자들은 전통의상을 입을 때 항상 허리띠를 하는데, 그 허리띠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사람 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머리에 쓰는 거니까 모자도 소중하게 생각하죠. 이 두 가지는 집안에서 높은 곳에 올려놓고,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내 것이 아니라도 잘 챙겨주는 풍습이 있어요.

기본 예절은요

우리는 외국인들이 우리말로 '사인베노'하고 인사해 주면 기뻐합니다. 나를 존중하기 위해서 내 말을 배워 인사해 주는구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몽골에서는 집 안에서 휘파람 부는 행동을 싫어합니다. 몽골에 많은 게르는 바람이 세게 불면 위험하잖아요. 휘파람을 불면 바람을 몰고 올지 모른다고 두려워해요. 또 사람의 머리를 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머리는 존중 받는 신체부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대면 무시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격려하는 의미로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열쇠고리를 손가락에 넣고 돌리는 행동도 안 좋아하는데 그런 행동은 가난을 부른다는 뜻이기도 하고 열쇠를 돌리면 도둑을 불러들이거나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또 손수건을 선물하지 않는데, 손수건이 눈물을 닦는 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울 일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손수건 선물은 피하는 편입니다. 모자선물도 피하는데 모자는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것이라 사람을 누른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반면 아래에서 위로 입거나 신는 바지나 신발 선물은 좋아하죠. 몽골에서는 아기 낳기 전에 아기물건을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세상을 보기 전에 쇠사슬을 준비한다.'는 말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 물건을 준비하면 안 좋다고 여겨요.

우리는 트림을 입으로 싸는 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더럽게 여깁니다. 트림이 나올 것 같으면 사람이 없는 데로 가는 것이 예의바른 행동이죠.

우리 음식과 주거방식은

음식은 주로 육류를 많이 먹어요. 가끔 말고기와 마멋고기를 먹기도 하는데, 말고기는 식혀서 차가운 상태로 먹습니다. 늑대고기도 먹긴 하지만 운이 아주 좋아야 늑대를 잡을 수 있으니 흔한 일은 아녜요. 늑대고기를 먹으면 1년 내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개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전통가옥은 게르라고 하는데 시대에 따라 형태가 많이 변화해왔어요. 지금도 게르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최근에는 관리가 힘들어 점차 아파트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60퍼센트 정도가 게르에서 살고 있습니다. 몽골인구의 1/3은 울란바토르에 살고 1/3은 지방 도시에, 1/3은 전통적 방식으로 유목생활을 합니다. 도시인구가 더 많습니다.

명절

설날과 나담축제가 몽골의 큰 명절입니다. 설날에는 부즈(만두) 같이 '닫혀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속에 내용물이 있는 음식을 설날에 같이 열어서 먹는 것에는 새날을 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고기나 염소고기의 종아리와 갈비를 삶아서 잘라 여는 것도 역시 같은 의미지요. 그리고 우리는 설날을 '차강사르'라고 부르는데, '하얀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도 하얀 음식을 주로 먹습니다. 나담축제 때에는 '호쇼르(튀김만두)'를 먹어요. 다진 고기를 넣어 만들죠.

가족, 몽골의 남과 여

우리는 엄마, 아빠, 자녀와 같이 한 집에서 함께 사는 이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떠난 자녀는 딱히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결혼한 후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 좋다고 생각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다들 독립하는 편이죠. 한국은 여자가 시댁으로 들어가든가, 시부모님 집 가까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몽골은 멀리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몽골에서는 남녀가 임금이나 지위에 차별 없이 법적으로 평등해요. 옛날에는 남자들은 밖에서 힘든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한다고 구분했지만, 요새는 맞벌이를 많이 하므로 가사일도 나눠 합니다. 집집마다 다르지만 대개 부모님은 여자는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편하게 일하는 직업을 택해 경제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활동 비중이 높아지며 교사나 공무원 등 여성의 활동범위가 넓어졌고 장관이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직에도 여성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색깔

우리는 파란색을 환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색이라고 느낍니다. 몽골이 워낙 불교국가였기 때문에 녹색은 녹색어머니라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존경해야 하는 색깔로 여깁니다. 녹색어머니는 한국의 삼신할머니처럼 여성을 보살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이 녹색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고 해요. 녹색어머니를 존경하니까 녹색으로 된 상의는 입어도 바지는 안 입지요. 또, 하얀 할아버지는 자연을 보살펴주시는데 이는 남성을 상징합니다. 빨간색은 주의해야 하는 색입니다. 특히 빨간색과 검정색이 같이 있는 것은 장례식이나 불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안 좋다고 봅니다.

아이들 놀이와 생활

제가 어릴 때는 줄넘기, 고무줄놀이를 많이 해요. 남자아이들은 축구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벽에 공을 던지고 받아내기 놀이를 하죠. 순서가 있어요. 바닥에 튕겨 던져 받기, 위로 던져 떨어지는 공 받기 처럼요. 순서대로 다 해내면 이기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놀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티브이를 보거나 게임기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몽골 아이들은 유목하는 집안이거나 도시에 사는 아이라도 부모님이나 친척에게 선물 받은 가축이 있어요. 아이들은 그 중에서 말과 소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양이나 염소와는 달리 말과 소는 겉모습을 보고 자기 것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쓰다듬어주고 특별히 먹이도 더 집어주고 하며 애착을 가져요.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가축을 선물로 주어 사랑을 보여주시곤 해요.

몽골사람이 선호하는 직업은

예전에는 교사와 공무원을 선호했지만 사회가 바뀌면서 요즘에는 짧은 시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은행, 광산업종의 사무원 쪽으로 몰리는 추세입니다. 광산업은 무역 등 외국과의 교류가 많아서 수입이 좋기 때문에 그쪽이 최근에 인기입니다.

한국의 좋은 점, 힘든 점

한국은 관광하기 참 좋아요. 어느 곳을 가도 구경거리를 잘 만들어놓았고 등산하기에도 편하던데요. 산에도 산책로가 잘 설치되어 있으니, 자기 스스로 길을 만들면서 등산해야 하는 몽골과는 다르더라고요. 불편한 점은 도시생활을 하면 자연을 접할 기회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빌딩 숲에서는 하늘도 잘 안보이고 공기도 탁하죠. 아이들 놀이터도 인조잔디나 우레탄이 깔려있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저는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해 말하지 않으면 외국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문화가 달라 부딪히는 일은 좀 있어요. 제가 아이를 낳아 키우다보니 느낀 건데요. 몽골에서는 아기를 기를 때 6~7개월까지 꽁꽁 묶어서 기르거든요. 몽골은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엄마도 밖에서 일하면 아이들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다가 혼자 깨도 놀라지 않고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강보로 싸고 묶으려니 막상 묶을 것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속싸개를 하나 잘라서 묶어놓았는데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묶지 말라 하셨어요. 제가 보고 배운 것은 아기를 묶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묶고 시어머니는 풀고 또 묶고 또 풀고 그랬어요. 웃음.

몽골사람들의 한국 생활

한국에 몽골인이 3만 명 정도 와 있습니다. 동대문의 몽골타운에서 많이 모이지만 그곳은 거주지라기보다 오고가는 지역입니다. 90년대 이주 초기부터 의정부에 몽골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남양주, 포천 지역에도요. 그러니 그 지역에 우리 음식점도 많이 있습니다. 의정부에 많이 살았던 이유는 제가 짐작하기에 그쪽 지형이 몽골과 비슷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제가 사는 영등포에는 몽골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들 중에 한국기업이나 농장에 취업한 이들이 많아요.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도 있고, 유학생도 있죠.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결혼한 이들은 통역사, 번역사, 다문화강사 등으로 취업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한국에 온 계기는요

몽골은 90년부터 한국과 교류하기 시작했는데 친구가 한국에 유학을 와서 한국노래나 문화를 많이 소개해주었습니다. 워낙 몽골 젊은이들은 유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가 김범수 노래를 아주 좋아했어요. 또 친구가 강원도에서 바다를 찍은 사진도 보여줬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한국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친구가 있을 때 두 번 한국에 놀러 와서 부산과 강원도 지역을 여행했어요. 잘 닦인 도로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왔는데 남편과 만나 사귀다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02 동화별 교육 내용

1) 달려라! 망아지

이 동화는요

에르험 척트는 초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소년입니다. 이른 아침 개울가에서 물을 길어오는 엄마에게 달려가면 엄마는 '이 세상에 엄마와 아기처럼 굳게 맺어진 사이는 없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르험 척트는 송아지 꼬리를 보고 날씨를 알아맞히기도 하고, 막대기를 들고 염소를 쫓기도 합니다. 에르험 척트는 작년에 아버지에게서 이마에 하얀 얼룩무늬가 있는 밤색 망아지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 망아지는 올해 두 살이 되었지만, 아직 길들여지지 않아 사납기만 합니다. 에르험 척트는 친구들이 나무울타리를 타고 놀 때에 그 망아지를 훈련시킵니다. 나담 축제가 돌아오자, 가족들은 집을 볼 사람을 정하는데 올해는 형이 집에 남기로 합니다. 나담 축제에서는 말타기, 활쏘기, 씨름 대회를 합니다. 에르험 척트와 같은 어린 소년들도 망아지를 타고 대회에 나섭니다. 결승선에 선 사람들은 어느 망아지가 가장 먼저 나타날지 궁금해 하며 기다립니다. 그때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에르험 척트가 탄 망아지가 일등으로 달려 나옵니다. 에르험 척트의 망아지가 어미말의 울음소리를 듣고 쏜살같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망아지는 어미 말에게 달려가 허겁지겁 젖을 먹습니다.

이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은 몽골의 유목문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고, 끈끈한 모정과 가족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몽골의 유목문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나담축제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모정과 가족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엄마와 아이의 사랑을 몽골 가족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 몽골의 독특한 축제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 몽골의 5대 가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몽골 사람들과 말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어린이에게 가축을 선물로 주는 풍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몽골 어린이들의 말달리기 대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몽골의 전통의상(모자/신발/옷)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몽골의 가위바위보는 한국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문화권에 따라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 할 통과의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에르험 척트는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 에르험 척트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선물로 받았나요?
- 망아지를 훈련시킨 에르험 척트와 가족들이 가게 된 축제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에르험 척트의 망아지는 어떻게 일등을 하게 되었나요?

알아봅시다.

– 나담축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나담(Nadam)축제는 몽골 최대의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오래전부터 몽골 민족이 즐겨 온 축제로, 울란바토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됩니다. 매년 7월 11일부터 7월 13일 사이에 열리는데, 7월 11일은 몽골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나담은 원래 경기, 게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에링 고르방 나담(ERING GURVAN NADAM)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경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경기는 '씨름, 활쏘기, 말달리기'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몽골 사람들 역시 나담 축제를 열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축제에 참가하는 등장인물들은 전통의상을 갖춰 입고 참가함으로써 나담축제의 의식성을 보여줍니다. 나담 축제를 통해 한국 사람들은 몽골의 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고 몽골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며 어울릴 수 있습니다.

– 한국에 살고 있는 몽골 어린이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한국에 살고 있는 몽골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몽골학교' 교장 선생님은 "몽골인들은 유목민적인 성향이 강해 부모가 먼저 한국에 와서 1~2년 일한 뒤 반드시 아이들을 데려와 같이 산다."고 설명합니다. 아래의 글은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인터뷰한 글입니다.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 딤치크(14)는 대뜸 "한국 아이들이 싫다."고 말했다. 한국에 온지 1년 정도 된 딤치크는 현재 반장이다. "키도, 성격도, 공부도 어디 하나 부족한 데 없는 아이"라고 선생님이 귀띔 해 준다.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아이지만 한국 아이들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가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겪은 나쁜 경험들 때문이다. "몽골 말로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면 한국 애들이 기분 나쁘다며 시비 걸어요. 그러다 몇 번 싸우기도 했죠." 딤치크는 지금도 화가 덜 풀린 듯 목소리가 비장하다.
어르길볼트(12)는 같은 동네에 사는 단짝 친구다. 한국에 온지 2년 반 째다. 딤치크 보다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고참이지만 여전히 "한국 학교는 절대 싫어요."라고 말한다. 어르길볼트는 동네에 한국 친구가 4명이나 있다. 어르길볼트는 "언젠가 몽골 친구 1명이 세 명에게 둘러싸여 맞는 것도 봤다."며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속상해 한다. 날다람쥐처럼 공중 덤블링도 잘하는 어르길볼트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똑같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아이들도 다른 나라에 가면 불쌍해 질 수 있잖아요."라며 제법 어른스럽게 말했다.
가수의 춤을 잘 따라 추는 머기(11)는 한국말을 제일 잘 했다. 그런 머기도 한국인 중3 학생들이 자신을 보며 "뭘봐, 새끼야."라고 말할 때가 제일 기분 나쁘다고 한다. "좋은 말도 많은데 한국아이들은 '새끼야'는 기본, '임마', '맞을래' 등 험악한 말을 많이 한다."고 오트군도야 선생님은 안타까워했다. 그래도 머기는 "한국에서 군대도 가고 싶고, 축구선수도 되고 싶다."고 소망을 밝힌다. 머기는 새벽 6시 30분에 나와 버스 한 번, 지하철 두 번을 갈아타는 2시간 여의 통학길이 즐겁기만 하다. 하지만 머기의 바람과는 달리 부모님은 몽골에서 조그만 아파트를 살만큼 돈을 모으면 한국을 떠날 생각이다.
〈중략〉
몽골 여성들은 춤과 노래를 즐기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점심시간 이후 쉬는 시간에 여자아이들은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춘다. 우리나라 유행가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든다.
신나게 춤을 추는 우렁거(10)는 마음 속 깊은 곳에 상처를 안고 살고 있다. 잠시 다녔던 한국 학교에서 겪은 악몽 때문이다. 어느 날 어떤 남자애가 계단에서 미는 바람에 굴러 떨어져 이빨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몽골바보, 몽골냄새가 나는 너희들은 빨리 돌아가라."며 책상 가운데 선을 긋고 '왕따'를 당했던 기억도 우렁거를 괴롭힌다. 우렁거는 공연히 엄마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기 싫어 마음속으로만 삭히다 일기를 읽은 언니가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하는 바람에 몽골학교로 옮길 수 있었다. 그 뒤부터 밝은 표정을 되찾아 지금은 상처가 많이 아물었다.
아노델도 11살 아이로는 힘든 경험을 했다. 아버지가 홀로 한국에서 돈을 벌던 중, 고된 일에 만성신부전증이라는 병을 덜컥 얻게 된 것이다. 아노델과 할아버지는 '마지막 상봉'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다행히 한 교회의 도움을 얻어 지금 경기도 인근 쉼터에서 요양 중이다. 아버지의 병 때문에 의기소침했던 아노델은 이후 몽골학교가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다른 몽골 여자어린이들과 생활하면서 많이 달라졌다. 얼굴표정도 밝아졌고, 학업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다.
한금섭 교감은 "우렁거나 아노델처럼 아이가 변해갈 때 느끼는 보람은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단속을 피해 얼마 전 몽골로 돌아간 어처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공부도 잘 하고 착했죠. 열심히 공부해서 성인이 되면 꼭 주한몽골대사로 온다고 약속했는데…."
몽골아이들은 광진구청이 운영하는 '사랑의 복지관'에서 주 1회 실시하는 컴퓨터 수업을 가장 좋아했다. 아이들은 "몽골에는 없는 수업이라서 좋아요."라며 목청을 돋운다. 물론, 몽골어와 몽골 수학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이다. 몽골 수학은 아이들이 귀국할 때를 대비한 수업이다. 몽골에서는 수학과목의 교과진행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기준으로 3년 정도 빠르기 때문이다.
〈중략〉
청소년에 대한 몽골사람들의 전통적 인식도 더불어 풀어야 할 문제다. 몽골에서는 15세 정도면 대개 취업을 한다. 16세부터는 결혼도 가능하다. 팔다리가 긴 북방계 민족인 몽골 아이들은 15세만 되도 우리나라 17~18세 아이처럼 성숙해 보인다. 몽골사람들은 이 때문에 아이들이 15세 가량이 되면 취업전선에 내보낸다. 하지만 이런 생활관습이 때로는 악용되기도 한다. 한 15세 여학생의 경우 몽골인 어머니가 일을 다니고 오빠(16)도 주유소 등을 전전하며 돈을 버는데, 한국인 아버지는 집에서 그냥 쉬고 있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한,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참고: http://weekly.donga.com/3/all/11/70141/1)

– 몽골의 5대 가축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몽골의 유목 생활에서 가축은 중요한 재산이며, 말은 5대 가축 중에서도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몽골에서는 특별한 날에 가축을 선물로 주는데, 이는 유목인으로서의 문화적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 몽골유목민들이 기르는 가축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가축인 말, 소, 양, 염소, 낙타를 말합니다. 유목민들은 이 5대 가축을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에 활용합니다. 고기와 젖은 음식으로 먹고, 털은 겨울을 나는 의복이나 게르를 덮는 펠트, 가죽은 전통신발, 가방 등을 만들며, 말과 소, 낙타는 이동할 때 이동수단으로, 말총은 게르를 묶는 끈이나 악기의 줄,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복사뼈는 샤가이라고 하여 놀이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배설물을 잘 말려서 겨울에 연료로 사용하는 등 가축의 모든 부분을 버리는 것 없이 최대한 활용합니다.

– 몽골의 가위바위보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몽골어로 가위바위보는 '호로다흐'라고 합니다. 몽골의 가위바위보는 다섯 손가락을 모두 사용합니다. 가위바위보 놀이의 기본원칙은 절대승자는 없고 순환한다는 것인데, 몽골의 가위바위보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니크 호이링 고로와 이!' 하면서 다섯 손가락 중 하나를 내밉니다. 첫째손가락은 둘째손가락을, 둘째 손가락은 셋째손가락을, 셋째손가락은 넷째손가락을, 넷째손가락은 다섯째손가락을, 다섯째손가락은 첫째손가락을 이기는 방식으로 순환합니다. 만약 순환의 순서가 아닌 손가락을 내게 되면 다시 시작합니다. 즉, 한 사람은 첫째손가락, 또 한 사람은 넷째손가락을 내면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면 순환의 순서에 맞게 될 때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즉, 한 사람은 첫째손가락, 한 사람은 둘째손가락, 한 사람은 넷째손가락과 같은 식으로 다양하게 내면 승부는 나지 않고 계속 하게 됩니다.

체험해 봅시다.

– 한반도의 역사에서 몽골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시대 순으로 정리하여 봅시다.
– 몽골에서 엄마가 아기에게 들려주는 자장가 '부베이부베이'를 들어보고, 그 속에 담긴 뜻과 들은 후의 느낌을 시화로 표현해 봅시다.
– 몽골의 축제 중에 나담축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운동장에 나가 몽골의 나담축제를 모형말을 이용해 즐겨봅니다.
– 몽골 축제 속의 여러 가지 체험들을 그림으로 인쇄 재구성하면서, 나만의 축제를 만들어 봅니다.
– 몽골의 가위바위보를 배워봅니다.

참고자료

– 몽골 나담축제 동영상
https://youtu.be/mzG2HRv6EBM
– 몽골의 축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http://www.mongolcenter.org/
– 샘에서 물을 긷는 요즘 몽골 여자 어린이들의 모습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http://tpariss.blog.me/10023963530
– 한국에 살고 있는 몽골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몽골학교'
http://www.mongolschool.org
– 김현숙(2008), 『지구마을 어린이 리포트』, 한겨레아이들.

2) 마지막 설인

이 동화는요

노인과 어린 아이가 포함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몽골의 눈 덮인 험난한 산을 지나가던 중 한 아이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어디선가 기이한 모습의 설인이 나타나 아이를 구해 줍니다. 설인은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점점 더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아이를 할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데려다 준 후에도 아이의 집에 금은보화를 가져다주며 도와줍니다. 설인의 도움으로 부자가 된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설인을 이용해 큰돈을 벌 계획을 꾸밉니다. 부자에게 사로잡힌 설인은 할아버지와 아이의 도움으로 탈출합니다. 부자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이용해 계략을 꾸며 설인을 유인해 내고 결국 설인은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힘 센 설인은 줄을 끊어 버리고 탈출하고 그 이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몽골의 '알타이 산맥'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외모로 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몽골의 '알타이 산맥'에 대해 알아보고 몽골 문화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진 설인은 결국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설인'과 같이 따뜻한 내면을 가졌지만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설인은 힘이 센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부자를 혼내 줄 수도 있었지만, 설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옳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해 봅시다.
- 상상 속의 설인에 대한 몽골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 알타이산맥에 대한 몽골인들의 외경심을 알 수 있습니다.
- 알타이산맥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날씨를 알 수 있습니다.
- 몽골의 전통집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 나라마다 낯선 존재가 금은보석을 갖다 주는 옛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유목생활에 필요한 가축으로서 낙타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등장인물들이 입은 전통의상(전통모자/전통신발/전통옷)과 변발 풍습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추운 겨울, 왜 험난한 산맥을 넘어가야 했나요?
- 설인의 모습(이마는 튀어나왔고 코는 돼지 코에 목은 짧고 눈은 불같이 빨갛다)과 설인의 행동(위기에 처한 아이를 구해줌)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나요?
- 설인을 잡아서 큰 돈을 벌고 싶어 한 부자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나요?
- 부자는 설인이 다시 나타나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나요?
  (아이를 산으로 데려가 때려 울게 만든 후 설인이 나타나도록 유인함)

알아봅시다.

– 몽골 아기의 외출 모습을 알아봅시다.

http://blog.daum.net/jcysheep/1501549

Tip!

몽골에서는 아기들을 꽁꽁 싸매 두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타고 이동하는 유목 문화에서 어린 아기를 안전하게 데리고 다니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제주' 지역에서는 아기를 바구니에 넣어두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아기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겠지요.

– 몽골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넓은 평원, 높은 산맥, 사막 등이 있는 반면 바다와 면해 있지 않습니다. 몽골의 국토는 한반도의 7배 정도이고, 대략 동저서고(東低西高)의 지형입니다. 몽골은 크게 5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중앙지역: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한 평탄한 지형입니다. 나지막한 산, 구릉, 강(하천)의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몽골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② 동부: 칭기즈칸의 고향인 헨티 지방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평야지대로서 대규모의 밀재배 등 농업분야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③ 서부: 해발 3000M 이상의 산과 알타이 산맥을 중심으로 험난한 지형입니다.

④ 남부: 고비사막을 중심으로 한 사막지역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그 크기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고비사막은 중국국경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고비사막 남쪽은 과거에는 몽골의 영토였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영토에 편입되었고 내몽고로 불리기도 합니다.

⑤ 북부: 타이가 침엽수림지역으로 많은 목재가 생산되는 지역으로서 홉스골 호수지역(정확하게 말하면 몽골의 북서지방)은 몽골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주변에는 '브리야트' 라는 민족이 살고 있는데, 과거에 몽골민족에 포함되었던 민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몽골북부지역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러시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44195&cid=51670&categoryId=51672#api)

체험해 봅시다.

- 내가 좋아하는 사람/사랑하는 사람/존경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모아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최대한 많이 적어 봅시다. 사람들은 외모나 옷차림 등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몽골의 계절별/지역별 사진을 모아 '원기둥 모양의 앨범'을 만들어 봅시다. 몽골의 다양한 자연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을 소개해 봅시다.
- 몽골의 산악지대뿐만 아니라 눈이 내린 몽골 도시, 마을의 풍경이 담긴 사진을 찾아봅시다. 사진을 모아 '병풍책'을 만들어 보고 느낀 점을 짧은 글로 적어 봅시다.
-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상상하는 설인의 모습을 찾아 봅시다.
- 내가 생각하는 설인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참고자료

- 주 몽골 한국대사관: 몽골의 개관 및 몽골과 한국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http://mng.mofa.go.kr/
- 몽골교민신문: 몽골에 살고 있는 교민들의 소식을 중심으로 몽골의 현대적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mongolkorea.com/
- 몽골학교: 몽골어 강좌, 몽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개괄적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mongolschool.com/02ms-frame-a2.asp
- 몽골 국립공원 테를지와 그곳에 사는 어린이 마부들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http://rubygarden.tistory.com/769(개인 블로그)
- MBC 스페셜 〈알타이의 외로운 생존자들〉
  : 알타이 북서쪽 바위산에 서식하는 눈표범과 그 밖의 동물들, 그리고 자연과 가축을 벗 삼아 살아가는 몽골 유목민들을 1년간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
- 알타이 지역 자연 경관과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뉴스 동영상(약 1분)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100819163007502&p=yonhap
- 한국인 기자 남편과 몽골 이주 여성 아내가 운영하는 블로그 '솔롱고스 안단테'
  http://dino999.idomin.com/
- 몽골 방식으로 외출 준비를 한 아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jcysheep/1501549

3) 봉이 일곱 개인 낙타

이 동화는요

몽골의 평원 지역에서 전통적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몽골의 가족들은 비가 내리면 실내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빠는 소가죽을 손질하고, 엄마는 말안장을 만들고 형과 누나는 낙타의 코뚜레를 손질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일을 하는 동안 밖에 나갈 수 없는 '나'는 낙타를 그리면서 그 낙타를 타고 동화 나라로 가는 상상을 합니다. 상상 속에서 봉이 하나인 낙타는 봉이 일곱 개로 늘어나기도 하고, 낙타에게는 없는 뿔이나 지느러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날개까지 얻은 낙타는 동화나라로 날아갑니다. 동화 나라에는 일곱 빛깔 무지개로 만든 궁전도 있고 눈부신 황금기둥 위에는 보석으로 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동화나라가 고비사막이 아닐까 상상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나에게 아빠는 봉이 일곱 개나 되는 낙타는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상상 속에서 만난 아기 낙타를 생각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 동화를 통해 몽골 사람들에게 '낙타'라는 동물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 따라 상상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몽골과 같은 평원 지역에서 '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몽골의 초원에 있는 전통 집 게르의 모습과 게르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몽골의 유목 문화에서 '낙타'라는 동물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몽골의 자연환경과 이에 맞춰 생활하는 몽골인들의 삶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 따라 상상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몽골의 초원에서 비가 올 때 유목민들이 하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 몽골의 유목민들이 낙타를 타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어린이에게 가축을 선물로 주는 풍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무지개에 대한 몽골사람들의 동경심을 알 수 있습니다.
- 한국을 무지개라고 부르는 몽골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날씨에 따라 사막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초원에서 생활하는 몽골 유목민의 늑대에 대한 경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 낙타의 모습에 대한 설화를 알 수 있습니다.
- 변발하는 몽골 풍습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가 내리는 동안 가족들은 어떤 일을 하였나요?
- 날개를 단 낙타가 간 곳은 어디인가요?
- 동화 나라의 모습은 어떠하였나요?

알아봅시다.

– 몽골 지역의 기후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몽골은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여름이 짧고 겨울은 길고 춥습니다. 1년에 구름이 없는 날이 257일이나 되어 항상 맑고 높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몽골에서는 비가 내리는 날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몽골에는 이상 기후현상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몽골의 8월말은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최근에는 기온이 올라가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 몽골의 구백기

Tip!

몽골에는 '구백기'라고 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이 깃발을 몽골 국기보다 더 신성시 여긴다고 하는데, 전쟁을 상징합니다. 몽골인들은 이 기에서 소원을 빌고 영험한 기운을 얻는다고 합니다.
몽골사람들이 즐기는 '나담축제'에서도 이 '구백기'는 첫 머리를 장식한다고 합니다. 칭기즈칸 군대의 행차를 재연하는 기마대 병사가 구백기를 들고 웅장한 행진곡에 맞추어 퍼레이드를 펼치기도 하고, 몽골 전통 씨름인 '버흐'의 승자는 독수리 날개춤을 추면서 이 구백기를 한바퀴 돌게 된답니다.

– 쌍봉낙타와 단봉낙타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다른 동물에 비해 물을 먹지 않고도 오래 버틸 수 있어서 '사막의 배'라고 불리는 낙타는 혹이 두 개인 쌍봉낙타와 혹이 하나인 단봉낙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쌍봉낙타는 단봉낙타보다 다리가 짧으며 발 또한 더욱 짧고 단단합니다. 등에 두 개의 혹을 가지고 있고 지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에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먹이가 부족하여 지방을 소모해버리면 혹이 작아지고 많은 경우 한쪽으로 치우치며, 영양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복귀됩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고비사막, 몽골, 알타이산맥 등지에서 옛날부터 사육되어 왔으며 야생은 투르키스탄 동부와 고비사막 중앙부에 극히 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쌍봉낙타는 현재 사람이 타는 일 말고, 고산지대에 물건을 나르는 일, 터키에서는 낙타싸움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단봉낙타는 쌍봉낙타보다 더 날씬하고 긴 다리를 가지고 털이 짧습니다. 아라비아와 북아프리카에 분포하고 있었고, 기원전 4,000~2,000년 사이에 아라비아 중앙과 남부지역에서 가축화 되었습니다. 현재는 소말리아, 수단, 모리타니에서 가장 중요한 가축이 되었고, 아프리카동부, 아라비아의 건조한 지역에서 유즙과 고기를 생산하는 동물로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체험해 봅시다.

– 상상 속 동물 한 가지를 자세하게 그리고 오려 '상상 속 동물 모빌'을 만들어 봅시다.
– '우리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상상의 장소'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설명해 봅시다.
– 몽골의 '쌍봉낙타'에 짐을 싣고 이동하는 몽골 사람들이 모습을 찾아보고 사진을 오리거나 그림으로 그린 후, 이를 모두 이어 붙여 거대한 행렬을 꾸며 봅시다.
– 『어린왕자』에 나오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과 같은 점, 다른 점을 알아봅니다.
–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떤 낙타를 그릴지 상상해서 그려보고 이야기를 만들어봅니다.

참고자료

– 구백기 이미지: http://blog.naver.com/s6604?Redirect=Log&logNo=30061532009

4) 낙타를 들어 올린 할아버지와 염소를 들어 올린 손자

이 동화는요

젊었을 때에 낙타를 들어 올릴 정도로 힘이 센 할아버지의 손자인 '토모르'는 어린이 씨름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토모르는 첫 번째 경기에서 지고 할아버지는 토모르를 이긴 어린이에게 사탕을 사주고 칭찬해 줍니다. 토모르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지만 할아버지는 한바탕 웃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방학이면 토모르를 시골로 데려가 여러 동물과 어울려 지내도록 합니다. 도시에서 지내다가도 토모르는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골의 생활을 떠올려봅니다. 오천 번이나 저으면서 만드는 몽골 음식 '아이락'의 맛이나 집과 물건을 모두 싣고 옮겨 다니는 생활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토모르는 점점 더 힘이 솟는 기분을 느낍니다. 토모르는 씨름 선수들이 경기 전에 하는 독수리 날개춤을 추며 힘을 얻어 염소를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토모르의 이런 모습에 기뻐하며 마치 씨름대회에서 이긴 것처럼 독수리춤을 춥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동물을 돌보고 키우면 좋은 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웃어른들이 전해주는 지혜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할아버지와 손자의 사랑을 몽골가족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 몽골의 씨름과 농촌문화, 특히 몽골의 동물을 배우면서, 자연환경과 기후에 따라 어떤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친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할아버지가 힘이 세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 할아버지는 토모르에게 어떤 일들을 시켰나요?
– 토모르가 염소를 들어 올리자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였나요?

알아봅시다.

– 몽골의 전통 씨름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몽골의 전통 씨름은 '브흐(Buh)'라고 합니다. 씨름은 말타기, 활쏘기와 함께 몽골의 전통 3종 경기로 칭기즈칸 시대부터 이어져온다고 합니다.
규칙은 비교적 간단하여 상대의 신체 부위가 땅에 먼저 닿도록 쓰러뜨리면 이깁니다.
경기 시작 전 선수는 독수리춤을 추며 자신의 용맹함을 보이고 모자를 벗은 후 경기장에 섭니다. 몽골씨름의 복장은 화려합니다. 전통문양이 수놓아진 비단 반바지 '쇼닥'에 카디건처럼 생긴 긴팔 상의 '죠덕'을 입습니다. 장식이 달린 가죽 장화인 '구탈'도 신습니다. 한국의 전통 씨름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샅바는 없고 모래판이 아니라 초원이나 넓은 광장에서 합니다. 체급 구분이나 시간제한이 없어서 승부를 보기 위해 몇 시간 넘게 경기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우승한 횟수에 따라 칭호가 달라지는데, '매(5번), 코끼리(7번), 사자(전승)'가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인'은 2년 연속 우승한 선수에게 붙는 칭호로 최고의 찬사라고 합니다.
몽골에서 씨름의 인기는 스페인의 투우 인기를 능가할 정도로 대중적입니다.
(참고: http://blog.daum.net/jcysheep/12328591)

– '독수리춤'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독수리춤은 몽골 씨름 경기를 시작하기 전 씨름 선수가 추는 춤입니다. 또 씨름에서 승리하고 나면 승자를 표시하는 모자를 쓰고 이 춤을 춥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독수리'는 말보다 귀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도 사냥감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집보다 큰 동물도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독수리를 4~5년 정도 훈련시킨 후 사냥에 이용하다가 3년 정도 지난 후에는 다시 초원으로 돌려보내준다고 합니다. 독수리를 오래 잡아놓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몽골 사람들이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터득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험해 봅시다.

- 염소나 양처럼 동물을 돌보는 어린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모아 붙이고 사진 속 어린이에게 어울리는 말주머니나 생각주머니를 적어 봅시다.
-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려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적어 봅시다.
- 방학 동안 하고 싶은 일을 10가지 정하고 가장 하고 싶은 순서대로 목록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화나 그림을 넣어 표현해 봅시다.
- 몽골 부흐와 한국 씨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해 보고, 두 명씩 짝을 지어 직접 해 봅니다.

참고자료

- 몽골의 전통 씨름 동영상입니다. 한국인들이 여행 중에 찍은 동영상이고 유쾌한 한국어 해설이 나옵니다. : http://vimeo.com/30135368
- 몽골의 전통 씨름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latino.egloos.com/4725790
  http://blog.daum.net/jcysheep/12328591
- 몽골의 씨름에 대해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goo.gl/y5EAD
  http://dino999.idomin.com/484
- 몽골의 독수리춤 동영상 :
  https://youtu.be/7HGN8dNhblg

5) 게르 이야기

이 동화는요

몽골 사람들의 전통 가옥을 '게르'라고 부릅니다. 몽골 사람들은 이 '게르'라는 집에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담았답니다.

어느 지혜로운 노인은 일곱 명의 아들에게 튼튼한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 말해 줍니다. "산처럼 든든한 담, 태양을 향한 창문, 햇살처럼 펼쳐진 뼈대, 안개처럼 두툼한 벽, 구름 같은 지붕, 바람을 막아주는 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 지은 집이 바로 '게르'입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은 집에 관한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간 후 일곱 형제는 집을 잘 돌보지 않고, 결국 집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서야 일곱 형제는 '집에 관한 아버지의 유언'을 되새기고, 다시 모여 안전하고 편안한 '게르'를 만듭니다.

어린이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에 담긴 지혜를 이해하고,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몽골의 전통 가옥 '게르'의 생김새와 '게르'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몽골의 다양한 가옥 형태에 대해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 '작지만 소중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 '협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지혜로운 노인이 일곱 형제에게 말한 집은 어떤 집인가요?
- 게르를 지을 때에 필요한 일곱 가지는 모두 무엇인가요?
- 지혜로운 노인이 일곱 형제에게 남긴 유언은 어떤 내용인가요?
- 지혜로운 노인이 돌아간 후, 집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일곱 형제가 마지막에 깨닫게 된 사실은 무엇일까요?

알아봅시다.

– 몽골의 전통 가옥 '게르'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게르(Ger)'는 몽골의 전통 가옥입니다. 게르는 유목생활과 극심한 기후 변화에 알맞게 발달한 집입니다. 정리하고 다시 세우기가 간편한데 옛날에는 마차 위에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르는 나무로 된 뼈대와 펠트천으로 된 천막으로 만들어지는데 마치 거대한 우산 모양의 지붕에 벽면으로 둘러싸인 모습과 비슷합니다. 벽면 하나는 약 10~15개의 나무막대로 구성되는데, 아코디언처럼 같이 묶어서 이동할 때에 쉽게 접고 펼 수 있습니다. 게르의 크기는 이 벽면의 크기로 결정이 되는데, 대개 5개의 벽으로 만들어집니다.
게르는 둥글고 납작한 형태로 센 바람에도 잘 견뎌내고, 양털로 만든 펠트천은 빨리 건조됩니다. 도시에서는 현대적 주택이 생겨나면서 게르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휴가 기간에는 게르를 찾아 전통적인 생활을 즐긴다고 합니다.

– 몽골의 다양한 가옥 모습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몽골 사람들이 모두 게르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르'는 전통적인 주택 형태이지만 현대적인 모습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고, 아파트 못지않게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르가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경향도 있지만, 게르 외의 다양한 주택 형태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고층 아파트는 물론이고 현대적인 주거용 건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게르'의 실내 모습을 알아봅시다.

Tip!

실내의 생활공간은 약 16~18평방미터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천정에는 구멍이 있어서 안의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출입문은 항상 태양이 있는 남쪽을 향해 만듭니다. 게르 중앙에는 화로를 두는데, 난방 목적 외에도 조상과 이어진 끈을 의미합니다. 화로를 손상시키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고 가장에 대한 모독 행위로 간주됩니다. 화로 위에는 돌 3개를 올려 두는데, 가장, 아내, 며느리를 의미합니다. 게르는 화로를 중심으로 남자들의 공간, 여자들의 공간으로 나누어집니다. 남자들의 공간은 서쪽인데, 말안장이나 재갈 등을 보관합니다. 여자들 공간은 서쪽으로 부엌살림을 둡니다. 그러나 이 두 공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공간은 입구 맞은 편 북쪽 벽에 있는 '호이모르'입니다. 이곳에는 집주인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나 상장, 무기, 모린 후르(Morin Huur, 악기의 일종)와 말굴레 등을 보관합니다.

게르에는 기능이나 요소에 있어서 철학적 사상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연기는 천정에 나있는 구멍을 통해 나가는데 이곳은 또한 빛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옛 전설에 따르면, 이 구멍을 통해 몽골인의 조상 어머니인 알란구아의 게르 안으로 한 남자가 들어와 3명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게르는 화로를 통해 난방을 하는데, 땔감으로는 나무, 동물의 말린 똥을 사용합니다. 게르는 금방 따뜻해지고 온기가 오래 보존된다고 합니다.

– 몽골의 전통 의상 '델(Deel)'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몽골에서 평상복으로 입기도 하고, 명절 때 입기도 합니다. 기본 형태는 보통 한 겹으로 된 길고 품이 넓은 가운 형태이며, 비단 장식을 한 띠로 허리 부분을 묶습니다.

델은 지위나 신분, 계절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승려들은 노란색 델에 어깨에 망토를 걸치고, 유목민들은 평범한 델을, 봉건 귀족들은 멋을 부린 모자와 비단 조끼를 입습니다. 봄 · 가을에는 얇은 안감을 댄 '테를렉'을, 여름에는 안감을 대지 않은 원피스 모양의 '단델'을, 추운 겨울에는 양 가죽이나 정제한 솜으로 안감을 넣은 것을 입는데, 계절에 따라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색깔도 평상시에는 어두운 단색 델을 입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화려한 원색 비단으로 만든 옷에 델과 대비되는 색깔의 비단 띠를 맵니다. 장식 띠는 장식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칼집이 있는 칼을 꽂거나 담배 주머니 · 파이프 등 각종 기구를 넣는 실용적인 도구로도 이용됩니다. 남녀 간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남자용이 좀더 넓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오늘날에는 많이 입지는 않지만, 시골 사람들이나 유목민들은 아직도 활동하기에 편리한 전통 델을 즐겨 입습니다. 용도도 다양해 겉옷이나 담요로 쓰기도 하고, 초원에서 화장실에 갈 때는 몸을 가리는 가리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참고: 네이버 백과사전)

체험해 봅시다.

– 이야기 속의 '띠'처럼 작지만 소중한 것에 대한 경험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 일곱 형제처럼 서로 협동하여 무언가를 이루어낸 경험 또는 협동하지 않아서 실패했던 경험을 떠

올려 보고 4컷 만화로 표현해 봅시다.

- 몽골의 전통문양이 담긴 사진을 찾아보고, 문양을 활용하여 델의 기본 모양을 꾸며 봅시다.

[활동지 참고]

- 몽골의 전통집 게르를 이해하고, 종이접기로 만들어 봅니다.
- 게르 안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모둠별로 하나의 게르를 만들어 완성합니다.

참고자료

- 몽골의 다양한 주택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ho3547/80139675286
- 몽골 전통 의상 'Deel'의 사진과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kosri0212/220399920957

6) 용왕의 노란 종이

동화는요

용왕의 아름다운 딸 '금'과 결혼하고 싶어 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금'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주와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 공주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 남자는 '거러'라는 귀신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거러는 일단 그 남자가 끌고 온 금과 은으로 된 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러는 공주를 키워 준 유모와 무당을 통해 공주가 누구인지를 알아낸 후 공주에게 남자가 끌고 온 말을 건네줍니다. 남자는 공주와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말을 잡고 있는 공주를 한 눈에 찾아내고, 용왕에게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용왕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란 종이'를 이용하지만 '거러'의 술수를 알아채지는 못합니다. 화가 난 용왕은 '노란 종이'를 불에 태워 버리고 양은 이 재를 먹어버립니다. 이후 몽골에서는 양의 어깨 죽지를 태워보면 운명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몽골의 전래 동화를 접해 볼 수 있고, 한국 문화권에서 자란 어린이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양'과 관련된 문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몽골의 또 다른 전래 동화를 찾아 읽어 보며 몽골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 '양'과 관련된 유목 문화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전래 동화 속 결혼풍습에 대해 생각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말해 볼 수 있습니다.
- 바다가 없는 몽골에서 용왕에 대해 몽골인들이 상상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 용왕에 대한 이미지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몽골의 5대 가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몽골 귀족들이 쓰는 여성용 전통 모자를 알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용왕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 '거러'는 누구인가요?
- '무당'은 왜 누가 공주인지 말해줄 수 없다고 하였나요?
- 남자는 어떻게 한 눈에 공주를 알아볼 수 있었나요?
- '노란 종이'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알아봅시다.

– 몽골인들이 즐겨 먹는 '양고기' 음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양고기는 몽골인들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양고기는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양고기를 끓일 때에는 차돌을 함께 넣어 끓이고, 먹기 전에 그 차돌을 손으로 비비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액을 없애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양고기로 만든 음식 중 대표적인 요리는 '허르헉'이 있는데, 이 요리는 양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달구어진 돌을 얹고 다시 흙으로 덮어 10시간 이상을 익힙니다. 이 요리는 매우 특별한 요리로 귀한 손님에게 대접한다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의 주식은 양 외에도 말, 염소 등의 육류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육류를 먹을 때에 야채나 과일은 거의 곁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부족한 초원에서 살아가는 몽골 사람들에게 야채나 과일은 접하기 어려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몽골 전통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식당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몽골의 호수 '홉스골'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몽골은 바다와 면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몽골에는 '바이칼', '홉스골'이라는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는 러시아와의 경계에 위치해 있고 바다처럼 넓기로 유명합니다. '홉스골' 호수는 몽골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제주도와 비슷한 크기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넓은 초원과 사막으로 가득한 몽골에서 홉스골 호수는 몽골의 푸른 진주로 불립니다. 96개의 크고 작은 강들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호수를 이루었는데, 속이 훤히 비칠 정도로 맑은 물과 호수를 둘러싼 소나무 숲의 경관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 몽골의 여성관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몽골은 한국과 비교해 볼 때에 전통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딸들에게 제국의 통치권을 주었고, 몽골 여성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등 주변의 남성과 여성들을 통솔했다고 합니다. '만두하이(Manduhai)'라는 여성은 몽골인들에게 지혜의 여왕으로 불리며 정치뿐만 아니라 전장에서도 자신만의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몽골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학력 수준은 오히려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몽골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딸의 교육에 큰 관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육체적인 노동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지만, 딸들은 아들보다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몽골의 이러한 여성관은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몽골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참고: 경향신문, 2011.10.12. '여자가 당당한 나라 몽골' 문화 트래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22238152&code=900306)

체험해 봅시다.

- 우리 부모님의 결혼식 이야기를 듣고, 인상 깊은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어울리는 액자를 만들어 전시해 봅시다.
-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서 이야기의 내용을 바꾸어 보고, 인형극이나 역할극으로 표현해 봅시다.
- 몽골의 다양한 지형과 관련된 사진을 모아, 친구들과 함께 분류한 후 느낌과 생각을 정리하여 교실에 게시해 봅시다.
- 몽골의 전통음식을 영상을 통해 만나보고, 몽골 전통음식 '뽀오즈(양고기 만두)'을 맛보는 체험을 해 봅시다.
- 아시아 여러 나라의 용왕의 모습에 대해 조사해서 알아봅시다.
- 몽골 전통 모자를 만들어 봅시다.

참고자료

- 몽골의 쌍봉낙타에 대한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T-9ffs6wRcM
- 몽골 전통 음식
  http://biztv.blog.me/220419292020
- KBS1 TV 〈걸어서 세계속으로〉의 '몽골의 대호수 홉스골' 편
- 몽골의 여성관에 대해 소개하는 신문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22238152&code=900306)

7) 활 잘 쏘는 에르히 메르겡

이 동화는요

몽골에는 해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해가 일곱 개나 되어 강한 빛과 열로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명궁수 '에르히 메르겡'에게 활을 쏘아 해를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람들의 부탁을 받은 에르히 메르겡은 7개 중 6개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마지막 화살이 해가 아니라 제비 꼬리를 맞히는 바람에 하나의 해는 남게 됩니다. 이에 자존심이 상한 에르히 메르겡은 제비를 쫓아가지만 사로잡지는 못합니다. 이 일로 화가 난 에르히 메르겡은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타르바가'가 되어 캄캄한 동굴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하나의 해를 쏘아 맞히려고 땅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해는 이러한 에르히 메르겡이 두려워 숨었다가 다시 나오기를 반복하는데, 이 때문에 밤낮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이 동화를 통해 몽골의 '에르히 메르겡'에 대해 알 수 있고, 몽골의 활과 관련된 문화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해'와 '에르히 메르겡'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몽골의 '활'과 관련된 문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몽골사람들은 7을 행운의 수로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해가 하나인 사실과 밤낮이 생기게 된 이유에 관한 설화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몽골말이 서양말과 달리 작지만 탄탄한 모습을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몽골사람들이 생각하는 맹세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사람들이 에르히 메르겡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일곱 개의 해 중에서 하나만 남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 에르히 메르겡은 왜 '타르바가'가 되었나요?
- 이 이야기에서 밤과 낮이 생기게 된 까닭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알아봅시다.

– '타르바간(Tarbagan)'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다람쥐에 가까운 대형의 설치류로서 시베리아, 극동, 소련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몽골 마못(Mongol marmot)이라고도 하는데 타르바간(Tarbagan)은 알타이산맥, 시베리아동부, 몽고에 분포되어 있고 무리를 이루어 삽니다. 이 동물의 털은 밍크처럼 염색해서 재킷, 코트, 트리밍 등에 사용합니다.

– 몽골의 동물신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몽골은 기록문학보다는 구비문학 전통이 풍부하므로 설화문학은 몽골을 아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몽골 설화의 대표적인 특징은 유목민의 생활 습속과 자연환경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과 동물담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신이담과 영웅담에선 주인공들이 얼마나 넓은 지역에 가축을 가지고 사는지가 매우 과장적이고 미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몽골 설화의 독특한 한 갈래인 '탁발승 이야기'도 대개 초원을 배경으로 유목민의 생활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설화에 대해 연구한 한 한국학자는 몽골 설화와 한국 설화에서 비슷한 것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타르바간은 왜 발가락이 네 개가 되었나'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호리대 메르겡'은 '선녀와 나무꾼', '숫염소를 탄 장부'는 '서동설화', '양치기 터머르'는 '호랑이와 곶감'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학자는 "고려와 몽골 왕실 간 인척 관계를 맺은 역사적 사실이나 고대에 흥안련 산맥 주변에서 민족들이 서로 흩어져 살았다는 학자들의 견해 등을 보면 두 나라가 유사한 소재의 설화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며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참고: 경향신문, 2007. 2. 2, '몽골의 설화 소개한 이안나 교수')
몽골 설화를 읽으면서 유사한 한국 설화와 비교해 본다면 더 풍부한 이야기 거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 몽골의 '활'과 관련된 문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몽골 사람들은 궁수(활을 쏘는 사람)를 존경하고 '활 잘 쏘십시오.'라는 인사말을 덕담으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활쏘기는 씨름, 말타기와 함께 몽골 최대의 축제인 '나담축제'의 3종 경기 중 하나입니다. 이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사람에게는 명궁수의 칭호를 대통령령으로 수여한다고 합니다. 사실 유목민족인 몽골 사람들에게 '활쏘기'는 단순한 기술이나 기능 이상의 정신적 의미를 가지는 문화입니다. 몽골에서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활쏘기에 참여합니다. 나담축제에서도 남자 경기와 여자 경기가 각각 열립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메르겐'은 나담축제의 활쏘기 종목 최종 승자에게 붙는 칭호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몽골의 활쏘기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전수되지 않아 현재에는 사라진 부분이나 묻혀 있는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험해 봅시다.

- 일출 혹은 일몰 모습이 담긴 다양한 사진과 그림을 모아 봅시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느낌과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 '에르히 메르겐'이 한 일을 떠올려 보고 가장 인상 깊은 행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편지를 적어 봅시다.
- 활을 쏘는 몽골의 남녀노소 사진을 찾아보고, 활쏘기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점을 정리하여 '몽골의 활쏘기 문화'에 대한 팸플릿을 만들어 봅시다.
- 타르바간를 그리고 색칠해 봅시다.
- 해와 달, 낮과 밤에 관한 다른 나라의 설화를 찾아보고 다른 점을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 나라마다 좋아하는 숫자, 싫어하는 숫자를 찾아봅시다.

참고자료

- 이평래(2010) 글, 전인성 그림, 『초원에 뜬 별이 들려주는 이야기』, 웅진다책
  : '메르겡'을 비롯한 몽골 신화가 개성 있는 그림과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 이안나 옮김(2007), 데 체렌소드놈 저, 『몽골의 설화』, 문학과지성사
- 몽골 활과 활을 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ttp://martial-arts.tistory.com/759
  http://mongolro.tistory.com/463

8) 부모 없는 흰 낙타

이 동화는요

흰 낙타 백 마리를 하늘에 바치기로 한 어느 부자는, 한 마리가 모자라자 아직 어린 새끼를 둔 어미 낙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미를 잃은 아기 낙타는 계속 울었습니다. 이 울음 소리를 시끄럽다고 여긴 부자는 아기 낙타를 먼 곳으로 보내 쇠사슬로 묶어 둡니다. 하지만 하녀는 우유를 먹여 주며 돌보아 주다가 관리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기 낙타를 풀어 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자는 하녀를 내쫓아 버립니다. 한편 부자에게 끌려간 어미 낙타는 한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탈출합니다. 그리고 암컷 늑대와 암컷 거북이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은 아기 낙타와 만나게 되지만 결국 뒤쫓아 온 관리인에게 맞아 죽고 맙니다. 아기 낙타는 독수리의 도움을 받아 고향에 돌아옵니다. 부자는 아기 낙타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지만, 다 자라난 아기 낙타는 부자에게 저항합니다. 하녀 역시 그동안의 품삯을 요구하자 부자는 아기 낙타 데려가기를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어린이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동물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조사해 보고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동물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낙타의 모정과 부모를 찾는 낙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흰 낙타를 신성시하는 몽골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 낙타는 사막지대에서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몽골의 전통의상(모자/신발/옷)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거북, 늑대, 뱀, 독수리에 대한 몽골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 몽골의 5대 가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5대 가축 중 낙타의 쓰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몽골의 전통음료인, 말젖을 발효시킨 음료인 아이락을 마시며 흐뭇해하는 모습에서 아이락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어미 낙타는 왜 아기 낙타와 헤어지게 되었나요?
- 어미와 강제로 헤어진 아기 낙타를 도와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 탈출하게 된 어미 낙타는 어떤 일을 겪게 되나요?
- 다 자라난 아기 낙타는 왜 부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였을까요?

알아봅시다.

– 낙타의 성장 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몽골 지역에 사는 낙타는 등에 혹이 두 개 달린 쌍봉낙타입니다. 이 낙타의 새끼는 날 때부터 눈을 뜨고, 몸은 양털 같은 털로 덮여 있습니다. 태어난 지 몇 시간만 지나도 달릴 수가 있고, 새끼와 어미는 떼어 놓지 않는 한 몇 년이건 함께 지냅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쌍봉낙타가 가축화된 상황이며, 북동중국과 몽골에 남아있는 야생낙타의 개체 수는 950마리밖에 되지 않아 멸종 위기 등급 중에서도 '위기' 등급으로 평가됩니다.(참고: 위키백과)

– 동물 보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이 이야기에는 동물을 괴롭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률로,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동물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고,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고, 안전장치휴대, 오물수거 등의 의무가 부과 됩니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됩니다.
또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은 '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하여,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알 수 있습니다.

– 야생동물들에 대한 몽골인들의 생각을 알아봅시다.

Tip!

동화에 등장하는 야생동물들에 대하여 몽골사람들이 뚜렷한 호불호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북과 독수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늑대는 초원에서 가축을 위협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험해 봅시다.

– 아기 낙타가 어미 낙타로 자라기까지의 과정을 4컷 만화로 그리고 아기 낙타의 마음이 나타나게 표현해 봅시다.
– 이야기 속에서 아기 낙타를 도와준 '하녀'처럼 용기 있는 행동과 관련된 경험을 글로 적어 봅시다.
– 〈보기〉의 낱말을 여성 혹은 남성으로 분류해 보고 친구들과 비교해 보세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고 그렇게 분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합당한지 생각해 보세요.

보 기
부드럽다. 용기가 있다. 잔인하다. 인정이 넘친다. 힘이 세다. 자상하다.

참고자료

– 최형선(2011),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 부키
– 전진한(2009), 『낙타는 대단해』, 그레이트북스
– 어미 낙타와 새끼 낙타가 나란히 있는 사진(뉴스 보도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90323084414811&p=yonhap
– 동물 보호에 관한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jMzXykfbm8
– 동물보호 애니메이션 '샛별이의 견생역전'
동물보호 애니메이션은 초등학교,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에 제공되며,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동물보호'란을 통해 일반에게도 제공됩니다.

9) 덜컹덜컹! 이동도서관이 왔어요

이 동화는요

몽골의 어린이책 작가 '돈독 아저씨'는 차에 많은 책을 싣고 시골로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이들은 "이동도서관이 왔다!"고 반가워하며 몰려듭니다. 이웃마을 아이들도 소문을 듣고 달려옵니다. 아이들은 사탕보다도 책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돈독 아저씨도 기분이 좋아서 '맛있는 책'이라는 동시를 짓고 함께 즐겁게 노래도 부릅니다. 그러나 아저씨는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이동도서관을 기다리는 몽골 어린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열이 심하게 나며 앓고 있는 소년을 안고 어머니가 슬픔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년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 어른 모두가 걱정하면서 약을 가져오고 의사도 부르러 갑니다. 그러나 아이는 점점 더 많이 힘들어 합니다. 맛있는 과일을 접시 가득 가져와도, 새하얀 멋진 장난감 비행기를 보여주어도 소년은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울음만 터트립니다. 그때 아저씨가 말의 걸음과 달리는 리듬에 맞춰 쓴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기운을 차리며 활기를 찾습니다. 얼마 전부터 소년은 말 타는 법을 배웠는데 시에서 나온 표현 중 '달리는 말'의 표현이 좋았었나 봅니다. 소년이 기운을 차리자 사람들도 큰 소리로 웃고 기뻐합니다. 다행히 응급차도 도착하고 아저씨는 다른 마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린이책 작가가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책이 주는 즐거움과 가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책을 늘 가까이 하며 즐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몽골의 유목민 이동도서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책에 대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책이 주는 즐거움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주변의 아프거나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과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돈독 아저씨는 덜컹거리는 차를 끌고 왜 시골마을을 가고 있나요?
- 돈독 아저씨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 아이들은 이동도서관이 오자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 아픈 소년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 맛있는 과일을 주어도, 장난감 비행기를 보여주어도 아프기만 했던 소년은 어떻게 기운을 차리게 되었나요?
- 소년은 돈독 아저씨의 시를 듣고 왜 기운을 차릴 수 있었을까요?
- 돈독 아저씨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알아봅시다.

– 이동도서관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이동도서관은 순회도서관, 자동차도서관이라고도 하는데 도서관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원거리 지역주민에게 각종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도서관 자료의 대출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첫 이동도서관은 1920년 철도도서관이며 그 이후 오늘날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도서관이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까지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집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 책을 읽게 하거나 빌려주기 때문에 어린이와 어른, 노인, 장애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화에서 동화작가 돈독 아저씨는 실제로 몽골의 유목민 어린이들을 위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목생활의 특성상 도서관이나 책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돈독 아저씨가 직접 마차를 이용하여 유목민 어린이들을 찾아다니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독 아저씨가 직접 어린이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동화구연도 해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몽골의 말(馬)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넓은 초원과 사막을 지닌 몽골에서 말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예요. 유목생활을 하는 몽골인들에게 말은 이동수단일 뿐 아니라 식수와 짐을 나르는 수레의 역할도 한답니다. 그리고 말의 젖에서 나온 유제품은 유목민의 가장 중요한 식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몽골 초원에서는 말을 타지 못하고는 살아가기 힘들고, 말을 잘 타고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걸음마를 배우기도 전에 말 타는 법부터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몽골의 아이들은 끈질긴 훈련을 통해 말 타는 법을 배우고, 나담축제의 말달리기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한 가족을 넘어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한답니다. (올리볼리 그림동화 '달려라 망아지' 이야기를 함께 보아도 좋습니다.)

– 몽골의 어린이책 작가 '돈독 아저씨' (다쉬던덕)

Tip!

이 동화의 돈독 아저씨는 실제 몽골의 어린이책 작가입니다. 중학교 때에 쓴 『꾀 있는 아들』이라는 작품집부터 현재까지 50여 편의 글을 썼습니다. 1991년 오페라 〈테무진〉, 동시들로 몽골 아동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세계아동문학상을 수상했고 1978년 국제아동 동요대회에서 「오색의 가축」이라는 시로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아동문학뿐 아니라 아동 희극, 아동 창극, 아동 영화, 시나리오, 다큐멘터리, 희곡 등을 다양한 영역에서 작품 활동을 해왔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 그의 작품들이 번역되어 소개되었습니다. 작품 활동뿐 아니라 몽골 어린이들에게 세계의 우수한 문학작품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으며 유목민 어린이들을 위한 이동도서관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해 봅시다.

-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눠봅시다. 나는 책을 좋아하는지, 좋아한다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책을 싫어한다면 왜 싫어하는지, 내가 읽고 싶은 책은 어떤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나눠 봅시다.
- 도서관에 관한 경험을 나눠봅시다. (도서관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까? 도서관에서 무엇을 하였나요?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은 싫었습니까?)
- 몽골의 유목민 이동도서관과 우리나라의 이동도서관, 다른 나라의 이동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서 비교해 봅시다.
- 어린이책 작가 '돈독 아저씨' 가 되어 '맛있는 책' 이라는 동시를 짓고 시화로 꾸며 봅시다. 그리고 친구들의 작품으로 시화 전시회를 열어 봅시다.
- 내가 요즘 관심있는 주제,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과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어 봅시다. 그리고 책을 읽고 알게 된 내용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 내가 좋아하는 어린이책 작가와 작가가 쓴 글(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 몽골 어린이책 작가 '돈독 아저씨'가 쓴 동화를 더 찾아서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올리볼리 그림동화에서 돈독 아저씨의 동화를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동화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 몽골의 동화작가 다쉬던덕 선생님이 20여년간 운영하고 있는 몽골 유목민 이동도서관에 대한 소개와 이동도서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mongolianlibraries.weebly.com/

– 우리나라 이동도서관의 역사 및 현황, 여러 나라의 이동 도서관 사진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 : http://www.edongmoongo.co.kr/Sub02a.asp

4 태국

01 삐야파 선생님이 들려주는 태국 이야기

02 동화별 교육 내용

1) 비를 내리게 하는 파야탠
2) 중국인과 타마린드 잎
3) 큰 닭과 작은 닭 이야기
4) 우리집의 부처님
5) 수박왕자

01 삐야파 선생님이 들려주는 태국 이야기

삐야파 선생님은 중국계 태국인입니다. 6년 전 한국에 와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국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태국인을 위한 한국 관광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행과 관련된 일을 하며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태국은요

'타이'는 '자유로운 나라'라는 뜻입니다. 1939년 까지는 '시암'이라는 나라 이름을 썼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타이라고 부릅니다. 태국에서는 불기를 쓰는데, 불기는 서기+543년이죠. 2011년은 불기로 2554년입니다.

태국 국기의 맨 위와 아래에 있는 빨강색은 조상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흘린 피를 뜻하죠. 흰색은 불교를, 파란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국민의 피와 정신적 바탕인 불교를 토대로 국왕을 옹립하고 있는 태국의 현실을 상징하고 있어요.

태국에는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어요. 타이계가 75퍼센트, 중국계 14퍼센트, 기타가 11퍼센트인데, 기타에는 인도계, 말레이계 등이 있죠. 카렌족은 북부 산지에 사는 대표적인 소수민족입니다. 제가 중국계니까 중국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태국에서는 중국계 사람에 대해서 부지런하고 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중국 사람으로, 할아버지 때 태국에 이주해서 살고 있어요. 닉쿤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중국에서 태국으로 옮겨온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광동성에서 배를 타고 오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돈도 없었지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태국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불상목걸이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불상목걸이를 자주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작은 관음상을 가방에 넣고 다녀요. 성인이 되면 여자보다 남자가 불상목걸이를 많이 합니다. 염주도 많이 가지고 다니고요. 저는 불상목걸이를 하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항상 계십니다. 한국 스님은 채식만 하셔야 하지만 태국에서는 스님이 사람들로부터 봉양 받은 음식은 고기를 포함해서 다 드세요. 스님은 낮 12시 이후에는 식사를 하지 않아요. 또, 여성은 스님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예절은요

태국인들은 인사할 때 공손한 표정으로 합장을 합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앞을 지나게 되면 몸을 조금 숙여 공손한 태도를 해야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인이 방문하거나 만날 때 재스민꽃목걸이를 걸어주고 환영합니다.

태국 사람은 다른 이의 머리를 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사이에도 머리를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해요. 어린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귀엽다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사람

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것은 태국 사람에게는 금기시 되는 행동입니다. 태국인은 머리에 혼이 있으니 아주 귀하다고 생각해요. 또 몸에서 가장 높은 부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물건을 주고받을 때 오른손을 씁니다. 화장실에서 쓰는 왼손은 불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발로 뭔가를 가리키거나 지시하면 안 되는데 발은 신체적으로 가장 밑에 있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음식과 옷차림, 주거방식은요

똠양꿍은 태국에서도 즐겨 먹고, 외국에도 잘 알려진 태국의 대표 음식입니다. 똠양꿍은 한국의 김치찌개처럼 가정에서도 자주 먹는데, 맛은 짬뽕국물하고 좀 비슷해요. 새우와 라임, 레몬 등 다양한 양념을 넣고 끓이는데, 맵고 시고 달고 짠 맛이 다 들어가 있는 맛있는 음식이라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잘 먹어요. 팟타이(볶음쌀국수)도 자주 먹는 아주 유명한 음식이죠.

디저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계란으로 만든 '훠이텅(golden threads)'을 좋아해요. 포르투갈에서 전해졌다고 하는데, 계란과 설탕시럽을 섞어 뜨거운 기름에 실뭉치 모양으로 튀긴 거죠.

음식 중에 개고기는 피해야 합니다. 아마 불교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애완으로 많이 키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생선회와 같은 날 음식도 잘 먹지 않습니다. 태국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날로 먹기에는 음식이 금방 상해서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회를 먹어보긴 했지만 특별히 맛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던데요. 또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소고기도 잘 먹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옷은 명절에만 입습니다. 한국에서 한복도 그렇잖아요. 명절 때도 뭔가 행사를 하거나 공연을 하는 사람만 입어요. 전통적인 남녀 옷을 '츄타이'라고 부르는데, 츄는 옷, 타이는 태국의 뜻입니다. '한복'이 그런 것처럼 '태국옷'이라는 뜻입니다. 일상생활복으로는 서양식 의복을 입어요.

요즘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패션을 많이 따라 해요. 패션은 거의 한국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또 한국 상품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2001년에 방영한 드라마 '가을동화'를 통해 시작된 한류열풍이 대단하기 때문에 한류를 아주 큰 태국의 현대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을동화가 유명해진 이유라면, 가을이라는 계절이 태국에는 없는 것이라 그 특별한 분위기를 근사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겨울연가도 비슷한 이유로 태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태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마당이 딸린 주택을 좋아하죠. 아이들은 마당이나 길에서 고무줄놀이, 사방치기, 비석치기, 가위바위보 같은 놀이를 하기도 하고 컴퓨터 게임도 많이 하며 놀아요.

태국의 남과 여

태국은 한국보다 더 높은 평등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태국에서는 여자들이 높은 직위에 진출해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태국총리도 여자입니다. 대개 아들과 딸을 모두 귀하게 여기는데, 중국계 태국인(화교)들은 아들을 선호하는 전통이 있기도 해요. 게이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패션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여성의 경우에 제3의 성이라는 레즈비언도 많습니다. 태국에서는 게이나 레즈비언이라고 밝힌다고 해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좀 다른 문제예요. 가족 중에 게이나 레즈비언이 있으면 썩 즐겁게 여기지는 않아요. 또 태국의 인구 중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이죠. 존경받는 직업은 교수, 의사고요. 한국하고 비슷해요. 여

성들은 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어 해요. 예쁘고 돈도 잘 벌고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엔지니어를 선호합니다.

가족

요즘은 핵가족이 보통이기는 한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가족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같이 사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생활은 엄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혼인하게 되면 남편 성으로 바꿔요. 요즘은 여성이 혼인 후에도 자기 성을 쓸 수 있어요. 또 태국에서는 이름 앞에 '나이(Mr.)', '낭싸오(Miss)', '낭(Mrs.)'을 붙이는데 '낭'을 붙인다는 것은 결혼하고 남편 성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은 주로 아들이 모시고 살아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색깔과 숫자

태국인이 좋아하는 색은 밝은 색입니다. 노란색은 특별하게 왕의 색이죠. 태국에는 각 요일마다 상징하는 색이 있어요. 월요일-노란색, 화요일-분홍색, 수요일-녹색, 목요일-주황색, 금요일-파란색과 하늘색, 토요일-보라색, 일요일-빨간색, 이렇게요. 사람들은 요일 색에 맞춰 옷을 입으면 행운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핑크색 옷을 입었어요. 싫어하는 색은 검정색,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결혼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빨간색과 주황색은 위험을 상징합니다.

보통 불교에서 3을 좋은 숫자라고 합니다. 9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9가 '발전'이라는 단어와 같은 발음이거든요.

한국의 좋은 점, 힘든 점

한국 생활은 다 즐거워요. 음식이 좀 불편한데, 소고기를 잘 안 먹는 태국인 입장에서 소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요. 한국은 특히 교통이 편리해서 좋아요.

저는 말을 하지 않으면 외국인이라고 알아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때는 더 배려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요.

한국에 태국인 노동자가 5만 명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주로 안산 쪽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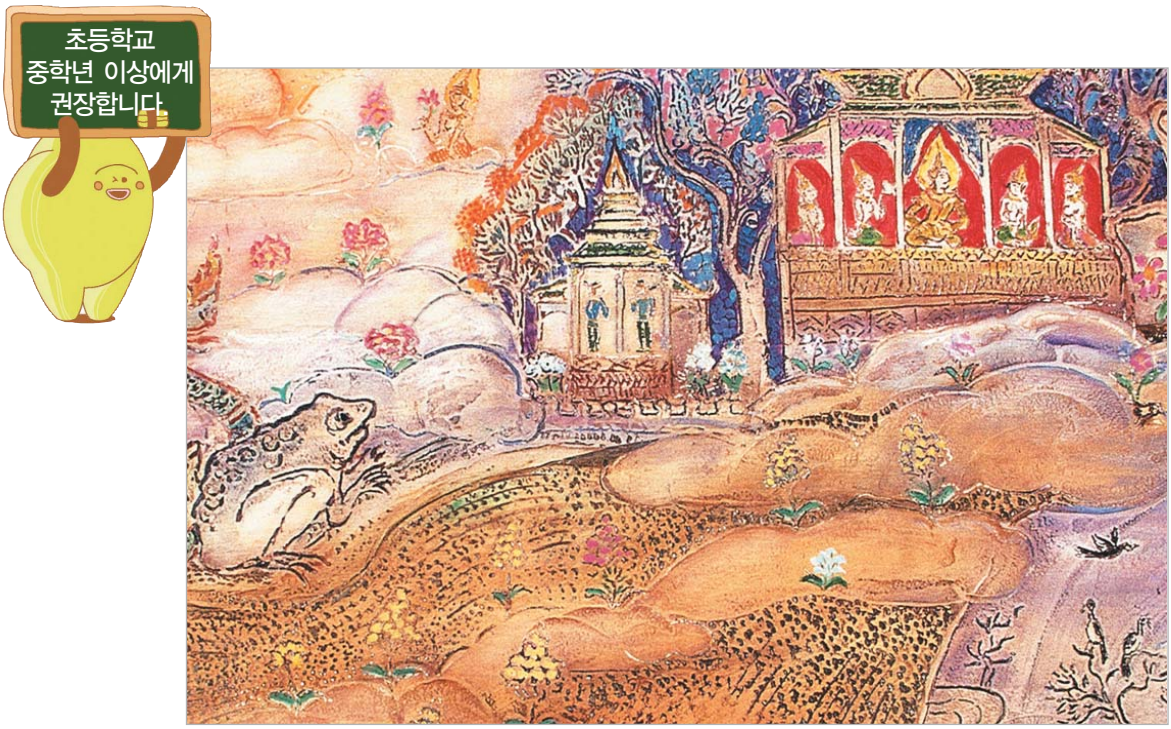
한국에 오는 태국 관광객

태국에는 한류의 영향이 엄청납니다. 관광객들은 가을동화의 촬영지인 남이섬에 많이 가요. 최근에 개봉한 태국영화 '헬로 스트레인저(Hello stranger)'가 서울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그 때문에 다시 한류가 불고 있어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주로 돼지갈비, 삼계탕, 불고기를 많이 먹어요. 태국사람들은 불교인이지만 힌두교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기 때문에 소고기를 잘 안 먹어요. 또 소고기가 무겁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남이섬에 가면 근처 춘천에 가서 춘천닭갈비를 먹기도 해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며 얻은 정보와 한국에서 생활하며 느낀 점들을 태국 분들께 이야기해 드려요. 저는 한국인이 빠르고 부지런하고 솔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국인이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별로 없으니 밖에서 버릴 것이 있을 때는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집에 가서 버려야 한다는 것도 태국인에게는 재미있는 이야기라 해 드립니다.

02 동화별 교육 내용

1) 비를 내리게 하는 파야탠



이 동화는요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두꺼비왕 파야냑은 뱀, 말벌, 호박벌, 꿀벌, 개미, 흰개미, 개구리왕을 모아 회의를 열어 대책을 의논합니다. 동물들은 흙을 쌓아 하늘로 가는 길을 만들어 하늘나라로 올라가 하늘나라 병사와 싸워 이기고, 급기야 가장 높은 신인 파야탠을 만나 비를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파야탠은 미안해하며 7일간 비를 내려주고 비 내리는 것을 게을리 한 뱀왕에게 벌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파야탠은 땅으로 내려가는 동물들이 길이 잘 보이도록 불화살을 쏘아 줍니다. 두꺼비왕 파야냑은 파야탠이 불꽃을 좋아하니 6개월에 한번 씩 불을 쏘아 올려 파야탠이 비 내리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동물들의 활약을 통해 도전과 협동 정신을 배우고, 농업이 발달한 태국에서 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으며, 비(물)와 관련된 태국의 명절을 통해 자연환경과 문화형성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동물들의 활약을 통해 지혜를 모으고 협동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 자연이 순환하고 농사를 짓는데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협력하며 함께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물과 관련된 태국인들의 명절에 대해 조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 살고 있는 태국인들이 자신의 명절(물과 관련된)을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이야기 속에서 파야탠과 같은 존재는 누구인가요?
- 농사를 짓지 않는 동물들이 농사일을 걱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동물들은 어떻게 협력해서 길을 만들고, 파야탠의 군사와 싸웠나요?
- 신들의 나라에 간 동물들이 파야탠에게 어떤 부탁을 했나요?
- 파야탠이 비 내려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파야냑이 사람들에게 시킨 일은 무엇인가요?
- 동화 속에서는 동물들이 파야탠을 만나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실제 동물들은 생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경고할까요?
- 동화 속에서 사람들은 불꽃을 쏘아 올려 신호를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실제 사람들이 생태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알아봅시다.

- 태국인의 인사를 알아봅시다.

Tip!

와이(합장)을 하며 사와티카(여성), 사와티캅(남성)라고 한다.
비고: 태국의 사와티카, 인도의 나마스떼, 스리랑카의 아유보완, 한국의 나무관세음보살은 모두 불교 또는 힌두교와 관련된 인사임.

- 우리나라에서도 농사철에 물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고, 물 부족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 이 동화에 나오는 동물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우리 이야기 속 동물의 모습과 다른 점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Tip!

동화 속 뱀의 모습을 보면 힌두신화의 '나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가 같은 지역에서 태동하여 발전한 종교이며, 서로 깊숙이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단편적인 부분이지만 '나가'의 모습을 통해 태국 불교 속에 녹아있는 힌두교의 모습을 찾아보고 종교의 역사와 종교 간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태국 불교와 힌두교에 대한 정보 http://digital1.blog.me/150047248013)

– 태국 불교가 우리 불교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Tip!

한국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에게 전해서 세상의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자는 목표 아래 포교를 중시하는 대승불교인 반면, 태국 불교는 자신의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소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는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며 수행하고, 현세에 공덕을 많이 쌓아야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스님은 엄격한 계율 아래 수행하고 중생은 그런 스님에게 시주해서 공덕을 쌓아 복을 짓습니다. 탁발은 스님들이 거리를 돌며 불자들에게 음식을 시주받는 종교 행위입니다. 스님들은 고기를 포함해서 시주받은 음식을 모두 모아 식사합니다.

– 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또 종교로 인해 먹지 않는 음식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Tip!

태국에서 흔하게 먹는 음식으로는 똠양꿍이 있습니다. 똠양꿍은 새우와 라임, 레몬 등 다양한 양념을 넣고 끓인 맵고 시고 달고 짠 찌개입니다. 태국인들은 소고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선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는 풍습이 있고, 종교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무거운 음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힌두교인들은 힌두교의 최고신인 시바신이 어릴 때 소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소를 신성하게 생각하여 소를 잡거나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힌두교의 지배세력인 브라만이 농사에 유용한 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종교적 관습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이 동화를 통해 농사가 주요 산업인 태국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태국의 명절 풍습을 찾아보고 왜 그런 풍습이 생겨났는지 알아봅시다.

Tip!

송크란 (송끄란, 송클란)
태국은 태국달력에 맞춰 매년 4월 13일을 설날로 정하고 13, 14, 15일을 연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4월은 우기가 시작되기 직전으로 물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농사일정에 맞춰 적당히 비가 오기를 기원하며 송크란 물축제를 벌입니다. 송크란은 산스크리트어로 '변화, 이동'을 뜻하며 변화가 일어나는 새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태국사람들은 송크란 아침에 절에 가서 기도와 시주를 하고 부처님 몸을 깨끗한 물로 씻겨드리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 가족과 친구들, 주위 사람들에게 물을 끼얹어주며 한해를 다복하게 지내도록 기원합니다. 이러한 풍습이 송크란 물축제로 발전했는데, 거리를 지나는 사람에게 물세례를 퍼붓는 물장난으로 신나게 놀이를 합니다.
(참고자료 http://blog.daum.net/hywon1004/263602)

– 라차프륵

Tip!

라차프륵은 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란색의 아주 성스러운 꽃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4월에 피어나는 이 꽃이 아주 완벽한 모양이라고 여겨 각종 의식에 사용하고, 공무원의 견장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체험해 봅시다.

–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태국인들이 명절을 지내는 모습을 찾아봅시다. 명절행사에 가보거나 그 중 재미난 풍습을 따라해 봅시다.

Tip!

매년 4월 중순에 있는 재한 태국인들의 송크란 축제 참여하기. 친구들끼리 물축제 해보기.
문의처:
주한태국대사관 http://www.thaiembassy.org/seoul/ko/home(안산에서 물축제 시행)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www.bmwh.or.kr/ (송크란과 유사한 미얀마인들의 띤잔물축제)

– 동물들에게서 사람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받는 도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어떤 동물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지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 기우제와 관련된 동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해 봅시다.(예를 들면, 충주 지역에서는 쏘가리를 용의 상징으로 기우제에 올렸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유용한 웹사이트

* 태국 관광청: 태국에 관한 주요 정보,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어 사이트입니다.
http://www.visitthailand.or.kr/home/

* 블로그: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로 태국의 문화, 종교, 음식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ilver7493/140114390635
http://blog.daum.net/smily64/13384594

– 유용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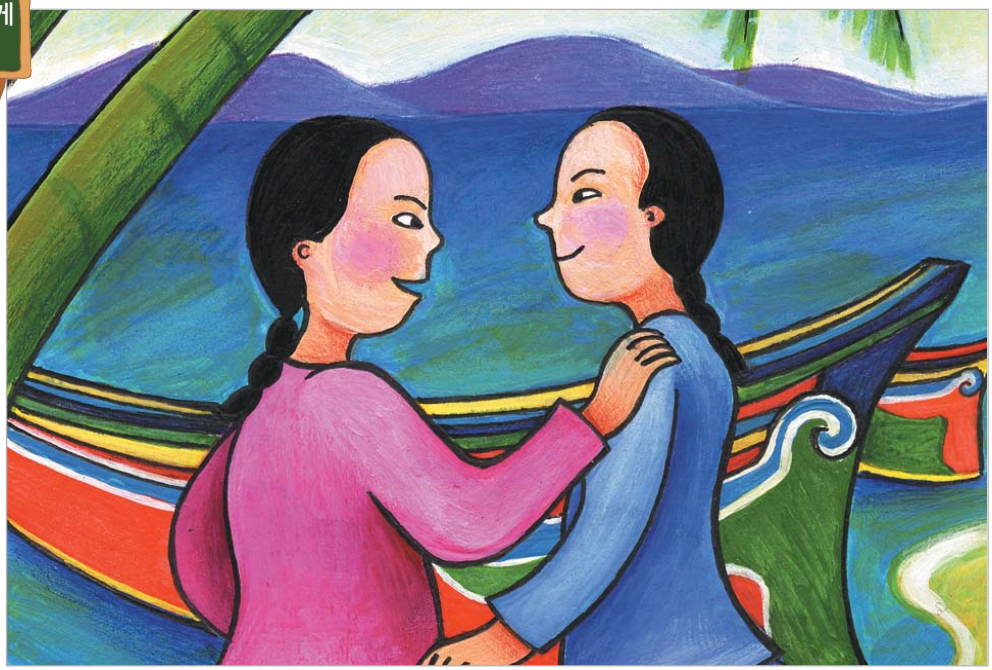
* 로버트 쿠퍼, 난타파 쿠퍼 지음 / 김양희 옮김(2005). 『Curious: 태국』 휘슬러

* 『디스커버: 태국』(2010). 안그라픽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 책자인 〈론리 플래닛〉에서 내놓은 새로운 태국 여행 안내서로, 태국의 역사, 예술과 문화, 음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원복 글그림(2006). 『가로세로 세계사 2: 동남아시아』. 김영사
베트남, 타이,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동티모르,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역사에 대해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제시한 책입니다.

* 한국태국학회 저(2005). 『태국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태국학회가 내놓은 책으로 태국의 자연, 민족, 언어, 역사, 문학, 정치, 경제, 외교, 교육, 관광, 풍속, 음식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2) 중국인과 타마린드 잎



이 동화는요

이 동화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중국을 떠나 태국으로 이주한 두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꼬용과 꼬퓽은 중국을 떠나 태국에 도착해서 2년 후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집니다. 2년 후 게으름뱅이가 되어 가난하게 사는 꼬퓽은 타마린드 과수원을 열심히 운영하여 돈을 번 꼬용을 만나 함께 일하게 됩니다. 꼬용은 계속 게으름을 부리는 꼬퓽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타마린드나무 잎을 따게 합니다. 작은 나무는 잎을 다 따자 금방 죽지만, 큰 나무는 아무리 따도 새잎이 나와 튼튼한 것을 보고 꼬퓽이 깨달음을 얻어 열심히 일해 부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 사이의 우정,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과 꾸준한 인내의 중요성, 이주와 사회 편입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주자들도 자기 삶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꼬용과 꼬퐁은 왜 태국으로 가게 되었나요?
- 꼬용과 꼬퐁은 각자 어떻게 살았나요?
- 꼬용이 꼬퐁에게 타마린드 잎을 따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꼬퐁이 작은 나무와 큰 나무에서 잎을 따면서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알아봅시다.

– 태국

Tip!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서부 지역에 있는 나라로, 타이족과 라오족 등 타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8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태국의 국교는 불교로 정해져 있지만, 종교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태국에는 3만여 곳의 사원과 18만 명 이상의 승려가 있으며 사원 · 가정 · 사무실 · 상점까지도 불상을 모셔놓을 정도라고 합니다.
입헌군주국으로 국왕은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상징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어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변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도 독립을 지켜온 민족으로서 타이 국민은 나라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매우 큰 편입니다.
태국의 예술은 건축 · 미술 · 음악 · 연극 · 문학 · 자기 및 도기 공예 분야에서 뛰어납니다. 태국 건축양식은 보통 목재로 지은 불교 사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종교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 태국에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Tip!

태국의 인구 비율은 타이인 75%, 중국인 14%, 말레이인 4%, 기타 7%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어울려 삽니다. 중국인들은 태국에 잘 정착에서 태국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 꼬용과 꼬퐁처럼 자기 나라를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시다.

Tip!

전 세계 이주민: 2005년 195,245,404명
2010년 213,943,812명(2010년 말 현재. 출처: 국제이주기구)

– 우리나라에 사는 이주민들은 어느 나라에서 온 이들이며, 무슨 이유로 이주했는지 알아봅시다.

Tip!

우리나라는 약 700만 동포를 해외에 배출하였고, 약 120만 이주민을 받아들였으므로 배출한 인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만, 최근 이주노동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주노동자 도입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체류외국인수: 1,418,149명(2011년 9월 30일 기준. 출처: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재외동포수: 7,268,771명(2010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외교통상부)

'이주'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므로 단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 · 사회적 · 정책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주를 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주'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주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그 개인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요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요인을 배출요인(밀어내는 요인)과 흡입요인(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송출국(보내는 나라)의 빈곤과 실업, 출신국의 인력송출정책(주로 외화벌이와 실업해소), 해외취업을 선호하는 전반적인 의식, 더 나은 벌이를 요구하는 가족의 요구와 본인의 욕구 등이 주로 이주노동자를 밀어내는 요인이 됩니다.

유입국(받아들이는 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특정 산업의 노동력 부족과 보다 높은 임금 등은 이주노동자를 끌어들이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9월 말, 우리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이주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원	백분율	비고
이주노동자	543,596	38.3%	
거주자	141,355	10%	결혼이주자 포함
재외동포	121,499	8.6%	외국국적동포를 지칭 (재외국민: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적자)
유학	73,838	5.2%	
기타	537,861	37.9%	
전체	1,418,149명	100%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노동자를 보내는 나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키르키즈스탄,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총 15개 나라)

– 타마린드

Tip!

타마린드는 태국과 같은 건조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콩과식물로 노란색 꽃이 핍니다. 20미터 정도로 매우 큰 나무라 공원이나 가로수로 활용됩니다. 콩꼬투리처럼 생긴 열매자루를 까면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과육이 나옵니다. 과육은 주스나 음식 재료, 약으로 쓰입니다. 과육 안에 들어 있는 씨는 먹을 수 없고, 접착제나 옷에 풀을 먹일 때 사용합니다.
(참고: http://blog.naver.com/angelkittie?Redirect=Log&logNo=80104453449)

체험해 봅시다.

– 지도상에서 내가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나라를 찾아봅시다. 인터넷에서 그 나라의 위치와 날씨, 산업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친구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봅시다.

– 인터넷을 통해 태국의 역사와 문화, 언어와 문자, 음식 등에 대해 조사해 발표해 봅시다.

– 만약 태국사람들이 중국에서 온 꼬용과 꼬퓽에게 '당신은 외국인이니까 같은 일을 했어도 월급을 절반만 받으시오. 당신은 외국인이니까 과수원을 운영하는 것 같은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꼬용과 꼬퓽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을지와 같은 주제로 토론해 봅시다.
(이주자의 상황은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의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동화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공정한 환경과 기회가 보장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한지 토론해 봅시다.)

– 이 동화를 거꾸로 읽어봅시다.
(꼬퓽은 왜 게으름뱅이가 되었을까?)

– 엮어보기: 올리볼리 동화 중 '우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를 함께 보고 이주에 관한 이야기를 토론해 봅시다.

참고 자료

– 유용한 웹사이트
* 태국 관광청: 태국에 관한 주요 정보,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어 사이트입니다.
http://www.visitthailand.or.kr/home/

* 블로그: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로 태국의 문화, 종교, 음식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ilver7493/140114390635
http://blog.daum.net/smily64/13384594

– 유용한 책

* 로버트 쿠퍼, 난타파 쿠퍼 지음 / 김양희 옮김(2005). 『Curious: 태국』 휘슬러

* 『디스커버: 태국』(2010). 안그라픽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 책자인 〈론리 플래닛〉에서 내놓은 새로운 태국 여행 안내서로, 태국의 역사, 예술과 문화, 음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원복 글 · 그림(2006). 『가로세로 세계사 2: 동남아시아』. 김영사

베트남, 타이,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동티모르,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역사에 대해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제시한 책입니다.

* 한국태국학회 저(2005). 『태국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태국학회가 내놓은 책으로 태국의 자연, 민족, 언어, 역사, 문학, 정치, 경제, 외교, 교육, 관광, 풍속, 음식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3) 큰 닭과 작은 닭 이야기

이 동화는요

어느 마을에 큰 닭과 작은 닭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큰 닭의 집은 마을 입구에 있었고 작은 닭의 집은 큰 닭의 집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작은 닭이 큰 닭의 집을 제멋대로 들락거리고 큰 닭을 자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작은 닭은 큰 닭의 집에 몰래 들어가 먹을 것을 자주 훔쳐먹고 도망쳤는데, 어느 날 큰 닭의 집에서 쌀알을 몰래 쪼아먹다가 큰 닭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주변에 있던 동물들이 보는 가운데 큰 닭과 작은 닭은 서로 물러서지 않고 싸움을 했고, 결국 작은 닭이 큰 닭에게 사정없이 쪼이고 자기 집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창피하고 억울했던 작은 닭은 복수를 결심하고 마을 끝에 사는 여우에게 큰 닭을 먹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우가 큰 닭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지요. 큰 닭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서서 마을 밖으로 걸어오는 순간 여우는 큰 닭을 순식간에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잠시 통쾌함을 느낄 새도 없이, 여우는 교활한 미소를 띠며 작은 닭도 잡아먹어버렸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상대방을 미워하고 헤치기 위해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결국 자신도 그 꾀에 넘어가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함께 양보하며 사이좋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태국의 상징적인 동물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을 미워하고 헤치기 위해 나쁜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 자신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함께 사이좋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큰 닭과 작은 닭은 왜 사이가 좋지 않았나요?
- 큰 닭과 작은 닭은 왜 싸우게 되었습니까?
- 작은 닭은 여우에게 어떤 것을 부탁했나요?
- 결과적으로 볼 때 작은 닭이 큰 닭을 이긴 것일까요?

알아봅시다.

–태국의 상징적 동물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코끼리는 태국의 대표적인 동물이며, 특히 태국 사람들은 하얀 코끼리를 복되고 운 좋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태국에서는 국왕을 비수뉴 신의 또 다른 화신인 '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대 인도의 종교인 브라만교 신화에서 비슈누 신의 화신인 인드라 신이 머리가 여러 개 달린 하얀 코끼리 에라완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국왕을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여기게 되었지요. 또한 태국 땅의 생김새가 코끼리 머리를 닮았다고도 합니다. 하얀 코끼리는 태국에서도 아주 귀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귀하기 때문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였고 왕을 보호하고 지키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처의 탄생 설화에서도 석가모니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하얀 코끼리에 대한 태몽을 꾼 뒤에 석가모니를 낳았다고 하여 코끼리가 영광과 관용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점점 줄어드는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태국뿐 아니라 많은 동물보호 기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태국의 전통집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태국은 일년 내내 날씨가 덥고 우기인 여름에는 비도 매우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 집들은 더위와 홍수를 피하기 위해 주로 땅에서 떨어진 높은 곳에 지어요. 바람이 잘 통하고 비가 금방 흘러내리도록 지붕도 높고 가파르게 지어요. 태국에는 물 위에 지어진 집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답니다.

체험해봅시다.

- 관련 동화 찾아 읽기 : 이야기 속에 닭이나 여우 등 동물이 등장하는 동화를 찾아서 함께 읽어보고,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 결국 큰 닭과 작은 닭은 모두 여우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큰 닭과 작은 닭이 여우에게 먹히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함께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태도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역할극 놀이 : 큰 닭과 작은 닭, 여우의 얼굴을 가면으로 만들어서 상황극을 해 봅시다. 다음의 상황 이외에 다른 상황을 정하여 해볼 수 있습니다.

  상황1 : 만약 작은 닭이 큰 닭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않고 먹이를 훔쳐먹지 않았다면

  상황2 : 큰 닭이 작은 닭에게 먼저 집에 들어오게 해주고 먹이도 나눠 먹었다면

  상황3 : 작은 닭이 여우에게 큰 닭을 잡아먹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등

참고자료

- 태국의 코끼리에 대한 유래, 사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http://daria80.blog.me/20126761175
- 닭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드러나는 책 읽어보기

  [세상에서 제일 힘 센 수탉], 이호백 글, 이억배 그림, 재미마주, 1998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사계절, 2002

  [이솝우화 – 여우와 포도,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4) 우리집의 부처님

이 동화는요

어느 외진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와 '껭'이라는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도 부지런한 반면, 아들은 어머니와 달리 게을렀고 나쁜 일만 하며 매일 빈둥거리고 놀았습니다. 어머니는 껭의 모습을 보며 속상했지만 "내가 아파서 먼저 세상을 떠나면 우리 껭은 어떻게 살까?" 라며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껭은 부지런히 일하는 '깨우'라는 친구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형편이 무척 다르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껭은 깨우가 부처님에게 열심히 절하는 모습을 보고 불상에 절을 열심히 해서 깨우가 돈과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얼른 절로 갔습니다. 껭은 스님에게 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싶으니 불상을 하나 달라고 했지요. 그러자 스님은 "너의 집에는 이미 불상이 있단다" 라고 말했어요. 스님의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들은 껭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 비가 내리는 바람에 비를 많이 맞아 아프게 되었답니다. 껭은 높은 열에 헛소리까지 하며 끙끙 앓았는데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곁에서 껭을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픈 중에 껭은 항상 어머니가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고 지켜준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어머니를 괴롭히고 걱정만 끼친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면서 어머니께 절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어머니도 그런 껭의 모습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적인 모습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태국의 불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태국의 일상생활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불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껭은 평소 어떤 행동을 하는 아들이었나요?
- 껭은 깨우가 돈과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 껭이 스님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 스님이 껭에게 말씀하신 "너의 집에는 이미 불상이 있단다" 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알아봅시다.

– 태국의 기후(날씨)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태국은 열대 몬순 지대에 속해요. 일년 내내 더운 날씨를 유지하지만 5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오는 우기, 11월부터 4월까지는 건조한 건기예요. 태국의 우기에는 주로 하루 한두 번 쯤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가 금방 그쳐요.

– 태국의 불교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태국은 불교의 나라이자 사원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태국 사람들의 95% 이상이 불교를 믿고 나라 곳곳에 아름다운 불교 사원들이 가득해요. 사원은 학교이자 병원, 고아원, 집회소 등의 역할을 하며 태국인들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불교는 종교를 넘어 생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통과의례가 불교 의식☞ Tip! 유산들도 불교와 관련되어 있어요. 불교는 태국인들의 일상에서 떼놓을 수 없는 문화예요. 그러나 태국 사람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태국 헌법에서 태국의 국왕은 불교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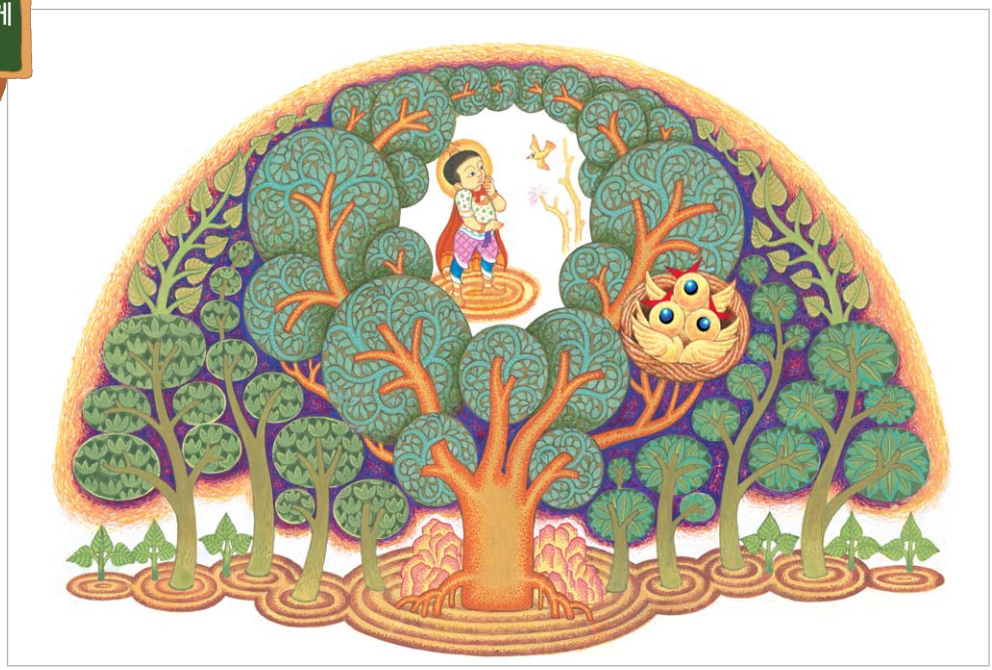
체험해봅시다.

- 불교와 관련된 태국의 문화 유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인터넷이나 책, 백과사전 등을 이용하여 조사해 발표해 봅시다.
- '껭'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껭'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나는 '껭'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었나요? 함께 생각해 보고 이야기 나눠 봅시다.
- 어머니는 왜 껭의 행동을 보며 화를 내거나 꾸중을 하지 않았을까요?
- '껭'에게 '불상'은 어머니였습니다. 과연 나에게 '불상'은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고, 친구들에게 이야기 해 봅시다.

참고자료

- 태국의 불교 문화유산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아유타야 에 대한 여행 소개
  http://blog.naver.com/586hot/70146678230
-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다큐멘터리
  MBC 휴먼다큐 '사랑' : 2008 '엄마의 약속', 2009 '풀빵엄마'

5) 수박왕자



이 동화는요...

옛날 옛날에 딘디남디나라 왕자는 신기한 수박 나무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 수박 나무에서 열리는 수박은 세상에서 가장 달고 맛있었지만 수박이 딱 한 개만 열렸기 때문에, 왕자는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고 보물처럼 귀하게 여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박이 없어졌어요. 왕자는 화가 나서 수박을 훔친 사람을 찾아 큰 벌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 때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며칠 동안 굶주린 자식을 살리기 위해 수박을 훔쳤다며 벌을 기꺼이 받겠다고 말했어요. 왕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새의 마음을 애틋하게 여겨 벌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다음 날 신기하게도 수박 나무에서는 수박이 2개나 열렸어요. 그런데 다음 날 2개의 수박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너무 화가 난 왕자는 군사들에게 도둑을 잡아오라고 외쳤어요. 그 때 갑자기 작은 쥐가 나타나서 위독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수박을 훔쳤다며 역시 벌을 받겠다고 했지요. 그 말을 들은 왕자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쥐의 마음을 기특히 여기고 역시 벌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수박 나무에서는 수박이 3개가 열렸어요. 왕자는 역시 무척 놀랐지만 더욱 수박을 귀히 여겼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수박이 모두 없어졌어요. 더 크게 화가 난 왕자에게 작은 원숭이가 나타나서 물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 수박을 훔쳤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왕자는 친구를 생각하는 원숭이의 마음을 아름답게 여겨 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수박은 4개가 열렸지요. 그러나 이번에 왕자는 놀라지 않았답니다. 수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마다 수박이 더 열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왕자는 나라 안의 백성과 동물들에게 수박을 나눠주었고 그 후 수박은 수십개, 수백개가 열리고 점점 더 많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왕자를 '수박 왕자'라고 불렀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수박과 비교하며 태국의 수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음식이나 물건, 기술(능력) 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경험을 이야기 해 보며, 자신이 가진 귀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얻는 기쁨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태국에서 볼 수 있는 과일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새는 왜 수박을 훔쳐갔나요?
- 쥐는 왜 수박을 훔쳐갔나요?
- 원숭이는 왜 수박을 훔쳐갔나요?
- 왕자가 수박을 나라 안의 백성과 동물들에게 나누어 주자 수박 나무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나요?
- 딘디남디나라 왕자에게 왜 '수박 왕자'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을까요?

알아봅시다.

– 과일의 천국 태국, 태국의 여러 가지 과일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1년 내내 섭씨 30도를 웃도는 태국은 과일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맛있는 과일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여름에만 볼 수 있는 수박도 태국에서는 일년 내내 볼 수 있어요. 수박뿐 아니라 두리안, 망고, 망고스틴, 람부탄 등 맛있는 열대과일이 언제나 가득해요. 이 중에서 두리안은 '과일의 왕' 이라고 불리는데 '지옥의 냄새, 천국의 맛'으로 알려질 만큼 냄새는 지독하지만 그 맛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꼭 찾게 된다고 합니다.

– 태국의 왕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태국은 입헌군주국으로 국왕은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상징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어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변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도 독립을 지켜온 민족으로 태국 국민은 나라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매우 큰 편입니다. 현재 국왕인 푸미폰 국왕은 왕위에 오른 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고, 백성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는 농업, 축산 등과 관련된 실험실을 세우고 직접 연구하였고, 특히 인공강우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로서 세계 특허권도 갖고 있으며, 가뭄 문제 해결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과학뿐 아니라 음악, 미술, 어학 등에도 재능이 뛰어나며, 화가이자 사진작가, 글작가이기도 한 푸미폰 왕은 태국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체험해봅시다.

- 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과일들을 조사하여 스크랩북으로 만들어 봅시다.
- 왕자는 수박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나에게도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함께 사용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해 보고, 그때 기분이 어떠했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참고자료

–태국의 과일시장에 대한 여행 소개기 – 태국 과일 시장 모습 및 과일 사진 소개
개인 블로그 http://sisioo82.blog.me/130154307284

5 우즈베키스탄

01 강선주 교수님이 들려주는 이슬람에 관한 이야기

02 도노 선생님이 들려주는 우즈베키스탄 이야기

03 동화별 교육 내용

1) 비밀의 나이

2) 요술쟁이

3) 할아버지와 도깨비

01 강선주 교수님이 들려주는 이슬람에 관한 이야기

강선주 교수님은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로, 서구 중심적이었던 기존의 역사 관점을 탈피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자 하는 'new wolrd history'를 전공했습니다. 기존의 유럽중심주의를 탈피한 역사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슬람 세계와 젠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마주보는 세계사 교실 1》(2007),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공저, 2007),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세계사》(공저, 2008), 《기억과 전쟁》(공저, 2009) 등이 있고, 번역한 책으로는 《글로벌 히스토리란 무엇인가: 세계사에서 지구사로, 역사학의 최전선》(휴머니스트, 2010)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관련된 용어로, '이슬람, 중동, 아랍' 등이 있는데, 각각의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와 차이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는 '중동(middle east)'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그 자체에 서구적 편견이 있습니다. 최근 역사 분야에서는 중동이라는 용어 대신에 서아시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치학 쪽에서는 여전히 중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요. 중동이라는 용어가 19세기에 영국이 패권을 장악하던 시기에 자기 중심으로 지역을 구분하면서 한국 등은 '극동(far east)', 지중해 쪽은 '근동(near east)' 등 서구 중심적인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중동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동이라는 용어는 서구 중심적인 지역 표현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이슬람 문화권에 대해 서구인들이 지닌 호전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최근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와서 역사 분야에서는 서구중심주의를 탈피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면서 '중동'이라는 용어를 기피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세계사를 전공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유럽중심주의 역사관 때문에 유럽 중심으로 세계사가 편찬되었고, 상대적으로 이슬람 역사는 실제로 세계 역사상 이슬람 공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명이 잘 안 되었고 연구하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슬람 세계가 얼마나 세계사적 공헌을 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주지의 글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마셜 호지슨이 1960년대에 쓴 『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이은정 역, 사계절, 2006)을 보면, 새로운 세계사에서는 유럽만이 문화의 창조이자 주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슬람과 중국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사를 구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이슬람 세계가 세계사에 공헌하고 있는 지점에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동이라는 말을 현지인들이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제가 터키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들 스스로 서구의 편견적 시선에 의해 바라봐진다는 것을 알지만 그 기준을 거부하려는 인식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리엔탈에 대해 갖는 느낌과 비슷하게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시선이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서구중심의 용어 자체에 대한 저항감이 있기도 합니다. 중동이라는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한 손에는 칼, 한손에는 코란을 들고 침략해 나갔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저항감이 지식인 중심으로 있다고 봅니다.

'아랍, 이슬람, 무슬림'은 비슷한 말로 들리는데요, 어떤가요? 그리고 이란은 아랍이 아닌가요?

이슬람은 종교이고, 이를 믿는 이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랍은 민족의 이름이고,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 중 한 민족이 아랍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민족 중 아랍이 아닌 민족도 있습니다. 이란은 아리안이라는 의미인데 아리안족이 이란인입니다. 인도유럽어족이 기원전 2000년경에 이동해 나가면서 페르시아 지역에도 이 아리안족이 들어가고 인도까지 뻗어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문화적으로 이란과 인도인들은 서로 친밀성을 갖고 있나요?

기원전 2-3세기경의 시기를 연구한 한 그리스의 지리학자가 그리스, 인도, 페르시아의 종교가 가진 공통된 관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불멸, 영생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각 종교에서 발견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리학자는 이것의 원인을 몰랐지만, 이후 언어학자들이 인도유럽어족이 퍼져나가면서 각 지역에서 고유한 신앙체계가 조금씩 다르게 발달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인도유럽어족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 갔는데 그리스, 이집트, 인도, 페르시아, 히타이트 쪽으로 퍼져 나가서 고유한 전통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세계가 가진 문화적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평등, 형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피부색, 민족, 국적에 관계없이 평등해진다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랍민족주의로 아랍민족을 우대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지만, 대체로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모든 것에 평등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선례로 몽골제국시기에 유라시아 전체가 몽골제국이 되면서 몽골의 칸 한 사람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한 후 이슬람교가 몽골전역에 확산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무슬림이 여행을 하면 그 이유 하나로 어디 가서든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같은 이슬람교는 형제로서 서로를 돕는 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 이외에도 여러 요소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기독교나 불교와 다른 특징이라면 무슬림의 연대의식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밀을 털어놓고 서로 얘기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예가 '이븐바투타'입니다.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 14세기에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메리카까지 여행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무슬림지역이지만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이슬림의 형제애를 알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노예 무역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이슬람 상인이었습니다. 흑인 차별과 관련된 원죄는 유럽을 말할 수 있지만, 노예시장이 처음 시작된 것은 아프리카이고, 아프리카 내에서 아프리카 밖으로 노예무역을 시작한 이들은 이슬람 상인입니다. 이슬람상인이 노예무역을 해서 서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갔지만, 그들이 노예를 대했던 방식이 유럽인들이 노예를 대했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유럽의 노예제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시기에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노예를 대한 방식은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지만, 이슬람 상인은 피부색이 달라도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면 모두를 평등하게 가족처럼 대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슬

람은 인종주의는 없지만 종족주의는 조금씩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같은 이슬람이라도 아랍민족, 크루드족, 이란족에 대한 종족주의는 시기적으로 다르게 있습니다. 특히 근대로 들어오면서 종족주의가 이슬람 세계에서도 긴장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의 지역 간, 소수민족 간 갈등이나 분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냉전시기에 가장 큰 갈등 요인은 이데올로기였지만, 사무엘 헌팅턴이 이슬람, 기독교 문명의 충돌을 이야기했듯이 십자군 전쟁 때부터 이 두 문명이 갈등을 오랫동안 빚어 왔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서로 교류를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문화적 혼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아시아 지역의 분쟁을 보면 이는 문명 간의 충돌이 아니라 더 면밀히 보면 자원을 둘러싼 권력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아시아의 소수민족은 팔레스타인족, 크루드족인데 팔레스타인은 아랍민족이기 때문에 아랍인들의 지원을 받지만, 크루드족은 이란계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분쟁만 놓고 보자면, 유대인들의 고대사회부터의 핍박받았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독특한 자신들의 문화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종족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에 의해 자기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유대인들에게 전쟁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유대인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동시에 팔레스타인들에게도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한 지역에 두 종족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영국에게 있지만 두 나라가 싸우는 형식으로 온 셈 입니다. 이스라엘의 뒤에는 서구국가들이 있고, 최근 UN으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은 팔레스타인에게는 사실 아랍민족의 지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는 역사적 문제가 걸려 있지만 서아시아 다른 종족들 간의 분쟁도 많은데 종교적 분쟁보다 경제적 분쟁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보자면 이러한 분쟁의 이면에는 이들 뒤에 있는 서구국가들도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유를 비롯한 자원을 장악하기 위해 세계관계구도에서 벗어나는 국가들을 통제하려는 서구의 의지가 다양한 명분의 뒤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란과 이라크 간, 이란과 쿠웨이트 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의 문제들을 설명하는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통합과 변화 및 유지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아시아에서 크루드족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팔레스타인은 최근 UN에서 국가 지위를 보장받는 정도에 이르렀지만, 크루드족은 지금 지원을 하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는 크루드족을 지원할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크루드족은 인도유럽어족 중 하나의 종족이고 이슬람 중에 수니파입니다. 같은 이슬람이지만 종족이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종족간의 갈등은 국민국가가 세워지면서 만들어진 근대적 현상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착지를 잃어버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크루드족은 이라크, 터키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소수민족정책을 점차 유하게 쓰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리볼리 동화에 등장하는 이란, 팔레스타인, 티베트,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에 퍼져있는 이슬람 문화 간의 차이는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정확한 차이는 인도네시아와 이란의 경우입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성역할을 상당히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집안팎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을 막고, 가정에서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내에서는 역할이 동등하다는 점에서 유별이지, 차별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차별적인 구조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 관념 자체에서는 유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불교문화권에 들어가는 동남아시아는 여성이 소상인 활동을 통해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이 경제적 활동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19세기에 유럽남성들이 인도네시아 여성과 전략적으로 결혼하여 재산을 가져오려고 했을 때 여성의 재산소유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 실패했다는 보고가 많았습니다. 이슬람교가 각 지역에 들어가면서 풍토에 맞게 혼합이 되었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형되었다는 점이 특성입니다. 아프리카의 경우도 13-14세기의 기록을 보면 남녀가 쉽게 공적으로 소통했다는 것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풍토에 따라 이슬람의 율법과 규범이 다르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를 아랍문화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란의 경우는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랍지역이 좀 더 여성 차별적 구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여성할례도 아랍의 전통 중 하나입니다. 남성의 성적쾌락은 극대화시키고 여성은 무감하게 만드는 이러한 할례의 의식이 이슬람에서는 보통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시행됩니다. 할례 자체는 이슬람 전통은 아니지만 어떤 민족의 특징이 이슬람과 결합한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여성은 일종의 유혹하는 사람으로 의미되므로 남성을 유혹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거하는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여성의 옷차림도 그 예입니다.

페르시아와 아랍은 어떻게 다른가요? 페르시아 여성의 옷차림이 오히려 유혹적인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은 할람과 관련이 된 건데, 이슬람 왕조가 옴니아드, 아바스, 이란지역의 사파비, 터키, 이라크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오스만 왕조가 있습니다. 보통 할람은 여성의 공간입니다. 이슬람이 일부다처제 전통이 있고, 특히 왕실에서는 더 많은 지역의 여성을 결혼관계로 맺어 권력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봤을 때 할람은 왕실 안에 있는 여성의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처들을 관리하는 우두머리 처부터 위계를 정해 여성들만의 공간이 있었는데, 다른 남성은 못 들어가고 왕만 들어갈 수 있는 할람의 공간에서는 의상규율도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할람에서의 여성옷차림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서구가 만들어 낸 이슬람의 이미지(알라딘 등)입니다. 이슬람 역사로 들어가면 제국을 유지하는 방식에 있어 다른 민족과 같은 잔인성, 예를 들면 왕이 아들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슬람 아이들의 교육, 어린이에 대한 대접, 규율은 어떠한가요?

현대사회에서 이슬람 사회에서의 어린이를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슬람사회는 특히 양극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슬람 지역의 어린이들은 어린 나이에 노동하고 있고, 터키와 같은 지역은 완전히 유럽화된 교육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와 같은 자원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 부가 사회적으로 활용되면서 그 혜택을 어린이들이 받고 있지만, 분쟁지역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총쏘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슬람지역의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이슬람식 교육, 즉 코란, 이슬람 율법, 생활규범 등을 배우고 여러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을 배웁니다. 여성교육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탈레반은 극단적 이슬람 근본주의로 철저하게 여성의 교육을 차단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정규교육을 받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은 여성과 남성이 정규교육의 커리큘럼 측면에서는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슬람의 평등을 지향하는 문화로 봐서 부를 축적한 나라의 경우 기부를 통한 혜택도 많은 이들이 받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통념, 편견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이슬람에 무관심하므로 통념, 편견조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편견조차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인데 그중 가장 큰 것은 일부다처제, 돼지고기 금기 문화, 왼손-오른손 용도 차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슬람의 일부다처제라는 제도적 특징은 이슬람 전체를 비문명, 야만으로 취급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국도 조선시대만 해도 제도적으로는 일부일처제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일부다처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일부다처제와 이슬람의 일부다처제와의 차이가 있다면 조선시대는 그들간의 위계를 처와 첩으로 분리했다면, 이슬람에서는 여러 처들의 권리가 동등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슬람에서의 일부다처제는 유목사회에서 계속된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여성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4명까지 처를 둘 수 있지만, 보통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 있는 남성은 상당한 부의 소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부의 과시나, 남성의 야만적 행위로 보기 보다 한 사람의 부를 여럿과 나누는 사회적 공헌으로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금기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독특한 청결관념이 쉽게 상하고 오염되는 돼지고기의 특징을 금기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이슬람은 청결과 위생을 오래전부터 중시해왔고, 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도 서구지역보다 이슬람에서 먼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이 영국, 유럽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오른손-왼손을 구분하는 것도 이슬람의 특별한 청결관념, 질병예방의 차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통념은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판단함으로서 발생하는 것인데 무슬림들의 이러한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음식문화, 독특한 인사방식, 매일 5회의 경배를 하는 등의 관습은 존중해 줘야 할 것입니다.

무슬림들이 기독교, 유대교 등 다른 종교를 바라보는 태도는 어떠한가요?

이슬람교가 무력으로 진압한 나라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서아시아 지역 일부, 지중해, 북아프리카지역 등 옴니아드 왕조 때 점령했던 곳을 제외하고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은 상인들이 전파한 지역입니다. 이슬람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종교적 관용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잔틴제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제국으로 편입되기보다 이슬람제국에 협조했던 까닭은 그게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강요도 없고, 이란, 이라크, 터키 등 여러 국가에는 다른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14세기 이후 터키공화국이 생기기 전까지 이슬람 제국을 보면 인두세(사람에게 부과하는 세)만 내면 개종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슬람교로 개종할 때에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나, 종교의 체계성 때문에 개종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슬람에는 기독교 등에 있는 선교활동이 없습니다. 점을 치거나 하는 '수피'라는 신비주의자는 있었지만 이들은 개종, 선교의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지역에 개종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독교 선교 등은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이슬람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어떠한가요?

이슬람교가 7세기에 만들어 졌습니다. 마호메트가 상업활동을 장려했고,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가 활

발해지면서 육로뿐만 아니라 바닷길을 통한 왕래도 활발해 졌습니다. 중국 당나라가 상당히 국제적이어서 무슬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황소의난때 당나라에 살던 무슬림들이 부를 많이 축적했다는 이유로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그 때 당나라를 통해 신라인과 무슬림과의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처용이 무슬림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처용가에 나오는 독특한 노랫말과 돌로된 처용상에 보이는 얼굴이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유독 뚜렷하다는 점으로 볼 때 아라비아 계통이라고 추측됩니다. 신라와 이슬람과의 교류는 9세기, 12세기 경의 아랍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2세기 아랍지역의 지도에 신라가 표기되어 있기도 하고, 9세기 아바스 왕조에서 만들어진 책에는 신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2세기이면 고려시대일 땐데 그 이전에 왕래가 있었던 신라의 흔적일 것이라 추측됩니다. 고려는 아라비아상인들에 의해 나중에 알려지는데 이는 원나라, 몽골식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삼국유사의 처용가, 이슬람에 남아있는 기록에 신라가 등장한다는 것, 조선왕조 초기에 서술된 고려사에 이슬람교가 '회'라는 명칭으로 많이 등장한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슬람과의 교류는 꽤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선초기에 고려의 유습을 많이 없애려 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슬람과 혼합된 고려문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사서술을 보면 개경에 무슬림타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을 팔았던 기록들도 있고 이러한 고려의 유습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의 초기까지는 이슬람상인들의 왕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실의 행사가 있을 때 온 외부의 사신 중 일부가 이슬람 사신이었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성리학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사대주의가 확산되고, 국내 농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외무역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해금정책을 쓰면서 이슬람과의 단절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15세기 이전은 이슬람 상인의 해상무역 장악력이 강했고, 15세기 이후는 유럽인이 해상무역을 장악하면서 당시 조선은 중국, 일본 등과도 제한된 무역만을 했기 때문에 이슬람과의 무역도 사라져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 시기에는 이슬람 상인과 무역활동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여러 풍습도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나 이는 근거자료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히잡이나, 차도르, 부르카, 토브 등의 전통의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히잡은 주로 이란지역에서 쓰는데 머리정도 가리는 흰색, 검정색의 모양이고, 차도르는 검정색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리는 데 쓰입니다. 부르카는 가장 많은 부위를 가리는데 얼굴조차도 망사로 가릴 정도로 전체를 다 가립니다. 탈레반이 주로 부르카를 사용합니다. 전통의상은 여성의 신체를 다 가리는 목적으로 쓰이는데 이슬람에서 여성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어떤 의상을 채택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넓은 이슬람문화권에서 부를 갖고 있는 산유국과 비산유국의 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어떠한가요?

산유국과 비산유국의 차이라기 보다 OPEC이라는 석유수출국 기구 안에서 누가 가격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쿠웨이트와 이라크 전쟁이 가격을 올리려던 이라크와 미국이 쿠웨이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것처럼, 그들간의 갈등이라기보다 이는 미국이 개입된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산유국은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것일 뿐이지 이를 산유국과의 갈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갈등은 근대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석탄 다음에 개발된 자원이 석유이므로 시기적으로는 1900년대 초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종교분쟁처럼 보이는 최근의 분쟁들은 사실상 경제, 정치적 갈등입니다. 종교적 갈등이라 할 수 있는 시아파, 수니파의 갈등은 이전부터 이란, 이라크 사이에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큰 갈등으로 번질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킬 만큼의 원인은 경제적인 원인에서 오는 것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적이 다른 이슬람인들이 모인 알카에다의 조직적 테러도 언뜻 종교전으로 보이지만, 아랍세계를 좌지우지 하려는 서구세력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알카에다의 테러가 이슬람세계의 전면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개별적 테러는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세계에서의 성전은 이슬람을 침범하는 국가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지,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행위는 성전의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서구가 이슬람을 압박해 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은근히 알카에다를 지지하기도 했지만, 결국 오사마 빈 라덴의 경우에서 보듯이 서방의 압력을 결국은 이기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올리볼리 이란동화 중 벽에 씌여진 이야기를 보면 정치권력에 대한 우화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이란동화의 특징은 어디에서 연유되는 것인지요?

왕권이 강했던 이란의 사파비왕조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자계승이 아니라 똑똑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사파비왕조의 특징은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에서 기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아들 중 한명만 남겨두고 모두 처단한다거나, 왕권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스만제국에서도 일찌감치 기독교의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데려와 키워서 용병으로 삼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기독교 어린아이들이 용병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교도들을 데려올지 말지, 신뢰할지 말지 하는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남아있고 이러한 독특한 역사적 맥락이 전해 내려오는 동화, 우화 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적 맥락에서만 파악하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되므로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참고문헌을 소개해 주세요.

현대 한국사회를 이해하려면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현재의 이슬람사회를 이해하려면 이슬람세계가 형성될 당시의 사회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슬람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나라는 아랍민족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와 페르시아 문화가 가미된 이란입니다.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파비, 오스만 왕조를 공부해서 어떻게 이것이 변형되고 있는 지를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국인이 쓴 것으로는 이희수 교수가 쓴 여러 책들을 참조하는 것도 좋고, 케임브리지 시리즈에서 나온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이슬람사』(프랜시스 로빈슨 외 지음, 손주영 역, 시공사, 2002)도 좋습니다. 중동사라는 책은 서구가 바라보는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동양사학과 이은정 교수께서 이 분야 전문가이므로, 이분이 번역한 책들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이은정 역, 사계절, 2006)도 추천합니다.

*여성 할례(여성 성기 절제술, Female Genital Mutilation, 약자 FGM)는 여성의 성년의식 중 하나로 여성 성기의 음핵 표피만을 제거하는 시술에서 표피, 음핵, 소음순, 대음순 등을 모두 제거하는 시술까지 방식은 다양하다. 여성할례에 대한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대략 5천 년 전부

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출처 : 위키백과)

**처용을 아랍, 페르시아인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처용 설화의 배경인 울산 개운포가 통일 신라 시대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던 곳이며 많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개운포에 와서 신라와 국제 무역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2010년 발견된 쿠쉬나메 내용을 주장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쿠쉬나메는 7세기 사산조 페르시아의 멸망 후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아랍권의 서사시이다. 쿠쉬나메의 내용에 따르면 사산조 페르시아 멸망 후 페르시아 유민들은 중국, 신라로 망명하게 된다. 삼국유사에는 "개운포에서 자욱한 안개와 함께 헌강왕 앞에 나타난 자들이 동해 용왕과 일곱 아들이고 그 가운데 막내를 경주에 데려와 벼슬을 주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도록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쿠쉬나메에서 아비틴이 페르시아 유민들과 함께 "신라로 기항해 항구에서 신라왕 타이후르의 아들 가람의 영접을 받았으며, 왕정을 보좌하고 왕과의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며 신라의 공주 프라랑과 결혼한다"는 내용과 유사하다. 그 동안 한국에 알려져 있지 않던 쿠쉬나메 자료는 한양대 이희수 교수에 의해 확인됐다. (참고, 뉴시스 12월 8일 2010년 고은희 기자 기사)

02 도노 선생님이 들려주는 우즈베키스탄 이야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오신 도노 선생님은 인천국제교류센터에서 다문화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편, 예쁜 아기와 함께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은요

우즈베키스탄(Uzbekistan)은 '우즈베키인의 나라', '나 스스로가 주인인 나라'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우즈베키인 80%, 러시아인 5.5%, 카자흐인 5%, 타타르인 3%, 카라칼팍인 2.5% 등 120개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지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중앙아시아의 진주' 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아시아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지요.

우리나라 국기는 1992년에 만들었어요. 우리는 소비에트연방(소련)에 속해 있다가 1991년에 독립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와 특성을 담은 국기를 만들기 위해 1년간 무척 고심했어요.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은 맑고 깨끗한 하늘, 평화와 자유를 뜻해요. 하얀색은 깨끗한 공기와 우즈베키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 또 초록색은 기름진 땅을 뜻하고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고 농사도 많이 짓고 사는 나라라서 기름진 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큰 전쟁을 2번 겪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을 하자는 의미에서 빨간색 2줄을 국기에 넣었어요. 12개의 별은 12개의 도시를 뜻하고, 초승달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믿는 종교인 이슬람교를 상징합니다.

우즈베키인에게 소중한 것은요

우리 우즈베키스탄은 '백금의 나라' 라는 별명을 지녔어요. 백금은 목화를 뜻해요. 우즈베키 사람들은 좋은 목화를 생산해 내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또 우리는 투모르(tumor)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투모르는 동전 두세 개 크기로 천주머니를 만들어 그 안에 주인의 행운을 비는 내용을 적은 종이를 넣어 꿰맨 것인데, 세모난 모양이 가장 대표적이지요. 꾸란 구절을 넣기도 해요. 예전엔 엄마들이 만들어 주셨는데 요즘은 주로 파는 것을 사요. 목에 걸거나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침대나 아기 베개에 넣기도 해요. 코란이 들어있는 투모르는 화장실 갈 때는 빼놓고 가고, 반드시 손을 씻고 만져야 해요. 기독교인의 십자가, 묵주와 비슷한 의미라고 할까요. 특히 주의할 것은 남의 것을 주웠을 때 절대 그걸 열어보면 안 돼요. 투모르가 자기 주인의 불행을 담고 있다가 열어본 사람에게 전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기본예절은요

우리는 식사를 마쳤을 때 손으로 얼굴을 닦는 시늉을 하며 감사 인사를 합니다. 밥상에서 어른보다

먼저 일어서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나 '어민 얼로후 아키바르(신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의 말을 합니다. 또 우리 우즈베키 사람들은 누구나 손님을 웃으며 맞아 잘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성들여 음식을 대접하고 손님 이불도 따로 깨끗하게 준비해 뒀다 깔아드리지요.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 잃은 신용은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또 여성에게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도 무례하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이슬람 문화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문턱을 밟고 서 있으면 안 되고, 손을 씻은 후 손을 마구 흔들어 물기를 털어내는 것도 아주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손수건을 지니고 다니며 손을 닦지요. 또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에 모자나 두건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머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보호하기 때문이거든요. 아이가 예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안 됩니다. 발도 마찬가지로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운 날에도 양말을 신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손아래 사람을 남자든 여자든 안아주고 등을 쓰다듬어 사랑을 전합니다. 연배가 비슷한 사람 사이에는 동성끼리만 안아주는 인사를 해요.

우리 음식과 옷차림 주거방식은요

우리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라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옛날에 신께서 동물들에게 40일 간 굶게 하셨는데, 다른 동물은 안 먹고 잘 참았는데 돼지는 자기의 배설물을 먹었기 때문에 인내심 없고 더러운 동물이라 생각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소고기, 양고기가 아주 싸고 좋답니다. 우리 주식은 화덕에 구운 '난' 이라고 부르는 빵입니다. 지역마다 빵의 모양과 맛은 조금씩 달라요. 또 우리는 밥에 당근, 양파, 고기를 넣어 볶은 '팔로우' 도 자주 먹어요. 쌈사는 얇은 밀가루 반죽에 단호박이나 다진 고기와 양념을 싸서 화덕에 구운 것으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죠.

우즈베키스탄 여자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면 안 된다고 배워요. 그래서 누구나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러멀(두건)을 써요. 여자의 긴 머리카락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르거나 염색하지 않아요. 나이들어 머리가 희게 세더라도 염색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흰 머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녀 모두 토피라는 모자를 쓰고, 소매 달린 저고리와 발까지 가리는 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을 떠다가 옷 짓는 집에서 자기 몸에 맞게 옷을 지어 입어요. 아틀라스라고 하는 천은 우리 전통 방식으로 짠 것인데, 그 천으로 지은 옷도 아틀라스라고 합니다. 아틀라스로 지은 저고리 밑에는 바지(러즘)을 지어 입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청바지를 입기도 해요. 남자 아이들은 7살이 되기 전에 할례를 하는데, 그때 좋은 옷과 신발을 선물 받아요.

주로 1920년대 소비에트가 들어와 지은 2층 집이 많아요. 여름이 되면 우즈베키 사람들은 마당에 '아이원(평상)' 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불을 깔아 둡니다. 거기서 밥도 먹고 누워 자고 놀기도 하지요. 집안에는 방바닥에 구멍을 내서 그 안에 숯을 담은 그릇을 넣고, 그 위에 탁자를 놓고 보를 깔아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탄차' 라고 부르는데 겨울에 실내를 따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일본의 고다쯔와 같은 방식입니다. 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가장 높은 아파트도 11층을 넘지 않아요. 집에 보일러 시설이 없으니 높이 올라 갈수록 추워서 인기가 없어요. 난방은 대개 난로로 하지요. 우리는 '우즈베키스탄 문화를 알고 싶으면 시장으로 오라.' 는 말이 있어요. 다양한 문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즈베키스탄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높은 빌딩과 예전에 없던 기차도 많이 생겼어요.

언어와 교육방식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즈베키어와 러시아어를 씁니다. 저는 소비에트 연방일 때 태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배웠어요. 엄마도 제게 러시아어를 쓰게 하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소비에트가 강요한 러시아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독립한 지금은 나라에서 우즈베키어를 가르치고 우리 민족과 종교를 강조하여 교육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입니다. 대학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장학금도 있지만 그 혜택은 아주 일부만 볼 수 있어요.

명절

나브로즈는 봄이 오고 새해가 시작되는 음력 3월 21일입니다. 나브로즈에는 서너 집이 함께 모여 수말라키라 부르는 밀싹을 갈아 큰 솥에 엿처럼 고아 수말라키를 만들어 먹어요. 수말라키를 만들려면 10시간도 넘게 끓이는데, 사람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잔치를 합니다. 수말라키는 차로 마시기도 하고 빵에 찍어 먹기도 하는데 아이들에게도 좋은 음식이죠.

우즈베키스탄의 남과 여

우리나라는 성역할이 강하게 구분된 편입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집을 벗어나면 안 되니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맡고,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여자들은 대학 졸업 후 2~3년은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결혼하고 출산하면 주로 집안일을 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아이를 다 키우고 일을 하기도 해요. 여성들은 주로 교사, 뜨개질이나 바느질과 관련된 일 등을 해요. 남자들은 의사, 변호사 같은 직업을 선호하고, 요즘 새로운 건물을 많이 지으면서 건축과 관련된 일도 많이 해요. 요즘 변화는 여성들이 의사가 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색깔과 숫자

우리 우즈베키스탄인들은 파란색, 연두색을 좋아해요. 상중에는 검은 옷이나 어두운 파란색 옷을 입어요. 빨간색은 여성의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금기시되는 면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위험하다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우리는 숫자 7과 5를 좋아합니다. 5에는 행운이 있다고 하고 돈을 쓸 때도 5장을 많이 씁니다. 싫어하는 숫자는 13이고, 악마의 숫자라고 해요. 11도 싫어하는 숫자지요.

아이들 놀이

땅바닥에 금으로 긋고 숫자를 써서 땅따먹기 같은 놀이를 하고 숨바꼭질, 제기차기, 우리 집에 왜 왔니 같은 놀이를 합니다. 주로 땅바닥이나 흙, 돌멩이를 이용해서 놀아요. 한국에서는 공깃돌 5개로 공기놀이를 하던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6개를 갖고 놀아요. 또 12개의 막대를 섞어놓고 자치기 놀이를 해요. 막대가 날아가면 집어 들고 달아나는데, 술래는 막대를 다시 모아야 되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놀이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쳐다보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고 말하는데, 놀이방식은 비슷해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보통 자녀를 3~4명 낳으니까 형제들이 서로 어울려 재미나게 놀아요. 10대 중반인 큰 아이들은 말을 타고 발을 묶은 양을 오래 잡고 있으면 그 양을 차지할 수 있는 울로그라는 놀이를 하기도 해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서로 다른 문화

한국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우리 음식점이 많은 안산 원곡동에 자주 모입니다. 또 서울 동대문에 우리 음식 재료를 파는 가게가 많아 가끔 가서 사오지요.

한국에서는 빤히 쳐다보는 사람들,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우즈베키스탄 사람 전체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질까봐 걱정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제 나라 문화는 아이들 머리나 몸을 다른 사람이 잘 만지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아이가 예쁘다고 손으로 만지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적응하기 힘든 일이지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우리나라에 대우자동차가 들어오고 대장금, 겨울연가 같은 한국 드라마가 들어오면서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요. 대장금을 보면 한국 음식이 아주 예쁘고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집에 가면 친구들이 한국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제가 잡채나 불고기를 만들어 주면 아주 좋아하죠. 된장은 끓이기 시작하면 냄새 때문에 모두 집 밖으로 뛰쳐나가요. 미역 같은 해초나 두부를 신기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한국인이 밝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와서 살아보니 조금 시끄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03 동화별 교육 내용

1) 비밀의 나이

이 동화는요

이 동화는 우즈베키스탄의 음악가 '탄부리' 선생님이 제자를 찾기 위해 '나이'라는 악기를 이용하여 음악에 재능이 있는 아이를 찾아내는 이야기입니다. 탄부리 선생님을 찾아 온 아이들은 대나무로 만든 나이라는 악기를 건네받자마자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이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탄부리 선생님은 그때마다 아이의 각각 다른 재능을 알아보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나이의 길이를 재자, 탄부리 선생님은 이 아이가 후에 상인이 될 재능을 가졌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칼로 나이를 깎는 아이에게는 훌륭한 목수가 될 것이라고 말해 줬습니다. 나이로 말 타는 흉내를 낸 아이에게는 말 타는 기수가 될 것이라고, 나이를 땅에 심은 아이에게는 정원사가 될 것이라고 말해 줬습니다. 마침내 나이를 부는 아이를 발견하고 탄부리 선생님은 연주 기술을 끈기 있게 가르쳐 주어 이 아이는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는 후에 자신의 연주 기술을 전수해주어 나이 음악의 전통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동화를 통해 우리 모두 각자 재능이 다르다는 점과 좋은 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자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좋은 스승과 성실한 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우즈베키스탄이 125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이 이슬람 문화와 종교를 통해 공통적인 예절, 음식, 축제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의 악기인 '나이'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 우리 모두는 각각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재능뿐만 아니라 오랜 연습과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 탄부리 선생님처럼 자신의 좋은 재능을 제자에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전수해야 우리의 문화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왜 탄부리 선생님은 제자를 찾았나요?
- 탄부리 선생님이 제자를 뽑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 탄부리 선생님은 어떤 아이에게 "음악가가 아닌 훌륭한 상인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해주었나요?
- 탄부리 선생님은 나이를 칼로 깎는 아이에게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나요?
- 나이를 땅에 심고 물을 준 아이에게 훌륭한 정원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 탄부리 선생님의 말처럼 이 아이는 훌륭한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 탄부리 선생님처럼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알아봅시다.

- 우즈베키스탄은 125개의 다른 민족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인지 알아봅시다.

Tip!

우즈베키스탄 나라 소개 자료: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사이트에 가면 우즈베키스탄의 약사, 역사적 인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고려인의 역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 등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http://uzb.mofat.go.kr). 우즈베키스탄은 다민족 다문화사회입니다. 125개 다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로서 우즈베크인(71.4%), 러시아인(6.3%), 타지크인(4.7%), 카자흐인(3.9%), 유태인(0.3%), 고려인(0.9%) 등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어우러져 사는 나라입니다.

– 대나무로 만든 악기인 '나이'의 소리를 들어보고, 우리나라 악기 소리와 어떻게 다르고 비슷한지 알아봅시다.

Tip!

올리볼리 우즈베키스탄 동화편「비밀의 나이」'이건 뭐예요' 에 들어가 보면 '나이'의 생김새를 볼 수 있고, '나이'의 소리는 classicmusic.uz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 탄부리 선생님은 터번이라 부르는 것을 머리에 썼는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머리에 쓴 터번과 현대에도 착용하는 톱프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머리를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함부로 남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매우 큰 실례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영향과 함께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모자와 두건을 착용해왔습니다.

– 터번: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터번을 '살라'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주로 사용했고 높은 직업에 있는 사람일수록 높고 두꺼운 터번을 썼습니다. 살라는 지역마다 기후나 원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만듭니다. 현대 우즈베키스탄 사회에서 살라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돕프를 많이 씁니다.

– 돕프: 돕프를 착용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돕프를 쓰는 기본적인 이유는 뜨거운 햇볕에서 보호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알라신에게 기도를 드릴 때에도 남자들은 머리카락을 감추기 위해 돕프를 이용했습니다. 남 여 모두 돕프를 쓰지만 남자는 주로 검정색과 흰색의 돕프를, 여성은 색깔이 있는 것을 씁니다. 특히 누가 돌아가셨을 때는 돕프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 토피: 현대사회에서 남녀 모두 쓰고 다닙니다. 결혼을 한 여성은 무조건 머리를 묶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은 러멀이라 부르는 두건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가립니다.

체험해 봅시다.

– 올리볼리 그림동화 사이트에 나와 있는 우즈베키스탄 원어를 따라해 봅시다.
– 내가 만약 '나이'를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지 연극으로 보여줍시다.
– 대나무로 만든 '나이'와 비슷한 악기인 피리를 가지고 와 함께 연주해 봅시다.
–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돕프, 터번, 토피, 러멀을 그려 보거나 입체적으로 만들어 머리에 써 봅시다.

참고자료

웹사이트

-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이슬람교 중앙회 웹사이트 자료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koreaislam.org

-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사이트: 우즈베키스탄의 약사, 역사적 인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고려인의 역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 등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http://uzb.mofat.go.kr

-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의 현황이나 한국의 정책 지원에 대해 알고 싶으면 재외동포재단에 웹사이트를 참고 할 수 있습니다.
  http://www.okf.or.kr

- 전통모자인 돕프 사진과 설명은 올리볼리 그림동화 우즈베키스탄 편 '이 나라가 궁금해요'에 나와 있습니다.
  http://www.ollybolly.org/?mid=animation_curious_blog&category=234&document_srl=5194

동영상

- 중앙 아시아 이슬람 최대 축제인 나우르즈 축제 영상은 판도라사이트(http://brand.pandora.tv/my.yunhap/41757628)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올리볼리 우즈베키스탄 동화편 「비밀의 나이」에 등장하는 전통 악기인 '나이'의 모양은 '이건 뭐예요'에 나와 있고, '나이'의 소리는 classicmusic.uz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단행본

- 한양대 인류학과의 이슬람 문화 전문가인 이희수 교수의 아래의 책을 통해 이슬람 문화와 나라별 특수성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희수(2011),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911 테러 10년과 달라진 이슬람세계』. 청아출판사
  이희수 (2010), 『톡톡 이슬람: 문화가 보인다. 세상이 보인다』. 검둥소
  이희수 (2007),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이슬람-우즈베키스탄"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한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 삼인

2) 요술쟁이

이 동화는요

이 동화는 공주와 사랑에 빠진 농부의 아들이 요술을 배워 마침내 공주와 결혼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공주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농부의 아들에게 왕은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술을 배워 온다면 딸을 주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농부의 아들은 요술쟁이에게 요술을 배우기로 했지만 요술쟁이는 자신의 재주를 남에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의 아들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농부의 아들은 요술쟁이 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고, 요술쟁이가 죽이려 할 때마다 계속 다른 동물로 변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마침내 이런 기술이 왕에게 인정을 받아 공주와 결혼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동화를 통해 위기 때마다 지혜를 발휘하여 마침내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우즈베키스탄이 125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이 이슬람 문화와 종교를 통해 공통적인 예절, 음식, 축제 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이슬람 왕조였지만 지금은 우리와 같은 현대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어려운 상황에서 끊임없이 지혜를 발휘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 재능이나 기술은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왕은 딸과 결혼하길 원하는 농부에게 무엇을 배워오라고 말했나요?
- 요술쟁이는 요술을 배우러 온 제자들을 왜 죽이려고 했나요?
- 농부의 아들이 자신을 구해 준 요술쟁이의 딸로부터 배운 요술은 무엇인가요?
- 농부의 아들이 요술을 부려 9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 농부의 아들이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는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알아봅시다.

– 농부의 아들이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중매인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중매인을 통해 결혼하나요?

Tip!

올리볼리 그림동화 우즈베키스탄편 「요술쟁이」 '이건 뭐예요'에 '중매인'에 대한 내용 참고하세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과거에 중매인을 통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남자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자의 집으로 중매인을 보내곤 했습니다. 중매인들은 결혼식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연애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 농부의 아들이 공주와 결혼을 할 때 40일간 결혼잔치를 치렀는데, 왕가의 결혼식은 보통 그랬나요?

Tip!

옛날 왕가에서는 40일 동안 결혼식을 하면서 공짜로 밥을 나눠주기도 했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대 우즈베키스탄 사회에서 결혼식은 더위를 피해 주로 밤에 성대한 음식과 음악을 겸한 피로연을 개최하면서 진행됩니다.

체험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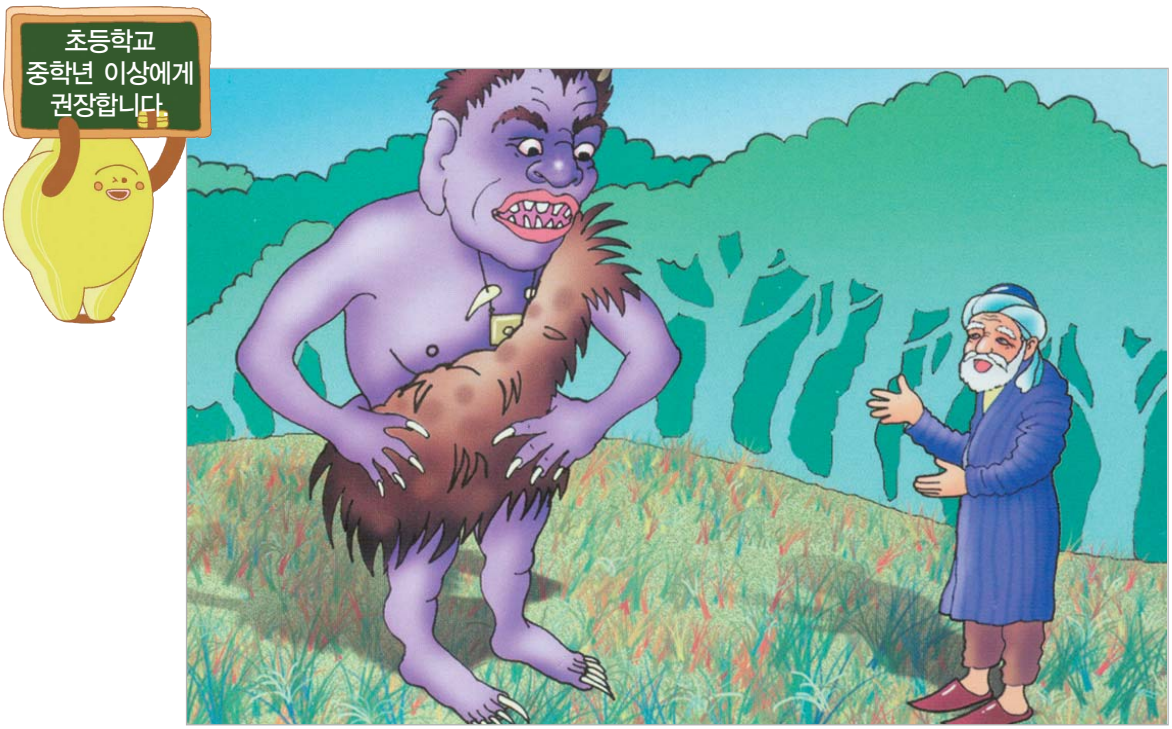
- 올리볼리 그림동화 사이트에 나와 있는 우즈베키스탄 원어를 따라해 봅시다.
- 농부의 아들이 요술을 부려 다른 모습으로 변한 상황을 연극으로 만들어 따라해 보고 주문을 외어 봅시다.
-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술'을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술'로 바꾸어 보고, 사람을 이롭게 할 기술을 가진 사람을 뽑아봅시다. 어린이들은 각자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가장 좋은 기술을 뽑아 봅시다.

참고자료

- 올리볼리 그림동화 우즈베키스탄편 「요술쟁이」 '이건 뭐예요'에 '중매인'과 '돕프'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 동화의 내용이 과거 이슬람 국가의 전제주의적 왕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과거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으로 오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 우즈베키스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아래 두 책을 참고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아 줄 수 있습니다.
  이희수 (2010), 『톡톡 이슬람: 문화가 보인다. 세상이 보인다』. 검둥소
  이희수 (2007),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이슬람–우즈베키스탄"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한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 삼인

3) 할아버지와 도깨비



이 동화는요

숲에 가서 땔감을 주어 내다 파는 할아버지가 산에서 도깨비를 만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해 도깨비를 물리친다는 내용입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와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잡아먹기로 내기를 했습니다. 땅의 뇌를 찾아서 쪼개는 일, 땅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일. 땅의 내장을 뽑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혜를 발휘해서 이것을 모두 해냈고, 겁에 질린 도깨비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잡아먹는 줄 알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매번 할아버지의 빵을 훔쳐 먹던 약삭빠른 여우도 도깨비와 함께 물리쳤다는 내용입니다.

이 동화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경험과 지혜가 많고, 위기 상황에서도 잘 헤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우즈베키스탄이 125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이 이슬람 문화와 종교를 통해 공통적인 예절, 음식, 축제 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현대 우즈베키스탄의 농촌 생활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동물에 대한 이미지와 편견에 대해 토론할 수 있습니다.
- 위기가 닥치더라도 침착하게 지혜를 발휘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도깨비의 힘과 여우의 간교함을 이겨낸 할아버지의 지혜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어떻게 먹고 살았나요?
- 할아버지가 장작을 모으러 간 사이 할머니가 싸 준 빵은 어떻게 되었나요?
- 할아버지가 땅에 묻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 할아버지를 잡아먹겠다는 도깨비에게 할아버지가 내 건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 할아버지는 도깨비에게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보여주었나요?
- 도깨비가 다시는 인간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할아버지는 어떤 꾀를 썼나요?

알아봅시다.

–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적으로 빵을 주식으로 먹나요?

Tip!

예, 우즈베키스탄의 주식은 빵입니다. Nun(논) 또는 리뽀슈카라고 하며 진흙가마에서 구운 납작하고 넓은 빵을 말합니다. 손님을 초대해서 밥을 먹을 때 기도 후 주인이 논을 찢으면 식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얇은 밀가루 반죽에 기름을 골고루 묻혀 고기, 양파 다진 것을 넣고 세모나 둥글게 화덕에 구운 빵인 솜사도 즐겨 먹습니다. 지역마다 어느 자리에 빵을 놓느냐에 따라 의미도 다르고 맛도 다르답니다. 그만큼 빵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주로 화덕에서 빵을 굽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당근, 양파, 고기와 함께 만든 볶음밥인 쁠로프(palov)를 평소에 즐겨 먹습니다. 빵의 일종인 오비 논에 대한 그림과 설명은 올리볼리(www.ollybolly.org) 우즈베키스탄 동화 「할아버지와 도깨비」 '이건 뭐예요' 편에 나와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도깨비가 나오는 동화가 많은가요? 도깨비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Tip!

우즈베키스탄의 동화에 등장하는 도깨비는 한국 도깨비와 모습이 거의 같습니다. 발은 말발굽처럼 생겼지요. 실제로 도깨비보다는 악당 할머니나 마녀 할머니, 여우가 나쁜 인물로 등장합니다. 많은 동화에서 마녀 할머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무서운 인물로 자주 등장합니다.(지역전문가 도노 선생님 인터뷰)

– 우리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눠봅시다. 나이가 많으면 왜 어려움이나 위기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는 어떤가요?

Tip!

우즈베키스탄은 '마할라'(마을을 뜻함)라 불리는 조직을 갖고 있고, 마할라의 장은 각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추대된 분이라고 합니다. 마할라의 장은 통솔 및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물로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은 경험이 많아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험해 봅시다.

–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을 그려보고 왜 좋아하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동물에 대한 편견이 왜 생겼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 우리가 할아버지처럼 도깨비를 만나는 위기에 처한다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지혜를 생각하여 역할극으로 표현하여 봅시다.

참고자료

– 빵의 일종인 오비 논에 대한 그림과 설명은 올리볼리(www.ollybolly.org) 우즈베키스탄 동화 「할아버지와 도깨비」 '이건 뭐예요' 편에 나와 있습니다.

6 이란

01 메헤란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란에 관한 이야기

02 동화별 교육 내용

1) 양탄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2) 상인과 앵무새

3) 공주님의 여행

01 메헤란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란에 관한 이야기

메헤란 선생님은 12년 전에 한국에 오셔서 현재 선교활동과 더불어 '다문화도서관 모두'에서 다문화 강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란인 남편과 결혼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이름인 '메헤란'은 이란어로 '햇님의 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란은요

이란은 2,500년 전에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페르시아라는 이름에는 종족 문화에 대한 애정과 고유의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란이 덥고 건조한 나라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남쪽 지방은 매우 덥고 사람들의 피부색도 검지만 북쪽 지방은 춥고 사람들의 피부색도 하얗습니다.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의 날씨는 한국과 비슷해서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습니다. 이란의 바다 쪽 지방은 습기가 많고 비가 많이 오지만, 건조한 지방도 있고, 추운 지방도 있지만 춥지 않은 지방도 있습니다. 이란은 모두 31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마다 날씨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란은 민족은 같지만 워낙 지역이 넓어서 남쪽 지방 사람들과 북쪽 지방 사람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란의 국기는요

이란의 국기는 이란 혁명 전에는 초록, 빨강, 하얀색이 있고 가운데 사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자는 강력한 이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혁명 이후에는 사자 대신 아랍어로 '알라'(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국기 중간 중간에 나오는 문장은 코란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은 위대하다."라는 문장입니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초록색과 하얀색은 평화를 의미하고, 빨간색은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피 색깔을 의미합니다. 국기가 만들어진 이래 두세 번쯤 바뀌었는데, 색과 모양은 같지만 중간의 마크가 바뀌었습니다.

이란의 옷차림, 음식, 주거는요

이란에서는 관광객도 여성은 히잡을 써야 하고 긴 소매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른 이슬람 국가는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이란은 이 점에서 엄격합니다. 옷 색깔에 대해서도 엄격한 편이라, 검은색 아니면 갈색을 주로 입습니다. 이란에서는 얼굴을 보이게 씁니다. 이란 남쪽에서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다 가리지만요. 결혼할 때는 웨딩드레스도 입고 서양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밖에 나가거나 실외에 나가면 머리가 안 보여야 하기 때문에 실내와 실외 있을 때 머리에 쓰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란은 예전에 비해 아주 많이 변한 곳은 아닙니다. 옷들도 여전히 전통적이고 히잡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망토는 원래는 발목까지 오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무릎까지 내려와도 되게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안에 긴 바지는 갖춰 입어야 하구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이란의 전통적인 음식에는 'ghormeh sabzi'라는 것이 있는데, 한약과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이란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소고기나 양고기, 양파, 밀, 특별한 이란의 다섯 가지 야채를 같이 썰어서 볶아 먹습니다. 외국인들도 이 맛을 좋아합니다. 이란의 바베큐도 맛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치를 먹지만, 이란에서는 피클을 먹습니다.

이란의 전통적인 집은 '마술레(masuleh)'라고 하는데, 한 집의 마당이 다른 집의 지붕이 되는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쇼말(shomal)'은 초가집같이 산악지대에 위치한 집들이고, 북부지역에서 주로 이런 집을 짓고 삽니다. 한국의 제주도와 비슷한 지역인 '키쉬(kish)'라는 곳은 바다색이나 나무가 제주도와 흡사한 섬입니다. 북쪽 지역은 비가 많이 오니까 나무가 잘 자라서 나무가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사막에서는 철을 쓰지 않고 흙집을 짓기도 합니다. 현대적인 집으로는 아파트와 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한국의 아파트와 비슷하고, 집에서는 카펫을 써서 보통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이란의 명절과 전통 옷은요

이란의 설날은 음력 3월 20-21일인데, 설 일주일 전에 산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인 '하지피루즈'라는 분이 빨간 옷을 입고 밖에서 탬버린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설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은 얼굴을 까맣게 칠하는 게 특이하지요. 사람들하고 같이 얼굴을 까맣게 칠하는데 겨울이 너무 춥기 때문에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봄이 온다는 말을 전해 줍니다. 이 축제는 이란의 고유한 전통입니다. '하프트 신(haft seen)'이라고 해서, 설날 되는 날 상 위에 일곱 가지 물건을 놓는 전통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일곱 가지는 계란, 스위츠, 사과, 물고기, 곡물, 꽃, 거울입니다. 코란 책도 올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이 's'로 시작하기 때문에 'seven s'라고도 부릅니다. 이란에서는 일 년에 한번 설날에 대청소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때 학교는 15일을 쉬고 회사는 4일정도 쉬어요. 마당에서 카펫을 다 청소하기도 합니다. '사브제(Sabzeh)'라고 해서, 밀과 보리를 키우는 전통도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전통 옷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레바스 코디(lebas kordi)'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입으시는 옷이고, 젊은 사람들은 설날이나 결혼식 때 입기도 합니다. 'lebas'는 이란어로 옷이라는 뜻이에요. 이 옷은 정말 화려해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옷은 원단을 사서 각자 입을 사람이 손수 만들지만,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기성품도 팔기도 합니다.

이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물건은요

아기가 태어날 때 '나라지'라고 부르는 특별한 구슬을 핀에 꼽아서 아기 옷에 꼽아줍니다. 코란은 소중하게 여겨서 모든 집에 있습니다.

이란의 예절은요

제가 이란에서 학생이었는데 처음으로 공원에서 한국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몰라서 영어로 인사했더니 그 분이 제 손을 잡으며 너무나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절대 손을 잡으면 안 된답니다. 남자들끼리는 악수하고 뽀뽀하고 인사하며 안아줍니다. 여자들끼리도 뽀뽀하고 안아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가족(친척까지 포함)이 아니면 악수만 눈치보고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어딘가를 방문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과일이나 꽃이나 화분 같은 것을 가지고 가구요, 스위츠(단 음식)하고 꽃을 많이 가져갑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살람'이라고 인사 하면 됩니다. 그리

고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남녀사이에 악수가 안 되는 건 이슬람 근본주의자일 경우에만 금기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자가 먼저 악수를 청하면 같이 악수로 인사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을 맞이하는 사람은 스위츠와 홍차, 과일 등을 준비하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권유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집에 누군가 방문을 하면 남자가 맞이합니다. 남자가 없을 경우에는 여자가 하기도 하지만요.

이란의 남성과 여성은요

한국 사람들은 이란의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란에서도 여성들이 대학도 가고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남자는 여자보다 더 우선인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의 땅이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아들은 딸보다 유산인 땅을 2배 받습니다. 이혼할 때에도 남자가 이혼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란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할 때 써 주는 '신부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부값은 여자가 요구하면 남자가 언제든지 줘야 하는 것인데, 이혼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여성에게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그 신부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란은 일부다처제인데,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고 싶으면 첫 번째 부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 허락을 안 하면 첫째 부인이 모르게 결혼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결혼은 법적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출산한 아이가 교육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이란에서 결혼식은 남자가 다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TV나 냉장고 등은 여자의 가족이 자기 딸에게 준비해 줍니다. 아이를 우유로 키운다고 해서 장모에게 사위가 드리는 돈을 '시르바허(우유값)'이라고 하는데, 그걸 조금 받아서 결혼에 필요한 것들을 장만합니다. 엄마가 딸을 고생하며 키운 값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란의 가족은요

이란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삼촌, 삼촌, 조카를 모두 가족이라고 봅니다. 사촌까지는 외가나 친가 상관없이 다 가족으로 여깁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한 집에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친정살이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데릴사위처럼 살면 남들이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많지 않지 않습니다. 주로 여성이 시댁에 사는데, 시어른은 장남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 여럿의 집에 돌아가면서 같이 살고, 자식들도 부모를 돌아가면서 돌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란의 교육은요

가정 교육에서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게 강조하는 가치가 좀 다른데, 남자의 경우에는 커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어떤 기술을 배우라고 하고, 여자아이에게는 결혼해서 엄마가 되어야 하니까 요리, 바느질 등을 가르칩니다. 이란의 유치원은 남녀 공학이고, 초등학교~고등학교는 남학교와 여학교가 따로 있는데, 대학은 남녀공학입니다. 일하지 않는 아이들은 5살 때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는 7살부터 보내구요, 2011년까지는 초등학교가 5학년까지였는데 2012년부터 6학년이 생겼다고 합니다. 중학교는 3학년이구요, 제가 다닐 때는 고등학교가 4학년이었는데 이제는 3학년만 다니고 나머지 1년은 대학준비 기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는 2년과 4년짜리가 다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은 남녀 모두 의대입니다. 이란은 성장기 초반부터 남녀를 달리 구분해서 교육하는데, 여성의 전문직 진출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여성들이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란에서는 여성이 공부를 하지 않으

면 대체로 빨리 결혼하는데, 가정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학생으로 있을 때에는 부모도 여성에 대해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기성취를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결혼적령기에 들어서면 부모들의 개입이 심해지기 때문에, 여성들은 전문직을 가져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고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선호하는 색과 숫자는요

색에 대한 전통적 선호는 없습니다. 위험을 표현하는 색은 노란색입니다. 싫어하는 숫자는 13입니다. 그래서 13일이 되면 그날은 꼭 밖에 나가고 집에 있지 않으려 해요. 또 꼭 밖에 나가야 하는 날은 아까 말했던 밀과 보리를 길러 싹을 틔운 사브제 'Sabzeh'를 가지고 내년에 그 소원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새해에 꼭 밖에 나갑니다. 좋지 않은 기운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사브제를 지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했던 놀이는요

고무줄을 가지고 친구들끼리 놀거나 옷 만드는 것을 많이 좋아했어요. 가위로 종이를 잘라서 옷 만드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몇 달 동안 그렇게 가지고 논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재미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여자아이는 소꿉놀이를 많이 하고, 남자아이들은 자동차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과 비슷해요.

이란과 한국의 관계는요

원래는 원유의 수출과 수입 많았는데, 최근에 미국의 영향으로 관계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란 대사관이 한국에 있습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 가까운 곳에 작은 페르시아 박물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식료품점이나 이란 음식점은 한국에 없습니다.

한국의 좋은 점과 힘든 점은요

언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어려웠구요, 저를 대하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묻고는 대답하기도 전에 '필리핀 사람이냐?'고 묻는다든지, 이란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불쌍하다며 동정어린 시선으로 본다든지, 김치가 없는 나라에서 어찌 사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참 난감했습니다.

02 동화별 교육 내용

1) 양탄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동화는요

오래전 이란의 캐르만이라는 마을에 양치기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깊은 가뭄이 들어 양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양치기는 두 딸과 아내를 남겨둔 채, 양들을 데리고 비가 내리는 북쪽으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두 딸들은 아빠와 헤어지는 것이 슬펐고 아빠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자 캐르만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아 있던 양치기의 딸들은 아빠에게 가뭄이 끝난 것을 알리고 싶어했습니다. 양치기의 아내는 북쪽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양치기가 양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들은 그 전보다 훨씬 더 튼튼해지고 마릿수도 늘어나 있었습니다.

양치기의 두 딸들은 아빠에게 북쪽에서 본 것들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양치기는 큰 숲, 오래된 나무들, 담쟁이덩굴 그리고 바다와 물고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들은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빠가 본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빠, 북쪽 지방을 여기로 가져오면 안 돼요?' 라고 말하던 딸의 말을 떠올리던 양치기는 색색의 실로 북쪽 지방에서 본 아름다운 것들을 문양으로 짜 넣은 양탄자를 만들었습니다. 양치기는 '이 양탄자는 나의 여행 이야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탄자를 본 다른 사람들도 양탄자를 주문했고, 양치기의 딸들은 아빠와 함께 양탄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은 이란의 특산품이자 예술작품인 '페르시안 카펫(Persian Carpet)'에 대해 알 수 있고, 이란 사람들이 양탄자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이란 양탄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이란의 양탄자 산업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이란의 주거문화에 대해 조사하며 양탄자의 쓰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이란의 자연환경에 대해 조사하며 유목과 목양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서로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치기는 왜 북쪽 마을로 떠나기로 했나요?
- 양치기는 두 딸들에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나요?
- 양치기가 양탄자를 만들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알아봅시다.

– 양탄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Carpet 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 Capia 즉 '털을 빗질하다'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카펫은 지면의 습기를 방지하고 보온을 목적으로 하는 깔개를 총칭합니다.
특히 이란에서 만들어지는 페르시아 카펫은 기원전 500년경으로 추정될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 양탄자의 문양

Tip!

양탄자의 문양으로 사람이나 동물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신학자들은 인간과 동물의 재현은 신(神)만의 특권이며, 그것을 그리거나 만드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생물의 상을 만든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미술가가 오직 신만이 가능한 창조행위를 빼앗는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물에 영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신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포함하여 그 어떤 사람과 동물, 심지어 신이나 천사의 형상을 그린 그림이나 조각도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란산 양탄자 '페르시안 카펫'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유목민들에게 카페트는 마루이자 벽이 될 수 있고, 커튼이나 안장도 될 수 있어서 단지 장식품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생활의 중요한 실용품입니다. 카페트는 크게 페르시안 카페트와 터키 카페트로 나눕니다. 페르시안 카페트는 16세기부터 그 역사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유서가 깊은데, 주로 꽃무늬를 많이 사용합니다. 반면 터키 역시 카페트 직조에 있어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기하학 문양이나 동물 문양을 애용합니다. 페르시안 카펫에 사용되는 무늬는 각기 고유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실삼나무는 슬픔과 사후의 영원성을, 대추야자나 코코넛 나무는 축복과 충족, 작약은 부(富)를, 로터스 나무는 가문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주로 초록색이나 노란색이 선호되는 반면 터키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붉은색이 선호된다고 합니다.
카페트를 만드는 재료로는 양모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슬람권 어디에서나 양을 기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드물게 실크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 색이 달라져 신비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가는 실로 짜기 때문에 디자인도 매우 정교합니다. 그러나 직조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격도 비싸서 성스러운 곳이나 궁전을 장식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이란의 카펫은 이란 산업의 주요 수출품이기도 합니다. 이란의 비석유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며 모든 수출품목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5백만명의 사람들이 이란의 카펫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산 양탄자는 특히 우수한 양모를 사용하여 튼튼하고 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한 광채와 문양을 가져 실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처럼 수집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2005년 자료, 출처 위키피디아)

– 유목민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유목민(遊牧民)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주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의 사회를 말합니다. 현재 세계에는 3,000만~4,000만 명의 유목민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목민에서 유래한 문화가 많은데, 이란 문화에서도 유목문화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경이 생기고, 다른 나라 땅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권이나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유목민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피스타치오 나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피스타치오(pistachio)는 옻나무과에 속하며 원산지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입니다. 터키,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과 이란 등에 분포합니다. 성서의 창세기 편에도 등장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익을 때 껍질이 저절로 벌어지면서 쪼개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전설이 있어 피스타치오 나무 밑은 오랫동안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가 되어 왔다고 합니다. 달걀 모양 비슷한 타원형이고 붉은빛을 띤 노란색을 띄고 있으며 날것으로 먹거나 과자, 아이스크림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또 담배에 들어 있는 독소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흡연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건강식품이며,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낮아 간식으로도 좋은 식품입니다.

체험해 봅시다.

- 양탄자 제작 과정을 조사하여 병풍책으로 만들기
- 여러 가지 재료로 양탄자를 만들기
- 양탄자가 필요한 주거형태를 자연환경과 관련지어서 이해하고, 양탄자가 사용된 가옥 사진을 수집하여 스크랩북 만들기
- 카펫 산업을 비롯하여 어린이노동이 문제가 되는 사안을 조사하고, 어린이노동과 관련된 포스터나 글을 써봅시다.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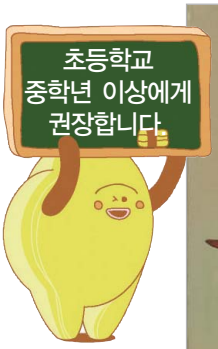
-현대 이슬람 풍경과 양탄자 가게 사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etzzi69&logNo=20166158990

- 이란의 테헤란에 있는 양탄자 박물관 내 전시모습 사진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EpRk&articleno=8049857#ajax_history_home

- 이란 영화 〈세 여자와 양탄자〉
양탄자를 매개로 세(3) 세대의 여성간의 갈등과 이란 여성의 현실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제 58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파노라마 섹션, 2008)이며, 이란의 대표적인 여성감독 마니제 헤크맛 감독의 작품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보기보다는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 여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입니다.

- '테헤란 카펫 박물관'으로 검색하시면, 이란 양탄자의 제작 과정과 양탄자의 사진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상인과 앵무새



이 동화는요

앵무새를 사랑하는 부자 상인이 있었습니다. 상인은 앵무새를 고향인 인도에서 데리고 와 금으로 만든 새장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상인은 앵무새의 고향인 인도로 출장을 가게 되어, 앵무새에게 고향에서 어떤 선물을 사다주면 좋을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앵무새는 비싸고 귀한 물건은 필요없고 다만 자신의 고향에 한번 들러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자신의 고달픈 이야기를 전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물어봐 달라고 하였습니다. 상인은 인도에 도착하여 앵무새의 고향에 들렀습니다. 앵무새들은 아름다운 숲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행복해하는 앵무새의 모습을 본 상인은, 자신의 앵무새는 먹이도 많이주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새장을 장식해 주었지만 행복해하지 않는다고 한탄하였습니다. 상인의 앵무새가 부탁한 말도 전해 주었습니다. 상인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앵무새 한 마리가 정신을 잃고 땅으로 떨어져버렸습니다. 상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앵무새가 죽어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인은 앵무새에게 숲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주었습니다. 상인의 말이 마치기 무섭게 상인의 앵무새가 파르르 몸을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긴 상인이 새장의 문을 열자 앵무새는 새장 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앵무새는 자신을 사랑해준 상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은 친구들과 함께 고향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상인은 앵무새가 자신에게 교훈을 주었다며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은 이란과 인도를 연결하는 교역로와 무역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존중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 상대의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이란과 인도를 연결하는 교역로와 무역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존중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인은 앵무새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습니까?
- 앵무새는 상인에게 무엇을 부탁하였나요?
- 앵무새의 고향에서 상인이 본 것들은 무엇인가요?
- 앵무새의 친구들은 상인의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 앵무새는 상인이 전해 준 고향 친구들의 행동을 듣고 어떻게 하였나요?
- 새장 밖으로 나간 앵무새의 말을 듣고 난 후 상인은 앵무새에게 어떤 말을 하였나요?

알아봅시

– 이란과 인도간의 무역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이란과 인도는 지금과 같이 항공교통이 발달하기 훨씬 이전부터 서로 교류해왔습니다. 이란과 인도는 '비단길'이라는 보다 큰 교역로 안에서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단길은 단순히 동서를 잇는 횡단축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남북의 여러 통로를 포함해 동서남북으로 사통팔달한 하나의 거대한 교통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비단길은 3대 간선과 5대 지선을 비롯해 수만 갈래의 길로 구성되어 있는 범세계적인 그물 모양의 교통로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동물원의 역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초창기의 동물원은 주로 왕후(王侯)의 소유물로, 대부분 유럽과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의 동물원은 1909년(융희 3) 11월 1일 창경궁을 변형 · 개조하여 만든 창경원 동물원입니다. 이 동물원은 1984년 5월 과천 서울대공원에 동물원이 개관되기 전까지 75년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원이었습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도심 한가운데에 개설되어 있으며, 소규모로 밀폐된 우리에 가두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 이슬람 문화권에서 동물에 대한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이슬람 문화권에서 새는 지혜와 관련된 동물로 그려지곤 합니다. 특히 수피 전통에서 새들은 숭고한 신성과 관련된 은유로 간주됩니다. 또 낙타, 고양이, 양은 무하마드가 좋은 의미로 언급한 바가 있어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와 관련됩니다.
반면에 이슬람 문화권에서 비호감의 의미를 갖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돼지입니다. 돼지는 식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은 돼지를 귀하게 여겨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뱀 역시 악독한 동물의 대표로 여깁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사람과 친근한 동물 중 하나인 개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수니 전통에서는 개를 사거나 거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의례적으로는 개를 불결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의례 외적으로는 개가 애완견으로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를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 동물 보호 사례를 통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Tip!

그동안 국내에서 동물보호와 관련된 논의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하지만 구제역 사태와 생매장 처분을 계기로 소, 돼지 등 농장동물로 확대되었고, 제돌이(돌고래)와 크레인(호랑이) 등 동물원의 전시동물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졌습니다. 제돌이는 제주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되어 공연을 벌이는 남방큰돌고래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 이 돌고래에게 야생적응 훈련을 시킨 후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낸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국내 최초의 돌고래 야생방사이고, 세계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야생방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치악산드림랜드의 호랑이 '크레인'은 동물원의 경영난으로 식수 급여가 중단되기도 하고 먹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건강이 악화되는 상태에 처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크레인'의 입양처를 수소문하였고, 서울대공원이 이 호랑이를 받아 돌보기로 한 일도 있었습니다.
수업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계기로 동물과 사람이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앵무새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앵무새는 색깔이 곱고 아름다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길들여지고 있으며, 머리가 좋아 계산능력과 여러 가지 찾기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앵무새의 지능이 높다는 점에서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앵무새를 집에서 기르기 위해서는 대부분 날개를 잘라서 새가 날지 못하게 합니다. 날개를 자르지 않으면 벽이나 유리에 부딪혀서 다치기도 하고 창밖으로 날아가 버려 굶주려 죽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발톱은 자연상태에서는 저절로 닳지만 애완용으로 기르는 경우에는 얼굴이나 피부를 긁히기 때문에 잘라주어야 합니다.
모든 앵무새가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왕관앵무'가 말을 잘 배운다고 합니다. 왕관앵무는 특히 애교도 많고 호기심도 많아서 애완용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애완용으로 길러지는 왕관앵무의 경우 대부분 야생의 습성이 사라졌고, 암컷은 수컷에 비해 얌전하며 잘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컷은 암컷보다 말을 잘 따라하며 여러 화음을 낼 수 있어서 노래 부르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체험해봅시다.

- 동물(애완/반려)에 대한 문화권마다 다른 의미를 알고,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지내는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여 봅시다.
- 나의 욕망만을 중요시 하는 애정관계 또는 정작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랑은 어떤 사례가 있을지,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여 봅시다.
-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과 동물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내기 위한 방법을 정리하여 발표하여 봅시다.

참고자료

- 동물복지에 대한 '제돌이'와 '크레인' 사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http://ecotopia.hani.co.kr/65225
- 이슬람우화집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정신세계사)
  : 앵무새는 똑똑한 새로 천일야화처럼, 앵무새가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들려주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슬람문화권의 설화집입니다.
- 민속촌 세계민속관, 이란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uckycmw&logNo=60151785160
- 용인한국민속촌 세계민속관 https://blog.naver.com/kfv1974/20157366950

3) 공주님의 여행

이 동화는요

옛날 이란에 외국어 능력을 비롯하여 말타기와 칼싸움까지 잘하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여러 왕자들이 공주를 찾아와 청혼을 하였지만 공주는 번번이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신랑감을 선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스스로 미래의 신랑감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공주는 온 몸을 검게 칠하고 군인처럼 변장을 하고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공주는 먼저 동쪽 나라에 도착하였습니다. 변장한 공주는 동쪽 나라의 공주가 아버지가 정해준 정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길을 떠나 남쪽 나라로 간 공주는 남쪽 나라 왕이 자신의 딸을 사냥대회 우승자와 결혼시키고자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냥도 잘하고 공주도 사랑하는 젊은이가 남쪽나라의 공주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주는 이번에는 서쪽 나라로 갑니다. 서쪽 나라는 강물의 소유권을 두고 이웃 나라와 전쟁을 벌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두 나라가 결혼을 통하여 전쟁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공주는 북쪽 나라로 가는 길에 양치기를 만납니다. 그 양치기는 자신이 북쪽 나라의 왕자이며 시끄러운 왕궁보다는 양들과 있는 곳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북쪽 왕자는 공주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후 '당신이 여자라면 얼굴 색깔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당신과 결혼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왕자의 이야기를 들은 공주는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고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은 이란의 결혼 풍습에 대해 알아볼 수 있고, 바람직한 결혼의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외모가 아닌 내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이란의 결혼 풍습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문화권의 결혼 풍습에 대해 알아보고, 바람직한 결혼의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슬람의 여성 지도자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왜 불합리한지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해볼 수 있습니다.
-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주는 왜 여행을 시작하였나요?
- 공주는 여행을 하기 전에 외모를 어떻게 바꾸었나요?
- 공주는 동쪽 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었나요?
- 공주는 남쪽 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었나요?
- 공주는 서쪽 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었나요?
- 공주는 북쪽 나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나요?
- 공주는 누구와 결혼하기로 하였나요?

알아봅시다.

– 이란의 결혼 풍습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에서는 신랑감은 아버지가, 신부감은 어머니가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배우자의 최종 결정권은 아버지가 갖습니다. 여자는 부모가 선택해 준 신랑 후보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혼 시기로는 10월을 가장 선호하는데 이는 이슬람력으로 '샤왈' 이라고 합니다. 또 1월은 가장 회피하는 달인데 '무하람' 이라고 합니다. 주말 낮 시간을 선호하는 우리와 달리 금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저녁을 주로 택합니다.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 문화권이 다른 문화권과 차별되는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신분과 직업에 상응하는 중매혼, 일부다처의 허용, 결혼지참금제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슬람 전통사회에서는 연애결혼보다는 중매쟁이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를 연결해 주는 중매혼이 일반적입니다. 또 이슬람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슬람 종교법(샤리아)에서는 한 사람의 남자가 아내를 4명까지 맞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일부일처제를 법제화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 문화권은 모두 일부다처제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혼 지참금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대가로 신부측에 지불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를 '마흐르' 라고 하는데, 이 돈은 이혼이나 재해를 당했을 때에 여성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금으로 사용됩니다. 이 돈은 신부 이외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문화권마다 다른 미인의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이란의 전통적인 미인은 얼굴이 둥글게 크고 하얀 얼굴, 까만 눈동자와 큰 눈, 검고 진한 눈썹, 검고 긴 머리카락, 약간 통통한 몸매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미인의 기준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모델처럼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약간 통통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을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반면, 일본의 전통적인 미인은 희고 갸름한 얼굴, 눈초리가 길고 가늘며, 눈과 입은 작을수록 아름답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조선시대 미인은 볼이 통통하고, 광대뼈가 나와 있으며(평양미인), 쌍꺼풀이 없었습니다.

– 이슬람의 여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이슬람 여성들은 사회적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의 진학률은 높으며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이슬람 여성들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부토, 지아, 메가와티 등이 대표적입니다. 베나지르 부토는 1988년 파키스탄 선거에서 승리하여 근대 이슬람 국가에서 최초의 여성 수상으로 취임합니다. 여성을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슬람 신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후 1993년에 두 번째로 수상에 취임하였습니다. 비록 부토가 부정부패 문제로 망명을 하게 되었지만 전통적인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이 최고 지도자로 등장했다는 점은 의미있는 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나라인 방글라데시에도 여성 수상이 있었는데, '베굼 칼레다 지아'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아는 남편인 대통령이 피살된 이후 정치에 입문하여 1991년 수상으로 지명됩니다. 지아는 방글라데시에 진정한 민주주의 역사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대통령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2008년 한국을 방문한 사라 카눈 자라야(60 · Sarra Kanoun Jarraya · 사진) 튀니지 여성 · 가족 · 아동 · 노인 정책부 장관에 따르면, 튀니지의 경우 "판사의 27%, 변호사의 31%, 의사의 42%, 기자의 34%가 여성이죠. 노동 인구의 약 4분의 1이 여성이고, 1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사업체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슬람 국가인 알제리의 경우, 변호사의 70%와 판사의 60%가 여성입니다.(2007년 자료) 의사는 물론이고 버스와 택시 기사, 그리고 주유소의 주유원도 여성 비중이 높으며 정부 고위직에서도 여성 관리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전과 전쟁으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한 자리를 여성이 메운 측면도 있습니다. 국가마다 편차는 있지만, 이슬람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지 못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편견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험해봅시다.

-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의 모습/성격/취향에 대해 생각하고, 친구를 찾는 포스터를 그려봅시다.
- 공주가 여행한 여정 중 가장 인상깊은 부분을 골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 유사한 동화와 엮어 읽으면서 '공주'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정리하여 봅시다.
  함께 읽을 책 : 『종이봉지 공주』(로버트 문치 글 마이클 마르첸코 그림)
  『용감한 공주의 모험』(델피뉴 슈드뤼 글 · 그림)
  『내멋대로 공주』(베빗 콜 글 · 그림)

참고자료

- '공주'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동화
  『종이봉지 공주』(로버트 문치 글 마이클 마르첸코 그림)
  『용감한 공주의 모험』(델피뉴 슈드뤼 글 · 그림)
  『내멋대로 공주』(베빗 콜 글 · 그림)
-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이 친구가 되는 과정을 그린 그림동화
  『강너머 저쪽에는』(마르타 카라스코 글 그림)
- Persian wedding으로 동영상을 검색하면 이란의 현대적인 결혼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 Youtube에서 'Beautiful Iran' 동영상을 검색하면 이란의 현대적인 모습과 이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 팔레스타인

01 마나르 선생님이 들려주는 팔레스타인 이야기

02 동화별 교육 내용

1) 작은개미

2) 이만과 연

3) 연

01 마나르 선생님이 들려주는 팔레스타인 이야기

마나르 선생님은 팔레스타인계 요르단인입니다. 요르단에서 영어-한국어를 전공했고, 대학 1학년 때 코이카 장학생으로 한국에서 공부했던 인연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게 소중한 것은요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있어 올리브나무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올리브나무는 땅과 농업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 지역에는 올리브 열매로 만든 음식이 많은데, 올리브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 저도 요르단에 다녀올 때마다 올리브는 꼭 가지고 올 정도로 올리브를 좋아한답니다.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스카프를 몸에 항상 지니고 다녀요. 구피아(Kufiya)라고 부르는 스카프는 나라마다 즐겨쓰는 색이 달라요. 팔레스타인에서는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는 스카프를 두르고, 요르단에서는 붉은색 스카프를 주로 합니다. 흰색은 평화를 상징하고, 붉은 색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팔레스타인의 가족, 남과 여

우리는 전통적으로 대가족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 부모님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무슬림들에게 형제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친 가족이 아닌 이웃들과 형제와 같이 음식도 같이 해 먹고, 아이도 같이 키우는 일이 많답니다.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랍지역에서 여자의 역할은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집을 돌보고, 남성은 밖에서 돈을 버는 역할을 하는 전통적 성역할을 주로 따르고 있지요. 그러나 최근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예전과는 달리 맞벌이 하는 가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을 많이 못 받는 형편이지만, 아랍지역의 다른 몇몇 나라들에서는 동등한 교육을 받고 있기도 해요. 아랍지역의 여성들은 결혼을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을 좋아해요.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 요르단으로 돌아가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연애를 금하고 있지만, 부모님만 이해해 주시면 저는 가능하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요.

우리 음식과 옷차림은요

아랍에는 여러 나라가 있지만, 특히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인접한 나라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은 비슷한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양고기와 빵을 많이 먹습니다. 명절 때는 마클로바 (maqluba)라는 음식을 먹어요. 마클로바는 '뒤집혀졌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고기와 쌀, 볶은 야채를 섞어 그릇에 담은 뒤 이것을 한번에 뒤집어 담아서 먹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도 마클로바를 먹긴 하지만, 명절에 꼭 이것을 먹지요.

옷은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게 입지만, 톱(tob)라고 부르는 옷은 특별한 날에 주로 입는 전통옷이에요.

한복이 한국의 전통옷이지만,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전통옷은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 같은 특별한 날에 많이 입지요. 할머니들은 평소에도 자주 입으시는 것 같지만요.

명절

우리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은 라마단과 피트르 입니다. 라마단은 이슬람 달력으로 9월 한달간 매일 해뜨는 시간에서 해지는 시간까지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며 철저히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피트르는 라마단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3일간을 말하는데,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주고 받으며 축제를 즐기지요. 피트르 때는 아침에 기도하고, 그때만 특별히 만드는 과자도 같이 만들어 나누어 먹고요, 또 아이들은 이때 새 옷을 사서 입고, 부모님께 명절인사를 드리기도 해요. 또 라마단이 끝나고 2달 후를 아드하 명절이라 부르는데 이때는 피트르 때와 비슷하게 지내지만 양고기를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도 해요.

제가 한국에 나와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저는 라마단을 꼭 지키면서 절제된 생활과 금식을 하고 있어요. 기본 규칙은 잘 지키면서 피트르 명절 때는 맛있는 것 잘 챙겨먹고 친구들과 명절의 기분으로 밖에서 재미있게 놀기도 한답니다.

주거

저는 팔레스타인에서 산 적은 없기 때문에 요르단의 주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파트에 주로 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대부분 주택에 살고 있어요. 특히 정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정원을 포함해서 집 안팎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팔레스타인의 어린이

아랍아이들은 다른 나라 어린이들처럼 서구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팔레스타인은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유년기, 청소년기에 중요한 교육에의 자유와 그 공간이 잘 허락되지 않고 있어요. 교육열이 높은 한국과 비교하면 특히 더 그렇지요.

요르단에서는 7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유치원을 다니기도 하고요.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서 2시 정도에 집에 오는데, 학교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아 학교에 오래 머물기 보다 집으로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지금 요르단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영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와 컴퓨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아랍지역의 몇몇 산유국과는 달리 요르단은 석유가 없어 자원이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이 강조되고 있지요.

팔레스타인의 현대문화와 '한잘라'

아랍사람들은 대부분 똑같은 문화와 종교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슬람문화권이라는 점이 특징적이에요. 현대에 와서도 그건 크게 다르지 않지만, 팔레스타인의 현대문화 중 새로운 것인 '한잘라(handalla)' 라는 캐릭터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한잘라는 풍자 만화가 Naji의 작품에 등장하는 유명한 캐릭터 이름이에요. 한잘라라는 10살 먹은 소년이 자기가 살던 마을을 뒷짐을 진채 뒷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에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외세의 개입에 저항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한잘라의 허름한 누더기 옷과 맨발은 그가 매우 가난한 형편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국인 팔레스타인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조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나이를 먹지 않는 모습 자체를 나타내고자 이 작가는 한잘라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한잘라 캐릭터는 인기가 아주 많아, 이 캐릭터로 악세서리를 만들어 상품으로 내놓았을 정도로 유명하답니다. 아마 아랍사람들에게 이 캐릭터를 보여주시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걸요?

우리에게 의미있는 색깔

우리는 흰색이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녹색은 농업을 상징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색은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이에요. 빨간색은 주의해야 할 것을 표시할 때 쓰고 있습니다.

한국생활, 좋은 점과 힘든 점

한국은 교통이 편하고 여러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아요. 어디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편리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싶을 정도로 한국생활이 정말 좋지만, 힘든 일도 있어요. 무슬림은 돼지고기와 술을 금기시 하는데,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 할 때 돼지고기를 피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매운 것은 잘 먹기 때문에 찌개종류도 잘 먹곤 하는데, 무슬림으로서 꼭 피해야 하는 술과 돼지고기를 권할 때면 곤란한 기분이 많이 들지요.

한국에 와서 사는 아랍인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여전히 한국에서는 아랍사람을 낯설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랍문화나 아랍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 기분이 좋고, 제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현재 팔레스타인은 분쟁중이기 때문에 특히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갖고 계신 사람을 만나면 긴장이 풀리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되지요.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아랍에 대한 한국인의 이미지가 너무 편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랍의 모든 지역이 사막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산유국은 몇몇 나라일 뿐인데도 요르단에서 왔다는 이유로 부자나라에서 왔다고 신기해 하는 분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요르단에 차가 있냐고 묻기도 하셨고요. 아랍지역은 지역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범위가 넓어서 아랍의 24개국 모두를 다 알긴 어렵겠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어요.

02 동화별 교육 내용

1) 작은개미

이 동화는요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한 부인이 꿈 속에서 개미를 낳는 꿈을 꾸고 실제 개미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개미가 너무 작아 개미를 찾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기름이 떨어지자 작은 개미가 엄마를 대신해 기름을 사오겠다고 말합니다. 개미가 너무 작아서 기름을 사올 수 없다고 걱정하는 엄마에게 개미는 자신을 작은 병에 넣어 달라고 말합니다. 작은 병 안에 들어간 개미는 노래를 부르며 병을 굴리며 기름 가게로 출발하였습니다. 개미가 병을 굴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개미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기름 가게에 도착한 개미는 기름을 담아 달라고 하자, 기름가게 주인은 개미가 너무 작아 심부름을 해내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개미는 기름이 가득 담긴 병을 굴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엄마는 기름 투성이가 된 개미를 깨끗하게 씻어주었는데 그러자 개미는 작은 여자 아이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따뜻한 난로 앞에서 서로를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동화를 보고 난 후 어린이들은 팔레스타인의 집과 거리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고, 작지만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팔레스타인의 집과 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팔레스타인의 분쟁 상황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외모만 보고 사람의 능력이나 역량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행동에 대해 반성할 수 있습니다.
- 작은 일이지만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를 찾아 발표할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인은 어떻게 개미를 낳게 되었나요?
- 부인은 왜 자신이 낳은 개미를 알아보지 못하였나요?
- 개미는 엄마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하였나요?
- 개미가 병을 굴리고 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알아봅시다.

– 팔레스타인의 집과 거리의 모습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의 집과 거리 모습은 이스라엘과 비교하여 낙후되고 혼란스럽습니다. 유혈사태로 인해 오열하는 모습, 폭격으로 망가지고 부서진 건물들의 사진이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상황은 팔레스타인에 평화가 정착되지 못한 채 분쟁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난민촌은 물질적인 빈곤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 역시 불안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촌의 모습 http://soko.tistory.com/33)

체험해봅시다.

- 외모만 보고 사람의 능력이나 역량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행동에 대해 반성했던 경험을 만화로 표현하여 봅시다.
- 작은 일이지만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를 찾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캐릭터, 한잘라

  한잘라는 팔레스타인 카투니스트인 나지 알 알리의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나지 알 알리의 카툰에는 항상 뒷짐을 지고 서 있는 꼬마가 등장합니다. 아랍어로 '고통'을 뜻하는 한잘라라는 이름의 꼬마는 10살입니다. 10살은 나지 알 알리가 팔레스타인을 떠날 때의 나이이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까지 성장하지 않은 책 그대로 입니다. 허름한 누더기의 옷은 나지 알 알리 자신이 직접 겪었던 난민촌의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표현한 것이며, 삐죽삐죽한 머리는 고슴도치처럼 자신의 몸을 무기삼아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를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 지식채널e 한잘라

  제 1부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3016794

  제 2부 https://goo.gl/d5LSKz
- Handalla로 검색하면 한잘라와 관련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 팔레스타인 오늘날 서안지역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goo.gl/LnR44B
-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장벽과 한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nanum.com/site/peace_act/24295
- 팔레스타인의 도시 라말라 여행기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supreme02.blog.me/120176545743
- 팔레스타인에 올리브 추수 여행을 다녀온 여행기를 볼 수 있습니다.

  http://bigissuekr.tistory.com/87

2) 이만과 연

이 동화는요

암자드는 이웃집이 아파치 헬기의 공격을 받는 장면을 목격하고, 아파치 헬기에 돌멩이를 던집니다. 아파치 헬기의 공격 장면과 그 집에 살고 있던 이웃 아저씨를 떠올리며 공포를 느끼고, 아파치 헬기가 자신을 공격하는 악몽을 꿉니다. 다음날 암자드는 공포감으로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암자드는 자신을 걱정하여 집으로 찾아온 친구들과 함께 나뭇가지와 종이로 '팔레스타인 국기'를 그려서 연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파치 헬기가 나타나자 그 연을 하늘 위로 날립니다. 하늘 위에는 아이들의 놀이를 위한 연과 군인들의 전쟁을 위한 비행기가 동시에 날게 됩니다. 아이들의 연이 아파치 헬기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본 암자드는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이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은 전쟁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고, 평화를 찾고 지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겪은 고통이나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전쟁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세계의 여러 분쟁 지역과 그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겪는 일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자신이 겪은 고통이나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암자드는 왜 아파치 헬기를 향해 돌을 던졌나요?
- 암자드가 학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암자드와 친구들은 무엇을 만들었나요?
- 아파치 헬기가 나타났을 때 암자드와 친구들이 연을 날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알아봅시다.

– 팔레스타인에 대해 알아 봅시다.

Tip!

팔레스타인(Palestine)은 지중해와 요르단 강 사이와 그 주변 지역을 일컫는 여러 역사적인 지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리적 정의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지만, 대체로 현재의 이스라엘 땅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구역(서안 지구 및 가자 지구) 일대를 가리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자리잡고 있는 지중해 동안, 즉 레바논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시나이반도에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면적은 대략 2만 6,000㎢이며, 특별한 천연자원은 없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인 동부는 황무지가 전개되어 있지만, 지중해 연안인 서부는 경작지 및 목초지대가 있어서 농축산물이 생산됩니다. 언어로는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구역에서는 아랍어를 사용하며, 영어도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종교는 이슬람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독교 신자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UN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138개국의 찬성으로 팔레스타인은 비회원옵서버단체(non-member observer entity)에서 비회원옵서버국가(non-member observer state)로 승격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이 더 이상 단체(entity)가 아니라 하나의 주권국가(state)로 공식 승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들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제소할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팔레스타인이 UN의 정회원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영토 분쟁(領土紛爭, territorial dispute)은 일정한 영토의 주권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 사이의 국제 분쟁을 말합니다. 영토 분쟁은 일반적으로 육지가 대상이 되지만, 강과 바다 등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토 갈등(領土葛藤) 또는 영토 문제(領土問題)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영토분쟁은 그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국가 사이에 국경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국경 분쟁(예:카슈미르 분쟁), 타국의 영토 일부 혹은 전부를 무력으로 점령하여 발생하는 강제 점령, 사실상 분리 독립했으나 과거에 속했던 국가가 분리독립을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리독립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고 세계에서 가장 긴 장벽(높이 8m, 길이 680여km)으로 고립시키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경우는 강제 점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휴전' 상태인 한반도 또한, 상대방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분쟁 당사국들이 거의 동일한 영토의 주권을 주장하는 분단 상태로 이 역시 영토 분쟁의 한 유형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영토 분쟁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남기는데, 특히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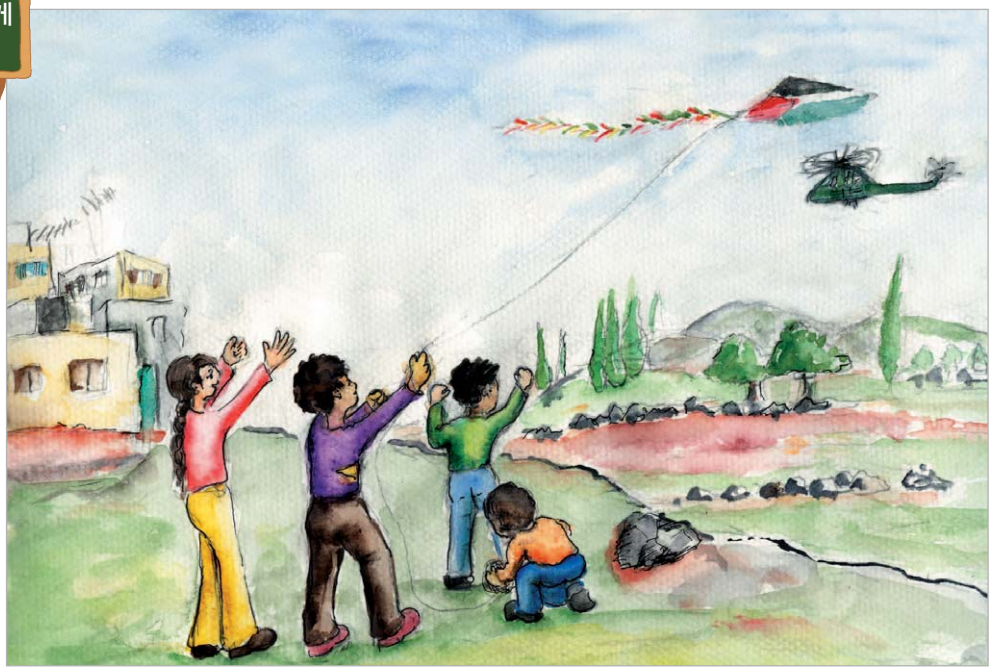
체험해봅시다.

-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로 연을 만들고 평화를 바라는 편지를 적어 날리거나 전시하여 봅시다.
- 평화의 염원을 담아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거나 전시하여 봅시다.
- '왜 우리에게는 그들을 혼내 줄 비행기가 없는거야?' 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팔레스타인 또는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봅시다.
- 엮어 얽기 : 토미 웅게러(Tomi Ungerer) 『곰인형 오토』
- 베르나르 샹바즈 지음, 바루 그림 『나는 빈 라덴이 아니예요』

참고자료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62a599b5ae3c452ba883db221fc3efb9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한 2012.11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nanum.com/site/peace_act/24295
- 폭격으로 파괴된 학교 건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minibabo/15677156
-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보기
  https://blog.naver.com/rappermint/20100947535

3) 연



이 동화는요

연날리기는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입니다. 팔레스타인 아이 이만도 연날리기 대회에 왔습니다. 하늘 높이 나는 연을 보던 이만은 넘어지고, 자신이 지켜보던 연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다리에 연실이 감긴 줄도 모른 채 연을 찾습니다. 이만은 연실을 풀어보려 했지만 연실은 점점 이만의 다리를 조여옵니다. 이만은 고통으로 소리를 치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친구들이 실을 풀어보려 했지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만은 연실에 묶인 채 하늘 위로 떠오릅니다. 그 때 연이 이만을 안심시키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묻습니다. 이만은 '꽃과 나비가 가득한 기쁨의 나라'로 가고 싶다고 합니다. 종이 연은 '너희 나라에는 꽃, 나비, 인형, 사탕 과자가 없니?' 라고 묻습니다. 이만은 '우리나라에는 그것들을 없애는 군인들이 있어. 그들은 점령군이야. 우리를 자유롭게 놀지도 못하게 하고, 학교와 들판에도 가지 못하게 해'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나라'에 도착한 이만은 '와르다'라는 여자 아이를 만납니다. '기쁨의 나라'를 돌아보며 이만은 자신의 나라에 부족한 것들을 떠올립니다. '마실 물', '집을 지을 햇살실', '옷을 지을 양털이나 목화솜', '바다', '집을 장식할 조가비'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모두 군인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만은 와르다가 준 선물을 받고 집을 돌아옵니다.

이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과 역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팔레스타인의 연날리기 축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 행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팔레스타인을 돕는 단체들과 한국 정부의 원조에 대해 알아보고, 지구촌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A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만은 어디에 갔나요?
- 이만은 어떻게 연을 타고 날게 되었나요?
- 이만이 연에게 가고 싶다고 한 곳은 어디인가요?
- 이만은 '기쁨의 나라'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 이만은 왜 자신의 나라에 부족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나요?

알아봅시다.

– '벨푸어 선언(Balfour Declaration)'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즉 이스라엘의 영토분쟁은 현재 팔레스타인이 있는 지중해 연안에 유대인이 국가를 세우기 위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 영국은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민족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이 바로 '벨푸어 선언'입니다. 이 선언 이후, UN이 아랍 국가와 유대국가가 팔레스타인을 거의 절반쯤 나누어가지도록 의결합니다. 하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땅의 80%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은 10%도 채 가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UN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일방적으로 국가 창설을 선언합니다. 벨푸어 선언이라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아닌 제 3자의 개입은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영토 분쟁이 시작되는 데 있어,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나크바의 날'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나크바의 날(재앙의 날, al-Nakba Day)은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이 국가 창설을 선언하면서 약 70만명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추방당한 날로 해마다 이날을 맞아 서안(West bank)과 가자(Gaza) 지구 등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어린이들 역시 촛불을 들고 나크바의 날 기념 시위에 참석합니다.

– 팔레스타인의 연날리기 축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A)는 해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북부마을 베이트라히야의 해변에서 '평화의 연날리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가자의 어린이들은 동시에 많은 연을 날리는 기네스 신기록을 갱신하기 위해 해마다 도전을 합니다. 이 행사는 가자지구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 팔레스타인에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학교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1994년부터 팔레스타인에 교육인프라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문맹률이 10%이하로 낮고, 10년간 의무교육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등 교육열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없고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부제, 3부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많습니다. 한국정부는 교육 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신뢰를 쌓기 위해 학교를 짓는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1월 14일)에는 '코리아-팔레스타인 국제기초학교(1~9학년)'와 '코리아-팔레스타인 청소년센터'가 완공하고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도가 있는 라말라에서 약 56km 떨어진 헤브론시 넝커지역에 세워진 이 학교는 팔레스타인 최대 규모의 학교라고 합니다.

체험해봅시다.

– 어려운 처지에 놓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연을 만들어 봅시다.
– 자신의 바람이나 희망이 담긴 연을 만들어 봅시다.
– 팔레스타인 혹은 이스라엘 어린이들에게 평화의 염원을 담은 편지를 써봅시다.
– 자신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조사해보고 발표해 봅시다.
–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사하고 스크랩북을 만들어 발표해 봅시다.

참고자료

– Palestine Kite Festival로 검색하면 팔레스타인의 연 날리기와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에 보도된 팔레스타인 연 날리기 기사와 사진입니다.
http://www.guardian.co.uk/world/gallery/2009/jul/31/gaza-palestinian-territories#/?picture=351037021&index=4
– Youtube에서 〈Gaza Kites Festival〉, 〈Palestine: The Dancing of the Kites〉 동영상을 검색하면, 팔레스타인 연날리기 대회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Gaza Reality – Mud houses〉,〈Life

in Gaza〉 등의 동영상을 통해 가자(Gaza) 지구의 현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세계의 다양한 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orldkitefestival.kr/board/index.php?doc=program/board.php&bo_table=worldkite
- 연을 이용한 다양한 학습자료들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kite.org/education/kite-resources/
- 팔레스타인 난민기구가 해마다 여는 '연날리기' 대회에 대한 2011년 국내뉴스 동영상입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60273
- 팔레스타인난민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팔레스타인의 난민구호 현황과 어린이들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unrwa.org/index.php
- 팔레스타인 난민을 돕는 유엔 기구의 홈페이지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의 현실과 이들에 대한 구호 활동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unrwa.org/
- 런던에 소재한 팔레스타인학교입니다. 런던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palschool.org

8 티베트

01 뺀빠 선생님이 들려주는 티베트 이야기

02 동화별 교육 내용

1) 나는 야크입니다

2) 야크 털은 왜 길까?

3) 아홉개 반의 손가락

01 뺀빠 선생님이 들려주는 티베트 이야기

카락 뺀빠 선생님은 티베트 공연예술학교를 졸업하시고 TCV학교에서 8년간 티베트 전통음악 교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한국전통음악 작곡과를 졸업하시고, 지금은 사회적기업 노리단 안의 노래단에서 음악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티베트는요

티베트 사람들은 나라 이름을 '붸' (bhoe)라고 발음을 합니다. 중국으로는 '시짱' 이라고 발음합니다. 토번족이라는 것에서 유래해 중국식으로 티베트라고 이름을 붙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티베트는 고산지역이기 때문에 티베트에 살고 있는 30~40%가 유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는 불교국가입니다. 불교문화가 강해 옛날 티베트에서는 각 가정에 한 사람은 꼭 스님을 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요새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티베트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달라이라마가 쓴 '관용' 이라는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티베트는 현재 중국의 자치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티베트 사람들은 세계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티베트의 전통을 지키며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우리 티베트 사람은

티베트에서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가끔 고산지역에 살면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기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고기는 보통 금기시합니다. 또 티베트사람은 작은 벌레도 죽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생을 믿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전생의 자신의 엄마가 현세에 작은 벌레로 환생했을 수도 있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도 모기와 같은 곤충이 많지만 모기를 죽이지 않고, 다만 모기를 쫓는 방법을 쓰지요. 모기가 가까이 오지 않게 몸에 크림을 바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요. 모기장을 치는 등 여러 방법을 찾지만 절대 죽이지는 않습니다.

티베트사람들은 티베트말로 '팅아' 라고 발음되는 염주를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티베트 사람들은 이 염주가 모든 생명의 안녕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의 안녕을 빈다는 의미로 "옴마니 밧메훔" 이라고 말하며 염주를 통해서 기도하지요. 저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옴마니 밧메훔"이라고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염주를 만지며 기도합니다. 제 염주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라 매우 오래된 것이에요. 염주는 선물을 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서 사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염주를 통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어요. 또 '카닥' 이라고 하는 흰색의 얇은 천으로 되어 있는 목에 두르는 것이 있는데 태어날 때, 결혼할 때, 멀리 떠날 때, 죽을 때 등 둘러주곤 합니다. '마니' 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잡아 돌리는 물건인데 염주와 같이 무언가를 기원할 때 같이 쓰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티베트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이에요.

티베트의 인사

티베트 사람들은 처음 사람을 만나면 손을 가슴에 공손이 모으고 '다시댈랙' 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좋게 잘 되길 바란다는 의미에요. 또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세요 라는 의미로 '갈레페아' 라는 말을 하고, 또 안녕히 계세요 라는 의미로 '갈레슈아' 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티베트의 어린이들과 교육

티베트에서는 만 3세부터 유치원을 다닙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 티베트와의 차이를 더 확실히 느끼는데요, 티베트인들은 난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체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저도 그랬듯이 많은 티베트인들이 현재 인도에 머물고 있어요. 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는 infant school은 만 3세부터 5살, 그 이후에 junior school 5살–10살, middle school 11살–14살, high school이 15–17세까지 다닙니다. 그 이후에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체제는 없고, 각자 원하는 진로대로 선택할 수 있지요. 대학을 가고자 하는 많은 아이들이 외국에서 후원을 받아 학교를 다니고, 대부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유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우 드문 경우라 할 수 있지요.

인도의 남, 북 지역에서 티베트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티베트 아이들은 그 지역으로 멀리 떠나 기숙사 생활과 학교생활을 같이 합니다. 저도 이 곳에서 교육을 받았고, 교사로 일하기도 했었는데, TCV(tibet children's village)는 티베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입니다. 그 중 "sos tcv" 는 꽤 유명하지요. 보통은 이 TCV에서 3살부터 17살까지 같이 살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음식과 옷차림은요

티베트의 음식으로 주로 잘 알려진 것으로는 유명한 버터차가 있고요, 또 '참파' 라는 한국의 미숫가루와 같은 음식을 주로 먹기도 하지요. 참파(Tsampa)는 밀을 물에 불린 다음에 말려서 볶아 모래로 솎아내 만든 것입니다. 또 티베트의 만두는 '모모' 라고 부릅니다. 쌀과 양고기를 안에 넣어 밀가루로 빚어 만들었어요.

여자와 남자가 형식은 다르지만 칸챠(kanchar), 츄바(chuba) 라는 옷을 티베트의 전통의상으로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는 것은 유목민생활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옷을 평소에도 입었지만, 요새는 한국사람들이 주로 입는 것과 비슷한 현대적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어두운 색은 남자, 밝은 색은 여자가 주로 입습니다.

티베트의 가족과 남과 여

자신의 부모님과 형제, 또 부모님의 형제까지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범위가 넓지요. 예전에는 가족이 많으면 부자라고 여겼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노동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새는 보통 자식을 2–3명 정도 낳습니다. 티베트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예전에는 결혼하면 아이 많이 낳는 것을 장려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는 밖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을 관리하는 일을 주로 했지만 현대에 와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로 보자면 남녀의 성역할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다른 것은 현대에 와서 사라졌고 교육의 기회도 평등해 졌어요. 또 티베트에는 남아선호사상이 없답니다.

우리에게 의미있는 색깔

티베트인들은 어두움을 상징하는 검정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느낌을 갖고 있지요. 보통 어두운 색은 나쁜 운, 밝은 색은 좋은 운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빨강, 노랑, 초록, 파랑, 하얀색은 좋은 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색깔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늘(파랑), 바람(흰), 불(빨강), 물(초록), 땅(노란)이고 이는 산과 산 사이를 잇는 연속된 깃발인 '룽따'에서도 표현됩니다. 시험 때 좋은 운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룽따를 잇기도 합니다.

한국의 좋은 점, 힘든 점

저는 한국에 와서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이 제일 좋았어요. 또 좋은 친구,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도 한국에서의 행운이지요. 특히 티베트음악과 티베트에 대해 들어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불편한 점은 한국에서의 난민체제가 좋지 않아 티베트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도 많이 오지 못한다는 점이지요. 한국에서 머물고 싶어도 특기가 없으면 돌아가야 한다는 실정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야크에 대하여

유목생활을 하는 티베트인들은 소와 비슷하게 생긴 야크를 주로 끌고 다니면서 생활하지요. 야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1,000마리까지도 끌고 다닙니다. 아주 부자라 볼 수 있죠. 보통은 50마리, 100마리 정도 이끌고 다니면서 유목생활을 해요. 간혹 야크의 귀에 빨간색 깃발이 달려 있기도 한데, 주인이 주로 다루거나, 아끼는 야크에게는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한답니다. 또 티베트인들은 오래 살면서 일 안 시키는 야크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전통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달라이 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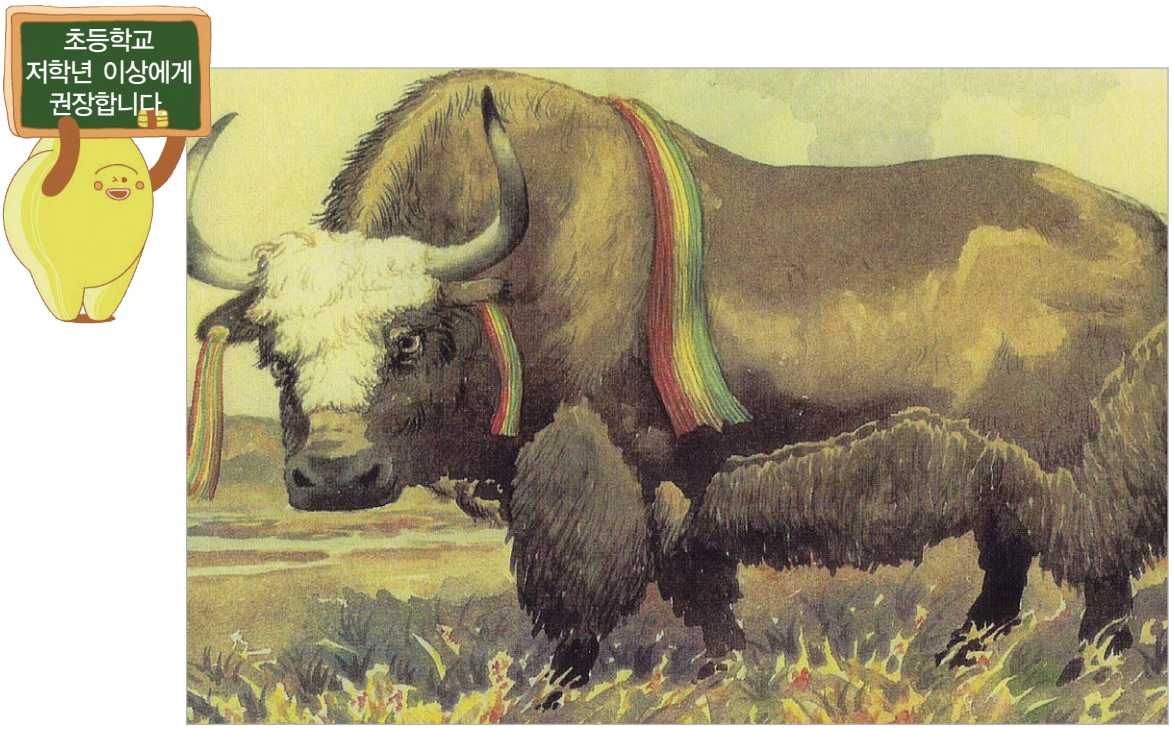
우리는 달라이 라마를 티베트의 신이라고 여깁니다. 환생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14대에 이르는 달라이 라마를 모두 인정하고 환생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카르마파' 라는 달라이 라마와 비슷한 존재가 있는데 지금 카르마파는 인도에 있습니다. 또 '펜친라마'는 중국에서 납치해 티베트에서 6살 때 없어졌기 때문에 펜친라마의 전통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티베트의 축제문화

티베트축제는 'losar'가 라고 부르는데 아질라모 (ace lhamo)라고 부르는 오페라 축제가 대표적입니다. 춤과 노래가 있는 티베트의 전통 오페라를 같이 공연하고 즐기는 축제이지요. 여름에 주로 열리는데 이 때는 '드리'로 만든 요거트를 많이 먹습니다.

02 동화별 교육 내용

1) 나는 야크입니다



이 동화는요

야크는 3천년 전부터 티베트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야크를 아끼고 사랑하며 티베트의 상징으로 야크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야크는 물소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작고 검은색, 갈색, 하얀색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은 야크라고 부르지만 암컷은 드리라고 부릅니다. 티베트의 날씨가 춥고 건조하므로 채소를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야크 고기와 치즈, 버터 등을 먹습니다. 야크는 티베트의 대표적인 운송수단이며 유목민들을 위해 일을 합니다. 야크와 드리가 많으면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크 털을 엮어서 텐트나 비옷도 만들고 밧줄이나 가방도 만들고 가죽으로 장화나 가방, 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뿔과 꼬리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야크는 평균 30년을 사는데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해줍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야크를 소중한 보석처럼 여기며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 줍니다. 야크는 단순히 짐나르는 동물이 아니라 매우 유용한 동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크의 생김새, 하는 일, 쓰임새 등에 대해 알 수 있고 티베트 사람들에게 야크가 얼마나 중요한 동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티베트의 자연환경과 티베트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야크의 생김새, 야크가 하는 일, 야크의 쓰임새 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티베트의 날씨는 어떠한가요?
- 야크는 언제부터 티베트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까?
- 야크의 생김새는 어떠합니까?
- 야크 암컷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티베트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 야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야크의 털로 만들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야크가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티베트 사람들은 야크를 어떻게 합니까?

알아봅시다.

–티베트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티베트는 현재 우리가 흔히 '한국', '일본', '태국' 등을 말할 때 생각하는 것 같이 '나라'는 아닙니다. 현재 티베트는 중국에 속해 있으며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티베트족 자치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티베트를 말할 때는 '티베트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거에요.
티베트는 1950년 중국에 의해 중국 자치구로 편입되었고 그 이후 티베트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비록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티베트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있으며,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의 다람살라에는 티베트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세운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습니다.

– 티베트의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

Tip!

라마는 티베트 불교 승려 가운데에서도 덕이 높은 승려를 말해요. 티베트 사람들은 달라이 라마를 티베트의 종교와 정치를 이끄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의 지도자인 14대 달라이 라마의 이름은 '텐진 rich' 인데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하게 되자 1959년 피난길에 올랐으며, 인도 북부에 있는 다람살라로 피신하였어요. 달라이 라마는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세웠고 지금까지 티베트의 종교 수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전 세계에 민족의 현실을 알리고 독립을 호소하고 있으며, 1989년 비폭력적인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이끈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 티베트의 자연환경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티베트는 남쪽의 히말라야를 비롯하여 높은 산맥으로 둘러쌓인 세계에서 가장 큰 고원에 위치해 있어요. 평균 고도가 해발 4,500M나 되어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겨울이 길어 매우 춥고 여름은 굉장히 짧아요. 티베트의 기후는 건조하고 먼지가 많이 날리며 바람도 많이 불고 급격히 변하기도 하지요. 작은 구름이 지나가는가 싶으면 바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고지대는 산소가 아주 부족합니다.

– 티베트의 음식 참파(짬빠)

Tip!

참파는 볶은 보리를 갈아 만든 티베트의 주식이에요. 가루형태의 참파에 야크 버터와 물을 섞어 먹어요. 취향에 따라 물의 양을 조절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으며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참파 가루를 하늘에 뿌리기도 합니다.

– 티베트의 유목민

Tip!

티베트의 고원에 사는 유목민을 '독빠'라고 부릅니다. 유목민들은 야크와 양, 말을 기르며 동물에게 먹일 풀을 찾아 이동하면서 살아요. 현재 티베트 인구의 30~40%정도는 아직도 유목생활을 하고 있으며 야크가죽으로 만든 전통 티베트 텐트에서 머물면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야크는 꼭 필요한 동물이에요. 야크의 고기와 젖은 식량이 되고 가죽은 옷이 되고 배설물은 연료가 되요. 늑대나 눈표범, 스라소니 여우 등을 쫓기 위해서 개를 기르며 사냥용으로 키우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양떼를 지키거나 야크 똥을 주워 모으고 전통에 따라 일곱 살이 되면 고무총을 받아서 갖고 놀기도 해요.

체험해봅시다.

- 야크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야크를 소개하는 책을 만들어 봅시다.
- 티베트의 야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동물에는 '소'가 있습니다. 야크와 소를 비교해 보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발표해 봅시다.
- 티베트 유목민들은 야크 가죽을 만든 텐트에서 유목생활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그려 봅시다.

참고자료

『코박사와 함께 떠나는 다문화 여행』,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 티베트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코박사 아저씨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티베트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지구촌 탐험』, 로랑스 캉텡, 카트린 레세르 지음 (아이세움)
: 티베트에 대한 특징적인 단어(낱말)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야기, 여행을 떠나기 위한 간략한 안내까지 덧붙여진 책입니다.
『티베트』, 피터시스, 엄혜경 옮김 , 마루벌
: 아버지가 티베트에서 길을 잃었을 때의 경험을 쓴 일기를 통해 중국의 티베트 점령,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들려주고 있으며, 새파란 호수에 사는 사람 얼굴의 물고기 전설, 거인 예티족 탄생에 얽힌 설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신비롭고 몽환적이며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울지 말아요, 티베트』, 정미자 글, 책먹는 아이
: 티베트를 떠나 인도의 다람살라로 가기 위해 가족과 슬픈 이별을 하고 히말라야를 넘는 험하고 위험한 길을 떠나는 티베트 사람들, 다큐멘터리 감독인 아빠를 따라 티베트 사람들과 동행하게 된 열세 살 보건이의 여정을 따라가며, 아픈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티베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동화입니다.
『평화를 그리는 티베트 친구들』, 티베트 난민 어린이들, 가르비엘 랩킨 엮음, 초록개구리
: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티베트 어린이들이 난민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생활을 아이들의 눈으로 쓰고 그린 글과 그림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글과 그림에 풀이를 달아 티베트와 티베트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길 –티베트 차마고도를 따라가다』, 이용한 글 사진, 넥서스
: 고대 교역로 '차마고도茶馬古道'를 따라 만나는 비밀스러운 땅 티베트에서 만나는 풍경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달라이 라마가 들려주는 티베트 이야기』, 토머스 레어드 저/황정연 역, 웅진지식하우스
: 티베트 전문가인 기자가 달라이 라마와 만나 티베트의 모든 것에 대해 3년간 나눈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1600년대 이후 처음으로 달라이 라마가 직접 말한 티베트 문명의 역사와 문화, 정신에 관한 자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길의 종착역 티베트』, 남경영 청품 공저, 고려원하우스
– 12년 동안 중국여행을 고집해온 전문가와 중국 현지 여행가가 만나 함께 써 내려간 티베트 가이드북입니다.
– 한국티베트문화연구소 http://cafe.daum.net/tibetsociety
– 티베트망명정부 (공식) http://tibet.net/
– 티베트의 자연환경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 http://blog.daum.net/light3732/666551
– 티베트 유목민 텐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 http://lovelysuky.blog.me/80146784700

2) 야크 털은 왜 길까?

이 동화는요

옛날 옛적 티베트의 높은 산 밑자락에 야크와 물소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야크와 물소는 생긴 것도 비슷하고 털 길이까지 같은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매일 아침 야크와 물소는 농부의 밭갈이를 도왔고 늦은 오후에는 텐트 주변의 풀을 뜯어 먹었어요. 그러나 물소와 달리 야크는 눈 덮인 높은 산에 올라가보고 싶어했고, 티베트의 고원을 탐험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야크는 물소에게 산봉우리에 같이 올라가자고 하였으나 모험을 싫어하는 물소는 싫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여행을 떠나는 꿈을 꾼 야크는 결국 혼자서 떠나기로 마음 먹었지요. 물소는 야크에게 높은 곳은 너무 춥고 혼자 살 수 있겠냐는 물었고, 고민을 하던 야크는 물소에게 털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물소는 친구의 부탁을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며 자신의 털을 잘라 주었답니다. "네가 다시 산 아래로 돌아오면 반드시 털을 돌려 줘야 해"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야크는 산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데요. 그래서 야크의 털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야크의 털이 긴 유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야크와 물소를 비교하며 비슷한 점,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야크와 친구의 꿈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털을 잘라주는 물소의 모습을 보면서 꿈을 향한 도전의 가치와 친구와의 우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야크와 물소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자신의 꿈은 무엇인지 말해 보고,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며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야크는 매일 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 야크가 추운 티베트의 고원에서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 물소는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었나요?

알아봅시

–야크와 물소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야크는 티베트와 히말라야 주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긴 털을 가진 소의 일종이에요. 원래 야크는 수컷을 의미하고 암컷은 '드리'라고 하지만 보통 암수 구별없이 '야크'라고 불립니다. 야크는 티베트의 주요 운송 수단이며 유목민과 농부를 돕는 일꾼입니다. 티베트고원의 추운 날씨를 잘 버티고 무거운 짐을 잘 운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야크는 많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몸의 각 부분들이 아주 쓰임새 있게 사용되기 때문에 티베트 유목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동물이랍니다.
물소는 야크와 반대로 추위에 약하고 더위에 강해요. 그래서 물소들은 추운 티베트 고원에서는 살지 못해요. 티베트 사람들은 물소가 친구인 야크를 기다리다 지쳤기 때문에 항상 처량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소처럼 보이지마라!"라는 속담도 있답니다.

– 티베트의 자연환경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티베트는 남쪽의 히말라야를 비롯하여 높은 산맥으로 둘러쌓인 세계에서 가장 큰 고원에 위치해 있어요. 평균 고도가 해발 4,500M나 되어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겨울이 길어 매우 춥고 여름은 굉장히 짧아요. 티베트의 기후는 건조하고 먼지가 많이 날리며 바람도 많이 불고 급격히 변하기도 하지요. 작은 구름이 지나가는가 싶으면 바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고지대는 산소가 아주 부족합니다.

– 티베트 고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티베트 고원은 세계 최대, 최고의 고원으로 해발고도 4,500M나 되어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만년설로 덮인 산맥, 평탄한 골짜기, 하천 등 변화가 많은 지형이며 식물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특히 초원이 넓어 목축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체험해봅시다.

–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보고 〈꿈계획표〉를 만들어 봅시다.

나의 꿈	내용	결과
오늘 이루고 싶은 꿈		
1주일 안에 이루고 싶은 꿈		내가 할 일 : 결과 :
한 달 안에 이루고 싶은 꿈		내가 할 일 : 결과 :
1년 안에 이루고 싶은 꿈		내가 할 일 :
20년 후에 이루고 싶은 꿈		내가 할 일 :

–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며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봅시다.

참고자료

– 야크에 대한 설명,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24008&mobile&categoryId=20000017

– 뱀 박사 차승훈 군의 이야기 : 5학년때 뱀을 처음 접한 후 뱀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뱀을 키워온 서라벌고등학교 최승훈군, 뱀에 대한 책까지 쓸 만큼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과 애정으로 이번에 대학교까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뱀독 전문가'가 되는 게 꿈인 승훈군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22809440334005&nvr=Y
http://www.tagstory.com/100443495

3) 아홉개 반의 손가락

이 동화는요

히말라야에 있는 계곡에 착하고 인정많은 여왕님이 있었습니다. 이 여왕님이 어린 공주였을 때 항상 공주님 곁에서 돌봐주던 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주님이 햇사과가 먹고 싶다고 하여 하녀가 사과를 깎다가 그만 칼을 떨어뜨려 공주님의 새끼손가락이 반으로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화가 난 공주님은 하녀를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몇 달 뒤 공주가 산책을 나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궁전을 벗어나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요괴들이 나타나 지하 세계로 공주님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님의 새끼 손가락 반이 없다는 걸 알고는 공주님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놓아주었습니다. 살아서 궁으로 돌아온 공주님은 너무 행복했고 손가락이 아홉 개 반이라는 운명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하녀를 풀어주었습니다. 하녀를 만나게 된 공주는 하녀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하녀 역시 공주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공주님이 저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제가 곁에 있었다면 제가 대신 요괴들에게 끌려갔을 겁니다. 모든 일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운명이기 때문이지요." 공주님 역시 하녀에게 고마워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은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것 또한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후 공주님은 모든 일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히말라야 왕국을 어질게 잘 다스렸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모습이나 일에 대한 긍정적 사고의 필요성을 알고, 내가 경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융통성 있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

- 자신의 모습이나 일에 대해 긍정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와 융통성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주는 왜 아홉 개 반 손가락이 되었나요?
- 숲속에서 만난 요괴들은 왜 공주를 데려가지 않았나요?
- 감옥에서 풀려난 하녀는 왜 공주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나요?

알아봅시다.

- 자신의 신체적 단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씩씩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Tip!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아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는 태어날 때부터 한 손에 손가락이 두 개 있고, 발가락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워낙 몸이 약하고 손에 힘이 없어서 처음에는 손가락 힘을 기르려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지만 곧 남다른 음악성을 드러냈지요. 항상 웃는 얼굴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생활하고 있으며 신체적 단점을 극복하고 지금은 국내외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며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선 연주회를 통한 모금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103cm 희아의 기적]

체험해봅시다.

- '새옹지마'란 말의 뜻을 찾아보고 이 이야기와 비교해 봅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 자신의 모습에 대해 긍정적 사고하기 : 내가 가진 단점은 다르게 생각하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단점을 찾고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
  (예: 밥을 늦게 천천히 먹는다 — 늦게 먹지만 대신 소화가 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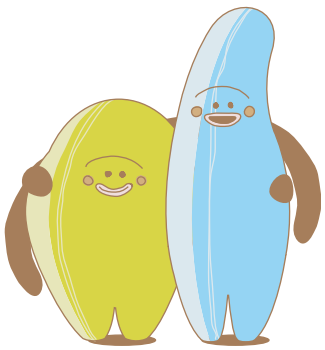
- 숲 속에서 만난 요괴들은 공주가 '완벽하지 않아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과연 '완벽함'이란 무엇인가요? 특히 완벽한 외모란 어떤 것인가요? TV에서 나오는 텔런트나 가수들의 모습일까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어떤 모습이 완벽한 외모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 "우리 둘은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것 또한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1) 위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 나눠 봅시다.
  (2) 위의 말은 우리의 삶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생활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로써 모두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영화 '아바타'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 최근에 서로 마음이 상했거나 다투었던 친구가 있거나 사과해야 할 친구가 있다면 찾아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고 전해봅시다.

참고자료

- 새옹지마(塞翁之馬)

  옛날 중국의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멀리 달아나 버렸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慰勞)하자 노인은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말이 한 필의 준마(駿馬)를 데리고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축하하자 노인은 "도리어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소." 라며 불안해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그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걱정하며 위로(慰勞)하자 노인은 "이것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며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젊은이들은 싸움터로 불려 나가 대부분 죽었으나,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진 후 절름발이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인생의 길흉화복에는 변화가 많으며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네이버 한자사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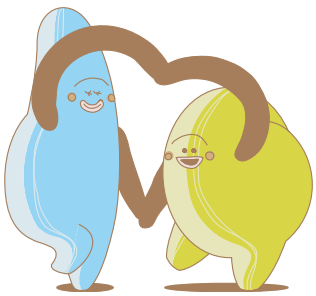
www.ollybolly.org



Ⅲ 올리볼리 그림동화 활용 교육을 위한 교안 샘플

www.ollybolly.org

1. **베트남**: 바잉 쯩과 바잉 자이는 어떻게 생겼나
2. **필리핀**: 우 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
3. **몽골**: 달려라, 망아지!
4. **태국**: 비를 내리게 하는 파야탠
5. **우즈베키스탄**: 비밀의 나이
6. **이란**: 양탄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7. **팔레스타인**: 「연」과 「이만과 종이연」 엮어 읽기
8. **티베트**: 「나는 야크입니다」와 「야크 털은 왜 길까?」 엮어 읽기



1 베트남: 바잉 쯩과 바잉 자이는 어떻게 생겼나

1) 학습 목표

- 베트남의 전통음식 '바잉 쯩'과 '바잉 자이'의 유래에 대해 알 수 있다.
- 베트남의 음식 문화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 음식이 갖는 문화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주요 내용

- 1차시에서는 동기 유발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떡과 빵 사진을 제시하고 떡과 빵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자유롭게 말하고 이번 학습 내용은 '떡'과 관련됨을 안내합니다.
- '떡' 문화는 농경사회와 관련이 있으므로 베트남의 쌀농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 한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베트남 음식에 대해 조사해 봅니다.
- 베트남은 농경산업뿐 아니라 메콩 강 유역의 수산 산업, 경제개발 개방정책(도이머이, 1987) 이후 관광업 등 2차~3차 산업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설명하여 베트남이 농경국가라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이주민들이 음식 문화와 관련하여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해 조사해보고 느낀 점을 말합니다.

3) 준비물

- 다양한 종류의 떡과 빵 사진
- 바잉 쯩과 바잉 자이를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동영상 자료
- 베트남의 농경 산업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베트남 식당 사진과 메뉴 사진
- 베트남의 현재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
- 이주민들의 음식 문화와 관련된 자료

4) 수업의 흐름

	학습 내용	시간	준비물
1차시	● **동기유발 활동**: 다양한 종류의 떡과 빵 사진을 제시하고 떡과 빵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자유롭게 말하기		다양한 종류의 떡과 빵 사진
	● **주요 활동 1**: '떡' 문화는 농경사회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베트남에서는 1년에 2모작 또는 지역에 따라 2년에 7모작을 하기도 합니다. '쌀농사'는 매우 중요한 문화이자 산업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베트남에서 새해 첫날 쌀을 이용한 음식을 먹는 다는 것은 '쌀'이 베트남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킵니다.		베트남의 쌀농사 현황과 역사 및 문화를 알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활동지 1
	● **주요 활동 2**: 바잉 쯩과 바잉자이를 만드는 모습을 알아보고, 각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베트남 설날 음식 레시피'를 글과 그림을 통해 작성하도록 합니다. 바잉 쯩과 바잉 자이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바잉 쯩과 바잉 자이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활동지 2
	● **정리 활동**: 바잉 쯩과 바잉 자이에 대한 내용으로 학생들이 퀴즈를 만들어 서로 문제를 내고 풀어봅니다.		활동지 3
	휴식시간		
2차시	● **동기유발 활동**: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이 나타나는 식기를 소개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젓가락과 숟가락 사진을 보여주고 짝을 지어보게 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젓가락과 숟가락 사진
	● **주요 활동 1**: 음식과 식기를 서로 연결하면서 다양한 음식 문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계적으로 젓가락을 사용하는 국가들 '한국, 베트남, 일본, 중국' 각 나라의 젓가락과 숟가락 모양을 보고 재질, 길이, 사용법을 정리해 봅니다.		활동지 4

	학습 내용	시간	준비물
2차시	● **주요 활동 2**: 젓가락의 모양과 사용법은 그 젓가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 일본: 개인상차림으로 멀리 있는 음식을 집을 필요가 없으므로 젓가락이 짧습니다. 생선 요리의 가시를 발라내기 위해 젓가락 끝이 뾰족합니다. – 중국: 대가족이 모여 한 상에서 식사하며 큰 접시에서 음식을 덜어 먹으므로 멀리 있는 음식을 집기 위해 젓가락이 깁니다. 면이나 기름진 음식이 많아 음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젓가락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 한국: 밥을 젓가락이 아닌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쌀이 주식이기는 하지만 부식(반찬)의 재료가 다양하여 젓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다양합니다.		활동지 4
	● **정리 활동**: 여러 사람이 한 상에 둘러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이 담긴 여러 장의 사진을 보며, 음식을 먹는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친해지고 교류한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교류하고 친해지는 모습이 담긴 사진 예) 외국인이 김치를 담거나 비빔밥을 먹는 모습,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음식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음식을 먹으며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

5) 수업 진행 방법과 유의사항

● 〈1차시〉 수업에서 베트남에서 농경 산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 볼 때에, 자칫 농경 산업이 낙후된 산업이라거나 후진적인 문화라는 식의 태도나 설명 방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합니다. 또 베트남은 농경 산업을 근간으로 하지만 최근 경제 개발 정책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아봅니다. 베트남은 농경문화뿐만 아니라 최근 관광업이 발달하고 있고, 메콩 강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독특한 수산업 풍경도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여 베트남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 음식 문화는 가격에 따라 우열을 평가하기 보다는 그 음식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주민들이 음식 문화와 관련하여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해 조사해보고 느낀 점을 말하면서, 음식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식량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 이주민은 자신들이 고유한 음식 문화와 다른 음식 문화를 접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음식을 통해 새로운 문화(식기, 먹는 방법, 식재료 등)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경험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나와 다른 음식 문화를 가진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공유하는 문화와 정서가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떡국처럼 설날 때 먹을 뿐만 아니라 매년 3월 10일 훙왕의 제삿날에 바잉 쯩과 바잉 자이를 올립니다. 설날이나 훙왕의 제삿날이면 사람들은 서로 모여 결속력을 다지게 됩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외국사람을 보면 친근함을 느낄 수 있듯이 베트남 음식을 통해 베트남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6) 활동지

활동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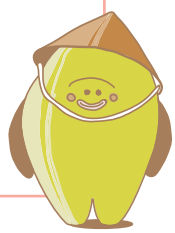
♧ 베트남 사람들의 주식은 ‘ ’ 입니다.

♧♧ 쌀을 이용한 대표적 음식은

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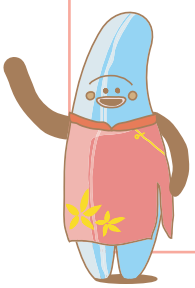
♧♧♧ 베트남은 쌀농사에 유리한 기후입니다.

♧♧♧♧ 베트남은 쌀농사와 관련된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활동지 2

베트남 설날 음식, **recipe!**



활동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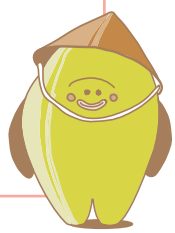
바잉 쯩과 바잉 자이에 관한 퀴즈

퀴즈 하나!

퀴즈 둘!

퀴즈 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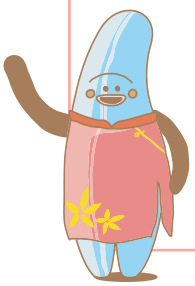
정답은 이곳에 적어 주세요!



활동지 4

한국 · 중국 · 일본 · 베트남의 젓가락과 숟가락 비교

나라이름	
재질	
모양	
사용법	
음식문화	



7) 참고 자료

- 훙왕과 훙왕이 다스렸던 시대의 베트남 역사
- 베트남의 떡 만드는 방법과 재료(과정) http://cafe.naver.com/danking/16981
- 베트남의 새해 풍습

– 설날에는 집집마다 반드시 수박을 준비한다. 수박을 잘랐을 때, 빨갛게 익었으면 다복하다고 합니다. 추석 쭝투에는 잉어, 국화 등의 모양이 새겨진 빵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젓가락과 음식문화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brainmedia.co.kr/brainWorldMedia/ContentView.aspx?contIdx=6878

2 필리핀: 우 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

1) 학습 목표

- 필리핀 사회의 다문화적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다.
- 한국에 사는 필리핀 이주민들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
- 사람이 동물에게서 입은 은혜를 존중하는 이야기를 통해 생명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2) 주요 내용

- 1차시에서는 동기 유발을 위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필리핀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고, 필리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사진을 골라보는 활동을 합니다.
- 필리핀의 자연환경, 역사, 전통 옷, 음식, 집, 명절과 축제, 필리핀 어린이의 학교생활 등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 한국에 살고 있는 필리핀 이주민들에 대해 소개한 동영상을 보고 필리핀 이주민들의 삶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 서울 혜화동에서 열리는 필리핀 장터 등에서 구할 수 있는 필리핀 물건이나 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필리핀 친구가 있다면 사 주고 싶은 것 혹은 선물로 받고 싶은 것을 한 가지 고릅니다.
- 올리볼리 그림동화 「우 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를 보고, 인상 깊거나 재미있게 본 장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활동을 합니다.
- 「우 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에 나오는 것처럼, 동물에게서 입은 은혜와 모든 생명체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토의하는 활동을 합니다.
-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이나 식물 등 사람 이외의 생명체에 대해 떠올려 보고, 이러한 생명체를 존중하기 위한 방법을 적어 발표하는 활동을 합니다.

3) 준비물

-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필리핀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담긴 사진들
  - 구글(http://www.google.co.kr)에서 'Filipino(필리핀 사람)'와 'Filipino Mestizo(필리핀 메

스티소)'로 이미지를 검색하면 다양한 필리핀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필리핀의 인구 구성에 대한 안내 자료
  - 현재 필리핀인은 90% 이상이 말레이족이지만, 그 외의 10%는 화교와 '메스티소(Mestizo)'라고 불리는 혼혈족입니다. 말레이족과의 혼혈인 메스티소는 중국인, 미국인, 스페인인 및 아랍 혈통의 후손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85% 정도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신봉하지만,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섬에 거주하는 모로족은 이슬람교를 믿고, 도이프가오족 등의 민족은 정령을 숭배합니다. 복잡한 민족만큼이나 언어 또한 많아 70종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잘 어울려 살아가고 있으며, 서구 국가의 오랜 식민 통치 역사와 무역 상인들의 혈통이 섞여 외모와 문화 모두에서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혼합된 모습을 보입니다.

- 한국 내 필리핀 인구 현황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시군구별 외국인 등록 인구'를 검색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웹사이트에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외국인근로자(계)'를 검색하면 국적별 외국인 체류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외국인은 2007년에 23,946명, 2008년에 30,979명입니다.

- 『꾸무스따 필리핀』(국립민속박물관, 2011)
  - 국립민속박물관의 '다문화 꾸러미' 시리즈의 하나로, 필리핀의 자연환경, 역사, 전통 옷, 음식, 집, 교통수단, 명절과 축제, 음악과 춤, 전통놀이, 필리핀 어린이의 학교생활 등에 대해 생생한 그림 및 사진 자료와 함께 알기 쉽게 소개한 책, 사진 카드, CD-ROM 자료들로 구성된 교육용 패키지.

  (문의 전화: 02-3704-4506/4510, 홈페이지: http://www.kidsnfm.go.kr/culturebox)

- 〈이주민 바로 알기: 필리핀〉 동영상(https://youtu.be/gB5VZ9mpYjg)
  - 이주민 방송 MNTV에서 제작한 '이주민 바로 알기' 시리즈의 하나로, 한국에 살고 있는 필리핀 이주민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약 20분 정도의 동영상.

- 필리핀 장터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이나 음식의 사진들
  - 인터넷 검색창에서 '필리핀 장터'로 검색하면 서울 혜화동에서 열리는 필리핀 장터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프로젝션 TV(혹은 빔프로젝터와 스피커)
  - 올리볼리 그림동화 〈우 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를 상영할 수 있는 시설

- 2차시를 위한 어린이들의 과제 결과
  - 어린이들이 동물(예: 반려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다양한 생명체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나 주변에서 찾아본 에피소드를 학급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한 과제의 결과.

4) 수업의 흐름

	학습 내용	시간	준비물
1차시	● **동기유발 활동**: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사람들 얼굴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고 필리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사진 골라보기	10분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얼굴 모습이 담긴 사진들
	● **주요 활동 1**: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필리핀의 자연환경, 역사, 전통 옷, 음식, 집, 명절과 축제, 필리핀 어린이의 학교 생활 등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30분	『꾸무스따 필리핀』(국립민속박물관, 2011)
	● **주요 활동 2**: 한국에 살고 있는 필리핀 이주민들에 대해 소개한 동영상을 보고, OX 퀴즈를 통해 동영상에 나온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이주민 방송 MNTV에서 제작한 동영상 〈이주민 바로 알기-필리핀〉(약 20분)
	● **정리 활동**: 서울 혜화동에서 열리는 필리핀 장터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이나 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필리핀 친구가 있다면 사 주고 싶은 것 혹은 선물로 받고 싶은 것을 한 가지 고릅니다.		필리핀 장터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이나 음식의 사진
	휴식시간	10분	
2차시	● **동기유발 활동**: 어린이들에게 미리 전날 과제로 동물(예: 반려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다양한 생명체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나 주변에서 찾아본 에피소드를 학급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고, 그 내용을 수업 시간에 프로젝션 TV나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함께 보면서 「우 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에서 나오는 우씨 집안의 장어를 먹지 않는 전통과 연계하여 관심을 갖게 합니다.	10분	어린이들이 과제를 올린 학급 홈페이지(인터넷)
	● **주요 활동 1**: 「우 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를 보고, 인상 깊거나 재미있게 본 장면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30분	올리볼리 그림동화(인터넷), 활동지 1
	● **주요 활동 2**: 「우 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에 나오는 것처럼, 동물에게서 입은 은혜와 모든 생명체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토의하도록 합니다.		활동지 2
	● **정리 활동**: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이나 식물 등 사람 이외의 생명체에 대해 떠올려 보고, 이러한 생명체를 존중하기 위한 방법을 적어 발표하는 활동을 합니다.		활동지 3

5) 수업 진행 방법과 유의사항

- 필리핀 사회의 다문화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동기 유발 활동으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얼굴 사진들을 보여주고 필리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진을 골라보도록 합니다. 사진을 고를 때에는 여러 장을 고를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활동은 필리핀의 민족 구성에 대해 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필리핀의 인구, 필리핀의 다양한 종교와 지역 문화, 간략한 역사 등에 대해 필리핀 지도, 관련 사실 등을 통해 알려줍니다. 정보 전달에 치우칠 경우 학생들이 자칫 지루해 할 수 있으므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해 전달하도록 합니다.
- 서울 혜화동에서 열리는 필리핀 장터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이나 음식에 대해 사진과 설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필리핀 친구가 있다면 사 주고 싶은 것 혹은 선물로 받고 싶은 것을 한 가지 고르는 활동을 한 후에는, 이주민들은 누구나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의 물건이나 음식을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음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사는 한국인 이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 「우 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에 나오는 우씨 집안과 같이 한국에도 다문화 가정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도록 합니다.
- 2차시 수업을 하기 전날 어린이들에게 동물(예: 반려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다양한 생명체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나 주변에서 찾아본 에피소드를 학급 홈페이지에 올리는 과제를 내고, 그 결과를 2차시 수업의 동기 유발 활동으로 삼아 「우 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에서 나오는 우씨 집안의 장어를 먹지 않는 전통과 연계하여 관심을 갖게 합니다.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사람 이외의 생명체에게서 도움을 얻은 경험이나 관련 에피소드에 관한 학생들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동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 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를 보여주기 전에, 이 그림동화를 볼 때 인상 깊거나 재미있게 본 장면에 대해 메모하면서 보도록 지도합니다.
- 2차시의 마무리 활동을 할 때에는 포스트잇 등을 활용하여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이나 식물 등 사람 이외의 생명체에 대해 떠올려 보고, 이러한 생명체를 존중하기 위한 방법을 적어 모둠별로 발표하도록 하고, 모든 학생들이 적은 내용을 교실 뒤 벽면 등에 붙여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6) 활동지

활동지 1

필리핀 동화

‘우 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의

인상 깊은 장면!

♧ 말주머니를 넣어 동화 속 인상 깊은 장면을 그려 봅시다.

활동지 2

♧ 모둠별로 토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1. 사람들이 동물에게 도움을 받는 예

2.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

활동지 3

내겐 너무 특별한 동물,

_____ 을/를 소개합니다!

♧ 나에게 특별한 동물을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동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 주세요.

7) 참고 자료

● 웹사이트

– 필리핀 관광청: 필리핀 여행 정보 및 주요 여행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어 사이트입니다.
http://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

– 필리핀의 다양한 교민신문을 통해 현지 정보와 최근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kpeople.co.kr/bbs_index.php?file1=bbs_default_minihome.html&file2=bbs_index_minihome_kind10.html

– Phil114: 필리핀 생활, 여행, 유학, 타갈로그어 정보 및 지도, 커뮤니티, 검색 등을 제공하는 필리핀 종합 포털 사이트. '따갈록 사전'을 제공합니다.
http://phil114.com/

● 동영상

– 〈이주민 바로 알기–필리핀〉 동영상 웹 주소: https://youtu.be/gB5VZ9mpYjg

● 자료집

– 『꾸무스따 필리핀』(2011).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의 '다문화 꾸러미' 시리즈의 하나로, 필리핀의 자연환경, 역사, 전통 옷, 음식, 집, 교통수단, 명절과 축제, 음악과 춤, 전통놀이, 필리핀 어린이의 학교생활 등에 대해 생생한 그림 및 사진 자료와 함께 알기 쉽게 소개한 책입니다. 필리핀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사진 카드와 CD-ROM 자료도 함께 들어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문의전화: 02-3704-4506/4510, 홈페이지: http://www.kidsnfm.go.kr/culturebox)

● 단행본

– 알프레도 로체스, 그레이스 로체스 지음/ 이은주 옮김92005). 『Curious: 필리핀』. 휘슬러
필리핀의 언어와 사회, 도덕과 가치, 역사와 문화, 사람들, 의식과 관습, 필리핀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알기 쉽게 해설한 책입니다.

– 이원복 글 · 그림(2006). 『가로세로 세계사 2: 동남아시아』. 김영사
베트남, 타이, 캄보디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동티모르,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역사에 대해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제시한 책입니다.

– 『론리 플래닛 트래블 가이드: 필리핀』(2006). 안그라픽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 책자인 『론리 플래닛』의 필리핀 편으로, 필리핀의 역사, 문화, 환경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몽골: 달려라, 망아지!

1) 학습 목표

- 몽골의 유목문화와 나담축제에 대해 알 수 있다.
- 모정(母情)과 가족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2) 주요 내용

- 1차시에서는 몽골의 유목문화와 나담축제를 소개하면서 몽골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합니다.
- 2차시에서는 모정과 가족애는 인종과 민족은 물론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소중한 정서라는 점을 되새기면서 이것이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이르도록 합니다.

3) 준비물

- 다양한 말 그림이 그려진 활동지
- 나담축제 관련 사진 및 동영상
- 편지지와 편지봉투 활동지

4) 수업의 흐름

	학습 내용	시간	준비물
1차시	● **동기유발 활동**: '달려라, 망아지'와 관련된 몽골어를 따라해 봅시다. – 망아지	1	올리볼리 사이트 '달려라 망아지' 편의 '따라해 봅시다.'
	● **주요 활동 1**: 동화를 보고 난 후, 3×3칸 빙고로 '달려라, 망아지' 퀴즈를 풉니다.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 것 같은지 예상하여 그 문제의 답을 빙고 칸에 쓰도록 합니다. 퀴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에르험 척트가 선물로 받은 것은?(망아지) – 에르험 척트와 가족이 간 축제 이름은?(나담축제) – 에르험 척트가 사는 곳은?(초원) – 나담축제에서 열리는 세 가지 경기는?(활쏘기, 씨름, 말달리기)		활동지 1 (3×3칸 빙고 학습지)
	● **주요 활동 2**: 에르험 척트의 망아지가 우승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엄마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인 정서이며 반드시 보호받아야하는 권리라는 것을 이해하여 '엄마와 떨어져 사는 아이들을 위한 청원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녀와 떨어져 사는 몽골인 부모 또는 엄마와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가 다시 만나게 된 몽골 어린이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일지 '몽골학교' 인터뷰 글을 통해 알아봅니다. –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하여 '○○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활동지 2
	● **정리 활동**: 어린이들이 작성한 청원서를 보내는 대상에 따라 분류하고 교실이나 복도에 게시합니다.		
휴식시간			
2차시	● **동기유발 활동**: 몽골의 초원에서 살아가는 어린이의 사진과 도시에서 살아가는 어린이, 한국의 청학동에서 살아가는 어린이와 도시에서 살아가는 어린이의 사진을 모두 보여주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도록 합니다.		몽골의 초원에서 살아가는 어린이의 사진과 도시에서 살아가는 어린이, 한국의 청학동에서 살아가는 어린이와 도시에서 살아가는 어린이의 사진

	학습 내용	시간	준비물
2차시	● **주요 활동 1**: 어릴 때부터 말을 훈련시키고 배우는 몽골의 어린이를 통해 몽골의 유목문화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세계지도에서 '몽골'의 위치 확인하기 – 몽골 어린이들이 초원에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사진 보기 – 초원에서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지 생각하여 '초원 생활에 필요한 것 10가지' 목록 완성하기		활동지 3
	● **주요 활동 2**: '부베이 부베이'를 보고 몽골 유목민과 말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몽골 사람들이 말에게 해 줄 것 같은 이야기를 말주머니로 적어 봅시다. – 9일씩 아홉 번의 의미 – 말의 역할: 이동, 추위, 식량 등 – 마두금 소개 – 마두금 소리 들어보기		활동지 4
	● **정리 활동**: '말'은 몽골 사람들의 생활 곳곳(자장가, 악기, 어린이의 교육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일러줍니다.		

5) 수업 진행 방법과 유의사항

- 나담축제와 같은 타문화의 축제나 문화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계승하고 즐기는 축제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그들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상호교류의 장이라는 점을 이해시킵니다.

- 1차시에서 '청원서'를 작성할 때, 보내는 대상은 '자신, 동네주민, 교사, 의사' 등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실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기반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가령 '대통령, 사람들'과 같은 대상은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이 수업을 통해 학습하고자 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를 나의 문제, 나와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청원서는 그 완성도보다는 간단한 하나의 문장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수업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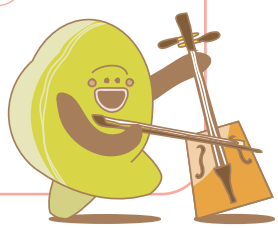
- 2차시에서는 유목생활의 현대화, 몽골 도시의 현대적 모습 등을 정리 단계에서 언급하여 몽골과 유목생활을 기계적으로 연결시키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유목생활은 현대 도시생활에 비해 뒤떨어진 문화나 낙후한 문화가 아니라 자연환경과 어울려 살아가는 고유한 문화라는 점에서 우열의 비교가 불가함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활동지

활동지 1

몽골 동화 '달려라, 망아지!' 빙고 학습지

♧ 몽골 동화 '달려라, 망아지!' 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이 동화의 내용으로 어떤 문제를 낼 것인지 마음속으로 예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을 아래의 빙고 칸에 적어 보세요.
모두 9개의 문제와 그 답을 떠올려야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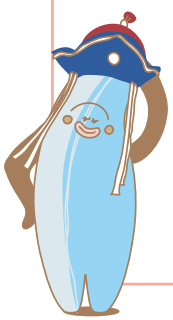
활동지 2

엄마와 떨어져 사는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해 주세요!

♧ 엄마와 떨어져 사는 아이들을 위해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기〉에서 세 사람을 골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배려하고 도와주면 좋을지 생각하여 부탁하는 청원서를 적어 보세요.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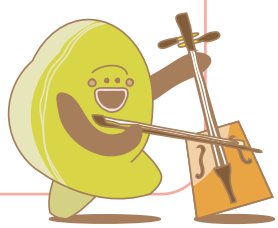
엄마 회사 상사, 아빠 회사 상사, 아이의 학교 선생님,
아이의 학교 친구들, 아이의 이웃집 어른들,
그 외 ( )



활동지 3

초원 생활에 필요한 것 10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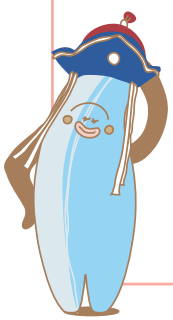
♧ 초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달리 필요로 하는 것들은 무엇일지 생각하여 중요한 순서대로 10가지 목록을 완성하여 보세요.



활동지 4

말을 사랑하는 몽골 사람들!

♧ 몽골 사람들은 말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 떠올려 봅시다. 아래의 그림에서 말과 몽골 어린이의 생각주머니를 완성하여 봅시다.



7) 참고 자료

- 우리나라에서도 열리는 나담축제 소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74623

- 나담축제에서의 씨름 모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20428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2042808

- ebs 지식채널-e의 〈부베이 부베이〉 편
  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3049660

- 마두금의 모습
  http://leehongseok.com/220210796546

- 국립민속박물관 다문화꾸러미 〈몽골편〉
  http://www.kidsnfm.go.kr/culturebox

4 태국: 비를 내리게 하는 파야탠

1) 학습 목표

- 물과 관련된 태국인들의 명절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풍습과 비교할 수 있다.
  * 사람과 동물에게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해 보며 물과 관련된 태국명절과 우리 명절(예: 단오) 풍습을 알아본다.

- 여러 동물들의 지혜와 도전, 협동에 대해 배울 수 있다.
  * 하늘로 올라가 파야탠을 만나 비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하늘로 가는 계단을 만들고, 파야탠의 군대와 역할을 나눠 싸우는 동물들의 도전과 지혜, 협동

- 자연과 생태의 소중함,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다.
  * 물과 자연의 고마움, 물이 부족할 경우 겪게 되는 어려움, 기후변화 등
  * 동화에서는 동물이 파야탠을 직접 찾아가는데, 현실에서는 멸종을 통해 경고한다. (도룡뇽과 맹꽁이 등.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maengsase)

2) 주요 내용

- 태국의 문화를 알아봅니다.
- 적당한 비를 기원하는 태국의 풍습을 찾아봅니다.
- 올리볼리 동화를 함께 보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 동물들의 지혜와 협동 방식을 알아봅니다.
- 물이 부족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고 협동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생태와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실천방법을 찾아봅니다.

3) 준비물

- 송크란 동영상 http://www.songkran.co.kr/2011/index.php
- 올리볼리동영상 http://www.ollybolly.org 태국편
- 활동지

4) 수업의 흐름

	학습 내용	시간	준비물
태국 문화 알아보기	● 태국사람들의 인사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와이(합장)를 하며 남자: 사와티캅, 여자: 사와티카 ● 합장으로 인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 알아봅니다. – 인도의 나마스떼, 스리랑카의 아유보완, 한국의 나무관세음보살 ● 친구들과 다양한 인사말로 인사를 나눠봅니다.	10분	
	● 두 가지 질문으로 알아보는 태국 문화 – 모둠별로 다음 중 1가지를 택해 토론하고 발표합니다. 1. 스님의 탁발은 불교신자를 위한 것인가요? 2. 태국 사람은 소고기를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15분	모둠 토론
	● 태국인의 명절 송크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5분	송크란 동영상
2차시 동화를 활용한 생태교육	● 올리볼리 동화: 비를 내리게 하는 파야탠 함께 보기 ● 비를 내리게 하는 파야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이야기 속에서 파야탠과 같은 존재는 누구인가요? – 신들의 나라에 간 동물들이 파야탠에게 어떤 부탁을 했나요? – 농사를 짓지 않는 동물들이 농사일을 걱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태국에서 물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5분	동화 동영상
	모둠토론을 통해 1.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한 동물들의 지혜와 노력이 무엇인지 활동지에 적습니다. 2. 실제 동물들은 생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경고하는지 이야기해 보고 활동지에 적습니다. 3. 물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함께 이야기해 보고 활동지에 적습니다. 4. 물이 부족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토론하고 정리된 의견을 적습니다. 5. 토론 내용을 발표하며 서로 격려합니다.	25분	활동지 1

5) 수업 진행 방법과 유의사항

- 송크란 동영상과 사진 등 자료 https://blog.naver.com/p911c4/221136881866
- 가능하다면 운동장에서 물총놀이를 하며 송크란을 체험해 봅니다.

6) 활동지

활동지 1

파야탠, 비가 안 와요 ~~

동화 속 동물들은 이런 지혜로
협동했어요.

실제로 동물들은 이런 방법으로 경고해요.

7) 참고 자료

- 이 동화와 비슷한 이야기

『세계의 민화 11. 비를 내리게 한 두꺼비』1993. 국민서관

베트남 땅에 큰 가뭄이 들자 두꺼비는 하늘나라 옥황상제에게 따지러 갑니다. 두꺼비를 따라 털게와 장어와 호랑이, 여우와 땅벌이 동행하게 됩니다. 하늘나라 궁전에 올라가서 수탉과 싸움개와 천둥신을 물리치고 드디어 옥황상제를 만나게 되어 비를 내리게 됩니다.

5 우즈베키스탄: 비밀의 나이

1) 학습 목표

- 동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재능을 잘 이끌어내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이슬람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에 대해 배우고 한국 동포들의 이민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

2) 주요 내용

- 1차시에서는 동기 유발을 위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국가연합(1991년 소련연방에서 독립한 국가들)중 대표적인 나라들의 위치와 현황을 소개하는 활동을 합니다.
-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문화를 의식주, 축제, 사람간의 예의 등을 통해 알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 한민족 이주의 역사를 소개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활동을 합니다.
- 모든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재능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칭찬바구니 만들기 활동을 통해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적극 격려해주는 활동을 합니다.

3) 준비물

- 중앙아시아 지도
  - 중앙아시아 지역, 특히 1991년 소련연방으로부터 독립한 나라들의 위치, 수도가 담긴 지도를 준비합니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이 있습니다. 스탄은 원래 ~의 땅이란 뜻으로, 카자흐스탄은 자유로운 방랑자의 땅이라 불릴 만큼 면적이 큽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는 타슈켄트, 카자흐스탄은 아스타나, 키르기스스탄은 비슈케크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민족인 우즈베크족이 전 인구의 7/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인구의 1/10 미만이며, 타지크인 · 카자크인 · 타타르인 · 카라칼파크스인들이 소수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 우즈베키스탄 나라 소개 자료: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사이트에 가면 우즈베키스탄의 약사, 역사적 인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고려인의 역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 등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http://uzb.mofat.go.kr)

우즈베키스탄은 다민족 다문화사회입니다. 125개 다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로서 우즈베크인(71.4%),

러시아인 (6.3%), 타지크인(4.7%), 카자흐인(3.9%), 유태인(0.3%), 고려인(0.9%) 등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어우러져 사는 나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현재 약 23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습니다. 고려인의 이주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탈린에 의한 강제 이주

- 1937년 스탈린의 소수민족 분산정책에 따라 극동지역 거주 고려인(17만여 명)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됨
- 1937년 9~12월 화물열차로 연해주 등 극동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되었으며, 이주과정에서 노약자 다수 사망
- 중앙아시아 이주 후 카자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주민들의 도움으로 월동하고, 강제 이주시 가져온 볍씨 등 농작물 씨앗으로 수자원을 이용한 벼농사 등에 성공하여 중앙아시아 쌀 등 식용작물 보급
- 2차 대전 시에는 거주 · 병역 제한 적성민족 누명 하에 탄광 · 군수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했고, 점차 한국어와 한국문화 상실
  - 1956년 흐루시쵸프, 한인 포함 11개 민족에 공민권 회복
- '콜호즈'(집단농장)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폴리타젤' 콜호즈, '김병화' 콜호즈 등을 건설, 노동영웅들을 배출

(2)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고려인 위상 제고

- 1989. 9. 20 소연방 공산당 중앙위 총회 「고르바쵸프 보고서」에서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을 비롯하여 독일인 · 유대인 등 피압박 민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언급
  - 1991. 4. 26 러시아, "억압받은 민족들의 복권에 관한 법" 채택
  ※ 1993. 4. 1 최고소비에트 '한인복권령' 채택

- 한국이슬람중앙회 (http://www.koreaislam.org) 자료실
  - 이슬람의 기원, 코란, 기도예법 등 이슬람에 대해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준비합니다.

- 올리볼리 동영상 http://www.ollybolly.org 우즈베키스탄편
- 나우르즈 축제 동영상 (http://brand.pandora.tv/my.yunhap/41757628)
  - 이슬람 설날 봄맞이 축제 '나우르즈' : 3월 21일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CIS지역의 최대 명절인 '나우르즈' 입니다. 나르우즈는 '새 날' 이란 의미로 봄맞이를 하는 날입니다. 새해 첫날 떡국을 먹듯이 나르우즈때 쿠줴(삶은 고기, 곡물, 유와 케피르)를 먹습니다. 나우르즈는 2009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 악기 나이 모양은 올리볼리 '이건뭐예요' 편에, 나이의 소리는 classicmusic.uz을 준비합니다.
- 칭찬 바구니
- 터번이 그려진 칭찬바구니용 쪽지

4) 수업의 흐름

	학습 내용	시간	준비물
1차시 우즈베키스탄 문화 알아보기	**동기유발 활동** (인사법 또는 지도보고 나라 찾기) ●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인사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여자, 남자가 하는 인사를 친구들과 해봅시다. ● 나라에도 뜻이 있데요? ~스탄(의 땅/영토)의 의미 알아보기	10분	중앙아시아 지도 PPT 자료
	주요활동 1: 이슬람에 대해 알아보기 ● 중앙아시아 무슬림의 설날 봄맞이 '나우르즈' 축제 동영상 보여주기 ● 두 가지 질문으로 알아보는 이슬람 문화 ① 무슬림이 먹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② 무슬림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30분	나르우즈 축제 동영상 모둠토론
	주요 활동 2: 우즈베키스탄 및 중앙아시아에 사는 고려인에 대해 알아보기(고려인, 고려사람, 카레예츠)		활동지 1
	정리 활동: 고려인들이 조선과 한국에서 가져간 것은 무엇일까요? 고려인들이 한국에 올 때 가져온 문화는 무엇일까요?		PPT 준비하기: 김치, 논농사문화, 언어
휴식시간		10분	
2차시 동화를 활용한 '재능' 발견 교육	● **올리볼리 동화**: 「비밀의 나이」 함께 보기 ● 「비밀의 나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동화의 내용을 이해하게 합니다. ① 탄부리 선생님은 나이를 칼로 깎는 아이에게 커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나요? ② 나이를 땅에 심고 물을 준 아이에게 훌륭한 정원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 탄부리 선생님의 말처럼 이 아이는 훌륭한 정원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15분	동화 동영상
	주요 활동 1: 만약 내가 '나이'를 받는다면? 나이 모양의 나무막대기를 받고 한 학생이 '행동'을 하면 다른 학생들은 이 아이가 장차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 맞춰봅니다. **주요활동 2**: 칭찬바구니 돌리기 활동지에 친구들의 장점과 재능을 적어 바구니에 넣습니다. 바구니에 담긴 칭찬 쪽지를 돌려가며 읽습니다. 칭찬 쪽지가 선택된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나이'를 가지고 그것을 표현해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행동으로 묘사해봅니다.	30분	나이 모양의 긴 나무막대 칭찬바구니 활동지 2

	학습 내용	시간	준비물
	정리 활동: 나는 가수다! 나는 화가다! 나는 빵장수다! : 자신의 장점과 좋아하는 일, 미래에 하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인지 얘기해보고, 그것을 위해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이야기해봅니다.		활동지 3

5) 수업 진행 방법과 유의사항

- 2차시 주요활동 1에서 터번을 그려 오려서 한 아이의 머리에 쓰게 하여 탄부리 선생님의 흉내를 내게 합니다. 나이를 가지고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 2차시 주요 활동 때 나이를 가지고 제각기 다양한 것을 하는 것은 각자 원하는 일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때 우리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재미와 활력이 생긴다는 점을 이해시킵니다.

- 2차시 정리 활동 시 인간이 가진 좋은 재능은 다른 사람에게 계속 가르쳐주어야 후대 사람들도 그것을 즐길 수 있고,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리합니다.

6) 활동지

활동지 1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에 사는 고려인

♧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에 사는 고려인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정리해 보세요.

활동지 2

♧ 친구의 장점과 재능을 떠올려 보세요.
쪽지에 친구의 이름과 칭찬할 내용을 적은 후 가위로 오리세요.
쪽지를 접어서 바구니에 넣어 보세요.

칭찬쪽지 1	칭찬쪽지 2
칭찬쪽지 3	칭찬쪽지 4

활동지 3

나의 재능과 미래 직업

♧ 자신의 장점과 좋아하는 일, 미래에 하고 싶은 직업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그 직업을 위해서 어떤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지 적어 보세요.

7) 참고자료

● 웹사이트

–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웹사이트 자료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koreaislam.org/

– 우즈베키스탄 주재 대한민국대사관 사이트: 우즈베키스탄의 약사, 역사적 인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고려인의 역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 등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http://uzb.mofat.go.kr

–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의 현황이나 한국의 정책 지원에 대해 알고 싶으면 재외동포재단의 웹사이트를 참고 할 수 있습니다.
http://www.okf.or.kr

– 전통모자인 돕프 사진과 설명은 올리볼리 그림동화 우즈베키스탄 편 '이 나라가 궁금해요'에 나와 있습니다.
http://www.ollybolly.org/?mid=animation_curious_blog&category=234&document_srl=5194

● 동영상

– 중앙아시아 이슬람 최대 축제인 나우르즈 축제 영상은 판도라사이트(http://brand.pandora.tv/my.yunhap/41757628)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비밀의 나이」에 등장하는 전통 악기인 '나이'의 모양은 '이건 뭐예요'에 나와 있고, '나이'의 소리는 classicmusic.uz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 단행본

– 한양대 인류학과의 이슬람 문화 전문가인 이희수 교수가 쓴 아래의 책을 통해 이슬람 문화와 나라별 특수성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희수(2011),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 911 테러 10년과 달라진 이슬람세계』. 청아출판사
이희수 (2010), 『톡톡 이슬람: 문화가 보인다. 세상이 보인다』. 검둥소
이희수 (2007),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이슬람-우즈베키스탄"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한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 삼인

6 이란: 양탄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 학습 목표

- 이란 양탄자의 모양과 쓰임에 대해 알 수 있다.
- 이란 양탄자의 제작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 양탄자가 갖는 문화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주요 내용

- 1차시는 동화의 소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양탄자가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 양탄자 직조 방법에 대한 글과 그림, 동영상 등을 보고 양탄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여행의 추억, 이루고 싶은 소망, 특별히 기념할 만한 일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양탄자를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 소재나 기법으로 양탄자를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 2차시는 이란의 양탄자 산업과 어린이 노동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 세계의 어린이 노동 사례를 알아보고, 어린이 노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합니다.

3) 준비물

- 골판지, 검은 도화지, 색종이, 색연필, 싸인펜, 풀, 가위 등
- 양탄자 직조 방법을 알 수 있는 글이나 그림, 동영상 자료

4) 수업의 흐름

차시	학습 내용	시간	준비물
1차시	● **동기유발 활동**: 하늘을 나는 양탄자 그림을 보며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기	5분	Flying carpet 또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주요활동 1**: 양탄자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양탄자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10분	
	● **주요활동 2**: 양탄자 직조 방법에 대한 글과 그림, 동영상 등을 보고 양탄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0분	〈How Persian Rugs Are Made〉 〈Tying Knotted Persian Rug〉등의 동영상을 Youtube에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리활동**: 나만의 양탄자 만들기 여행의 추억, 이루고 싶은 소망, 특별히 기념할 만한 일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양탄자를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 소재나 기법으로 양탄자를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15분	골판지, 검은 도화지, 색종이, 색연필, 싸인펜, 풀, 가위 등 다양한 미술 활동 용품
	휴식시간		
2차시	● **동기유발활동**: 축구공, 커피, 초콜릿의 공통점이 무엇일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익숙한 일상품 뒤에 있는, 어린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품의 생산 과정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5분	축구공, 커피, 초콜릿 생산에 동원되는 아동노동 관련 사진이나 기사문
	● **주요활동 1**: 이란의 양탄자 산업과 어린이 노동(아동노동)에 대해 알아봅니다.	10분	양탄자 산업에 동원되는 어린이들 사진이나 글
	● **주요활동 2**: 세계의 어린이 노동 사례를 알아보고, 어린이노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15분	어린이 노동 사례를 알 수 있는 사진이나 글
	● **정리활동**: 자신이 쓴 글이나 그림을 발표하며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10분	

5) 수업 진행 방법과 유의사항

- 동영상 자료는 반드시 수업 전에 교사가 끝까지 모두 시청한 후에 학습자에게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민감한 정치적 혹은 종교적 사안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양탄자의 용도와 쓰임은 유목문화와 연관 지어 설명하되, 양탄자의 현대적인 쓰임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현대의 양탄자는 유목문화와 연관된 실용적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주거문화에서 활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예품으로서의 예술적인 의미도 지닙니다.

- 나만의 양탄자를 만들 때에는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맞게, 그리기나 만들기 중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 만들기 활동의 경우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활동 후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아동노동에 대해 다루는 수업에서는 이란의 양탄자 산업 전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루기보다는, 세계의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노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노동은 특정 산업 품목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아동노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글을 작성할 때에는 어린이로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신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런 일들을 널리 알린다거나 작은 금액이지만 기부를 한다거나 이와 관련된 책이나 자료들을 찾아 읽는 일들이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활동지 1

어린이 노동의 사례를 조사하고 사진과 글을 통해 설명하는 글

〈사진 붙이는 곳〉

♧ 어린이 노동의 사례를 조사하고 난 후 나의 생각과 느낌(편지, 포스터, 만화 등)

7) 참고자료

- 빅토르 바스네초프, 〈하늘을 나는 양탄자〉
  : 이 작품은 러시아 화가의 작품입니다. 아라비안나이트와 유사한 이야기가 러시아 민담에도 나옵니다. 하늘을 나는 양탄자에 대한 과학 실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dongascience.com/PHP/NewsView.php?kisaid=20071228200000000007&classcode=0108

- 양탄자의 용도
  유목생활에서 카펫은 모래와 먼지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는 바닥재나 벽이 되어 줍니다. 모래바닥 위에 카펫을 깔고 그 위에 '킬림'이라고 하는 매듭이 없는 직조물을 방석용도로 놓으면 응접실이 되는 셈입니다. 또 카펫 위에 세탁 가능한 천을 깔아 음식을 놓으면 식탁으로 변신합니다. 카펫은 이동이 많은 유목민들에게는 가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더위나 추위로부터 내부 온도를 지켜줄 뿐만 휴대와 설치가 쉽다는 점에서 수세기동안 유목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생활 품목이 되어 온 것입니다.
  또 하루 다섯 번의 기도를 드리는 무슬림들에게는 카펫은 종교적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도용 카펫에는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미라브(Mirab) 문양이 직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탄자는 유목 생활에서 걸개, 덮개, 가리개, 깔개 등으로 활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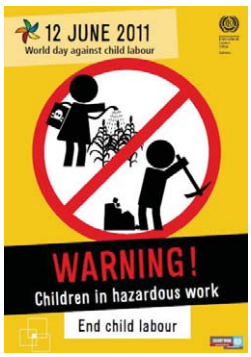
– 자전거로 이란을 여행하며 기록한 이란의 현대모습과 카펫을 파는 바자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bikeworldtravel/7492789

– 우리나라에서 한국과 터키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터키의 수공예술품 전시회가 열렸는데, 이 전시회에 전시된 카펫과 카펫의 용도를 알 수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daum.net/isabelle/10950550

– 카페트 산업의 '어린이노동'에 대한 기사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redian.org/archive/10522

– 세계 어린이상 수상자들이 들려주는 어린이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어린이가 어린이를 돕는다』(김이경 지음)
  : 전쟁고아, 티베트 난민, 소년병 등 세계 어린이 인권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
  : 국제노동기구(ILO)는 1999년 아동노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ILO는 같은해 열린 연례총회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혹한 노동과 매춘, 강제징병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협정 182조'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전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 아동노동반대와 관련하여 학생이 작성한 기사문과 아동노동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cscpr&logNo=100159804893

7 팔레스타인: 「연」과 「이만과 연」 엮어 읽기

1) 학습 목표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과 역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팔레스타인의 연날리기 축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 행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팔레스타인을 돕는 단체들과 한국 정부의 원조에 대해 알아보고, 지구촌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전쟁과 같은 재난 상황이 일어나면 어린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이야기해 본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세계지도에서 찾아보고, 분쟁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이해한다.
- 팔레스타인 또는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 연을 만들고 발표한다.
- 해외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해본다.
-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여 발표한다.

3) 준비물

- 연 만들기 재료 또는 연 모양의 학습지

4) 수업의 흐름

차시	학습 내용	시간	준비물
1차시	● **동기유발 활동**: 한국전쟁 당시의 어린이들의 사진을 보며 전쟁이 일어나면 어린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이야기해 본다.	5분	
	● **주요활동 1**: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세계지도에서 찾아보고, 분쟁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이해한다.	10분	세계지도 및 아랍 지도
	● **주요활동 2**: 팔레스타인의 연날리기 축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 행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다.	10분	팔레스타인 난민기구가 해마다 여는 '연날리기' 대회 동영상,〈Gaza Kites Festival〉, 〈Palestine: The Dancing of the Kites〉
	● **정리활동**: 팔레스타인 또는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 연을 만들고 발표한다.	15분	실제 연이 아니라 작은 연 모형의 학습지를 준비하여 메시지를 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
	휴식시간		
2차시	● **동기유발활동**: 해외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해본다.	5분	해외자원봉사자들의 사진(유니세프, 월드비전, 코이카 등)
	● **주요활동 1**: 팔레스타인의 난민촌, 어린이들의 모습 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본다.	10분	〈Gaza Reality – Mud houses〉, 〈Life in Gaza〉
	● **주요활동 2**: 전쟁, 자연재해 등의 재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고, 그 어린이들에게 보내주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만의 구호상자'를 만들어 본다.	15분	https://goo.gl/yVR5D2 (2011.3.11.일본 쓰나미 '세이브더칠드런' 구호활동 내용)
	● **정리활동**: 각자가 만든 '나만의 구호상자'를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	10분	학습지

5) 수업 진행 방법과 유의사항

- 동영상 자료는 반드시 수업 전에 교사가 끝까지 모두 시청한 후에 학습자에게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민감한 정치적 혹은 종교적 사안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수업 전에 교사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자료들을 동시에 검토하고 수업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며, 특정 입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세계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수혜가 아니라 서로가 호혜적인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쟁이나 자연 재해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어른이 아닌 어린이의 시각으로 어린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이때에는 재난 상황에서는 물질적인 도움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지지와 응원을 통해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상황에 초점을 두어 선악의 대결구도로 이 사태를 이해하도록 하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동안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겪는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상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수업을 이끕니다.

활동지 1

나만의 구호 상자

♧누구에게?

♧무엇을?

♧구호상자의 내부 모습은?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을 받아 본 어린이가 할 것 같은 말은?

♧이것을 받아 본 어린이에게 내가 해 주고 싶은 말은?

7) 참고자료

- 팔레스타인 난민기구가 해마다 여는 '연날리기' 대회에 대한 2011년 국내뉴스 동영상입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60273

- 팔레스타인난민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팔레스타인의 난민구호 현황과 어린이들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unrwa.org/index.php

- Palestine Kite Festival로 검색하면 팔레스타인의 연 날리기와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에 보도된 팔레스타인 연 날리기 기사와 사진입니다.
  http://www.guardian.co.uk/world/gallery/2009/jul/31/gaza-palestinian-territories#/?picture=351037021&index=4

- Youtube에서 〈Gaza Kites Festival〉, 〈Palestine: The Dancing of the Kites〉 동영상을 검색하면, 팔레스타인 연날리기 대회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Gaza Reality - Mud houses〉,〈Life in Gaza〉 등의 동영상을 통해 가자(Gaza) 지구의 현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세이브더칠드런 일본 대지진 구호 기사
  https://www.sc.or.kr/ 〈기관안내 〉 세이브더칠드런 뉴스〉 새소식〉 '일본' 검색

8 티베트: 「나는 야크입니다」와 「야크 털은 왜 길까?」 엮어 읽기

1) 학습 목표

- 티베트의 자연환경과 유목민 생활모습에 대해 알 수 있다.
- 야크의 생김새와 유래, 야크가 하는 일, 야크의 쓰임새 등에 대해 알고, 이를 통해 티베트 사람들에게 야크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며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기업)의 사례를 찾아보고, 자신의 꿈과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2) 주요 내용

- 1차시에서는 티베트 고원과 주변 자연환경의 모습이 담긴 사진(히말라야 산맥, 넓은 고원)과 우리나라의 봄이나 여름 환경 사진, 북극이나 남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유롭기 이야기 나누며,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모습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특히 이번 학습내용은 우리 주변에서 늘 보던 모습과 생소한 티베트라는 나라의 자연환경과 생활모습에 대한 내용임을 안내합니다.
- 티베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 티베트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 보고, 티베트의 자연환경(지리적 위치, 기후)과 티베트 유목민의 생활모습에 대해 설명합니다.
- 야크의 생김새를 중심으로 야크의 이름, 야크가 하는 일, 야크의 쓰임새 등에 대해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이해하게 합니다.
-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하여 책을 만듭니다.
- 야크와 물소 사진, 우리나라의 소 사진을 함께 보여주고 모두 소의 일종이나 생김새가 다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야크와 물소의 모습을 비교하며 야크의 털이 길어지게 된 유래에 대해 이야기를 통해 알아봅니다.
- 고원에 오르는 꿈을 꾸던 야크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기업의 사례를 찾아 봅시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 봅니다.
- 꿈 계획표를 작성해 봅니다.

3) 준비물

- 티베트의 자연환경모습,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모습, 북극이나 남극, 열대 국가들의 자연환경이 담긴 사진이나 그림
- 티베트 사람들의 모습, 달라이 라마 사진
- 티베트 지역의 위치가 잘 나타나 있는 세계 지도
- 티베트의 자연환경(지리적 위치, 기후)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자료
- 티베트 유목민의 생활모습에 대한 자료(유목민의 모습, 옷차림, 먹는 음식, 천막생활 등)
- 야크와 물소의 사진, 야크의 털이 길어지게 된 유래(올리볼리 그림동화참고)
- 야크의 생김새, 특징, 하는 일, 쓰임새 등에 대한 사진이나 설명 자료
-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며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

4) 수업의 흐름

차시	학습 내용	시간	준비물
1차시	● **동기유발 활동 :** – 티베트 고원과 주변 자연환경의 모습이 담긴 사진(히말라야 산맥, 넓은 고원)과 우리나라의 봄이나 여름 환경 사진, 북극이나 남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기 –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모습도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에게 생소한 티베트의 자연환경과 생활모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의 자연환경 모습,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모습, 북극이나 남극, 열대 국가들의 자연환경이 담긴 사진이나 그림
	● **주요활동 1**: – 티베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 티베트는 현재 우리가 흔히 '한국', '일본', '태국' 등을 말할 때 생각하는 것 같이 '나라'는 아닙니다. 현재 티베트는 중국에 속해 있으며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티베트족 자치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티베트를 말할 때는 '티베트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거에요. 티베트는 1950년 중국에 의해 중국 자치구로 편입되었고 그 이후 티베트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비록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티베트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있으며,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의 다람살라에는 티베트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세운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습니다. – 티베트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 보고, 티베트의 자연환경(지리적 위치, 기후)과 티베트 유목민의 생활모습에 대해 설명합니다. – 티베트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할 만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겨울은 매우 춥고 건조하며 바람도 많이 붑니다. – 티베트 사람들의 3~40%가 유목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야크가 중요한 동물입니다. – 유목민의 텐트생활, 음식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티베트 사람들의 모습, 달라이 라마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그림 티베트 지역의 위치가 잘 나타나 있는 세계지도 티베트의 자연환경(지리적 위치, 기후)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자료 티베트 유목민의 생활모습에 대한 자료 (유목민의 모습, 옷차림, 먹는 음식, 천막생활 등) 활동지1
	● **주요활동 2**: – 야크의 생김새를 중심으로 야크의 이름, 야크가 하는 일, 야크의 쓰임새 등에 대해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합니다. – 야크는 티베트 유목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동물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 야크에 대한 내용을 활동지를 통해 이해하도록 합니다.		활동지2
	* **정리활동**: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하여 책을 만듭니다. 티베트의 자연환경이나 생활모습, 또는 야크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여 활동지를 참고하여 책만들기를 하도록 합니다.		책만들기 자료(도화지, 싸인펜, 색연필, 가위, 풀 등)

차시	학습 내용	시간	준비물
	휴식시간		
2차시	● **동기유발활동**: 야크와 물소 사진, 우리나라의 소 사진을 함께 보여주고 모두 소의 일종이나 생김새가 다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야크와 물소의 모습을 비교하며 차이점을 생각해 봅니다.		야크와 물소의 사진
	● **주요활동 1** – 야크의 털이 길어지게 된 유래에 대해 이야기를 통해 알아 봅니다. – 야크는 매일 밤 어떤 꿈을 꾸었는지, 추운 티베트 고원에서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물소는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었는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발표하도록 합니다.		야크의 털이 길어지게 된 유래(올리볼리 그림 동화참고)
	● **주요활동 2** – 고원에 오르는 꿈을 꾸던 야크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기업의 사례를 찾아 봅시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 봅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며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
	● **정리활동** 꿈 계획표를 작성해 봅니다.		활동지3

5) 수업 진행 방법과 유의사항

- 티베트는 현재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티베트족 자치구로써, 14대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다람살라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내용은 티베트와 중국 관계에 있어서 다소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도록 하며, 아이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쉬운 티베트에 대한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티베트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지도합니다.

- 티베트의 자연환경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연환경과 유목민의 생활모습이 연관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합니다. 특히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채소가 귀하며 야크가 유목민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농경사회의 전통 속에 소는 야크만큼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소와 야크를 비교해 보면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환경과 문화속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 동물이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 매일 밤 고원에 오르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룬 야크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친구 물소가 야크에게 털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을 떠올리며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합니다.

- 꿈이란 꼭 위대한 가치와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꿈을 갖고 그 꿈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도 많이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기부 문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 모금 뿐 아니라 재능을 기부하며 나눌 때 기쁨과 가치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고 소박한 꿈,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꿈, 올 한 해 줄넘기를 잘하고 싶다는 꿈도 모두 가치있고 중요한 꿈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꿈 계획표를 작성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지도합니다.

활동지 1

티베트의 자연환경과 생활모습

1. 티베트의 동쪽에는 ( ), 북쪽에는 몽골, 남쪽에는 ( ) 와 네팔이라는 나라로 둘러싸여 있어요

2. 티베트 고원의 평균 고도는 해발 4천미터가 넘는데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티베트의 고원을 세계의 ( ) 이라고 말합니다.

3. 티베트 사람들의 3~40% 는 ( )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 타베트 날씨는 매우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채소를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 ) 고기와 우유, 치즈, 버터 등으로 영양을 보충하고 ( ) 가죽으로 만든 텐트에서 생활합니다.

5. 티베트 사람들은 뜨거운 모래에 구운 보리를 빻아 만든 ( ) 라는 음식을 먹습니다.

활동지 2

야크는 어떤동물일까요?

1. 야크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면서 유용한 동물입니다. 야크는 하는 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써 봅시다.

2. 야크의 암컷 이름은 ( ) 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즐겨먹는 버터차는 바로 ( ) 의 젖으로 만듭니다.

3. 야크는 많은 쓰임새를 갖고 있습니다. 야크의 털, 가죽, 뿔, 똥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써 보세요.

4. 야크는 우리나라의 소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해 봅시다.

5. 내가 티베트 사람이라면 야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없을까요? 야크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편지로 써 봅시다.

활동지 3

꿈계획표

나의 꿈	내용	결과
오늘 이루고 싶은 꿈		
1주일 안에 이루고 싶은 꿈		내가 할 일 : 결과 :
한 달 안에 이루고 싶은 꿈		내가 할 일 :
1년 안에 이루고 싶은 꿈		내가 할 일 :
20년 후에 이루고 싶은 꿈		내가 할 일 :

7) 참고자료

- 『코박사와 함께 떠나는 다문화 여행』,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 티베트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코박사 아저씨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티베트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지구촌 탐험』, 로랑스 캉텡, 카트린 레세르 지음 (아이세움)
: 티베트에 대한 특징적인 단어(낱말)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야기, 여행을 떠나기 위한 간략한 안내까지 덧붙여진 책입니다.

『티베트』, 피터시스, 엄혜경 옮김, 마루벌
: 아버지가 티베트에서 길을 잃었을 때의 경험을 쓴 일기를 통해 중국의 티베트 점령,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들려주고 있으며, 새파란 호수에 사는 사람 얼굴의 물고기 전설, 거인 예티족 탄생에 얽힌 설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신비롭고 몽환적이며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울지 말아요, 티베트』, 정미자 글, 책먹는 아이
: 티베트를 떠나 인도의 다람살라로 가기 위해 가족과 슬픈 이별을 하고 히말라야를 넘는 험하고 위험한 길을 떠나는 티베트 사람들, 다큐멘터리 감독인 아빠를 따라 티베트 사람들과 동행하게 된 열 세 살 보건이의 여정을 따라가며, 아픈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티베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동화입니다.

『평화를 그리는 티베트 친구들』, 티베트 난민 어린이들, 가르비엘 랩킨 엮음, 초록개구리
: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티베트 어린이들이 난민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생활을 아이들의 눈으로 쓰고 그린 글과 그림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글과 그림에 풀이를 달아 티베트와 티베트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길 –티베트 차마고도를 따라가다』, 이용한 글 사진, 넥서스
: 고대 교역로 '차마고도茶馬古道'를 따라 만나는 비밀스러운 땅 티베트에서 만나는 풍경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달라이 라마가 들려주는 티베트 이야기』, 토머스 레어드 저/황정연 역, 웅진지식하우스
: 티베트 전문가인 기자가 달라이 라마와 만나 티베트의 모든 것에 대해 3년간 나눈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1600년대 이후 처음으로 달라이 라마가 직접 말한 티베트 문명의 역사와 문화, 정신에 관한 자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길의 종착역 티베트』, 남경영 청품 공저, 고려원하우스
– 12년 동안 중국여행을 고집해온 전문가와 중국 현지 여행가가 만나 함께 써 내려간 티베트 가이드북입니다.
– 한국티베트문화연구소 http://cafe.daum.net/tibetsociety
– 티베트망명정부 (공식) http://tibet.net/
– 티베트의 자연환경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 http://blog.daum.net/light3732/666551
– 티베트 유목민 텐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 http://lovelysuky.blog.me/80146784700
– 야크에 대한 설명,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24008&mobile&categoryId=20000017

– 뱀 박사 차승훈 군의 이야기 : 5학년때 뱀을 처음 접한 후 뱀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뱀을 키워 온 서라벌 고등학교 최승훈군, 뱀에 대한 책까지 쓸 만큼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과 애정으로 이번에 대학교까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뱀독 전문가'가 되는 게 꿈인 승훈군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22809440334005&nvr=Y
http://www.tagstory.com/100443495

〈부록〉 올리볼리 동화 목록

나라	제목	글쓴이	그린이
베트남	금구덩이 은구덩이 1	밍 구억	부 쥐 응이아
	금구덩이 은구덩이 2	밍 구억	부 쥐 응이아
	네 형제의 뛰어난 재주 1	또 호아이	타이 훙
	네 형제의 뛰어난 재주 2	또 호아이	타이 훙
	달에 사는 꾸오이 아저씨 1	또 호아이	타 휘 롱
	달에 사는 꾸오이 아저씨 2	또 호아이	타 휘 롱
	돌 개의 웃음 1	또 호아이	타 휘 롱
	돌 개의 웃음 2	또 호아이	타 휘 롱
	벌을 받은 바위 1	또 호아이	타 휘 롱
	벌을 받은 바위 2	또 호아이	타 휘 롱
	엄마를 찾아서 1	응원 휘 드영	응원 공 환
	엄마를 찾아서 2	응원 휘 드영	응원 공 환
	신기한 석궁 1	또 호아이	타 휘 롱
	신기한 석궁 2	또 호아이	타 휘 롱
	영웅 바반 1	또 호아이	응원 쾅 빈
	영웅 바반 2	또 호아이	응원 쾅 빈
	파 사세요 1	밍 구억	응원 빅
	파 사세요 2	밍 구억	응원 빅
	메기와 두꺼비 이야기 1	도 화이	응오 마잉 런
	메기와 두꺼비 이야기 2	도 화이	응오 마잉 런
	꼬마 꾸어이 1	응원 휘 드영	응워 공 환
	꼬마 꾸어이 2	응원 휘 드영	응워 공 환
	나무꾼과 선녀 1	홍 하	응원 공 환
	나무꾼과 선녀 2	홍 하	응원 공 환
	오행산 이야기 1	밍 구억	응오 마잉 럼
	오행산 이야기 2	밍 구억	응오 마잉 럼
	죵 이야기 1	또 화이	마이 롱
	죵 이야기 2	또 화이	마이 롱
	바잉 쯩과 바잉 자이는 어떻게 생겼나 1	홍 하	따 툭 빙
	바잉 쯩과 바잉 자이는 어떻게 생겼나 2	홍 하	따 툭 빙
필리핀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라파엘리타 발레라	가디 마두에노
	숲의 감시관이 된 필란독 1	빅토리아 아노누에보	코라 알바노
	숲의 감시관이 된 필란독 2	빅토리아 아노누에보	코라 알바노
	욕심 많은 영주와 흰구름 1	호노엘 이바르도라자	브라이언 발레스테로스
	욕심 많은 영주와 흰구름 2	호노엘 이바르도라자	브라이언 발레스테로스
	필란독과 황금달걀을 낳는 닭 1	빅토리아 아노누에보	코라 알바노
	필란독과 황금달걀을 낳는 닭 2	빅토리아 아노누에보	코라 알바노
	하늘과 땅은 어떻게 생겼나	라파엘리타 발레라	가디 마두에노
	카부니안은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나	라파엘리타 발레라	가디 마두에노
	원숭이와 거북이 1	호세 리살	호세 리살
	원숭이와 거북이 2	호세 리살	호세 리살
	람앙의 사랑 1	비르질리오 S.알마리오	알버트 가모스
	람앙의 사랑 2	비르질리오 S.알마리오	알버트 가모스
	마리아 시누콴의 재판 1	비르질리오 S.알마리오	미치 빌라베르체
	마리아 시누콴의 재판 2	비르질리오 S.알마리오	미치 빌라베르체
	필란독과 바닷속 왕국 1	빅토리아 아노누에보	코라 알바노
	필란독과 바닷속 왕국 2	빅토리아 아노누에보	코라 알바노
	필란독과 악어들 1	빅토리아 아노누에보	코라 알바노

나라	제목	글쓴이	그린이
	필란독과 악어들 2	빅토리아 아노누에보	코라 알바노
	소년과 하늘 1	아이리스 겜 리	세르 부마타이
	소년과 하늘 2	아이리스 겜 리	세르 부마타이
	우 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 1	프란 능	아넬 미라솔
	우 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 2	프란 능	아넬 미라솔
우즈베키스탄	요술 쟁이 1	오훈조노바, 투르라모바, 사히팔로브츠	라일로 바랴로바
	요술 쟁이 2	오훈조노바, 투르라모바, 사히팔로브츠	라일로 바랴로바
	할아버지와 도깨비 1	마흐무다 우스모노바	크퓨첸코
	할아버지와 도깨비 2	마흐무다 우스모노바	크퓨첸코
	왕과 앵무새 1	가브하르 미르자에바	후싼 소디코브
	왕과 앵무새 2	가브하르 미르자에바	후싼 소디코브
	비밀의 나이 1	레임 파르호디이,	
		라노 톨리포바	레즈니첸코
	비밀의 나이 2	레임 파르호디이,	
		라노 톨리포바	레즈니첸코
몽골	마지막 설인 1	잠바 다쉬돈독	잠바 다쉬돈독
	마지막 설인 2	잠바 다쉬돈독	잠바 다쉬돈독
	봉이 일곱 개인 낙타	잠바 다쉬돈독	잠바 다쉬돈독
	게르이야기 1	잠바 다쉬돈독	누르마자브 투브덴도르즈
	게르이야기 2	잠바 다쉬돈독	누르마자브 투브덴도르즈
	부모 없는 흰 아기낙타 1	몽골 민담	쉬.간벌드
	부모 없는 흰 아기낙타 2	몽골 민담	쉬.간벌드
	활 잘 쏘는 에르히 메르겡 1	몽골 민담	베. 냐므더리지
	활 잘 쏘는 에르히 메르겡 2	몽골 민담	베. 냐므더리지
	용왕의 노란 종이 1	몽골 민담	체. 간바타르
	용왕의 노란 종이 2	몽골 민담	체. 간바타르
	낙타를 들어 올린 할아버지와 염소를 들어 올린 손자 1	잠바 다쉬돈독	잠바 다쉬돈독(사진)
	낙타를 들어 올린 할아버지와 염소를 들어 올린 손자 2	잠바 다쉬돈독	잠바 다쉬돈독(사진)
	달려라, 망아지! 1	잠바 다쉬돈독	잠바 다쉬돈독(사진)
	달려라, 망아지! 2	잠바 다쉬돈독	잠바 다쉬돈독(사진)
	덜컹덜컹! 이동도서관이 왔어요 1	잠바 다쉬돈독	잠바 다쉬돈독, 보롤조이
	덜컹덜컹! 이동도서관이 왔어요 2	잠바 다쉬돈독	잠바 다쉬돈독, 보롤조이
태국	중국인과 타마린드 잎 1	리여우와린	차니싸 창아드
	중국인과 타마린드 잎 2	리여우와린	차니싸 창아드
	비를 내리게 하는 파야탠 1	캄푼 분타위	폰프롬 차우왕
	비를 내리게 하는 파야탠 2	캄푼 분타위	폰프롬 차우왕
	우리집의 부처님 1	위라윳 르앗숫위차이	위라윳 르앗숫위차이
	우리집의 부처님 2	위라윳 르앗숫위차이	위라윳 르앗숫위차이
	큰 닭과 작은 닭 이야기 1	위라윳 르앗숫위차이	위라윳 르앗숫위차이
	큰 닭과 작은 닭 이야기 2	위라윳 르앗숫위차이	위라윳 르앗숫위차이
	수박 왕자 1	그아군 라오우의	위라윳 르앗숫위차이
	수박 왕자 2	그아군 라오우의	위라윳 르앗숫위차이

나라	제목	글쓴이	그린이
인도네시아	선녀와 날개옷 1	알리 무아키르	카비자꾸
	선녀와 날개옷 2	알리 무아키르	카비자꾸
레바논	알쏭달쏭 엄마의 말 1	라니아 사기르	조이스 아카위
	알쏭달쏭 엄마의 말 2	라니아 사기르	조이스 아카위
이란	모자 1	모하마드 레저 유세피	러신 게이리에
	모자 2	모하마드 레저 유세피	러신 게이리에
	벽에 씌어 있는 이야기들 1	파리데 갈아트 바리	매흐디 아흐마디
	벽에 씌어 있는 이야기들 2	파리데 갈아트 바리	매흐디 아흐마디
	상인과 앵무새 1	마르전 푸러드반드	아흐마드 카릴리
	상인과 앵무새 2	마르전 푸러드반드	아흐마드 카릴리
	상인과 앵무새 3	마르전 푸러드반드	아흐마드 카릴리
	공주님의 여행 1	파리데 갈아트 바리	페레스테 나자피
	공주님의 여행 2	파리데 갈아트 바리	페레스테 나자피
	공주님의 여행 3	파리데 갈아트 바리	페레스테 나자피
	남자는 사자, 여자는 토끼 1	몰테저 코스루 네져트	러신 케일리에
	남자는 사자, 여자는 토끼 2	몰테저 코스루 네져트	러신 케일리에
	양탄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	너데르 엡러히미	누러딘 잘린 칼락
	양탄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2	너데르 엡러히미	누러딘 잘린 칼락
	양탄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3	너데르 엡러히미	누러딘 잘린 칼락
	진정한 챔피언 1	카눈 출판사 출판부	알리 아크바 사덱하이
	진정한 챔피언 2	카눈 출판사 출판부	알리 아크바 사덱하이
티베트	나는 야크입니다 1	노르부 칼첸	텐진 상포
	나는 야크입니다 2	노르부 칼첸	텐진 상포
	야크 털은 왜 길까? 1	로렌 앨더퍼	캘상 디키
	야크 털은 왜 길까? 2	로렌 앨더퍼	캘상 디키
	아홉개 반의 손가락 1	로렌 앨더퍼	반다나 비스트
	아홉개 반의 손가락 2	로렌 앨더퍼	반다나 비스트
팔레스타인	연 1	자카리야 무함마드	바샤룰 후룹
	연 2	자카리야 무함마드	바샤룰 후룹
	작은 개미 1	자카리야 무함마드	싸미흐 아부쉬
	작은 개미 2	자카리야 무함마드	싸미흐 아부쉬
	이만과 연 1	디마 쌔흐월	디마 아부 에르하즈
	이만과 연 2	디마 쌔흐월	디마 아부 에르하즈
캄보디아	귀신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 1	웅운 씨웅임	쿤 쏘완아릿
	귀신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 2	웅운 씨웅임	쿤 쏘완아릿
	작은 천사 까루나 1	름 썬티피업	뇨윽 쏘팔리업
	작은 천사 까루나 2	름 썬티피업	뇨윽 쏘팔리업
르완다	주문을 외워 봐 1	이브라히마 디야예	카푸치니 마질레
	주문을 외워 봐 2	이브라히마 디야예	카푸치니 마질레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
다양한 모습으로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

올리볼리 그림동화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글로벌 시민으로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껏 접하기 어려웠던 나라들의 그림동화를 제공합니다.

그림동화를 통해 다름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간의 소통이 가능한 사회, 가치 있는 개인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통해 나와 다름이 차별과 배제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풍부하고 창조적으로 만들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올리볼리는 올록볼록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다양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올리볼리 그림동화는 아래의 사이트 및 APP을 통해서 무료로 만날 수 있어요.

| 사이트 |
"올리볼리 그림동화 홈페이지 **http://www.ollybolly.org**"
"Daum 키즈짱 **http://kids.daum.net**"

| 모바일 |
애플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올리볼리'** 검색

다음세대재단 Daum foundation www.daumfoundation.org

다음세대재단은 ㈜다음커뮤니케이션 주주 및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및 보너스, 현금 등을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2001년 9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다음세대재단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현명한 사용을 통해 가치 있는 개인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다음세대 창조"**를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디어와 청소년 사업인 '유스보이스', 비영리단체를 위한 IT 지원센터 'ITcanus', 문화다양성 사업인 '올리볼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례집

I 사업 기관별 분류

1. 종합사회복지관
   1) 유아/초등 – 모라종합사회복지관 | 283
   2) 초등/중등 – 녹번종합사회복지관 | 287

2. 도서관 : 제천 기적의 도서관 | 290

3. 다문화학교 : 지구촌학교 | 295

II 프로그램 특성별 분류

1. 교안개발
   1) 다문화강사교육 : 대구다문화강사협회 | 299
   2) 다문화인권교육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304

2. 교구개발(체험학습)
   1) 성우체험 – 행복한 그룹 동행 | 314
   2) 인형극체험 – 모두협동조합 | 318
   3) 영상제작체험 – 진주시민미디어센터 | 321

기 관 명	**모라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명	다(多)함께 떠나요 보물섬여행 시즌2
한 줄 요약	나이에 따라 다르게 배워요

기 관 명	**녹번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명	보석비빔밥 마을
한 줄 요약	중학생에게 그림동화는 시시하다? NO!

기 관 명	**제천 기적의 도서관**
프로그램명	낯선 나라에서 친구의 나라로, 우리는 지구촌 친구
한 줄 요약	동화에서 책으로, 책에서 세계로!

기 관 명	**지구촌학교**
프로그램명	세계로 가는 올리볼리 스토리텔링 동화여행
한 줄 요약	어색한 외국인에서 어엿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기 관 명	**대구다문화강사협회**
프로그램명	올리볼리 그림동화로 떠나는 세계여행
한 줄 요약	다문화교육전문가로 거듭나는 결혼이주여성

기 관 명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프로그램명	올리볼리 그림동화 활용 교안 개발 사업
한 줄 요약	문화체험에서 인권교육으로 발전하는 다문화강의

기 관 명	**행복한 그룹 동행**
프로그램명	올리볼리 가족 동화 오디오북, 영상북 제작단
한 줄 요약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가족의 다문화 동화책

기 관 명	**모두협동조합**
프로그램명	슈퍼맘이 돌아왔다 – 펼쳐라 세계이야기
한 줄 요약	무대에서 직접 만나는 동화 속 주인공

기 관 명	**진주시민미디어센터**
프로그램명	올록볼록 다문화 애니메이션 만들기
한 줄 요약	아이들이 오물락조물락 직접 빚어 만든 애니메이션

사업수행기관별 - 종합사회복지관 - 유아/초등

기관명	**모라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명	다(多)함께 떠나요 보물섬여행 시즌2
한 줄 요약	나이에 따라 다르게 배워요

사업 개요

"다(多)함께 떠나요, 보물섬 여행 시즌2"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 아동들이 문화 다양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실시한 프로그램입니다.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은 동주초등학교, 모라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수업대상을 다양하게 넓히고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반(1~3학년), 고학년반(4~6학년)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진행했는데, 신청자가 많이 몰린 경우에는 복지사업 대상 가정의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수업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문화경험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기간	7월 ~ 12월	2개월(기획 및 준비), 3개월(수업 진행), 1개월(평가)
구성	학생 : 79명	어린이집 6세(16명), 7세(18명), 초등학교 저학년(24명), 고학년(21명)
	강사 : 5명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 각 1명
	방식 : 90분 수업	유아반, 저학년반, 고학년반 각 7회 수업

활용된 올리볼리 그림동화

필란독과 악어들(필리핀)
비를 내리게 하는 파야탠(태국)
수박왕자(태국)
꼬마 꾸어이(베트남)

세부 일정

기간	일정	내용
7월	1차 수업 대상 모집 일정 논의, 강사 모집	동주초등학교와 협의 기존 강사에 추가로 신규강사 모집
	프로그램 세부내용 기획	각 나라별 교육 프로그램 기획
7 ~ 9월	초등학교 총 7회 수업 진행 (7.24 ~ 9.3)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문화체험 및 문화다양성 교육
8월	2차 수업 대상 모집 일정 논의	모라어린이집 6세 ~ 7세반
9 ~ 10월	어린이집 총 7회 수업 진행 (9.17 ~ 10.31)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문화체험 및 문화다양성 교육
12월	평가 회의 사진 앨범 제작	전체 프로그램 평가 협력기관에 앨범 배부

Know-how & Tip

1) 내가 만든 여권으로 세계여행 준비 완료!

아이들은 첫 회기 때 직접 보물섬여권을 만들어 세계여행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수업을 받던 평범한 학교 교실이 다문화강사 선생님들을 만난 순간부터는 세계를 향해 떠나는 공항으로 변신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그 지역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필수! 아이들은 여행할 나라의 인사법, 풍습, 예절에 대해서 배우고, 그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어보거나 전통음식을 먹으면서 조금씩 그 나라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Tip 여권에는 아이들이 직접 각자의 사진을 붙이고 이름을 적은 뒤에 수업 시간에 꼭 갖고 오도록 합니다. 여러 나라 문화체험을 할 때마다 그 나라의 스탬프나 스티커를 받아 조금씩 내용을 채워 나가면서 세계여행을 다니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2) 저학년에게는 구연동화, 고학년에게는 주제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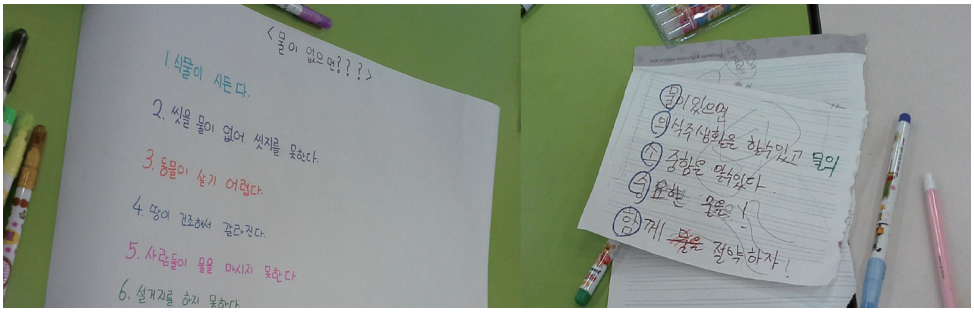
아이들에게 동화를 소개할 때는 연령대를 고려해서 전달방법을 다르게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라도 구연동화를 활용해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고, 쉬운 내용이라도 주제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과 저학년반에서는 숙련된 다문화강사의 재미있는 구연동화로 동화의 자막과 내용이 아직은 어렵게 느껴지는 아이들에게 쉽게 풀어서 전달합니다. 반면에 초등학교 고학년 반에서는 동화를 보고 모둠별 토론을 진행합니다.

현장사례 1〉

“〈비를 내리게 하는 파야탠〉을 보고 나서 아이들에게 “만약 우리에게 물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또 다른 조의 아이들에게는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실천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 20여 분 동안의 활발한 토론 끝에 첫 번째 조는 물이 없다면 생길 수 있는 일상 속 변화 10가지를 앞에서 발표했고, 다른 모둠에서는 재치 있게 "물의 소중함"으로 오행시를 적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3) 역할극으로 동화내용 되새기기

아이들이 동화 줄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는, 미리 준비한 전통복장과 가면 등의 소품을 활용해 아이들 각자가 배역을 맡아서 역할극을 진행합니다.

현장사례 2〉

"배역을 정하는 시간이 되자 교실이 왁자지껄합니다. 신기한 가면을 써보고 싶고, 반짝거리는 전통의상도 입어보고 싶지만, 징그러운 두꺼비 역할은 절대 맡기 싫다며 불평하는 아이가 보입니다. 또 다른 아이들은 가면이나 옷의 종류는 상관없고 가장 대사 분량이 많은 내레이션 역할을 맡고 싶어서 손을 번쩍 들고 " 저요! 저요! "소리치고 있습니다. 두꺼비 역은 결국 연기 자체에 나름의 소신을 가진 당찬 아이가 나서서 맡았고, 내레이션은 10명의 후보들끼리 팽팽한 가위바위보 대결을 벌인 끝에 정해졌습니다. 역할극이 시작되자마자, 아이들은 방금 전까지 교실을 가득을 채웠던 소란이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친구들의 연기에 눈을 빛내며 순식간에 집중합니다."

4) 나라와 관련된 체험활동

아이들에게 해당 나라의 문화에 대해 설명을 하고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 나라와 관련된 체험활동을 실시합니다. 강의형식의 전달교육은 연령층이 낮은 아이들은 지루해할 수 있고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달교육이 끝나고 반가면 만들기, 전통모자 만들기, 전통놀이, 전통축제체험 등 체험활동을 진행하면 아이들이 매 수업마다 호응도와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현장사례 3〉

태국 전통축제인 송끄란 축제를 체험해보았습니다. 각자 물총을 들고 운동장에서 신나게 물총놀이를 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강사님께서 송끄란 축제라고 설명만 해주실 때는 '여러 축제 중에 하나' 라고만 알고 넘어가지만 직접 물총놀이를 하며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먹서먹했던 그룹의 친구들과도 거리낌 없이 어울릴 수 있어 아이들의 친밀감 형성에도 좋습니다.

단체 소개

1992년 9월에 개관한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지역주민 모두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복지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라복지관이 위치한 부산시 사상구에는 많은 수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내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내에 문화다양성 이해를 증진하고 아이들의 문화적 창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2013년부터 지역 초등학교와 연계한 다문화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및 홈페이지

한현주 051-304-9876 / 홈페이지 http://www.moraswc.or.kr

사업수행기관별 – 종합사회복지관 – 초등/중등

기관명	**녹번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명	보석비빔밥 마을
한 줄 요약	중학생에게 그림동화는 시시하다? NO!

사업 개요

"보석비빔밥 마을"을 통해서 아이들은 생소했던 여러 나라의 문화와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다문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게 되고, 결혼이주여성들은 재능나눔의 일환으로 일일교사가 되어 교육자로서의 보람과 함께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의 특성상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교육복지사업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 비지원사업학교들에도 다문화교육의 기회가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세 곳을 선정하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기간	6월 ~ 12월	2개월(기획 및 준비), 3개월(수업진행), 1개월(평가)
구성	학생 : 약 500명	초등학교(열세 반) : ○○초 4학년(일곱 반), △△초 6학년(여섯 반) 중학교(여섯 반) : ▽▽중 1학년(여섯 반)
	강사 : 11명	필리핀 공동체 소모임 3명, 베트남 공동체 소모임 8명
	방식 : 90분 수업	학교 각 반 별 1회씩 수업

활용된 올리볼리 그림동화

원숭이와 거북이(필리핀)

엄마를 찾아서(베트남)

세부 일정

기간	일정	내용
6월	중학교 강의안 및 일정 논의	그림동화를 활용한 강의안 기획 교육용 PPT 작성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기획
	강사 모집	필리핀 공동체 소모임에서 지원자 선발
7월	중학교 총 6회 수업 진행 (10일, 15일, 17일)	필리핀 동화 관람, 필리핀 문화교육, 전통문화체험(놀이, 요리 등)
10 ~ 11월	초등학교 강의안 및 일정 논의	그림동화를 활용한 강의안 기획 교육용 PPT 작성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기획
	강사 모집	베트남 공동체 소모임에서 지원자 선발 모의 강의를 통한 연습 및 음식체험 재료 준비
11월	초등학교 총 13회 수업 진행 (13일, 17일, 24일)	베트남 동화 관람, 베트남 문화교육, 전통문화체험(의상, 요리 등)
12월	평가회의	전체 프로그램 평가

1) 중학생에게 동화는 지루할 뿐?

현장사례 1〉

"필리핀 자원봉사 모임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록산느 선생님은 ▽▽중학교에서의 첫 수업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준비할 당시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는 달리 이른 사춘기를 겪고 있을 중학교 아이들 앞에서 과연 수업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동화를 잘 보지 않는 중학생들에게, 요즘말로 가뜩이나 '중2병'에 걸려 있을지 모를 아이들에게 올리볼리 그림동화로 시작하는 다문화교육이 지루하게 느껴질 까봐 염려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교실을 가득 채우는 아이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그 무거웠던 고민들이 단번에 날아가 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은 그녀가 자기소개를 하고 동화를 감상하는 동안 계속됐고 수업을 끝내고 그녀가 문을 나설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몸만 부쩍 자란 것이 아니라 마음도 성숙해진만큼 수업 태도 면에서도 훨씬 더 어른스러워진 중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Tip 즉석 퀴즈대회

올리볼리 그림동화는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적합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동화 그 자체만으로 중학생들의 흥미를 끌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걸고 퀴즈대회를 열어서 관심도를 높이면 아이들의 눈을 꽤 반짝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화 속에 나온 간단한 명칭이나 전체 줄거리만으로도 쉬운 퀴즈 문제는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중학생들에게는 훨씬 풍부하고 창의적인 대답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서술형 문제처럼 동화의 주제나 교훈을 정해진 글자 수 안에서 직접 요약해 말해보도록 한다거나, 주인공의 성격이나 주인공이 사건 속에서 느꼈을 심정에 대해서 동화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해서 말해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전통문화체험에는 폴라로이드가 필수!

기록용으로 쓰이는 일반적인 카메라와 함께 폴라로이드를 준비해 가면 전통문화 체험의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있을 때의 모습을 찍어서 즉석에서 인화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재미있게 그 시간을 즐길 수 있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다문화교육의 인상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선생님! 우리 엄마도 선생님이랑 같은 나라에서 왔어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문화교육 시간에 의도치 않게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공개적으로 노출되거나 아이들의 놀림꺼리로 지목될까봐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 간혹 나의 어머니가 (강의하는 선생님처럼) 다른 나라에서 왔다며 스스럼없이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의 자기 노출에 잇따를 수 있는 주변 친구들의 거리두기, 심지어 왕따에 대해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교사로서 반드시 지녀야 할 문제의식이지만, 이렇게 자신에 대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독려할 수 있는 태도 또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단체 소개

1996년 2월에 개관한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은 나눔과 섬김의 가치 실현을 위해 서울시 은평구 내 저소득층,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번복지관은 2008년부터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를 열어 올해로 6년째 운영 중이며,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꾸준히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문화다양성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만의 커뮤니티인 '열매'를 조직하여 이들이 지역 내에서 봉사활동, 다문화교육, 통번역 등으로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및 홈페이지

최혜림 02-388-6341 / 홈페이지 http://nokbeon.or.kr/

사업수행기관별 – 도서관

기관명	**제천 기적의 도서관**
프로그램명	낯선 나라에서 친구의 나라로, 우리는 지구촌 친구
한 줄 요약	동화에서 책으로, 책에서 세계로!

사업 개요

"낯선 나라에서 친구의 나라로, 우리는 지구촌 친구!"는 기획 당시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모집 운영했지만, 평소 도서관을 자주 찾는 유아기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반영하여 6~7세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반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제천 기적의 도서관은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올리볼리 그림동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내 소장 도서를 적극 활용하고, 책에서 읽은 내용과 연결되는 현장 체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하이퍼텍스트적으로 수업을 운영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는 동안 떠오른 아이들의 호기심이 또 다른 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올리볼리 동화를 보면서 생겨난 궁금증을 수업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스스로 독서하며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기간	6월 ~ 12월	1개월(기획 및 홍보), 1개월(평가) 5개월(수업 진행)
구성	학생 : 40명	유치부 6~7세(20명), 초등 저학년(20명) 참여 학생 중 50%는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구성
	강사 : 6명	독서지도교사 2명(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출신 다문화강사 각 1명
	방식 : 120분 수업	유치부, 저학년 각 10회 수업 후 공동 1회 현장체험학습

활용된 올리볼리 그림동화

카부니안은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나(필리핀)
원숭이와 거북이(필리핀)
바잉 쯩과 바잉 자이는 어떻게 생겼나(베트남)
금구덩이 은구덩이(베트남)
달에 사는 꾸오이 아저씨(베트남)
할아버지와 도깨비(우즈베키스탄)
비를 내리게 하는 파야탠(태국)
게르 이야기(몽골)

세부 일정

기간	일정	내용
6월	강사 및 협력기관 섭외	제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 섭외 및 실무자 간 간담회
	프로그램 홍보 및 학생 모집	지역신문사, 도서관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모집
7 ~ 11월	수업 진행 및 체험학습	초등부, 유치부 각 10회 수업 진행 지역축제 탐방을 통한 체험학습 진행
11 ~ 12월	프로그램 평가	전체 프로그램 평가

〈수업 사례〉

내용	활용 도서 및 올리볼리 그림동화
주제 :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내용 : 아시아 각국의 역사	도서 : 『우리 가족입니다』 (한국) 동화 : 『카부니안은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나』 (필리핀)
주제 : 전통음식, 음식이 갖는 문화적 의미와 가치 이해 내용 : 세계 음식으로 떠오르는 김치에 담겨진 의미 알기 - 아시아의 주식 '쌀' 에 대해 알아보기	도서 : 『금동이네 김장 잔치』 (한국) 동화 : 『바잉 쯩과 바잉 자이는 어떻게 생겼나』 (베트남)
주제 : 전래놀이, 우리는 이렇게 놀아요 내용 : 전래놀이, 때로는 다르게 때로는 똑같이	도서 : 『깨롱깨롱 놀이 노래』 (한국) 동화 : 『낙타를 들어 올린 할아버지와 염소를 들어 올린 손자』 (몽골)
주제 :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옛날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우리나라 옛날이야기 내용 : 각 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이야기 전설 그리고 속담 알기	도서 : 『흥부와 놀부』 (한국) 동화 : 『금구덩이 은구덩이』 (베트남)
주제 : 모두가 다른 우리나라의 잔치 내용 : 각국의 축제, 나담축제, 피에스타 그리고 설날	도서 : 『설빔』 (한국) 동화 : 『나담축제』 (몽골)

Know-how & Tip

1)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현장사례 1〉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도서관에 먼저 도착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펼쳐 읽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도서관 내에 마련된 올리볼리 그림동화관으로 옹기종기 모여 앉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한 선생님의 간단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불이 꺼지고 아이들은 한 편의 올리볼리 동화를 조용히 관람합니다. 어둠 속에서 동화를 보는 동안 생겨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불이 켜지자마자 반짝거립니다. 선생님에게 연신 질문을 하고 답하는 사이에 어느덧 정해진 수업시간이 다 지나가고,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 도서관에서 아직 남은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책을 찾느라 바쁩니다."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보며 생긴 호기심은 또 다른 동화책을 펼치게 하고, 하나의 조그만 이야기에서 시작된 물음은 자연스럽게 더 큰 세계를 향해 펼쳐집니다.

2) 지역축제탐방

그림책 『가면』(정혜영 글/그림)을 함께 읽고, 직접 교실에서 탈을 제작해 본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안동하회마을로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세계탈문화축제에서 다양한 나라의 탈춤공연을 관람하고 넓은 세계의 다채로운 문화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Tip 명절과 축제를 활용한 체험학습

설, 추석 등의 명절과 인근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 및 공연행사를 해당 수업의 독서 내용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일정을 기획하면, 아이들이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접할 수 있는 문화를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문화학습에 무척 효과적입니다.

3) 오늘은 내가 다문화요리사!

『바잉 쯩과 바잉 자이는 어떻게 생겼나』를 감상한 후에는 『금동이네 김장 잔치』를 비롯한 요리 관련 동화책들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나라 전통음식의 유래에 대해 배우고 나서, 선생님들과 함께 월남쌈(베트남), 수만(필리핀), 오니기리(일본), 교자(중국), 잔치국수(한국)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Tip 요리 체험용 메뉴 고르기

요리 체험은 소규모 그룹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문화학습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료들을 직접 만져보고 완성된 요리를 먹어볼 수 있는 신나는 체험학습의 장입니다. 그런데 메뉴를 선정할 때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조리 과정에 참여 가능하도록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식 약밥인 수만의 경우에는 달콤한 향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흥미를 보인 메뉴였지만, 어른 한 명이 불 옆에 서서 코코넛 우유를 오랫동안 졸이는 작업을 해줘야 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월남쌈의 경우에는 미리 재료들을 채 썰어두면 아이들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에 활용하기 좋았습니다.

단체 소개

제천 기적의 도서관은 2003년 설립된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지역 내의 모든 어린이들이 어떠한 차별이나 불평등 없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간 74종 이상의 독서·문화관련 프로그램을 지원 및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부터는 제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문화다양성 이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이 되는 아가들에게 그림책 2권을 선물하는 북스타트를 통해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및 가정방문 지도사 교육지원을 통해 어울림의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이해기반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지원의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역의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문화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및 홈페이지

정은지 043-644-1215 / 홈페이지 http://www.kidslib.org

사업수행기관별 – 다문화학교

기관명	**지구촌학교**
프로그램명	세계로 가는 올리볼리 스토리텔링 동화여행
한 줄 요약	어색한 외국인에서 어엿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사업 개요

지구촌학교의 예비학교 프로그램은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에 중도 입국한 아이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세계시민으로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 편성되면 정규 교과의 진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학습에 흥미를 잃거나 아예 포기하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지구촌학교에서는 중도입국 아이들이 출신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의 다양한 문화까지 고루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기간	6월 ~ 12월	1개월(기획 및 강사섭외), 6개월(수업진행), 1개월(평가)
구성	학생 : 47명	중도입국 초등학생 ; 중국(36명), 태국(3명), 베트남(3명), 미국(1명), 캐나다(1명), 카자흐스탄(1명), 우즈베키스탄(1명), 모로코(1명)
	강사 : 1명	독서지도 및 스토리텔링 전문 강사(한국)
	방식 : 90분 수업	6개월간 총 22회 수업

활용된 올리볼리 그림동화

비를 내리게 하는 파야탠(태국)
공주님의 여행(이란)
중국인과 타마린드 잎(태국)
게르 이야기(몽골)
바잉 쯩과 바잉 자이는 어떻게 생겼나(베트남)
하늘과 땅은 어떻게 만들어졌나(필리핀)
금구덩이 은구덩이(베트남)
수위닥 로로(인도네시아)
나무꾼과 선녀(베트남)
비밀의 나이(우즈베키스탄)

세부 일정

기간	일정	내용
6월	강사 섭외 및 프로그램 기획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한 수업 기획
6 ~ 11월	수업 진행	매주 목요일 총 22회 수업 진행 수업 종료 후 12월 연극 발표회
12월	프로그램 평가	전체 프로그램 평가

〈수업 사례〉

수업일자	2014. 8. 21	수업 시간	14:50 ~ 16:20 (10분 휴식)
학습목표	– 몽골의 전통가옥인 게르에 대하여 이해한다. – 게르와 한옥, 다른 나라의 전통가옥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 –『게르 이야기』의 칠형제 간 협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이해한다.		
수업내용	1. '게르' 에 대해 알아보기 –『게르 이야기』 시청 – 게르와 몽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퀴즈를 풀어본다. – 게르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가옥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 게르를 직접 그림으로 그려본다. 2. 동화 내용 이해하기 – 게르를 만든 할아버지의 칠형제가 화합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토론한다. –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2인 3각 게임을 한다.		

Know-how & Tip

1) '구덩이' 가 뭔지 아니?

현장 사례 1〉

베트남 동화『금구덩이와 은구덩이』를 시청하기에 앞서 선생님이 먼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혹시 '구덩이' 가 무슨 뜻인지 아니? 어려운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고 자란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단어지만, 한국에 들어온 지 몇 달 되지 않은 지구촌학교의 아이들에게는 구덩이란 단어는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무척 낯선 단어입니다. 다들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일어나서 자신있게 몸짓까지 곁들여 가며 열심히 설명을 해봅니다.

"썬쌩님! 썬쌩님! 구동이 나 알아요! 구동이! 구동이 이렇게 나무에다 대고 이렇게 탁탁 쳐서 (나무) 넘어뜨리는 거! 맞죠! 맞죠? 이렇게 탁! 탁! 나 이거 읽었어요."

아마도 구덩이란 단어를 이전에 접한 적은 없지만, 동화 제목에 '금' 과 '은'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한국에 들어와서 읽어 본 적 있는 『금도끼 은도끼』를 떠올렸나 봅니다.

Tip 동화 속 낱말의 뜻부터 차근차근 이해하기

한국어에 능숙한 학생들에게 올리볼리 그림동화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동화를 관람한 후에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중도입국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예비학교에서는 동화를 보고 난 뒤보다 동화를 보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낱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말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서는 몸짓, 그림, 동영상 등을 활용해서 모두가 이해를 한 후에 동화 관람을 시작합니다.

2) 쉽고도 어려운 다문화교육

현장 사례 2〉

다양한 나라의 아이들이 모여 있고 구성원이 수시로 바뀌는 예비 학교의 특성상 선생님도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완벽히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고, 선생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같은 언어권의 아이들끼리 수업 중에 속삭이거나 키득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비학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썩하게 장난치는 모습만 보고 있으면 여느 평범한 또래 아이들과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한국어로 더빙된 동화는 모두에게 아직 어렵고, 각국어로 더빙된 동화는 그 나라에서 온 아이에겐 쉬울 수 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여서 수업 진행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다문화라는 주제 자체는 한국의 다른 어떤 교육 현장보다 빠르게 전달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양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매일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다문화교육의 핵심을 이해하는 이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어엿한 세계시민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3) 모두가 함께 만든 연극

6개월 동안의 수업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은 연극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금구덩이 은구덩이』와 『흥부와 놀부』로 공연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아이들 모두가 작은 역할이라도 하나씩은 모두 맡을 수 있도록 내용을 각색하고, 어려운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바꿔 주었습니다. 배역을 정하고 대사를 외우고 무대세트와 소품을 꾸미고 수많은 연습까지 직접 해 낸 아이들의 열정도 대단합니다. 특히 한국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도 선생님에게 자기가 맡은 배역과 대사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모습은 기특하기도 하고, 본인이 맡은 역할의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불평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분량을 실수 없이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단체 소개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자리한 지구촌학교는 국내에서 최초로 정규 초등학교로 인가받은 다문화교육 중심의 대안학교입니다. 2011년에 인가를 받고 이듬해 3월 정식으로 문을 연 이곳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나 중도입국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을 원하는 한국인 어린이까지 포함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13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촌학교에서는 2012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정규 학급 이외에 다문화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학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중도입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초기 적응을 돕고자 마련된 무학년제 학급으로 수시입학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예비학교를 거쳐 일반 정규학교로 진학했으며, 매 학기 평균 약 10여 개국 이상에서 온 3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및 홈페이지

이은선 02-6910-1093 / 홈페이지 http://www.globalsarang.com/

프로그램별 – 교안개발 – 다문화강사교육

기관명	**대구다문화강사협회**
프로그램명	올리볼리 그림동화로 떠나는 세계여행
한 줄 요약	다문화교육전문가로 거듭나는 결혼이주여성

사업 개요

총 다섯 곳에서 두 달 동안 진행된 "올리볼리 그림동화로 떠나는 세계여행"은 지역아동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됐습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접촉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기획된 이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은 여러 나라의 전통복장이나 음식을 직접 체험하고 강사들이 준비한 자료를 통해 올리볼리 동화의 배경이 되는 나라들의 문화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기간	6월 ~ 12월	1개월(기획 및 강사교육), 1개월(평가) 2개월(수업 진행)
구성	학생 : 약 100명	반야월 행복한 도서관 "아띠"(15명) 동구구립안심도서관 (20명) 열매지역아동센터 (15명) 본리종합사회복지관 (25명) 본리지역아동센터 (12명)
	강사 : 27명	태국(3명), 베트남(3명), 우즈베키스탄(2명), 키르키스스탄(1명), 필리핀(3명), 캄보디아(2명), 몽골(1명), 러시아(1명), 중국(4명), 일본(3명), 한국(4명)
	방식 : 60분 수업	기관별 2~3회 수업

활용된 올리볼리 그림동화

큰 닭과 작은 닭 이야기(태국)
작은 천사 까루나(캄보디아)
수박왕자(태국)
봉이 일곱 개인 낙타(몽골)
우리 집의 부처님(태국)
요술쟁이(우즈베키스탄)
꼬마 꾸어이(베트남)
할아버지와 도깨비(우즈베키스탄)
소년과 하늘(필리핀)

세부 일정

기간	일정	내용
6월	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모집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한 수업 기획 강사교육용 자료 준비
7월	강사 교육 4회 실시 강사 간담회 2회	1차(1일) 올리볼리 그림동화의 구성과 이해 2차(4일) 그림동화를 활용한 수업 연구 3차(8일) 교재 및 교구 제작 연습 4차(11일) 동화 낭독 및 구연 연습
8 ~ 9월	수업 총 12회 진행	반야월 행복한 도서관 "아띠" (2회) 동구구립안심도서관 (2회) 열매지역아동센터 (3회) 본리종합사회복지관 (2회) 본리지역아동센터 (3회)
11월	종결식 및 시상식	수업평가 종합점수에 따라 우수강사 시상
12월	프로그램 평가	전체 프로그램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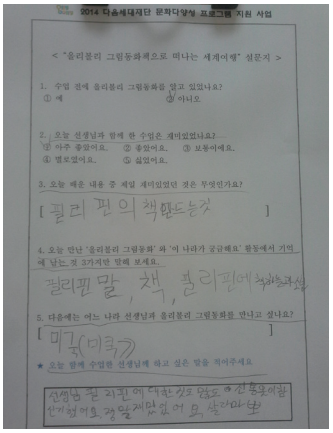
Know-how & Tip

1) 체계적인 강의평가

대구다문화강사협회는 문화다양성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의에 나서기 전에 강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마다 강사 본인 외에 한 명 이상의 협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보조강사로 수업에 참여하여 진행을 돕는 동시에 해당 수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강의일지를 기록하여 강사 평가에 활용합니다. 또한 수업이 끝난 뒤에는 참여한 학생들과 해당 기관의 실무진들에게 강의 평가를 진행하여 강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강사 한 명이 아이들 앞에서 진행하는 수업은 한 시간이지만, 이 한 시간의 수업을 완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의 강사교육과 내부평가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Tip 인센티브와 멤버십

수업에 필수적인 한국어를 원활하게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문화다양성 강의를 능숙하게 해내려면 많은 강의연습과 수업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한 강의개선의 노력과 함께 강사들의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대구다문화강사협회는 수업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강사에게 문화상품권 등의 상품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강사 간담회와 모임을 가짐으로써 협회원들의 멤버십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 다솜세대재단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올리볼리 그림동화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설문지 >

1. 수업 전에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알고 있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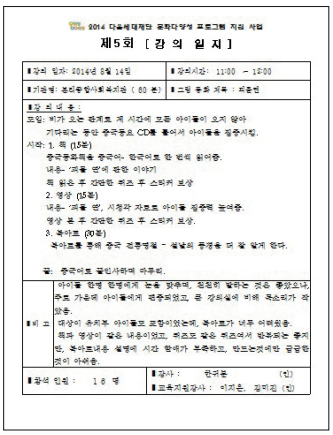
2.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한 수업은 재미있었나요?
① 아주 좋았어요. ② 좋았어요. ③ 보통이에요.
④ 별로였어요. ⑤ 싫었어요.

3. 오늘 배운 내용 중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필리핀의 책 핸드는것]

4. 오늘 만난 '올리볼리 그림동화' 와 '이 나라가 궁금해요' 활동에서 기억에 남는 것 3가지만 말해 보세요.
필리핀 말, 책, 필리핀에 관하는것

5. 다음에는 어느 나라 선생님과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만나고 싶나요?
[미국(미국)]

★ 오늘 함께 수업한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선생님 필리핀에 대한 것도 많도 ☞ 친절하여요
선생님이요. 정말재밌었어요. 사랑마요


2014 다솜세대재단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제5회 [강 의 일 지]

■강의 일자: 2014년 8월 14일	■강의시간: 11:00 - 12:00
■기관명: 본리종합사회복지관 (80 분)	■그림 동화 제목 : 피츠빈

■강 의 내 용 :
도입: 비가 오는 관계로 제 시간에 모든 아이들이 오지 않아
기다리는 동안 중국동요 CD를 들어서 아이들을 집중시킴.
시작: 1. 책 (15분)
중국동화책을 중국어, 한국어로 한 번씩 읽어줌.
내용- '괴물 연'에 관한 이야기
책 읽은 후 간단한 퀴즈 후 스티커 보상
2. 영상 (15분)
내용- '괴물 연', 시청각 자료로 아이들 집중력 높여줌.
영상 본 후 간단한 퀴즈 후 스티커 보상.
3. 북아트 (90분)
북아트를 중에 중국 전통명절 - 설날의 풍경을 더 잘 알게 함.

결: 중국어로 질의사항에 마무리.

■비 고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눈을 맞추며, 질문의 말하는 것을 중앙으로, 주로 가운데 아이들에게 집중되었고, 큰 강의실에 비해 작소리가 작았음. 대상이 유치부 아이들로 표창이었는데, 북아트가 너무 어려웠음. 특히 영상이 짧은 내용이었고, 퀴즈도 짧은 퀴즈에서 반복되는 중지만, 북아트내용 설명에 시간 할애가 부족하고, 반드는것에만 집중한 것이 아쉬움.
■참석 인원 : 16 명	■강사 : 한지윤 (인) ■교육지원강사 : 이지은, 김미림 (인)

2) 북아트

그림동화의 배경이 되는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강사들은 출신국의 의복, 음식, 건물, 노래 등이 담긴 사진과 영상으로 자료를 직접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악기와 장난감, 입어볼 수 있는 옷,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가져와서 체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강의 내용은 강사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수업은 공통적으로 북아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아트는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쓰는 과정에서 언어적 감각을 활용하는 동시에 꾸미거나 그리기를 곁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예술적 감각까지 더불어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 아동교육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다문화강사협회는 이러한 교육효과에 착안해서 나라별로 적당한 사진과 글감을 준비해서 강사들과 함께 아이들이 당일 배운 내용을 북아트로 만들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북아트 제작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학습효과가 있고,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일회적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수집과 보관이 용이한 책 형태로 남겨 오랫동안 기억에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북아트를 제작하면서 강사들과 책에 들어가는 내용에 관해 일대일로 문답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이해교육 콘텐츠로서의 북아트가 갖는 활용가치는 높습니다. 다함께 공통적으로 수업을 들었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갖게 될 자기만의 책에 담길 내용이란 생각으로 본인이 직접 오리고 붙여 넣는 과정에서 더 많은 호기심과 재미를 느끼고 강사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나라 코끼리는 얼마나 커요? 선생님 나라 과일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선생님은 그럼 뚝뚝이 타 봤어요?"

설명만 들을 때는 잠자코 있던 아이들도, 연신 딴청만 피우던 아이들도 북아트를 만들 때는 자기 책을 더 예쁘게 꾸미느라 사진과 그림을 손에 쥐고서 일일이 내용을 짚어가며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하느라 교실이 왁자지껄해집니다. 정해진 수업 시간은 이미 끝났어도 아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질문이 그칠 줄 모릅니다.

Tip 저연령대 아동을 위한 북아트 제작

대구다문화강사협회에서는 북아트용 자료를 제작할 때 저학년 어린이 및 유아용을 따로 준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위, 칼 등의 도구를 다룰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도구 없이 손으로 떼어 붙일 수 있도록 재료를 미리 손질 해둡니다.

Tip 강사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북아트의 효과

북아트 제작은 강사의 역량에 따라 단순한 종이 오려붙이기에 그칠 수도 있고 문화이해교육으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책에 들어갈 글감과 삽화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더라도 아이들이 그 내용을 보지 않고 단순히 자르고 붙이는 것에만 집중할 경우에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책이라도 문화이해의 도구로 활용되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책 만들기 과정 자체에 능숙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글과 삽화를 접하면서 아이들이 흥미를 보일만한 요소들을 미리 예상해서 학습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인원 수업일수록 강의 시간을 가급적 줄이는 대신 북아트 제작 시간을 늘려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이야기하며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기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 소개

대구다문화강사협회는 대구교육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서 이중언어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국내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문화다양성 강사들만의 비영리단체입니다. 2010년에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베트남,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으로 활동을 시작해 2012년부터 협회로 결성하여 대구경북지역의 학교, 도서관,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꾸준히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의 인식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다문화강사협회는 강사들 간의 친목도모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수업코칭 시스템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교사로서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다문화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및 홈페이지

권하연 053-422-1618 / http://cafe.daum.net/global-teacher

프로그램별 – 교안개발 – 다문화인권교육

기관명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프로그램명	올리볼리 그림동화 활용 교안 개발 사업
한 줄 요약	문화체험에서 인권교육으로 발전하는 다문화강의

사업 개요

10여 년 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다문화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단순히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강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강사들이 개별적으로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운영된 수업사례에 대한 집합적인 평가와 효과적인 강의안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에서는 오랜 기간의 다문화교육 수업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문화강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안 사례를 연구 및 개발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문화다양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인권교육의 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기간	7월 ~ 12월	1차 교안 개발(3개월), 1차 교안 시연(1개월) 2차 교안 개발(1개월), 2차 교안 시연(1개월)
구성	학생 : 819명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강사 : 9명	교안개발팀 3명, 전문 강사 6명
	방식 : 교안 3종 개발	개발회의 : 8회 시연 : 32회

활용된 올리볼리 그림동화

나무꾼과 선녀(베트남)
주문을 외워봐(르완다)
이만과 연(팔레스타인)

세부 일정

기간	일정	내용
7월	교안 기획 및 준비	단체 내 교안 연구개발팀 구성 자료 검토 및 아이디어 공유
7 ~ 9월	1차 교안 개발	1차 회의(7월 2일) : 교안의 주제, 내용, 대상 논의 2차 회의(7월 9일) : 활용될 올리볼리 동화 선정 3차 회의(7월 24일) : 내용 구체화, 시안 3종 확정 4차 회의(8월 22일) : 3종 시안 수업 구성 5차 회의(9월 2일) : 교안 시연 준비

9 ~ 10월	1차 교안 시연 (연구개발팀)	9월 23일. 원종초등학교 4학년 3개반 10월 8일. 범박초등학교 3학년 3개반 10월 13일. 골든벨지역아동센터 저학년 15명 10월 14일. 상지초등학교 4학년 2개반
10월	교안 수정 및 검토	6차 회의(10월 7일) : 시연 내용 평가 7차 회의(1월 28일) : 교안 수정 및 변경
	2차 교안 개발	시연할 전문 강사진에 교안 전달 및 강사 교육
11월 11월	2차 교안 시연 (연구개발팀 및 강사진)	11월 4일. 신흥초등학교 1학년 3개반 11월 7일. 고강초등학교 2학년 2개반 11월 10일. 고강초등학교 5학년 3개반 11월 10일. 골든벨지역아동센터 고학년 8명 11월 11일. 고강초등학교 4학년 2개반 11월 12일. 고강초등학교 5학년 3개반 11월 13일. 고강초등학교 4학년 2개반 11월 17일. 소안초등학교 4학년 3개반 11월 20일. 심원초등학교 4학년 2개반
	교안 최종 검토	8차 회의(11월 25일) : 2차 시연 평가 및 최종안 확정
12월	프로그램 평가	전체 프로그램 평가

교안 3종

〈교안 1〉

제목 : 내 말이 들리니?	주제 : 소통 활용 동화 : 주문을 외워 봐(르완다)

〈기획의도〉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언어이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전하려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진정한 소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준비물〉 올리볼리 그림동화 '주문을 외워 봐', 주문이 적힌 스케치북, 1대1로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긴 원통, 미션에 쓸 종이

진행

1. 5명 정도의 모둠으로 나누고, 모둠별로 주문 전달하기 게임을 합니다.

한 줄로 선 후, 첫 번째 사람이 주문을 충분히 외우고 나서 다음 사람에게 원통에 대고 전달합니다. 마지막 사람은 앞 사람에게 전해들은 주문을 칠판에 적고 원래의 주문지와 비교해 봅니다.

규칙 ① 전하는 사람은 한 번만 말 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은 한 번만 들을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마친 사람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말하지 않는다.
③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분단은 연극의 관객이 되어서 조용히 관람한다.

이 게임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려는 활동이기 때문에 산만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야 오히려 뒤에 이어질 활동과 비교되어 주제에 맞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주문 전달이 성공하기 어렵도록 난이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1. 수레트트 드로르 수레트트 드로르
주문2. 미크 다크 스크라 미크 다크 스크라
주문3. 디컴 다컴 비비사야

2. 주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강사는 다른 친구를 탓하는 의견이 나오더라도 모둠의 다수가 크게 동요하지만 않는다면,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 의견들을 정리해 주는 역할만 하도록 합니다.
예) "첫 번째 있는 애부터 잘못 알려줬어요!", "아 쟤가 성의 없이 전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대충 전달했어요." "못 들었는데 다시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애들이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전달하기가 어려웠어요."

3. 올리볼리 동화 시청(1,2편 이어서 시청)

먹이를 찾아 떠난 동물들이 마법에 걸린 마룰라 나무의 열매를 얻기까지 벌이는 갈등과 공존, 화합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1. 동화 속의 동물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합니다.
예)주문을 잘 전달하지 못한 코끼리를 탓하는 하이에나, 역시 주문 전달에 실패한 하이에나에게 비아냥거리는 거북이 등
3-2. 동화를 보기 전에 친구를 탓하던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모둠별로 새로운 두 번째 게임, 〈말없이 순서대로 서기〉를 합니다.

규칙 ① 말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카드에 쓰여 있는 숫자 또는 사람을 같은 모둠의 친구들에게 표현한다.
② 같은 모둠의 친구에게는 숫자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③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분단은 연극의 관객이 되어서 조용히 관람만 한다.
모둠 1 – 숫자 1~10까지 적힌 종이를 나누어 갖고, 차례대로 선다.
모둠 2 – 숫자 5, 7, 10, 11, 14… 종이를 나누어 갖고, 차례대로 선다.
모둠 3 – 태아, 아기, 유치원생, 초등학생, 청소년, 청년, 부모, 조부모, 조상을 표현하고 나이 순서대로 차례로 선다.

4-1. 아이들이 소통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말' 로만 전달했던 첫 번째 〈주문 전달하기 게임〉에서는 서로에게 불만이 많이 생겼지만, 이번 게임에서는 전하려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음을 이야기합니다.

5. 수업을 마무리하며, 강사가 '야!' 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몸짓, 억양, 표정 등을 사용)하고 의도하는 것이 무엇일지 아이들에게 맞혀보도록 합니다.

예) 상대를 부르는 '야' / 상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은 '야' /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약간 들뜬 '야' / 들키게 생겼음을 급하게 알리는 '야' 등
두 가지 게임을 하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전할 수 있음을 알고,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상황을 알고 마음을 이해하는 것임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6. 함께 시청한 동화 '주문을 외워 봐' 의 배경국가인 르완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아프리카 전체를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도상의 국가 232개 중, 아프리카대륙에는 53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교안 2〉

제목 : 다 같이 일어나 볼까?	주제 : 다양성과 공존 활용 동화 ; 나무꾼과 선녀(베트남) (* 다른 동화로 대체해도 무방함.)

〈기획의도〉 다른 것이 왜 당연할까요? 다른 것이 왜 좋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질문들에 대해 함께 재미있게 고민하며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 다양함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다양성의 사회에서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준비물 : 올리볼리 그림동화 장면 캡쳐 인쇄본

사전 준비

1. 수업에 사용할 올리볼리 그림동화의 장면들을 캡쳐하여 수업 인원에 맞게 인쇄한 그림묶음을 준비합니다.

2. 동일한 그림묶음을 모둠의 수만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6인 모둠이 4개인 수업을 위해서는, 각기 다른 6장면으로 구성된 동일한 그림묶음 4개가 필요합니다.

진행

1. 4~6명 정도의 모둠으로 나누고, 모둠별로 동화그림 묶음을 나누어줍니다. 모둠 안에서 각자 원하는 그림을 한 장씩 나눠 갖도록 합니다.

2. 각자 자기가 고른 그림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상상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봅니다.

3. 모둠별로 구성원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만듭니다.

규칙 ① 전체 이야기 구성에는 모둠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
② 가지고 있는 그림을 모두 연결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어야 한다,
③ 이야기가 완성되면, 한 모둠씩 전체 앞에서 발표한다.
④ 발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둠원은 이야기 순서대로 각자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순서대로 나와 있을 수 있도록 한다.

4. 완성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나눕니다.

- 다른 모둠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그림을 보고 어떻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 각자 다른 그림이지만, 이 모든 그림이 합쳐져서 멋진 이야기가 완성되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모두 같은 그림을 보며 같은 상상을 하고, 모둠별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서로 다른 상상을 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나눕니다.

5.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의 원작이 되는 동화를 시청합니다.

소감을 나누고, 한국의 선녀와 나무꾼, 견우직녀 이야기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상상, 혹은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생각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 '함께 일어서기' 게임하기

게임하기 편하도록 책상과 의자를 치우고 넓은 빈 공간을 만듭니다.
규칙 ① 인원에 맞게 2인, 3인으로 팀을 만들고, 게임 중에 다치지 않도록 팀별로 넓게 간격을 두고 바닥에 앉는다.
② 팀원들끼리 마주보고 발을 맞댄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앉아 있다가, 강사의 신호에 맞춰 다함께 동시에 일어선다.
③ 성공한 팀에 한해서, 팀에 1명씩 인원을 늘려서 일어서기에 도전한다.
④ 최종적으로 6인 1조 동시에 일어서기를 시도한다.

7. '함께 일어서기' 게임의 의미 설명하기

2~4인조 일어서기는 아이들이 나름의 시행착오 끝에 성공하지만, 5인조부터는 실패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6인조는 옆 사람하고만 손을 잡은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6인조 일어서기가 실패하고 나면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들이 강사의 말에 경청할 있도록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일어서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아이들의 대답을 통해 모두가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이야기 합니다.
각자 지금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는지 물어 본 후에, 서로 옆 사람하고만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나와 가장 친한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닌, 나와 가장 멀리 있는 사람과 손을 잡으면 6명이 동시에 일어설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자신과 가장 멀리, 반대편에 마주 앉아 있는 두 명과 손 하나씩 맞잡도록 합니다.
신호와 함께 모두가 일어섭니다.

8. 마무리

오늘 수업에서 했던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봅니다.
각자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니다.
같은 그림을 보았지만, 어떻게 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함께 일어서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서기 위해서는 나와 가장 친한 옆 사람이 아니라,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공존을 위해 필요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교안 3〉

제목 :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연을 날리자!	주제 ; 아동인권과 평화 활용동화 : 이만과 연(팔레스타인)

〈기획의도〉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게임 때문에 전쟁을 하나의 가벼운 놀이쯤으로 쉽게 여깁니다. 걸프전 때부터 수많은 인명을 학살해 온 스커드미사일처럼 무시무시한 대량살상무기도 그저 하늘 위로 멋지게 '빵!' 쏘아 올리면 그만인 일종의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죠. 게임이 아닌 일상에서 참혹한 전쟁을 겪고 있을 팔레스타인 소녀 중 한 명인 이만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이 우리 어린이/청소년의 어떤 권리를 빼앗는지 알아보고, 응원의 메시지를 종이연에 적어 팔레스타인 친구들을 힘차게 격려하고자 합니다.

준비물 : 『이만과 연』 캡쳐화면, 〈14개의 권리 가방〉 활동지 2종, 흰색 종이연, 색연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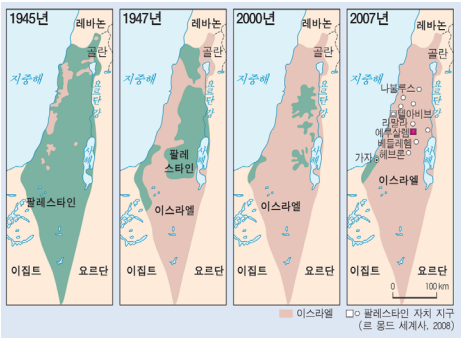
진행

1. 올리볼리 그림동화 『이만과 연』을 함께 시청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동화를 다함께 본 후에 미리 준비한 캡쳐화면을 통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차근차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2. 팔레스타인에 대해 알아보기

이만이 사는 나라에는 왜 점령군이 있는 것일까요?
팔레스타인 지역 분쟁사를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지도, 음성, 영상 등)로 설명합니다.
▸지도에서 팔레스타인 지역 찾아보기
▸지도로 보는 팔레스타인 지역 분쟁의 역사 : 이스라엘의 건국 배경과 그 이후 분쟁의 역사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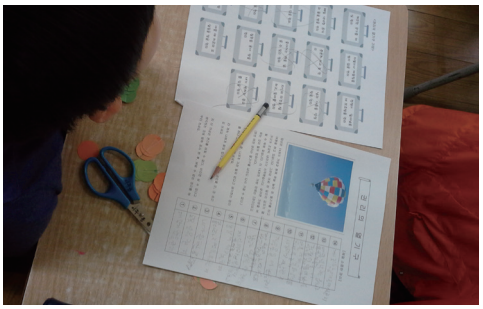
▸전쟁의 참상을 사진 또는 소리로 간접 체험해 본다.

3. 유엔아동권리협약 알아보기

그렇다면 이만과 그녀의 친구들은 어떤 권리를 빼앗기고 있을까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자세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수록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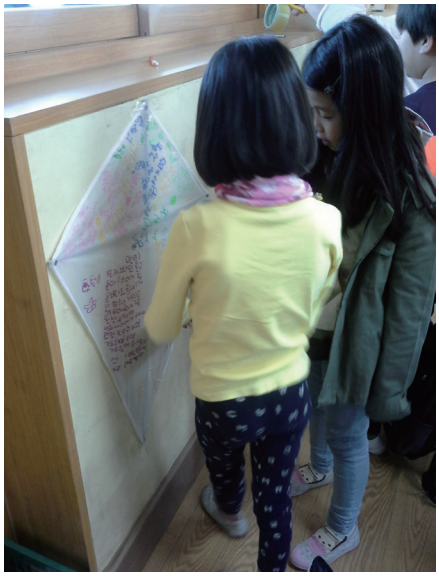
4. 〈14개의 권리 가방〉 활동 진행

내가 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버려도 되는 권리가 있을까?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권리는 무엇일까?
2종 활동지를 활용해 빈칸을 채워 넣은 후에, 작성한 활동지를 옆 친구와 바꿔서 읽어 봅니다. 모든 권리가 소중하지만 사람마다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고, 모든 권리의 소중함과 함께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도 일깨워주도록 합니다.



5. 〈희망의 종이연 만들기〉 활동 진행

5~6명으로 모둠을 나누고, 모둠별로 이만과 팔레스타인 친구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종이연에 적어 넣습니다.
그림이나 편지 등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완성된 종이연을 교실에 장식하고 서로의 메시지를 읽어봅니다.(시간 여유가 되면 종이연을 날려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14개의 권리 가방

여러분은 지금 14개의 가방을 열기구에 싣고 하늘 높이 떠다니며 여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여행을 하던 중, '앗!' 갑자기 열기구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살아남기 위해선 가방을 버려 무게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14개의 가방 안에는 "나의 소중한 권리"가 들어 있는데….
(한번 버린 권리 가방은 다시 되찾을 수 없답니다.)

1) 14개의 권리 가방 중, 나에게 가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하나 고르고, ①번 칸에 쓰세요.

2) 계속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②, ③ 순으로 쓰세요.

3) 더 이상의 권리 가방은 버릴 수 없다, 버리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멈춰 표시한 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권리를 ⑭번부터 쓰세요

⑭	
⑬	
⑫	
⑪	
⑩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권리 가방〉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
차별이나 따돌림을 받지 않을 권리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
매일 넉넉한 음식과 물을 받을 권리
충분히 쉬고 놀 권리
남과 다름을 인정 받을 권리
매맞지 않을 권리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들어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잘못을 용서 받을 권리
내가 원하는 종교를 믿을 권리
사랑하고 사랑 받을 권리
아플 때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

단체 소개	아시아인권문화연대는 2000년 김포에서 문을 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문화센터로 시작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다문화이해 증진을 통해 이주민과 더불어 행복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인종차별을 넘어서 인권이 평등하게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권교육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2006년도부터 상호문화교육 및 다문화인권교육 부문에서 선구적으로 교안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현재까지 초중고교생,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시아인권문화연대에서 실시한 다문화인권교육 강의 횟수만 약 1,600회에 달하며 수강인원은 약 50,000명이 넘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및 홈페이지	이완 032-684-0244 / http://asiansori.org

프로그램별 – 교구개발(체험학습) – 성우체험

기관명	**행복한 그룹 동행**
프로그램명	올리볼리 가족 동화 오디오북, 영상북 제작단
한 줄 요약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가족의 다문화 동화책

사업 개요

아이들은 오디오북, 영상북 제작을 통해서 그림동화의 시청자로서 단순히 내용을 수용하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직접 동화를 녹음하면서 동화 내용을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해서 얻은 결과물은 동화에 대해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매개가 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의 소재가 되어 줍니다.

기간	7월 ~ 12월	기획 및 동화각색(1개월), 참가 단체와 일정 협의(1개월) 녹음, 녹화, 편집, 발송 등은 연중 계속 진행
구성	참가자 : 약 600명	도서관, 학교, 단체 등의 요청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녹음 및 녹화 대한민국독서대전에서 희망하는 시민들의 참여로 녹음 및 녹화 진행
	체험 및 관람 : 약 1,000명	
	방식 : 가족동화 제작	

활용된 올리볼리 그림동화

마지막 설인(몽골)
선녀와 날개옷(인도네시아)
할아버지와 도깨비(우즈베키스탄)
원숭이와 거북이(필리핀)
작은 개미(팔레스타인)
벌을 받은 바위(베트남)
모자(이란)
달에 사는 꾸오이 아저씨(베트남)
수박 왕자(태국)
알쏭달쏭 엄마의 말(레바논)
주문을 외워 봐(르완다)

세부 일정

기간	일정	내용
7월	프로그램 기획 참여기관 모집	참여 단체, 기관과 협의 동화 선정 및 각색 작업
8월	참여기관 및 단체 확정	사전답사 및 일정조율로 최종 참가기관 및 일정 확정
		군포 대한민국독서대전 참가 준비
	동화 샘플 제작	각색 동화로 샘플동화 녹음(대전이주외국인복지관)
9월~11월	각 기관별 현장 녹음 및 녹화	9월 5일. 안산 원곡고등학교 방송반(20명) 10월 11일. 대구 안심도서관 27여팀(약 100명) 10월 16일. 서울 모두협동조합 11월 14일. 석관제일교회 방과후수업 교실(20명)
	대한민국독서대전 녹음 및 녹화 작업	9월 26일 ~ 28일. 3일간 시민 90여 팀(약 400명)
12월	가족 동화 제작 및 발송	오디오, 영상 파일 편집 가족동화 CD 발송 및 전달

Know-how & Tip

현장 사례 1〉

전문장비가 갖춰진 가운데 마치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처럼 각색된 동화를 읽고 녹음하는 작업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함 때문에 읽지 못하고 쭈뼛거리는 아이들도 있고 빨리 해치우고 어딘가에 숨고 싶은 듯 문장 전체를 숨 한 번 안 쉬고 읽어 내려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가족들과 전문 성우의 도움 덕분에 아이들은 이 낯선 경험을 조금씩 즐기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어른들보다 상황에 금방 적응한 아이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에 맞도록 나름대로 억양과 톤을 조절해서 읽기도 합니다. 몇몇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들은 다른 가족들과 눈을 맞춰가며 긴장하지 말라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자신보다도 어색하게 읽는 아빠나 엄마를 혼내면서 특별 연기 지도를 해주기까지 합니다.

Tip 시나리오로 변신한 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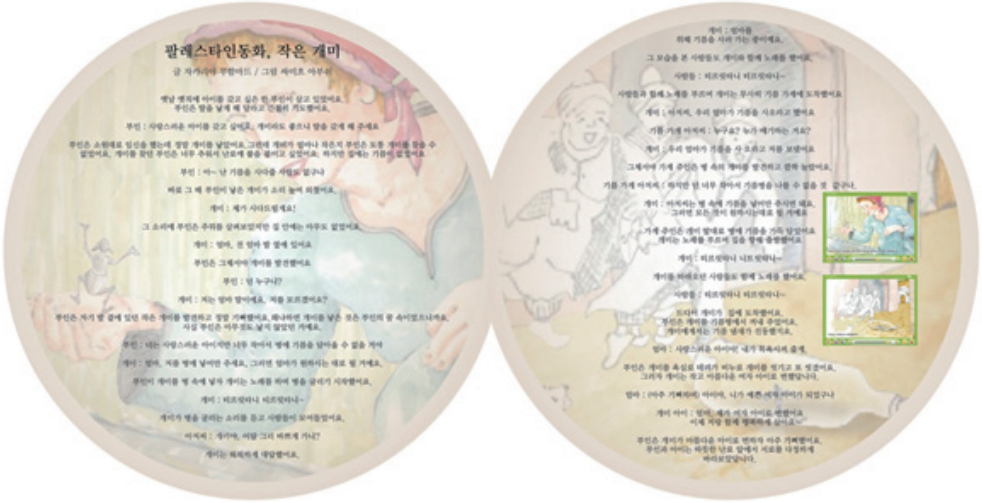
이 특별한 오디오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읽기 편하도록 각색된 동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역할을 맡아 직접 읽고 연기할 수 있도록 내용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올리볼리 그림동화 『작은 개미』는 원래는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부인은 개미라도 좋으니 딸 하나만 갖게 해 달라고 하느님에게 기도했어요. 하느님은 부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행복한 그룹 동행에서는 기존의 줄거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한 사람이 문어체로 읽는 내레이션의 비중을 가급적 줄이는 대신 역할을 만들어서 대사의 비중을 늘리는 한편, 대사의 내용도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바꾸었습니다.

"부인 : 사랑스러운 아이를 갖고 싶어요. 개미라도 좋으니 딸을 갖게 해 주세요."

이렇게 대사 위주로 시나리오처럼 각색된 동화를 함께 녹음하는 사람들끼리 역할을 나누어 연기하며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대본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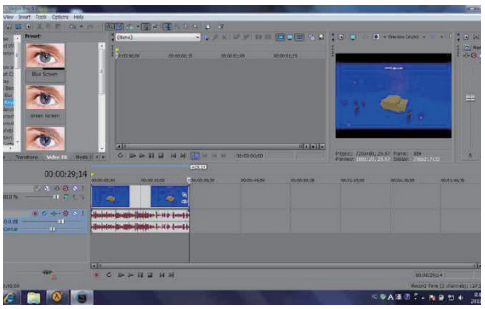
완성도 있는 오디오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녹음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충분히 대사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우지 않고 보고 읽는 단순한 작업이라도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채로 녹음 작업에 임하게 되면 긴장한 나머지 발음이 꼬이거나 자신이 맡은 순서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작업의 흐름을 깨지 않고 녹음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다보니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합니다.

Tip 녹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한글을 읽을 수 있거나 한글대사를 외워서 녹음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영상북 만들기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성우로 변신해서 녹음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두 대 이상의 카메라가 이들과 함께 배경의 블루 스크린을 촬영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행복한 그룹 동행은 크로마키 기법을 활용해서 오디오북에 이어 영상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참여 가족들이 나중에 받아보게 될 가족동화 CD에는 아이들의 얼굴 뒤로 동화 내용에 걸맞게 티베트의 야크가 뛰놀고 있기도 하고, 몽골의 전통가옥 게르가 들어서기도 합니다.

Tip 소장가치가 높은 영상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블루 스크린과 크로마키 기법을 활용해서 배경 영상을 입힐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체 소개

행복한 그룹 동행은 2012년부터 다문화 전래동화를 대본으로 각색해서 녹음한 오디오북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해왔습니다. 2013년에는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가족이 모여 녹음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오디오동화책을 제작해주는 사업을 진행해왔고, 올해는 오디오북을 더욱 발전시킨 영상북을 함께 제작해서 참여 가족 및 단체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강민기 010-3847-4414

프로그램별 – 교구개발(체험학습) – 인형극체험

기관명	**모두협동조합**
프로그램명	슈퍼맘이 돌아왔다 – 펼쳐라 세계이야기
한 줄 요약	무대에서 직접 만나는 동화 속 주인공

사업 개요

"슈퍼맘이 돌아왔다 – 펼쳐라 세계이야기"를 통해 모두협동조합은 북텐트와 인형극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접하여 다문화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모국어로 다문화강사가 직접 들려주는 동화를 조그마한 북텐트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귀 기울여 듣거나, 친구들과 텐트 안에서 태블릿PC를 조작해서 직접 올리볼리앱에 접속해 동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북텐트 바깥 무대에서는 전시된 인형을 만져보거나 신나는 인형극 공연을 관람하면서 자연스럽게 동화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에도 흥미를 느끼게 되고, 동화에 나온 종이 인형과 모빌 등의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기간	6월 ~ 12월	기획(1개월), 홍보 및 공연장소 협의(1개월) 기간 내 수시 활동
구성	참여자 : 약 1,000명	– 서울시내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 총 8회 참여 – 매회 5인 이상의 조합원(다문화가정 및 한국가정 여성 포함)들이 북텐트 및 인형극 프로그램 진행
	진행자 : 16명	
	방식 : 북텐트 동화구연, 인형극, 체험행사(다문화 인형 및 장난감 만들기)	

활용된 올리볼리 그림동화

모자(이란)
연(팔레스타인)
상인과 앵무새(이란)
나는 야크입니다(티베트)
게르 이야기(몽골)
작은 천사 까루나(캄보디아)
활 잘 쏘는 에르히메르겡(몽골)
우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필리핀)
선녀와 날개옷(인도네시아)

세부 일정

기간	일정	내용
6월	교육용 컨텐츠 기획	올리볼리 그림동화앱을 활용한 교육방법 기획 문화다양성교육 활용 도서 검토 교육현장 비치용 배너, 홍보물, 체험용 교구 제작
7 ~ 11월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 참여	총 8회 7월 5일. 서울 사회적경제박람회(시민 200여 명) 8월 22일. 서울 동대문구·청량초등학교·돌봄교실(어린이 50여 명) 9월 20일. 서울 마을기업이야기(시민 200여 명) 9월 27일. 한살림과 함께하는 동대문 지역축제(시민 100여 명) 10월 3일. 와우북페스티벌(시민 200여 명) 10월 24일. 마포구 늘장 한일교류축제(시민 70여 명) 10월 25일. 어린이대공원 축제(시민 200여 명) 11월 3일. 지역서점(한우리문고)과 함께하는 초청행사(유치원생 50여 명)
12월	프로그램 평가	전체 프로그램 평가

Know-how & Tip

현장사례 1〉

귀여운 동물 모양 북텐트를 보자마자 아이들은 텐트 안에 들어가도 된다는 교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써 안으로 뛰어 들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만의 방을 가진 듯 편안해진 아이들에게 다문화강사들은 소곤소곤 침대 맡에서 자장가 불러주듯 동화를 들려줍니다. 오늘 처음 보는 강사들인데도 마치 매일 마주치는 동네 어른들과 이야기하듯이 아이들이 낯설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북텐트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그리고 북텐트 안에서 태블릿을 활용해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보는 올리볼리 그림동화앱 동화 또한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합니다.

Tip 모두협동조합의 북텐트는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게 적합한 크기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크기 변경이 필요합니다.

1) 인형극과 인형 만들기

북텐트 바깥 무대에서는 강사들이 직접 준비한 인형극이 진행됩니다. 나라마다 다른 생김새의 인형을 보면서 아이들은 쉽게 여러 나라의 문화에 친숙해지게 됩니다. 또한 공연이 끝난 뒤에 아이들은 직접 인형 만들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동화 〈모자〉에 나오는 귀여운 빨간 모자 요정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친구와 텐트에서 보고 들은 동화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됩니다.

단체 소개

2009년에 책 읽는 엄마모임 '엄마나라동화여행'으로 시작한 다문화인형극단 모두협동조합은 이주여성들의 인권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작고 아담한 공간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북텐트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이를 올리볼리 그림동화앱과 연결시켜서 동화에 대한 아이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쉽고 재미있는 다문화인형극 공연을 통해 서울시내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다문화감수성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축제에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및 홈페이지

김정연 02-965-7808 / http://www.modoowe.com

프로그램별 – 교구개발(체험학습) – 영상제작체험

기관명	**진주시민미디어센터**
프로그램명	올록볼록 다문화 애니메이션 만들기
한 줄 요약	아이들이 오물락조물락 직접 빚어 만든 애니메이션

사업 개요

진주시민미디어센터가 2013년에 홈스쿨링 청소년들과 진행한 클레이 애니메이션 제작 수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14년 7~8월 방학 기간 동안,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제공하는 문화다양성 교육과 함께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클레이 애니메이션(clay animation)은 찰흙을 기본 재료로 직접 제작한 인형들을 미세하게 이동시키고 변형시켜가며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들을 자연스럽게 이어 붙여 하나의 연속된 영상으로 재탄생 시킨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진주지역 10여개 초등학생들은 매주 월요일에 모여 4주에 걸쳐 영상 제작 실습과 문화다양성 수업을 받았습니다. 다섯 명씩 네 모둠으로 나뉜 아이들은 각기 다른 네 가지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소재로 네 편의 애니메이션을 직접 완성시켰습니다.

기간	6월 ~ 12월	기획 및 강사섭외(2개월), 홍보 및 참가자모집(1개월) 프로그램 진행(2개월), 평가(1개월)
구성	학생 : 16명	초등학생 4~6학년
	강사 : 6명	문화다양성 강사 3명(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미디어교육 전문가 3명(진주시민미디어센터)
	방식 : 4시간 30분 수업	제작 실습 및 문화다양성 교육 5회

활용된 올리볼리 그림동화

게르 이야기(몽골)
활 잘 쏘는 에르히메르겡(몽골)
바잉 쯩과 바잉 자이는 어떻게 생겼나(베트남)
금구덩이 은구덩이(베트남)

세부 일정

기간	일정	내용
6 ~ 7월	기획 및 강사섭외	프로그램 기획 경남이주여성센터와 진행 협의 및 강사 섭외 미디어 강사, 진행 보조 인력, 자원봉사자 확보
	홍보 및 참가자 모집	현수막, 신문광고, 홈페이지 게시판 등으로 호보
7 ~ 8월	프로그램 진행	1일차(7월 28일) : 모둠 구성, 올리볼리 동화 듣기, 다문화인형극 감상, 콘티 짜기 2일차(8월 4일) : 인형 및 배경 만들기, 스토리보드 및 대본 작성 3일차(8월 11일) : 촬영 작업, 다문화 음식체험 4일차(8월 18일) : 더빙 작업, 다문화 놀이체험 5일차(8월 23일) : 애니메이션 발표회, 다문화 세계여행
9월	평가	참여자 평가, 단체 내부평가, 협력기관과 평가회의
12월	최종 평가	전체 프로그램 평가

Know-how & Tip

Tip 보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아이들은 다문화강사의 육성을 통해 그림동화를 생생하게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첫 시간에 아이들에게 그림동화를 보여주는 대신 들려주기만 하는 이유는, 이미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면서 받은 시청각적 인상이 강하게 남게 되면, 이후에 아이들이 직접 동화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때 제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들려주는 것만으로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할 것을 대비해서, 인형극과 동화 구연 등으로 내용을 보충해서 전달하면 더욱 좋습니다.

현장 사례 1〉

다문화강사들의 발음이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동화 내용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뒤이어 진행되는 모둠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동화 내용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조금씩 동화 내용을 파악해나갑니다. 그리고 매주 수업 시작 후 10분 동안은 OX퀴즈를 활용해 동화 내용을 새록새록 떠올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5주 동안의 제작 과정을 통해 동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콘티 짜기, 인형과 배경 만들기, 대본과 스토리보드 제작, 촬영, 더빙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첫날 듣기만 했던 동화를 창의적으로 각색하게 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동화를 창조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Tip 아이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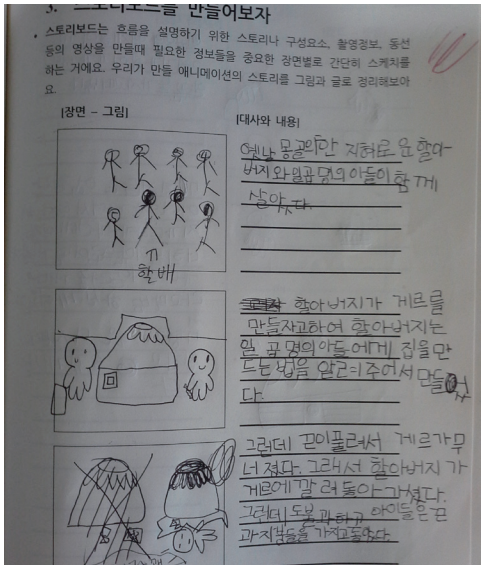
작은 인형 하나에서부터 최종 애니메이션을 완성하기까지 아이들마다 서로 다른 수준의 성과물을 내기 마련입니다. 특히 첫 단계인 인형 제작에서는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 간에 완성도 차이가 꽤 크게 두드러져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차를 고려하여 모둠을 적절히 구성하고 보조교사들이 각 모둠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제작에 참여하여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원만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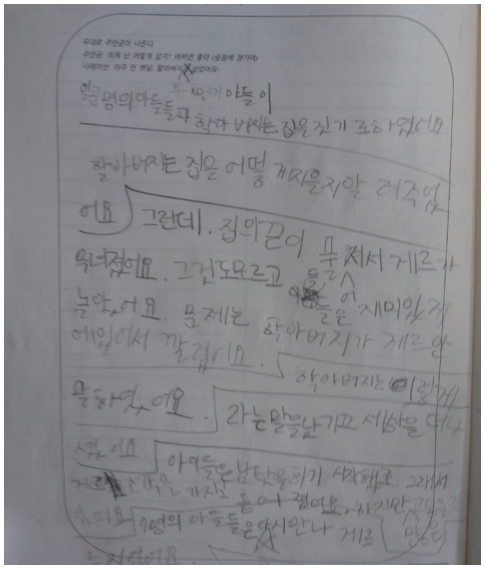
현장 사례 2〉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 모두가 감독이자 연출자이고 성우이자 주인공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초등학생들이 직접 제작하긴 어려워 보이지만, 미디어에 익숙한 아이들은 의외로 예상보다 훨씬 척척 잘 해 나갑니다. 아이들 스스로 많은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지만, 유독 아이들은 스토리보드 작성을 어렵게 느낍니다.

스토리보드는 간략한 그림과 대사로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스케치로서 전체 제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문에서의 개요나 건축에서의 청사진처럼, 스토리보드가 잘 구성되어 있으면 영화 전체가 그에 맞추어 순조롭게 제작될 수 있습니다.

스토리보드 작성에 애초 계획된 시간은 한 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할 만큼 스토리보드가 중요한 작업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오랜 시간 꾸준히 집중력을 유지하기에는 다른 작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루한 것도 사실입니다. 인형 만들기, 촬영, 더빙과는 다르게 몸을 움직여가며 자유롭게 진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내 생애 첫 시사회

현장 사례 3〉

짧지만 무척이나 바쁘게 지나간 뜻 깊은 여름방학을 마감하며, 아이들이 정성껏 제작한 생애 첫 영화가 진주시민미디어센터 내 상영관 "인디씨네"에서 전세계 최초(!)로 개봉합니다. 초대를 받고 객석에 앉은 아이들의 부모님과 친구들 모두 관람하는 동안 어딘지 모르게 엉뚱하게 움직이는 인형을 보며 자연스레 미소를 짓게 되고, 아이들이 직접 녹음해서 뻣뻣하고 어색하기만 한 더빙 때문에 웃음이 터지곤 합니다.
유쾌한 상영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감독님들을 직접 무대로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조촐하게 가졌습니다. 무대에 올라온 아이들을 향해 50여 명의 시선이 쏟아지자, 어안이 벙벙해진 우리 꼬마 감독들은 어색함을 모면해보려고 마치 뜨거운 물건을 쥔 냥 서로에게 마이크를 서둘러 건네기 바빴지만, 그 와중에도 이번 방학이 특별히 재밌었다는 아이들의 쑥스러운 소감이 들립니다.

단체 소개

진주시민미디어센터는 2005년 진주지역 미디어 활동가들이 설립한 "독립영상미디어센터진주"를 모태로 2008년부터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지금의 미디어전문센터로 거듭났습니다.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교육, 영상제작 지원, 독립영화 상영회 등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교육과 관련해서는, 2008년 진주지역 이주여성을 위한 미디어교육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이주여성들의 라디오 방송 동아리 "다.주.라!(다문화, 주파수를 쏴라!"를 지원하며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및 홈페이지

정수진 055-748-7306 / http://www.jjmedia.or.kr

2015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례집

사업 기관별 분류

1. 도서관

다양한 문화가 모이는 어린이도서관 모두 | 327

달팽이미디어도서관 | 331

제천기적의도서관 | 335

2. 전문지원기관

인천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 339

춘천시청소년수련관 | 343

3. 민간단체

다문화협동조합 모두 | 347

행복한 그룹 동행 | 351

사업수행기관별 – 도서관

기관명	**다양한 문화가 모이는 어린이도서관 모두**
프로그램명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타고 떠나는 의미 있는 생각여행
한 줄 요약	영유아를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태그	도서관 / 영유아 / 교안개발 / 다양성교육 / 서울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개요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타고 떠나는 의미 있는 생각여행"은 '어린이도서관 모두' 인근지역에 있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에게 문화다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가치(나눔, 다양성, 타인존중, 생명존중)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안팀을 구성해 연령 및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기간	7월 ~ 11월	7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안제작 8월~11월: 교육 프로그램 진행 11월: 교육 평가
구성	참여 대상	미취학아동(3~7세) 319명, 초등학생(9~12세) 62명
	강사	다문화 강사: 한국 1인, 베트남·몽골 선생님 2인
	진행 방식	1회당 약 35분, 총 29회

활용된 올리볼리 그림동화

바잉 쫑과 바잉 자이는 어떻게 생겼나?(베트남)
주문을 외워봐(르완다)
카부니안은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나(필리핀)
수박왕자(태국), 우리 집의 부처님(태국)
마리아 시누콴의 재판(필리핀)
아홉 개 반의 손가락(티베트)

세부일정

월	주제	내용
7월	교안 및 프로그램 설계	교안작성 프로그램 회의 4회
8월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미취학아동 3,4세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 1회 진행 초등 5학년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 4회 진행 파일럿 프로그램 평가 및 교안작성 3회 홍보: 동대문구 내 144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 21개 초등학교
9월	프로그램 진행 및 교안작성	미취학아동 3~7세 대상 프로그램 4회 진행 교안작성 프로그램 회의 6회
10월	프로그램 진행 및 교안작성	미취학아동 3~7세 대상 프로그램 2회 진행 교안작성 프로그램 회의 5회
11월	프로그램 진행 및 교안작성	미취학아동 3~7세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 1회 진행 초등 5학년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 4회 진행 교안작성 프로그램 회의, 전체 평가 8회

자연, 음식, 일상에서 배우는 문화다양성

화창한 가을날, 새하늘 유치원 아이들이 아침 일찍 도서관에 견학을 왔습니다. 올리볼리관 한쪽에는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7살 된 유치원생들이 오밀조밀 모여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 긴 옷을 입은 선생님이 "신짜오"라고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은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오늘은 어떤 동화를 들려주실까요?

현장스케치1. "베트남은 어떤 나라야?" – 영유아를 위한 나라 이해교육

베트남에서 온 선생님은 5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는지, 지도와 시차를 설명해줍니다. 손놀이와 노래로 베트남 숫자도 배웠습니다. 5번 정도 반복했는데, 아이들은 숫자를 외우고 따라 부릅니다. "여러분~ 베트남과 한국에서 먹는 음식이 있어요. 같은 음식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자, 아이들이 "쌀국수요."라며 말합니다. 선생님은 오늘 "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고 했습니다. 베트남, 한국, 쌀, 가을, 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현장스케치2. 쌀은 어떻게 떡이 되나요? – 동화로 배우는 다양성

선생님은 올리볼리관에 있는 벼가 어떻게 쌀이 되는지 물어봅니다. 한국은 1년에 한 번 쌀농사를 짓지만, 베트남은 1년에 두 세 번 쌀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설명해줍니다. 선생님은 오늘 볼 동화에 대해서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벼농사를 짓는 한국 동화책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쌀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공통점을 배워갑니다. 베트남은 쌀로 만든 음식이 많습니다. 과자, 음식, 쌀국수 등 밀가루 대신 쌀을 많이 먹습니다. 베트남 식문화와 자연환경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아이들은 직접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보기로 합니다. 방금 본 올리볼리 그림동화 〈바이 쯩과 바잉 자이는 어떻게 생겼나?〉(베트남)를 봅니다. 동화에 쌀로 만든 떡이 나옵니다. 베트남 떡에는 쌀, 콩, 고기, 녹두가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먹는 떡과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현장스케치3. 종이로 만든 베트남 떡 –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체험활동

한 명씩 베트남 떡에 들어갈 재료를 받습니다. 색지로 만들어진 재료는 쌀, 콩, 고기, 녹두입니다. 준비된 떡 사진에 색지를 뜯어 붙입니다. 먼저, 바나나 잎 위에 쌀을 올려놓고, 그 위에 순서대로 재료들을 올려놓습니다. 완성된 떡은 맛볼 수 없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떡이 더 예쁘다며 서로 자랑합니다. 직접 요리체

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렇게 모형을 통해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음식을 만들고, 음식에 얽힌 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친구에게 "베트남은 나쁜 나라야, 착한 나라야?" 묻던 아이도 자신이 만든 떡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거라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Q&A

Q. 지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A. 동대문구 지역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많아요. 동대문구는 서울에서도 다문화가정 초등, 중등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고요. 올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구상했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견학 절차가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프로그램 참여뿐만 아니라 교안 개발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을 교류하기도 했답니다. 올리볼리관에 있는 벼도 인근 유치원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벼를 줘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었고요.

Q.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위한 그림동화 활동은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르완다, 태국, 베트남 올리볼리 그림동화 3편으로 연령별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3~5세의 경우, 주로 동물이 등장하는 동화를 활용하고, 6~7세의 경우 체험과 생각거리를 던져 줄 수 있는 동화를 활용하죠. 6~7세 아이들은 '가족', '협동', '문화다양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체험을 하는 동안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나눠요. 5~6세 아이들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4~5학년의 경우, 올리볼리관에서 자유롭게 그림동화를 시청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이 동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증이 생겼고, 초등학생들의 경우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어요.

Tip 따라해보세요

프로그램 샘플 교안

활용동화	카부니안은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나 (필리핀)
주제	다양성
활동목표	콜라주 작업을 통해 다양한 생김새의 사람을 만들며, 다양성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다.
활동내용	〈도입〉 1. 올리볼리 동화 〈카부니안은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나〉(필리핀) 동화를 본다. 2.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다양한 생김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사람 만들기〉 1. 얼굴 만들기: 생각주머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색깔의 점토 중 하나를 고른다. 점토로 보드판에 얼굴을 만든다. 2. 머리카락 만들기: 다양한 색깔, 길고 짧고 구불구불한 모양의 선을 준비해서 머리카락을 만든다. 3. 몸 만들기: 완성된 얼굴에 자신이 원하는 몸을 그려 넣는다. 4. 콜라주 작업이 끝나면, 콜라주 사람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를나눈다. 5. 이름을 붙이고, 나이를 정한다. 6. 내가 만든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

단체소개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이하 모두)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민간사립 도서관입니다. '모두'는 (사)푸른사람들 부설기관으로 다양한 문화를 지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로 만든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며, 돌봄과 나눔이 순환되는 지역공동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모두에는 한국, 베트남, 중국, 일본,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등 13개 나라의 책이 7,000여권 있습니다. 모두를 찾는 아이들과 엄마는 책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및 홈페이지

장지현 02-965-7530 / 홈페이지 www.modoobook.org

사업수행기관별 – 도서관

기관명	**달팽이미디어도서관**
프로그램명	달팽이 다문화 세계여행 “올리볼리 달라도 친구”
한 줄 요약	인권교육으로 배우는 ‘다름’의 가치와 문화다양성
태그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인권교육 인천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개요

달팽이 다문화 세계여행 “올리볼리 달라도 친구”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 평화, 인권 등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눈높이에서 세계 여러 나라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나라별로 각각 이야기 보따리(문화, 전통), 삼시세끼(요리), 놀이, 그림동화 감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몽골에 대해 배우고, 각 나라의 문화 외에 젠더, 인권, 평등의 관점을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진행합니다.

기간	7월 ~ 11월	7월~11월: 교육진행 11월: 교육 평가
구성	참여 대상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14명
	강사	다문화 및 인권교육 강사 1인, 문화 체험 이주민 강사 1인
	진행 방식	1차시 당 120분 총 20차시

활용된 올리볼리 그림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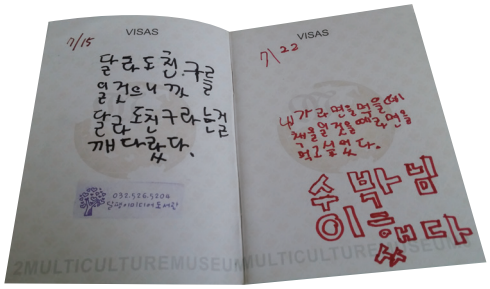
- 남자는 사자, 여자는 토끼(이란)
- 원숭이와 거북이(필리핀)
- 소년과 하늘(필리핀)
- 금두덩이 은두덩이(베트남)
- 게르 이야기(몽골)
- 주문을 외워봐(르완다)
- 나무꾼과 선녀(베트남)
- 연(팔레스타인)

세부일정

월	주제	내용
7월	문화다양성 이해	세계여행 길잡이, 달라도 친구
	우리 안의 ‘편견’ 마주하기	동화 ‘남자는 사자, 여자는 토끼’(이란): 성(性) 편견 마주하기
8월	문화다양성 교육: 필리핀	필리핀 이야기 보따리
		필리핀 삼시세끼: 음식체험
		필리핀 놀이: 티니클링 vs. 고무줄 놀이
		필리핀, 어디까지 아니?: 동화 ‘원숭이와 거북이’
9월	문화다양성 교육: 베트남	8월 교육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
10월	문화다양성 교육: 몽골	8월 교육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
11월	함께 꿈꾸는 세상, ‘소통’과 ‘평화’를 위하여	동화 ‘주문을 외워 봐’: 소통, 배려, 협동 체험
		동화 ‘나무꾼과 선녀’: 존중, 협력 체험
		동화 ‘연’: 전쟁, 평화 상징 표현하기, 표어 만들기
		수료식: 유엔어린이인권선언 – 14개의 권리 가방

세계로 떠나는 여행

여행을 떠나기 전, 아이들은 다문화박물관 여권을 만듭니다. 여권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 넣고, 사진을 붙입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여행할 곳은 필리핀, 베트남, 몽골입니다. 함께 여행 할 나라를 세계지도에서 찾고, 인사를 배웁니다. 세계여행을 떠날 때, 새로 만날 나라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가는 건 필수겠죠? 아이들은 사진과 그림을 통해 여행지를 상징하는 국기와 색깔, 꽃, 음식, 문화, 돈에 대해 배웁니다. 아이들은 한 나라에 몇 주 정도 머물면서 그 나라 사람들도 만나고, 음식도 먹고, 또래 친구들이 하는 놀이도 체험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아이들 여권에는 각 나라의 도장과 여행기가 적혀있습니다.



현장스케치1. 세계 속의 한국 – 필리핀 이야기보따리

이번에 여행을 다녀온 나라는 필리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각자의 여권을 챙기고 자리에 앉습니다. 선생님은 여행 가이드가 됩니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세계지도를 펼치고, 사진을 보며 필리핀 여행을 시작합니다. 필리핀이 어디에 있는지, 한국에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시차는 얼마나 되는지, 기후는 어떤지.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상상을 해서 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사진을 보여주며 필리핀과 한국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아이들은 '여행'을 통해 자신에게 익숙한 한국문화를 여러 나라 중 하나로 인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필리핀과 한국의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을 생각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합니다.

현장스케치2. 우리 엄마, 친척, 이웃 – 주변에서 만나는 문화다양성

폐소(필리핀 화폐) 사진을 본 남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폐소 본 적 있어요.", "어디서?", "집 앞에서 주웠어요." 남자 아이는 옆집에 필리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 앞에 떨어진 폐소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아이는 "선생님 저희 집에는 중국 돈 있어요."라며, 자신의 엄마와 할머니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집에 중국 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보고 겪은 경험을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스케치3. 달라도 친구 – '다름'을 이해하기

'달라도 친구'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이들은 프로그램이 시작 된 7월부터 한 달 동안 '다름에 대한 가치'를 올리볼리 그림동화와 다른 동화, 이야기를 통해 익혀나갔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아이들은 여행지에서 본 것들을 OX퀴즈를 통해 기억하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퀴즈

를 맞춘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줍니다. 모두가 골고루 사탕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사탕을 받지 못한 아이에게 퀴즈를 풀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께 왜 한 사람에게만 질문을 하는지 묻습니다. 그 아이들 생각에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사탕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선생님은 사탕을 2개 받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고루 사탕을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연령, 성별, 나라에 따라 서로 다름을 경험합니다. '다름'에 대한 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실천하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A

Q. 문화비교를 통한 다양성 수업이라는 인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이나, 선생님만의 교육철학이 있으신지요?

A.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다름'에 대한 가치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한 달 동안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주고 싶은 거지,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시간에 〈내가 라면을 먹을 때〉라는 동화를 읽었어요. 그 책의 핵심은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전 세계 또래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하는 거에요.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일본에 있는 아이 10살 누구는 뭘 하고 있고, 학교에 갈 시간에 누구는 전쟁터 무기를 들고 있고. 그런데 그 책에 대한 소감을 쓰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대부분 "라면 먹고 싶다"고 쓴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일부러 아이들에게 동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저학년 아이들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다만, 가치를 끄집어내거나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면 아이들에게는 재미 없는 수업이에요.

Q.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면서, 선생님이나 도서관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A. 처음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 쉽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문화다양성, 같이 가는 거. 그런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문화다양성에는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주민들을 대상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곳이 많아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꿔야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돌이켜 보니까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그들을 동화시키는 내용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부터 인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다문화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Tip 따라해보세요

인식조사를 위한 스티커 설문

질문에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가난할 것이다	
	친구가 없을 것이다.	
	공부를 잘 할 것이다.	
	내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	

질문에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가난할 것이다	
	친구가 없을 것이다.	
	공부를 잘 할 것이다.	
	내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	

단체 소개

달팽이미디어도서관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민간사립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 지역에는 주로 서민층 노동자 가족과 저소득, 수급자 가정 등이 거주하며,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입니다. 달팽이미디어도서관은 차이로 차별하지 않고 소통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만든 문화사랑방으로, 2005년 문을 열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및 홈페이지

최선미 032-526-5204 / 홈페이지 www.snail.or.kr

사업수행기관별 – 도서관

기관명	**제천기적의도서관**
프로그램명	두근두근 주택으로 보는 세계문화여행
한 줄 요약	'나도 건축가', 집을 지으며 배우는 세계문화
태그	도서관 주거문화 집모형만들기 충북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개요

"두근두근 주택으로 보는 세계문화여행"은 집, 기후, 거주에 대한 주제를 통해 인간의 삶과 토대를 이루는 환경으로서 주택을 이해하고 지구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11차시 동안, 온대기후, 건조기후, 냉대기후 등 다양한 기후와 나라, 집의 형태에 대해 배우고 아이들이 직접 주택을 만들어봅니다.

기간	6월 ~ 11월	6월: 강사 및 협력기관 섭외, 참여자 모집 8월~11월: 프로그램 운영 11월: 교육 평가
구성	참여 대상	초등학교 3~6학년 17명
	강사 및 지도	제천지역 대학 교수 및 대학생, 담당강사(한국인), 이주여성
	진행 방식	1차시 당 2시간, 총 11차시

활용된 올리볼리 그림동화

나는 야크입니다(티베트)
귀신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캄보디아)
우리 집의 부처님(태국)
우 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필리핀)
게르 이야기(몽골) 등

올리볼리 외 참고도서
세계의 인사법
세계의 친구들
세계의 문화
구석구석 지구촌여행
우리모두 이웃이야!

세부일정

월	주제	내용
8월	집이란 무엇일까요?	'집'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 세계의 다양한 집 알아보기
	온대기후와 한국의 전통 집	한국의 전통가옥(초가집, 기와집)에 대해 알아보고, 모형 만들기
9월	건조기후와 티피	인디언의 유래, '티피'(집)를 짓게 된 환경, 티피 만들기
	냉대기후와 이글루	이글루가 있는 나라 및 환경에 대한 이해, 이글루 만들기
10월	열대기후와 수상가옥	'수상가옥'이 있는 나라에 대한 이해, 수상가옥 만들기
11월	스텝기후와 게르	'게르'의 의미와 모양에 담긴 의미 나눔, 몽골의 주거문화 이해
	다른 나라의 집이 궁금해	세계 집 모형 만들기, 세계 집 지도 만들기

전 세계 집들이 도서관에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교수님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와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싶은지 매일 상상을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언니, 형 등등. 그 사람들을 위해 방을 몇 개 만들고, 키와 신체구조에 맞춰서 크기를 생각하고, 가족들이 행복해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 그 집은 화목한 집으로 지어질 준비가 된 겁니다.

현장스케치1. 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 수상가옥 만들기

집을 짓는 교수님이 뼈대만 있는 집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아이들은 뼈대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뼈대는 성인 10명이 올라가도 끄떡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지을 집은 수상가옥입니다. 수상가옥은 바닥에도, 벽에도 구멍이 숭숭 뚫려있습니다. 수상가옥은 더운 지역에 지어지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음식들을 물고기가 먹고 산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아직 수상가옥에 지붕과 벽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겠죠? 오늘은 아이들이 직접 뼈대를 부드럽게 만들고 벽을 꾸밉니다. 아이들은 올리볼리 동화에서 보았던 베트남 사람들의 생활을 인쇄해서 보고 그립니다.

현장스케치2. 오늘 새참은 룸피아로! – 집 만들기와 함께 하는 요리체험

한참 집을 만들고 나니 오후가 되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꼬르륵, 새참을 먹을 시간입니다. 오늘 새참은 룸피아(필리핀음식)입니다. 필리핀에서 오신 선생님 두 분이 룸피아 만드는 법을 알려줍니다. 룸피아에 들어가는 재료를 소개하고, 선생님만의 요리법을 알려줍니다. 아만다 선생님은 필리핀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말해줍니다. 필리핀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요리에 고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손을 씻고, 살리에 재료를 넣고 돌돌 말아줍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새참을 먹을 시간입니다.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현장스케치3. 우리가 만든 집에 친구들이 놀러 와요 – 친구들과 만든 전 세계 집모형

아이들이 만든 이글루, 게르, 수상가옥은 도서관 곳곳에 놓여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는 이글루가, 도서관 내부에는 티피가 놓여있습니다.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은 자유롭게 집에 들어가보기도 하고, 그곳에서 놀기도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신기하게 집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만든 집 주변에는 〈우리는 지구촌 친구〉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세계 각 국의 동화책이 놓여있고, 의식주 문화에 대해 소개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집으로 들어가고 엄마들은 여러 나라 동화책을 살펴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만든 집과 문화다양성 교육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새로운 집이 되기도 합니다.

주성이와 준상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두 친구는 이글루를 만들 때 가장 재밌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집에 살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두 친구는 집이 동그란 모양일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두 친구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직접 집을 만들어보고 그 속에서 살아갈 상상을 할 때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Q&A

Q. 작년과 올해, 동화와 체험학습을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셨나요?

A. 어린이들이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책 즉, 동화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동화를 읽고 동화에서 비춰진 그 나라의 문화, 풍습 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작년에는 '올리볼리 세계 문화다양성'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작년 프로그램에서 '세계의 의, 식, 주'에 대해 전반적으로 훑었다면, 올해는 그 부분 중 한 주제를 깊이 있게 진행하고자 했어요.

Q. '집'과 '기후'에 대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준비하시면서 힘드셨던 점이나, 가장 고민이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요.

A. 자연환경, 특히 기후에 따라 세계 주택의 모양, 형태 등은 다르게 발달해요. 다르다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다양성에 대해 이해하는 데 다르다와 나쁘다는 의미의 차이를 우리 어린이들이 알았으면 했어요.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식주를 생각했어요. 물리적인 공간의 '집'은 가족이 생활하는 따뜻한 그들의 문화가 고스란히 물들어 있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강사를 선정하는 게 고민이었어요. 세계 나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이해 등 전문 지식을 가진 강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생님과 같이 기획하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을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였지요.

Q. 이번 프로그램에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했더라고요. 어떻게 지역 교수, 대학생,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었는지 노하우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A. 제천기적의도서관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관협력도서관이에요. 여기에 지역의 대학, 각 전문기관 등의 인프라를 연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프로그램 기획안을 이야기 할 때 모두 호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제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약하여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했어요. 특히 필리핀의 주택 중 하나인 '수상가옥'을 어린이들이 만들어 볼 때에 다문화강사 선생님을 지원해 주셨지요. 지역 내 소재한 대원대학교 건축인테리어과 교수님과 대학생들이 게르, 수상가옥을 지을 때에 어린이들의 멘토가 되어 함께 참여해주셨고요.

Tip 따라해보세요

프로그램 샘플 교안

차시	주제 및 내용		그림책 및 그림동화	
1	-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디 일까? - 집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 기후에 따른 다양한 집(이글루, 나무로 만든 집, 수상가옥)은 무엇이 있을까?			
2	열대기후의 수상 가옥	- 베트남, 필리핀, 홍콩의 전통가옥 , 의복, 식생활 알기 - 수상 시장에 가자~		
3		- 수상가옥 짓기 - 수상가옥에서의 생활		
※ 연중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 기온과 습도에 대비한 생활양식이 발달하였다. 지면보다 높은 곳에 집을 지어 물에 잠기는 것을 방지하였다.				
4	건조기후의 흙집	- 네팔, 모르코의 전통 흙집 - 티베트의 자연현광과 유목민 이야기 - 티베트의고원		
5		할머니, 할아버지와 흙담 쌓기		
※ 나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흙으로 집을 짓는다. 일교차가 크고 건조하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는 벽은 두껍게, 창은 작게 만든다.				
6	스텝기후의 게르 (유르트)	- 몽골의 주거문화 - 학교 가는 길 - 놀이와 생활		
7		미니어쳐 게르 만들기		
※ 유목민의 이동식 천막이다. 나무 막대를 세운 뒤 가죽이나 밝은 색의 수직물로 덮는 가옥으로 '파오'라고도 한다. 몽골과 중앙아시아의 초원 생활에 적합하다.				
8	온대기후의 지중해식 가옥	- 베트남 동화를 통해 바라본 지중해의 주거문화 - 옛날에는 동굴에서 살았대요		
9		-제천 점말동굴 유적지 방문		
※ 여름에는 무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벽은 높고 두껍게, 창은 작게 만들고, 주택과 주택의 간격을 좁게 해 그늘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단체 소개

제천기적의도서관은 모든 어린이들이 어떤 차별과 불평등 없이 마음대로 책을 읽고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3년 설립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함께 아끼고 모든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생의 윤리를 실천하는 사람', 더불어 사는 길의 정의로움을 알고 실행하는 '민주시민', 세계 여러 문화와 다양한 가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및 홈페이지

정은지 043-644-1215 / 홈페이지 www.kidslib.org

사업수행기관별 – 전문지원기관

기관명	**인천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명	다(문화)! 다(름)! 다(양성)! 그림동화로 함께 배워요!
한 줄 요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위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태그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누리과정 인천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개요

"다(문화)! 다(름)! 다(양성)! 그림동화로 함께 배워요!"는 영유아를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보육교사가 다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전문강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영유아들에게 문화다양성을 교육합니다. 각 어린이집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은 보육교사(1단계) ⇨ 전문다문화강사(2단계) ⇨ 교육교사(3단계)로 진행됩니다.

기간	6월 ~ 11월	6월~7월: 교안개발 1,2차 8월: 프로그램 홍보 및 대상 어린이집 선정, 교구 제작 9월: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및 프로그램 시연 9월~11월: 프로그램 시범 적용 및 평가
구성	참여 대상	다문화가정 아동 입소 어린이집 15개소, 만 4, 5세 유아 522명, 보육교사 29명
	강사	태국 선생님 2인, 필리핀 선생님 1인
	진행 방식	태국 15회, 필리핀 15회. 1회 당 약 30분

활용된 올리볼리 그림동화

비를 내리게 하는 파야탠(태국)
원숭이와 거북이(필리핀)

세부일정

월	주제	내용
7월	연구팀 구성	다문화프로그램 개발 관련 교안연구팀 및 자문단 구성
8월	교육기획 회의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
		어린이집 현장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논의
		교안 개발 검토
9월	프로그램 1차 진행	교안 활용방안 안내, 센터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선정어린이집 프로그램 시범 진행
10월	프로그램 2차 진행	전문 강사 파견, 자문단 피드백
11월	평가	평가 및 보고서 발간

"다(문화)! 다(름)! 다(양성)! 그림동화로 함께 배워요."는 영유아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집에는 올리볼리 그림동화 〈비를 내리게 하는 파야탠〉(태국), 〈원숭이와 거북이〉(필리핀) 수업계획안 2편과 활동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현장스케치1. "다(문화)! 다(름)! 다(양성)! 그림동화로 함께 배워요." 프로그램집: 태국편

수업계획안에는 태국에 대한 소개, 인사, 날씨, 의식주, 축제, 전통놀이, 음식, 올리볼리 그림동화에 등장하는 파야탠 이야기가 실려있습니다. 인천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급하는 PPT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풍습에 대해 소개합니다. 활동지에는 영유아 누리과정에 맞춘 8가지의 활동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비를 내리게 하는 파야탠〉 동화를 보고, 미술활동, 자연탐구, 사회관계, 신체활동 등을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소개한 활동지입니다. 각 활동지에는 지역 보육교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필요한 지도 Tip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불꽃놀이 영상 관람, 종이접기, 동물이름 맞추기, 한글 쓰기, 말주머니로 상상하기,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림동화를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구현합니다.

현장스케치2. "다(문화)! 다(름)! 다(양성)! 그림동화로 함께 배워요.": 교육 현장편

영유아 프로그램은 1회당 30분씩 진행하고,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오늘은 태국 다문화 강사 한지혜(루카나)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만 4~5세 아이들이 줄을 지어 교실에 들어와서 앉습니다. 태국 전통의상을 입고 온 한지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소개를 하고, 올리볼리 그림동화 〈비를 내리게 하는 파야탠〉(태국)를 한국어로 낭독해줍니다. 선생님은 태국의 축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태국 동쪽에서는 불꽃놀이를 하는데, 태국 사람들이 비를 바라는 마음이 축제에 담겨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림동화가 끝나면 아이들은 태국의 전통놀이를 체험합니다. 리리카우싸안(동대문을 열어라), 마아 칸 크루어(말타기 놀이), 드언가라(야자수 열매) 등 4~5명의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놀이를 즐깁니다.

현장스케치3. 다문화전문강사 수업 모니터링

다문화전문강사 수업 모니터링은 교육이 끝난 후 각 기관에서 매회 작성합니다. 모니터링 평가지는 총 2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에서는 사전 수업 진행여부, 수업진행 사항 및 반응에 대해 기록합니다. 2단계에서는 다문화강사 관련 내용, 아이들 반응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 밖에 모니터링 담당자 의견과 교육사진이 첨부됩니다. 수업 모니터링은 교육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추후 교육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데 쓰입니다.

Q&A

Q.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교육안을 개발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A.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아요. 올리볼리 그림동화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저희가 강의하러 가면, 올리볼리 콘텐츠를 소개하는데, 영유아에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영유아 쪽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림책이나 교육은 동화를 한 번 읽어주고 끝내는 것보다 그 이후에 독후활동이 중요하거든요. 활동지처럼 교육안이 나오면 현장에서 교사들도 접근하기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Q. 교안을 만드실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나요?

A. 3-5세는 누리과정이라는 별도의 교육과정이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표준으로 삼는 교육과정인데, 그 과정하고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죠.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단독으로, 별도로, 이벤트처럼 진행되는 게 아니라 누리과정영역과 언어영역에 맞춰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Q. 센터에서 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지를 제공하면 현장에서 교사들이 활용하는 형식인데요.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과정과 '센터-어린이집-다문화전문강사'가 유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이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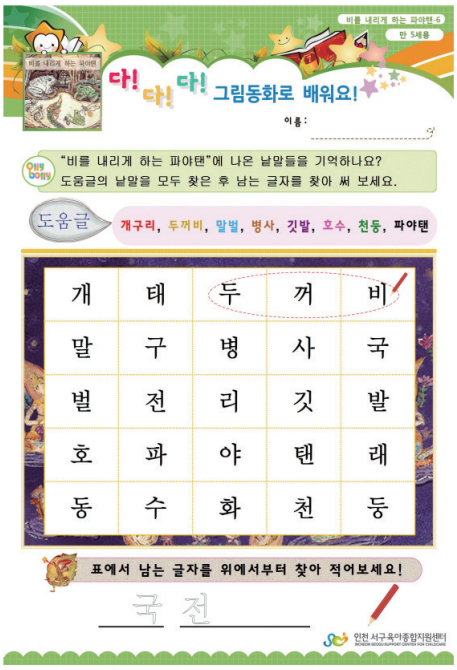
A. 참여기관 선정은 먼저 홍보를 하고 자유롭게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입소해있는 곳을 우선 선정했고요. 강사들의 경우, 인천에서 다문화교육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선생님들 나름대로 교육을 진행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올리볼리 그림동화에 맞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교수방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 부분을 협의해나갔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 교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저희가 기본 교안을 제공해도, 반응하는 학습자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지니까요. 어린이집 원장님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취지 설명과 문화다양성 교안 수업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모니터링 담당자도 파견하고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받고 있어요.

Q.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그동안 문화다양성 교육은 다문화강사 선생님이 한 번 왔다 가면 끝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뒤에서 보조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직접 그 나라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소개시켜주는 방식이거든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다양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활동지로 독후활동을 하는 것도 담임교사들이 하게 되니까, 교육 마무리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하는 셈이죠.

Tip 따라해보세요

〈비를 내리게 하는 파야탠〉 활동지



단체 소개

인천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과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실현을 위한 유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간 연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며, 다문화 인식개선과 교육,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 프로그램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및 홈페이지

오선영 032-568-7234 / 홈페이지 www.isscc.or.kr

사업수행기관별 – 전문지원기관

기관명	**춘천시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명	올리볼리 책(으로 만나고) 맛(으로 잇는) 세계 탐험단
한 줄 요약	동화책과 요리로 떠나는 세계탐험
태그	도서관 놀이체험 요리체험 북아트 강원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개요

"올리볼리 책(으로 만나고) 맛(으로 잇는) 세계 탐험단"은 그림동화 스토리텔링을 통해 여러 나라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북아트와 요리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 등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총 세 가지로, 〈올리볼리 동화책 탐험대〉, 〈맛(으로)있는 요리탐험대〉는 격주로 진행되고, 〈세계문화 체험–지구촌탐험대〉는 지역축제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춘천시청소년수련관이 운영하고 수업은 춘천YMCA 꿈+센터와 앞짱어린이도서관 올리볼리관에서 번갈아 가며 진행됩니다.

기간	7월 ~ 12월	7월: 교육 계획안 작성 및 프로그램 기획, 지역 기관 연계, 강사 섭외 8월~11월: 프로그램 진행 12월: 교육 평가
구성	참여 대상	7~10세 어린이 총 44명
	강사	강사 2인
	진행 방식	1회 당 약 2시간

활용된 올리볼리 그림동화

마지막 설인(몽골)
원숭이와 거북이(필리핀)
바잉 쫑과 바잉 자이는 어떻게 생겼나?(베트남)
영리한 칸칠과 거북이(인도네시아)등 2)

올리볼리 외 참고 도서
오늘은 촌놈 생일이예요(한국)
글자를 만든 창힐(중국)
코끼리 목욕탕(미얀마)
끝없는 이야기(에디오피아)
한글(북한)

세부일정

월	내용	활동
7월	프로그램 기획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자료 수집 등 전체 진행 기획
	강사모집	온/오프라인 모집
	교육기관 컨택	수업 진행할 기관과 일정 조율(총 18회 수업계획)
	1차 수업 참가자 모집	춘천YMCA 꿈+센터, 앞짱도서관에서 모집
8월	1차 수업진행(총 8회)	올리볼리 동화책 스토리텔링, 각 나라의 문화, 놀이, 요리 수업 진행 (대한민국, 몽골, 필리핀, 중국, 미얀마)

9월	축제 부스 운영자 모집	수업대상자 중 퇴계마을축제에 참가할 학생 선발 및 교육
	축제 부스 운영	퇴계마을축제(함지박어울림마당)에서 축제부스 운영
	2차 수업 참가자 모집	춘천YMCA 꿈+센터, 앞짱도서관에서 모집
10월	2차 수업진행(총 10회)	올리볼리 동화책 스토리텔링, 각 나라의 문화, 놀이, 요리 수업 진행 (베트남, 에디오피아, 인도네시아, 일본, 북한)
12월	평가회의	전체 프로그램 평가

현장 이야기

책도 보고, 맛도 보는 책.맛. 세계탐험

책.맛.세계탐험은 스토리텔링과 요리를 통해 아이들과 세계탐험을 떠납니다. 탐험이 끝난 후에는 나라별 탐험기 '미다북(美.多.Book)'을 만들어 기록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책도 보고, 맛도 보는 세계탐험을 떠나볼까요?

현장스케치1. '책'으로 떠나는 세계탐험 – 올리볼리 동화책탐험대

책으로 떠나는 세계탐험은 선생님들이 선정한 동화책을 직접 읽어주고, 각 나라별 언어로 스토리텔링을 해줍니다. 아이들은 동화를 한국어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로 접합니다. 스토리텔링이 끝나면, 책을 읽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아이들의 감상을 듣습니다. 선생님들은 각 나라의 동화에서 눈에 띄는 문화를 찾아보고, 한국문화와 비슷한 점, 차이점을 함께 나눕니다.

책을 읽고, 동화를 보고 난 후에는 후속 활동을 합니다. 주로 각 나라의 동요, 놀이, 춤에 대해 배웁니다. 아이들은 이야기와 놀이를 통해 한 나라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고 접근합니다. 춤을 배우는 시간에는 중국의 팔각건과 한국의 부채춤을 배웠습니다. 노래는 인도네시아에서 즐겨 부르는 동요CICAK(도마뱀)을 배웠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이지만, 아이들이 여러 날 흥얼거렸던 노래입니다. 에티오피아 땅따먹기 '셍뇨막세뇨'도 배웠습니다. 셍뇨막세뇨는 월요일, 화요일이라는 뜻으로 돌만 있으면 땅에 그림을 그려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한국의 땅따먹기 놀이와 비슷하지만, 규칙이 조금 어려워서 오히려 아이들의 승부욕을 자극했던 놀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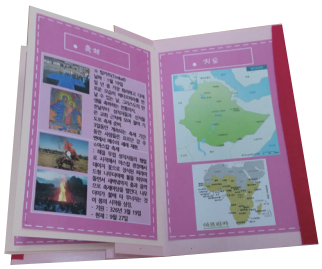
현장스케치2. '맛'으로 떠나는 에티오피아 – 맛있는 요리탐험대

오늘은 에티오피아에서 엘리자벳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춘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오늘 아이들과 만들 요리는 '인젤라', 에티오피아 스튜로, 에티오피아에서 특별한 날 먹는 음식입니다. 엘리자벳 선생님은 아이들과 이렇게 많은 요리를 만들어 본 것은 처음이라며, 마치 에티오피아 명절 같다고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스튜 만드는 법〉
1) 양파, 토마토를 각각 작은 크기로 썰고, 기름에 볶는다.
2) 고기를 볶고 그 위에 로즈마리를 넣어 향을 낸다.
3) 삶은 계란을 조심스럽게 깐다.
3) 양파, 토마토, 고기, 삶은 계란을 한 곳에 넣어 끓인다.
4) 넓고 얇은 인젤라를 스튜와 함께 먹는다.

준혁(12)이와 서현(8)이는 남매입니다. 준혁이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요리 만드는 것이 좋아요.” 라고 합니다. 준혁이는 베트남 세계탐험부터 참여했는데, 모르는 동화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물원에서만 원숭이를 볼 수 있는데, 동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과 그 동물에 관한 일화들이 “우리 문화랑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고 합니다. 서현이는 월남쌈을 만들 때 소스 맛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월남쌈은 맛있었지만, 소스는 강하기도 하고 처음 먹어보는 맛이어서 놀랐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요리가 완성 됐다는 말에 음식 앞으로 달려갔지만, 완성된 요리를 보고는 먹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때 엘리자벳 선생님이 인젤라와 스튜를 손으로 떼어 한 친구에게 권하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후로 아이들은 줄을 서서 서로 먹어보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현장스케치3. 나만의 세계탐험 가이드북 ‘미다북(美.多.Book)’



미다북(Me 다문화 북아트)의 준말입니다. 아이들은 세계탐험을 떠날 때마다 나라별 미다북을 만듭니다. 한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에티오피아, 북한, 일본, 인도네시아, 총 10권의 미다북을 만들었습니다. 미다북은 북아트 기법을 활용하여, 선생님과 함께 준비된 재료로 책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동화와 요리를 통해 세계탐험을 하는 나라에 대해 기록하는 책입니다. 활동 마지막에 만드는 미다북에는 인사, 나라 정도, 전통음식, 전통의상, 문자, 축제, 주거형태 등이 담겨있습니다.

현장스케치4. 세계탐험단, 함지박어울림마당으로~

춘천에는 함지박어울림마당이라는 퇴계마을축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세계탐험단 자격으로 축제에 부스를 만들어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부스에서는 세계전통놀이와 올리볼리 동화책으로 책놀이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에게 필리핀, 한국, 몽골 전통놀이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놀이를 했습니다. 올리볼리 동화책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종이가방에 동화를 그려 나누기도 했습니다.

Q&A

Q. “올리볼리 책(으로 만나고) 맛(으로 잇는) 세계 탐험단”이라는 컨셉으로, 동화와 요리를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에 도입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수업의 내용이 어렵다고 느껴져서, 조금 더 쉬운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걸 생각하다가 요리와 놀이를 하게 됐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춘천 내에서 다문화강사를 섭외하기가 힘들었던 점이었어요. 춘천에서는 세계 여러나라 출신의 선생님들을 만나기 어렵거든요. 각 나라 전통의상이나 전통놀이 도구가 비용이 비쌌다는 점도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였어요. 요리수업은 흥미도가 높아서 출석률도 좋고, 몰입도가 좋았지만 선생님마다 수업 시간이 달라서 때로는 진행시간이 부족하기도 했지요.

Q. 아이들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어떻게 문화다양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지 궁금합니다.

A. 스토리텔링뿐만 아니라 요리, 놀이처럼 복합적인 활동을 통해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환경이나 특징이 한국이랑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면서 다양성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아요.

Tip 따라해보세요

올리볼리 그림동화 스토리텔링

단체소개

춘천시청소년수련관은 춘천YMCA가 위탁운영하는 단체로서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중심으로 문화, 교육, 복지증진을 위한 2009년 개관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자원활동가들의 참여로 문화생산과 직업교육이 결합된 대안적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입니다. 2014년부터 지역다문화프로그램으로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매뉴얼을 발간하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강원도 전지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벼룩시장, 마을노래자랑, 삼계탕 축제 등 지역주민들과 소통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단체입니다.

담당자 연락처 및 홈페이지

박미란 033-244-1288 / 홈페이지 youthzone.chuncheon.go.kr

사업수행기관별 – 민간단체

기관명	**다문화협동조합 모두**
프로그램명	2015 펼쳐라 세계이야기
한 줄 요약	북텐트부터 토론수업까지, 연령별 맞춤 문화다양성 교육
태그	북텐트 올리볼리앱 체험활동 고학년 다양성교육 서울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개요

"2015 펼쳐라, 세계이야기"는 영유아, 초등(저학년, 고학년), 중등 등 연령별로 차별화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북텐트 프로그램(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 올리볼리 그림동화 앱을 통해 어린이들의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증진시킵니다. 2) 문화다양성 교육(초등 고학년 및 중등) –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장애, 젠더, 계급 등 주제별로 분류하여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기간	5월 ~ 11월	5월: 영유아, 초등 저학년을 위한 북텐트 프로그램 보완 6월~7월: 초등 고학년 및 중등학년 교육계획안 개발 및 제작 8월~11월: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통한 인형극, 북텐트, 교육 진행
구성	참여 대상	연령: 영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등학년 대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년, 지역 도서관 등
	진행 방식	교육안 개발회의 10회, 교육계획안 제작 펼쳐라, 세계이야기 6회,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5회

활용된 올리볼리 그림동화

북텐트 프로그램

공주님의 여행(이란)
피리소리(이란)
양탄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이란)
봉이 일곱개인 낙타(몽골)
부모 없는 흰 아기낙타(몽골)
영리한 칸칠과 거북이(인도네시아)
귀신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캄보디아)
마리아 시누콴의 재판(필리핀)
알쏭달쏭 엄마의 말(레바논) 외 5편

문화다양성 교육

카부니안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나(필리핀)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생겨났나(이란)
우형제와 행운을 가지고 온 장어(필리핀)
아홉 개 반의 손가락(티베트)
야크 털은 왜 길까?(티베트) 외 3편

세부일정

월	주제	내용
5월	북텐트 프로그램 보완 및 홍보물 제작	올리볼리 꾸러미, 책갈피 제작
		나라별 프로그램 문화체험 개발, 나라별 인형극 기획 및 준비
6월~7월	초등 고학년 및 중등용 교육계획안 6가지 개발	교육계획안 개발 회의 10회
		인종, 젠더, 장애, 인권 등 주제별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교육계획안 개발
8월~11월	나라1. 필리핀	북텐트, 올리볼리 꾸러미, 전통놀이(티니클링), 인형극 〈원숭이와 거북이〉
	나라2. 몽골	게르 만들기, 전통놀이, 인형극 〈여우와 두루미〉
	나라3. 이란	동화 속 인형 만들기, 인형극 〈모자 이야기〉
	주제1. 인종과 차별	스타킹으로 체험하는 피부색, 동화 '카부니안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나', 인종차별 사례: 동영상, 책 '사라 버스를 타다'
	주제2. 장애	신체 이야기, 동화 '아홉 개 반의 손가락'
	주제3. 젠더와 성차별	히잡, 차도르 체험, 이란 문화(종교, 젠더) 이야기
	주제4. 정성(명절, 식문화)	나라별 명절과 음식문화, 음식에 담겨있는 정성의 가치를 이야기
	주제5. 협동(주거)	게르 만들기
	주제6. 인권, 생명	필리핀 문화 소개하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

현장 이야기

도시 속 동화나라로 떠나는 여행

커다란 빌딩과 건물 사이를 지나 아이들은 동화나라 촌으로 들어옵니다. 동화나라에는 동물모양의 텐트가 쳐있고, 올리볼리 꾸러미 여행 가방이 놓여있습니다. 꾸러미 속에는 세계동화책과 스티커, 동화나라로 들어가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꾸러미를 뒤지고,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동화책과 선물을 고릅니다. 아이들은 텐트 속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속닥속닥, 소근소근. 텐트 속 동화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현장스케치1. 텐트 속에서 어떤 동화가 펼쳐질까요?: 북텐트 프로그램

아이들은 엄마와 할머니 손을 잡고 삼삼오오 지역 도서관에 펼쳐진 동화나라 촌으로 들어옵니다. 저기 멀리서 동화나라로 안내 할 선생님이 아이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텐트 속에서 동화나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텐트 속으로 들어갑니다. 선생님은 텐트에서 동화나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당벌레 텐트에서는 몽골어가, 인디언 텐트에서는 일본어가, 푸른 잎 텐트에서는 한국어가 들리는군요.

현장스케치2. 인사와 놀이로 배우는 세계문화

동화나라에서 만난 사람들은 여러 나라 말로 인사를 합니다. “센빼노”(몽골), “살롬”(이란), “곤니찌와”(일본). 이란에서는 악수를 하거나, 안아주거나, 뽀뽀를 합니다. “살롬~ (쪽쪽)”. 동화나라 촌에서는 5~6가지 다양한 인사말을 배웁니다. 놀이처럼 인사를 배우고 나면 동화나라 선생님들과 여러 방식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영어동요를 배우고, 필리핀 전통놀이 티니클링을 합니다. 폴짝폴짝, 대나무 박자에 맞춰 놀이를 즐깁니다.

현장스케치3. 고학년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수업 젠더와 성차별 편

문화다양성 수업에서는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통해 젠더, 인종, 장애,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은 토론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남자는 사자, 여자는 토끼〉(이란)를 보면서 젠더 차이와 차별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 이란에서 오신 선생님이 이란에서는 기차를 탈 때 여성과 남성이 따로 타야하고, 여성들은 스카프로 항상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외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혜(가명, 초등 6학년)는 자신도 풋살 경기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여자라고 참여하지 못하게 했던 경험을 말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여성들이 “히잡 벗어던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히잡을 아이들이 직접 써보고, 히잡의 의미에 대해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여자라서 안 돼”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경험들에 대해, 그것은 젠더 차이에 따른 차별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Q&A

Q. 모두협동조합의 프로그램에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나요?

A. 올리볼리 그림동화 앱과 인형극을 연계해서 진행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세계그림동화를 주제로 한 인형극은 어린이들에게 일회성 이벤트처럼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앱을 함께 활용하면서, 지속적인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었어요. 가정에 돌아가서도 인형극의 바탕이 된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Q. 올해 새로 초등 고학년, 중등학년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배경이 궁금해요.

A. 저희는 2009년부터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어요. 올리볼리와의 인연도 꽤 오래되었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그 나라의 ‘의식주’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문화전달자’의 역할에 한계를 느꼈어요.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점점 자라는데, 우리는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인종과 국적에서 인권, 장애, 젠더 등의 문제까지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더불어 조합원들인 이주여성들도 이런 측면까지 고려할 만큼 역량이 성장한 것도 큰 동력으로 작용했고요.

Q. 초등 고학년과 중등학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는지 궁금해요.

A. 고학년들과 함께 인종, 젠더, 장애에 대한 문제를 토론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가능하다고 말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45분 동안 이주여성이 직접 진행하는 수업에서 100퍼센트 토론수

업을 하기란 수월하지 않거든요.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매개로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끌어낸다고 할 수 있지요. 대신 이주여성이 직접 자신이 겪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 속에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다가간다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의 경험을 끌어내도록 수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Tip 따라해보세요

프로그램 샘플교안

활용동화	아홉 개 반의 손가락(티베트), 보이지 않는다면
주제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활동목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 생각을 말할 수 있다.
활동내용	〈그림책 읽기〉 1. 그림책 〈보이지 않는다면〉을 읽는다. 2.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일 지 이야기한다. 〈경험하기〉 1. 답답한 느낌 경험해보기: 두 명씩 짝을 지어 한 사람은 안대를 쓰고 한 사람은 쓰지 않는다. 눈을 가리고 자신의 손을 그려본다. 2. 단어 전달하기: 눈을 가리지 않은 학생이 칠판에 쓰인 단어를 읽고 눈을 가린 학생에게 전달한다. 눈을 가린 학생은 들은 말을 써본다. 3. 반대로 하기: 위 과정을 서로 바꿔서 진행한다. 4. 답답한 느낌 표현하기: 눈을 가렸을 때 느낀 감정과 생각을 포스트잇에 적는다. 5. 올리볼리 그림동화 읽기: 〈아홉 개 반의 손가락〉을 티베트어와 한국어로 한 번씩 본다. 6. 소감 나누기: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과 느낌이 어떨지 포스트잇에 적는다. 장애를 가진 사람과 어떤 마음으로 같이 살고 싶은지 적는다. 7. 변화 비교하기: 눈 가리기 체험을 하며 느낀 소감과 동화를 보고 느낀 소감을 서로 비교한다.

단체소개

다문화협동조합 모두는 다양한 나라의 여성들이 스스로 긍정적인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상호문화교육에 기반한 활동으로 가치있는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동대문구 주민들의 문화감수성을 높이는 세계시민교육단체이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증진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희망 공동체입니다.

담당자 연락처 및 홈페이지

볼로르토야·메헤란 02-965-7808 / 홈페이지 www.modoowe.com

사업수행기관별 – 민간단체

기관명	**행복한 그룹 동행**
프로그램명	올리볼리 오디오 그림책
한 줄 요약	나도 올리볼리 그림동화 제작자!
태그	오디오그림책 동화녹음 그림그리기 체험활동 서울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개요

"올리볼리 오디오 그림책"은 2013년, 2014년 올리볼리 가족동화 녹음사업을 시작으로, 참여자들이 직접 동화 속 나라를 상상해서 자신의 목소리로 동화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올리볼리 동화를 대본으로 만들어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가 함께 목소리를 녹음하여 오디오 그림책 제작과정에 참여합니다.

기간	6월 ~ 12월	6월: 프로그램 준비 7월: 동화 선정 및 각색, 그림동화 샘플 제작 8월: 한국인, 외국인 성우의 샘플 제작. 기관 및 축제 섭외 9월~11월: 프로그램 진행 12월: 프로그램 평가 및 종료
구성	참여 대상	전국 각지의 도서관, 학교, 유치원, 지역 축제 등 가족 단위에서부터 어린이 개인까지 전 세대 연령층, 약 300명 이상 참여.
	강사	프로그램 지도 선생님 2~3인
	진행 방식	1회 당 약 40분~1시간

활용된 올리볼리 그림동화

작은 개미(팔레스타인)
신돌은 어디있수꽈?(한국)
원숭이와 거북이(필리핀)
필란독과 금 달걀을 낳는 닭(필리핀)
할아버지와 도깨비(우즈베키스탄)
주문을 외워봐(르완다)
나는 야크입니다(티베트)
벌을 받은 바위, 파 사세요(베트남)
알쏭달쏭 엄마의 말(레바논)

세부일정

월	장소	내용
8월	김해중학교	김해중학교 아이들 20여 명과 함께 올리볼리 가족동화 녹음
	고흥지역아동센터	고흥지역아동센터 아이들 50여명과 함께 올리볼리 가족동화 녹음
	지구별상상	다문화도서관 지구별 상상어르신들과 함께 올리볼리 동화녹음
10월	춘천시 꿈+센터	춘천 꿈+센터 아이들과 올리볼리 가족동화 녹음
	강북책축제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책축제 올리볼리 가족동화 녹음
11월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제주노형꿈틀작은도서관 아이들과 부모님 함께 올리볼리 가족동화 녹음
	돌리네도서관	돌리네도서관 개관식 녹음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부산모라종합사회복지관 아이들과 함께 올리볼리 가족동화 녹음
	대구다문화강사협회	대구다문화강사협회 선생님들과 함께 동화녹음

동화책, 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에서만 보던 그림동화를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만든다면 어떨까요? 친구는 도깨비가 되고, 아빠와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세상.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그림책을 내가 직접 만든다면?! 매일 찾던 어린이집과 도서관, 광장에 올리볼리 그림동화 스튜디오가 생긴다면?! 누구든지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장스케치1. 내가 만드는 올리볼리 그림동화: 성우 편

춘천의 한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센터에 올리볼리 그림동화 스튜디오가 생겼습니다. 스튜디오를 찾은 초등학생들은 책상 위에 놓인 그림동화 대본집을 들고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직접 오디오 그림책을 만들어 볼 거라고 말합니다. 5~6명의 아이들은 스스로 배역을 정하고 연기를 합니다. 감정이입을 하고, 그림동화 주인공에 몰입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목소리를 녹음해볼까요?”라고 말하자, 아이들은 “조금만 더 연습하고요.”라며 대본을 읽습니다.

상우(가명)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직 글을 읽지 못하고, 쑥스러움이 많습니다. 친구와 누나들 틈에 껴서 대본집을 보았지만, 글을 읽지 못해 그림으로 내용을 상상합니다. 상우처럼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옆에서 대사를 읽어주면, 따라서 녹음을 합니다. 그런데 상우는 녹음보다 녹음기계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녹음기계가 신기한 상우에게 총감독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대본을 낭독하기 전에 상우의 큐 사인에 맞춰서 녹음을 준비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긴장을 한 배우들이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내가 직접 만드는 올리볼리 그림동화 “큐”

현장스케치2. 내가 만드는 올리볼리 그림동화: 그림작가 편

녹음을 마친 아이들이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낭독한 동화를 직접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군요. 수진(가명)이는 〈원숭이와 거북이〉(필리핀) 동화를 뽑아서 오디오 녹음을 했습니다. 오디오그림책 만들기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동화를 선정하고, 성우도 되고, 그림작가도 됩니다. 수진이는 “꾀 많은 원숭이가 결국 자기 꾀에 당하는 모습이 통쾌했어요.”라며, 거북이에게 대리만족을 합니다. 아이들은 함께 동화 한 편을 녹음하지만, 개개인이 기억하고 상상하는 동화의 이미지는 모두 다릅니다. 예림(가명)이는 〈할아버지와 도깨비〉(우즈베키스탄)를 녹음했습니다. 예림이가 상상한 할아버지는 뽀글파마를 한 멋쟁이 할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의 목소리, 그림들은 행복한 그룹 동행 선생님들이 모아서 한편의 동화로 구현해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만의 올리볼리 오디오 그림동화책’이 배달됩니다.

현장스케치3. 지역축제에서 "우리 가족 동화 만들기"

서울 강북구에서 도서관 책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동행에서는 "우리 가족 동화 만들기" 부스를 만들어 지역 시민들을 기다립니다. 첫 번째 가족이 왔습니다. 이 가족은 어떤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오디오 그림책으로 만들까요? 〈할아버지와 도깨비〉(우즈베키스탄)를 골랐네요. 아빠는 할아버지 역을, 딸은 도깨비 역을 맡았습니다. 이번 책문화축제에서는 〈작은 개미〉(팔레스타인), 〈원숭이와 거북이〉(필리핀), 〈할아버지와 도깨비〉 세 편의 동화로 녹음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도 친구들끼리 오디오 그림책 만들기에 참여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일 때 구전으로 들었던 동화, 전세계 여러 동화들이 작은 부스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Q&A

Q. 행복한 그룹 동행에서 동화,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해오면서 추구했던 가치는 무엇인가요?

A. 동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해 온 가치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더 큰 재미로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재미있게 녹음하기, 동화 그림작가 되기, 동화 직접 만들어보기, 그리고 콘텐츠로 제작하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누구나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읽고 녹음하고 만들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동화가 아니라 우리의 동화로 공유되었으면 좋겠어요.

Q.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이 사례를 활용할 때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A.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라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이 힘든 점입니다. 기획, 구성, 촬영, 편집, 공유까지 하나 하나 정성을 들여야하니까요. 저희 사업은 11월 30일 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면 더 바빠진답니다. 오디오, 영상 편집, 그림 스캔 및 편집, 동화책 제작 후 발송까지 더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하답니다. 녹음, 촬영, 편집 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요즘은 녹음 앱도 있어서 깨끗하게 녹음도 가능합니다. 혹 기술적인 부분이 어려우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함께 의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Q. 완성된 오디오 그림책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 www.moastory.com이나 다음세대재단 올리볼리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Tip 따라해보세요

오디오 그림책 제작과정

1단계	1. 대본으로 각색한 올리볼리 그림동화 중 한 편을 선정한다. 2.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읽고, 배역을 정한다. 3. 배역에 맞춰 각자 대사를 연습을 한다. 4. 오디오 녹음 부스에서, 그림동화를 녹음한다. 5. 자신이 녹음한 동화를 다시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린다.
2단계	6. 목소리, 그림 작업으로 만들어진 소스를 가지고 오디오 그림책을 만든다. 7. 개인, 기관에 완성된 오디오 그림책을 보낸다.

단체 소개

행복한 그룹 동행은 다양한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좋은 기획과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행복한 그룹 동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2012년부터 전래동화와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해서 오디오 그림동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와 도서관 및 어린이집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동화를 함께 공유하고 이를 공공의 콘텐츠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및 홈페이지

강민기 010-3847-4414 / 이메일 win1771@hanmail.net